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국책연구기관, KINU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3-74-03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2/3년차)

KINU 연구총서 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 이지순 | 이윤진 | 김 란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74-01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통일연구원
23-74-02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통일연구원
23-74-03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23-74-01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	정은미 연구위원 김화순 연구교수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23-74-02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정아 선임연구위원	박민주 연구초빙교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조현정 대표 (이음연구소) 황진태 교수 (동국대학교)
23-74-03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박영자 선임연구위원	이지순 연구위원 이운진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김 란 객원연구위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연구책임자

박영자(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 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KINU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3-74-03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2/3년차)

KINU 연구총서 23-22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저자	박영자, 이지순, 이윤진, 김란
발행인	김천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SBN	979-11-6589-166-4 93340
가격	16,000원

© 통일연구원, 202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차례

요약	9
----	---

Chapter I

서론	15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7
2. 연구 내용과 추진방법 — 23

Chapter II

문학적 재현을 통해 본 가정생활	35
-------------------	----

1. 가정-안: 가족관계와 사적 경험 — 38
2. 가정-밖: 이웃과 가정생활의 사회적 확장 — 66

Chapter III

계층·지역별 가정생활의 다양한 모습	85
---------------------	----

1. 하층, 농촌과 도시 가정의 사례 — 87
2. 중층, 도시와 농촌 가정의 사례 — 123
3. 중상층, 도시 가정의 사례 — 161

Chapter IV

물질환경과 재생산: 소비·양육을 통해 본 가정생활 — 181

- 1. 식생활과 주거 ————— 183
- 2. 가전과 ICT 제품 구비 및 이용 실태 ————— 197
- 3. 재생산: 자녀 양육·교육과 가사를 중심으로 ————— 206
- 4. 지속과 변화의 양상 ————— 215

Chapter V

역할과 관계: 가정 안·밖의 상호작용 ————— 237

- 1. 가정-안: 역할과 상호작용 ————— 240
- 2. 가정-밖: 국가/사회와의 맞물림과 어긋남 ————— 262
- 3.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 ————— 273
- 4. 지속과 변화의 양상 ————— 286

Chapter VI

이행기 중국의 가정생활 변화: 북한에 함의 ————— 297

- 1. 이행기 급변하는 물질문명 ————— 299
- 2. 개혁개방이 중국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로 ————— 326
- 3.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 ————— 349

결 론: 남북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353

1. 남북한 비교의 시사점 ————— 358

2. 정책적 시사점 ————— 365

참고문헌 ————— 370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79

〈표 I -1〉 북한의 가정, 가정생활, 가정혁명화 개념 25

〈표 I -2〉 면접대상자 인적 사항 30

〈표 I -3〉 심층면담 주요 질문 31

〈표 I -4〉 계층·지역별 가정생활 사례의 특징 32

〈표 III -1〉 주민요해사업상 계급적 토대 164

〈표 IV -1〉 북한 주택의 등급 192

〈표 IV -2〉 북한 가정 내 가전제품 및 ICT 구비 현황 198

〈표 VI -1〉 1981년 전국 주민 소비수준 323

〈표 VI -2〉 연도별 베이징시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 비율(%) 328

〈표 VI -3〉 톈진시 가도주민 중 기혼여성 거주형태 329

〈표 VI -4〉 항저우·닝보 세대별 지원유형 331

〈표 VI -5〉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세대별 주관적 견해 332

〈표 VI -6〉 1979~1998년 일부 도시주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 343

〈표 VI -7〉 중부, 서부, 동북 지역 농촌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 343

〈표 VI -8〉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기혼 응답자의 이상적인 자녀 수(%) 344

〈표 VI -9〉 ‘1남 1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기혼 응답자의 실제 자녀 수(%) 345

〈표 VI -10〉 1979~1993년 중국 이혼율 추이 348

Figures 그림 차례

〈그림 VI-1〉 1986년 10월 CCTV 방영 코카콜라 광고	305
〈그림 VI-2〉 1990년 10월 8일, 선전에서 최초 영업을 개시한 맥도날드	307
〈그림 VI-3〉 장칭복을 입고 찍은 사진(왼쪽 인물이 장칭)	311
〈그림 VI-4〉 중국 도시 주택제도의 변동	316
〈그림 VI-5〉 중국 농촌과 도시주민 평균 거주면적 변동 추이(m ²)	320
〈그림 VI-6〉 1980년대 중국 가정의 가전제품 소유 추이	321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인 북한의 가정생활을 탐구하는 것이다. 실태 파악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현 단계 북한 주민의 가정과 삶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북한 주민들의 삶의 관계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현재성을 진단하면서, 셋째,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와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문헌분석과 탈북민 심층면접을 교차 비교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계층, 도시와 농촌, 세대, 젠더 등 집단별 차이와 남북한 비교의 시각을 견지하며 다음의 내용을 밝히었다. 첫째, 국가가 가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가정생활의 모델과 소설 속 서사를 김정은 시대 관련 문헌분석으로 밝혔다. 둘째, 계층 간 격차가 중요한 가정생활을, 탈북민 구술에서 밝혀진 대표적 도시와 농촌의 주요 사례를 선

정하여, 다양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셋째, 가정생활의 주요 내용인 물질적 환경 및 양육과 가사, 그리고 새로운 물질문명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상 가정생활에 작용하는 내부와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김정은 시대 국가가부장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흔들리는 북한 사회의 가부장성과 어머니 중심성이 강한 가족주의의 현재성을 규명했다. 다섯째, 이형기 중국의 사회구조 변동과 가정생활을 분석하며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서 가정이 주는 의미, 둘째, ‘무력한 가부장’과 ‘사회주의 대가정’의 균열, 셋째, ‘생산-소비’의 연계와 새로운 물질문명의 유입, 넷째, 계층·지역·세대·젠더 간 갈등과 격차, 다섯째, 역할 모델의 변화, 여섯째, ‘이악한 어머니’, ‘불편한 아버지’, ‘심장인 딸’, ‘맹장인 아들’의 변주(變奏), 일곱째, 국가가부장 담론과 ‘아버이 수령-어머니 당’의 가정 내 투영 양상, 여덟째, 중국의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의 대북한 함의이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현 단계 북한의 가정생활은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하려는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남북한 주민의 새로운 융합을 위해 ‘관계를 만드는 장소’로서 가정생활을 규명하였다. 유아~청소년기 주로 가정 내외의 역할과 관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밝히며, 현 단계 북한 ‘가부장제’의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북한 주민들은 가정생활로부터 국가의 요구에 대한 의무감과 국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 둘 다를 정체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성의 무력화와 여성의 임파워먼트 증대라는 가부장성의 변화를 보인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어 단기적으로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사업과 탈북민 한국사회 정착정책 및 대북정책 마련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방향과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단기적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 섬세한 대북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의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격차에 기초한 맞춤형 대북정책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시각에서 북한의 가족단위 성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사업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 임파워먼트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대라는 북한의 가부장성 변화 특성을 볼 때, 북한에 4대 수령으로 여성의 등장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이러한 북한의 사회분위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 가정생활의 동질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일방안 마련 시 동질성 확보 정책 마련에 참조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체제이행기 속에서 중국당국의 반(反)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가족구성원 중심의 재(再)가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북한 사회와 주민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비교체제의 함의를 제공한다.

그간 북한 연구가 주로 ‘위로부터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남북한 주민들의 융합’에 기여하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착목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통합과 새로운 융합의 방향성 도출에 기여하려는 시도이다.

주제어: 북한 주민, 가정생활, 정체성, 가부장성, 국가와의 관계



Family life in North Korea: Planning and independence from the state

Park, Young-Ja et 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mily life in North Korea, a space where the identity of North Koreans is formed in the Kim Jong-un era. Based on an analysis of North Korean family life, this study first analyzes how the Kim Jong-un regime attempts to organize North Koreans and families, and how North Koreans cope with the state's initiatives and maintain continuity in their lives. Then, based on the findings, it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patriarchy and strong mother-centered familism in North Korean society, where the role of the father is shifting.

The main content and keyword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the family in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s' identity; second, the rift between the "helpless patriarch" and the "socialist grand family"; third, the "production-consumption" nexus and the influx of new material civilization; fourth, conflicts and

disparities between classes, regions, generations, and genders; fifth, changes in role models, Sixth, variations of the “tough mother,” “inconvenient father,” “heart daughter,” and “appendix son,” seventh, the national patriarchal discourse and its projection into the family, and eighth, the implications of re-familialization in China’s anti-familialism for North Korea. Overall, the analysis shows that family life in North Korea at this stage is simultaneously driven by state planning and a desire for independence from the state.

Keywords: North Korean, Family Life, Identity, Patriarchal Traits, Relationships With Countries

I. 서론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문제의식

가정은 개별 인간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다. 특히 저발전국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가 국민들의 생존과 복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기에,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가정은 더욱 중요하다. 나아가 독재국가에서는 가정생활이 국가기구의 다양한 통제와 감시 속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발전 독재국가인 북한에서의 가정생활은 국가와 사회가 개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행동양식 및 정체성 형성 과정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정신분석용어사전에 따르면, 정체성은 “상당 기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자기에 대한 경험”에 기반한다. “정체감은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아동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으로 시작된다. 즉 정체감의 형성 과정에서 아동은 타인과 다른 자신의 소망, 사고, 기억 그리고 외모를 갖고 있다는 자각을 갖는다.”^{1/} 따라서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생활이 시작되

1/ 네이버 지식백과, “정체성,” 『정신분석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

는 공간인 가정으로부터 정체성은 형성된다.

또한 정체성 형성은 분리와 개별화 과정이 전개되면서 이루어진다. 이는 청소년기 이후 완성된다. 정체성은 사회적 상황 안에서 개인이 갖는 역할의 정의와 함께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체성의 초기 발달은 가정생활 내 심리적 자기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가정 내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의 자기 표상과 도식, 그리고 자기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또한 “정체감은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양성적인 동일시가 용해되고 청소년기가 끝날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게 된다. 의식적인 정체감은 현재의 자기 개념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안정된 정체감은 다양한 부수적 자기 개념들과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가졌던 개인적인 역할들이 통합된 특별한 자기 도식으로부터 유래한다.”²⁾ 이렇듯 지속적이고 안정된 정체감은 가정생활로부터 형성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시작된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인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을 탐구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문제의식은 ‘북한의 가부장성에 대한 현재성 규명’이다. 흔히 북한을 가부장제 사회라 한다. 북한 사회는 남성지배의 봉건 유산과 폭력적인 일제군국주의 유산뿐 아니라, 1945년 이후 남성-수령-3대 세습의 군사주의 통치하에 2023년 현재까지 약 80년의 역사를 구성한 사회이다. 따라서 법제도와 문화에 가부장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또한 북한의 법률 측면에서도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탈북한 3만 명 이상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들 중 다수는 북한의 사회와 가정에서, 장마당을 움직이는 여성의 커진 목소리 및 남성의 부재와 무력함을 증언한다. 배급제 봉

y.naver?docId=655991&cid=48639&categoryId=48639) (검색일: 2023.2.14.).

2) 한편, “나(I or ‘me’)에 대한 의식적인 느낌은 자기 조직의 일부 측면만을 포함한다. 자기 조직의 다른 측면들은 무의식적이다.” 위의 자료.

과 후 2023년 현재까지 북한의 남성들은 북한체제를 지키는 ‘전방의 전사’로 살아갈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받았다. 따라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직장생활이 붕괴되었음에도, 세대주로서 적을 걸어둔 직장에 출근해야만 했다. 한편 여성들은 ‘후방의 전사’로 살아야 했다. 전방을 엄호하며 일상의 먹고사는 문제, 양육과 가사 모두를 장마당의 어머니들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 사회와 여성, 시장화와 경제 관련 수많은 선행연구^{3/}에서 논증되었다.

그럼에도 흔히 이야기되는 ‘가부장제 사회’ 북한의 특성은 무엇인가? 북한에서 사회의 세포라고 정의되는 가정의 생활 실태에 기초할 때 실제 그러한가? 본 연구의 또 다른 문제의식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아버지’는 ①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또는 가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②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신 분》을 다함없는 친근감을 가지고 높여 이르는 말 ③ 혈연적 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 중 가정과 관련한 개념 정의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이다.^{4/}

한편 ‘어머니’의 정의는 ① 자기를 낳은 여자인 웃어른. 직계 혈족이다. 《의붓어머니》를 이르는 말 《아버지의 첩》을 이르던 말. ② 《자식을 가진 녀성》을 두루 이르는 말 ③ 《언제나 따뜻한 친어머니 심정의 사랑으로 대하여 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존재》를 친근히 이르는 말 ④ 《자기보다 지긋하게 나이든 여자》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 ⑤ 《무엇이 배태되어 생겨나는 근본요인》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가장 일차적인 개념은 “자기를 낳은 여자”이다.^{5/}

3/ 관련하여 풍부하고 세부적인 선행연구 분석은 박영자 외, 『북한주민의 생활 세계 (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p. 31~118.

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증보판)), p. 793.

5/ 위의 책, p. 955.

즉, 북한의 사전적 개념에 기초할 때, 북한은 ‘지독한 남성주도 가부장제 사회’라는 우리의 통상적인 인식과 달리,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종속된 존재이다. 한편, 한국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정의한 어머니는 “자녀를 둔 여인을 가리키는 가족호칭”^{6/}이고, 아버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 가운데 남자 어버이를 가리키는 가족호칭”^{7/}이다.

남북한의 사전적 개념을 비교해 볼 때, 북한의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 주도성이 한국보다 더 크다. 또한 한국에서 자녀를 기준으로 한 어머니와 아버지 관계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평적이며,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종속된 관계이다. 그럼에도 ‘세대주로서 아버지의 권위 요구’는 오랜 남성지배의 전통문화뿐 아니라, 북한당국의 사회통제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북한의 배급제 붕괴, 선군정치와 시장화 이후 어머니들이 가정생활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충족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어머니들은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기꺼이, 나아가 그 이상으로 부응하였다.

군수분야를 제외하고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가정생활의 생산기능은 비대해졌다. 그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북한 어머니들이 가정생활에서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편/아버지는 받들고 지원해주어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듯 북한 보통 가정의 아버지 다수는 여전히 권위를 요구받고 있으나, 현실에선 무력하다. 그러다 보니, 술과 폭력뿐 아니라, 병두(북한산 마약)와 외도에 기대는 양상도 증대하였다. 이렇듯 아버지의 역할이 무력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가부장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6/ 네이버 지식백과, “어머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0787&cid=46635&categoryId=46635>> (검색일: 2023.2.10.).

7/ 네이버 지식백과, “아버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9369&cid=46635&categoryId=46635>> (검색일: 2023.2.10.).

나. 연구 목적

이렇듯 북한 주민의 정체성과 북한의 가부장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춘 21세기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탐구이다. 실태 파악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현 단계 북한 주민의 가정과 삶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관계와 삶의 정체성^{8/}이 형성되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과 행동, 그리고 관계의 특성 등을 밝히어, 단기적으로 대북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방향과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총체적인 생활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남북한 주민의 새로운 융합을 위해 “관계를 만드는 장소”^{9/}로서 가정과 유아~청소년기 주로 가정 내의 역할과 관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정체성(‘타인과 다른 나는 누구인가?’)을 중시한다. 가정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엮이는 인간들의 삶과 역할·관계, 그리고 국가와 물질문명, 환경 등 비인간 행위자들이 인간 행위자와 맞물리며 변화하는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탐구하려 한다.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계층, 도시와 농촌, 세대, 젠더 등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다. 집단별 차이는 ‘집단적 정체성’^{10/} 형성

8/ “정체라는 개념은 주체라는 개념으로 환원(還元)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태적(情態的)이라기보다 동태적(動態的)인 개념”이다. 또한 “자아(自我, ego)와 타자(他者, the other) 간의 분류 근거이다. 따라서 항상 비교 대상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區分)지어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체성,” 『문화비평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848&cid=60657&categoryId=60657>> (검색일: 2023.2.23.).

9/ Michel Maffesoli, *L'Instant Eternel* (Paris: La Table Ronde, 2003), p. 225. 재인용: 신지은, “일상의 탈중심적 시공간 구조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44권 2호 (2010), p. 17.

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변화에 함의가 높은 대표적인 체제전환국 사례로 중국의 가정생활 및 남북한 비교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증시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첫째, 국가가 가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가정생활의 모델과 양상을 김정은 시대 관련 소설분석으로 밝힌다. 둘째, 계층 간 격차가 중요한 가정생활을 탈북민 구술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도시와 농촌의 주요 사례를 통해 다양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밝힌다. 셋째, 가정생활의 주요 내용인 물질적 환경 및 양육과 가사, 그리고 새로운 물질문명의 영향 등을 다룬다. 넷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작용하는 내부와 외부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한다. 다섯째, 이행기 중국의 사회구조 변동과 가정생활을 분석하며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간 북한 연구가 주로 ‘위로부터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기여하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착목함으로써 남북한 통합과 새로운 융합의 방향성 도출에 기여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연구과정에서는 연구범주를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에 한정하지 않고 비교가능하고 유의미한 국가와의 국제 비교 및 남북한 비교를 통한 통찰을 증시하며 미래지향적인 교훈을 도출하려 한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남북한 주민들이 어떻게/어떠한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그 답에 근접하기 위해 걸음을 내딛는 시도이다.

10/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라는 어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적 정체성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성별, 인종, 계급, 성적 취향을 근거로 억압을 당해온 집단의 일원이 가지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감각은 현대 비평과 문화연구에서 주요 조사 영역을 이룬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체성,”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848&cid=60657&categoryId=60657>> (검색일: 2023.2.23.).

2. 연구 내용과 추진방법

가. 연구 영역과 본 연구의 차별성

2021년 기획된 이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상된 협동연구로 총 3개년간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1차 연도(2022)는 선행연구 메타분석, 북한에 합의가 있는 국제적 국가연구(체제전환기 주요 국가), 생활세계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 및 새로운 복합연구 탐구, 대북한 적용의 합의 발굴이다. 2차 연도(2023)는 북한의 학교, 가정, 직장의 생활세계 연구이다. 생활세계는 공간을 넘나들며 작동하기 때문에 각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 내부에도 다양한 구조와 경험이 작동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계층, 세대, 도시와 농촌, 젠더 등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구사회주의 국가의 사례 및 북한과의 비교 시각을 결합한다. 3차 연도(2024)는 북한의 시장과 군대의 생활세계 연구이다. 이 또한 계층, 세대, 도시와 농촌, 성 등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에 합의가 있는 주요 구사회주의 국가의 사례 및 북한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3개년에 걸친 연구 목적에 따라 1차 연도(2022)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 생활을 키워드로 하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활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모색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 모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다. 본 연구를 포함한 2차 연도(2023)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에 대해 북한 주민의 1차적인 삶의 공간 중 가정, 학교, 직장을 중심으로 한 학제 간 협동연구를 수행한다. 가정, 학교, 직장이라는 삶의 공간이 매우 광범위

하고 다소 다른 특징과 독립성을 지니기에 2차 연도 연구에서는 각 공간을 중심으로 3개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중 본 연구는 가정의 생활세계를 다룬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영역은 남북한의 가정과 가정생활의 개념 간 차이로부터 설계한다. 먼저 한국의 가정과 가정생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가정(家庭)은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공동체”이다. 가정생활은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부 구조 및 물질적 환경(의 식주 또는 그의 관리 등)과의 관계/영향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 습관, 태도 등을 창조하는 모든 활동이다.^{11/}

가족은 인간관계의 결합이지만, “가정은 인간관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 등의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능도 더해져야 한다.”^{12/} 즉, 가정이란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장이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물자의 조달과 소비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기능도 수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형성이나 인간성의 회복도 가정이 지닌 중요한 기능이고 가정환경이 크게 영향을 준다.”^{13/}

이렇듯 가정생활은 먹고사는 데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뿐 아니라 개별 인간들의 관계와 정체성 형성의 장(場)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가정생활은 공동체의 출발이자, 개별 인간과 인간생활의 총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출발지점이다. 한편, 북한의 가정과 가정생활 개념을 살펴보면, 한국에 비해 커다란 공적 역할과 기능

11/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4688&cid=46673&categoryId=46673>> (검색일: 2023.2.10.).

12/ 위의 자료.

13/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생활,” 『간호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85721&cid=60408&categoryId=55558>> (검색일: 2023.2.10.).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 밝힌 가정, 가정생활, 가정혁명의 개념은 다음 <표 I-1>과 같다.

표 I-1 북한의 가정, 가정생활, 가정혁명화 개념

가정(家庭)	<p>[명] 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입니다.》 김일성전집 제28권 132페이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사회의 한 세포로서의 기층 생활 단위/ 혁명적인 가정, 화목한 가정, 가정을 꾸리다. 등등.</p> <p>②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단합되어 생활하는 사회적 집단》을 비겨 이르는 말. 온 제강소, 온 거리가 그에게는 하나의 따뜻한 가정이었다. 장편소설 《백양나무》 ③ 《가족이 사는 집》을 직장, 학교 등과 상대하여 이르는 말. 가정에 파묻힌 여자, 가정을 방문하다.</p>
가정생활	<p>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기층생활단위입니다. 가정생활이 건전하고 행복하여야 사회생활전반이 명랑하고 활기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2권 89페이지.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에서의 생활》을 사회생활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사회생활의 연장으로서 사회생활의 구성부분을 이룬다. 가정생활이 건전하면 사회생활도 건전해진다. ②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생활.</p>
가정혁명화	<p>온 가족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철저히 뿌리빼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혁명가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 / 간부들은 가정혁명화에 깊은 관심으로 돌려 안해, 아들딸들과 동생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p>

주: 밑줄과 강조는 저자가 표시함(이하 동일).

출처: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p. 71~72.

<표 I-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에서 가정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사회의 한 세포로서의 기층 생활단위”이

다. 즉, 혈연성, 사회성, 일상의 생활이란 하부 개념으로 구성된다. 가정생활은 개별 사람들이 혈연에 기초해 국가·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의식주 등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다.

이 두 개념만 보면 국제사회와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통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수령독재 국가인 북한의 가정 개념은 국가의 기획이 강하게 배태되어 있다. 즉,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혁명가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 가정생활 곳곳에 강제된다. 따라서 인민반장, 보안원, 보위부원 등 가정 밖의 국가·행정 관련 행위자들이 북한의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 내부의 행위자뿐 아니라 가정 외부의 행위자 역시 주요 연구 영역으로 설정한다.

북한 주민의 가정이라는 삶의 세계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본 연구는 크게 5가지 방향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견지하며 진행한다.

첫째, 그간 북한의 가정과 가족 연구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의식주 중심 생활실태와 사적 영역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북한당국의 반인권적 통제와 감시 등에 집중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는 주로 ‘여성의 경험’ 및 ‘북한당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14/}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가정이라는 공간을 주목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주요 행위자(국가/수령/당, 이웃/사회,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등등)를 중심으로 이들의 역할과 관계를 중시한다.

둘째,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 세계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가정의 안과 밖’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역할·영향과 함께 관계와 상호작용 등을 주목한다. 특히 북한체제와 가정에서 드러나

14/ 관련하여 광범위한 선행연구 분석은 1차 연도 연구성과인 박영자 외, 『북한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pp. 37~90. 참조.

는 가부장제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북한당국의 ‘아버이 수령’, ‘어머니 당’,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가정과 가정구성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인식되는지 그 실태와 작용 수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북한 가정생활에 다양한 구조와 경험이 작동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계층, 세대, 도시와 농촌, 젠더 등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다. 소설 분석 및 연구자와 탈북민의 구술 면담 과정에서 획득된 녹취록을 분석하며, 연구진의 그간 연구성과 및 선행연구의 성과와 결합하여 대표적 가정 사례들을 선정하고 그 특징에 따른 생활실태를 드러낸다.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 가정생활의 총체성을 형상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 기술·문화의 발전 등이 초래한 생활용품 등 물질환경의 변화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을 중시한다. 술, 노트북, 휴대전화, 전기, 물, 땀감 등 최근 북한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물질들을 주목하며 그 작용 실태와 영향을 살펴본다.

다섯째, 이 연구가 ‘남북한 주민의 교류 및 새로운 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한 비교연구의 시각을 견지하며, 북한 주민의 생활변화에 함의가 높은 주요 국가(중국)와 비교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장은 문학적 재현으로 본 가정생활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조선문학』과 『청년문학』에 수록된 단편소설과 단행본으로 출간된 장편소설 중에서 가정생활을 드러내는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김정은 시대 가정생활을 분석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국가의 요구/선전을 근간으로 한 북한의 소설은 북한당국이 원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다양한 현실 갈등과 미묘한 변화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정-안의 가족관계와 가족문화는 고정화된 성역할 변화와 세대 갈등이 중요하다. 가정-

밖의 경우 가정생활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이웃과의 관계로 계층과 지역문제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1. 가정-안은 가족관계와 사적 경험을 다룬다. 2. 가정-밖은 이웃과 가정생활의 사회적 확장을 분석한다.

III장은 계층-지역별 가정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이다. 본 연구는 1년 이내라는 제한적인 시간과 자원하에 다양한 개별 연구자들이 협동하여 진행하나, 각 장의 주 집필자는 개별 연구자들이다. 따라서 개별 연구자들의 장별 기획에 따라 본 연구가 중시하는 ‘가정생활의 총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개별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부분적으로 절단되어 묘사되는 가정생활은 자칫 모자이크 조각만을 보여주는 결과를 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 격차가 중요한 가정생활을 탈북민 구술에서 밝혀진 대표적인 도시와 농촌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밝힌다. 주요 내용은 1. 하층, 농촌과 도시 가정의 사례, 2. 중층, 도시와 농촌 가정의 사례, 3. 중상층, 도시 가정의 사례이다.

IV장은 물질환경과 재생산을 키워드로 소비와 양육을 중시하며 북한의 가정생활을 살펴본다. 북한의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먹고 사는 물질적 환경의 변화와 그 영향, 그리고 가정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양육과 가사 실태-특징 등을 밝힌다. 주요 연구내용은 1. 식생활과 주거, 2. 가전 및 ICT 제품 구비 및 이용 실태, 3. 재생산: 자녀 양육교육과 가사를 중심으로, 4. 지속과 변화의 양상으로 구성된다.

V장은 역할과 관계를 키워드로 가정 안과 밖의 상호작용을 규명한다. 북한 가정-안의 주요 행위자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등의 역할과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북한 가정-밖, 국가/사회(이웃)의

주요 행위자인 인민반장, 보안원, 보위원 등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또한 북한정권의 가족, 가정 관련 담론들이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고, 가정에서 구성원의 역할과는 어떠한 차이점과 동질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역사에서 가정생활의 지속과 변화 지점은 무엇인지? 가정생활을 구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에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 변화의 동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1. 가정-안: 역할과 상호작용, 2. 가정-밖: 국가/사회와의 맞물림과 어긋남, 3.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 4. 지속과 변화의 양상이다.

VI장은 이행기 중국의 가정생활 변화로부터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중국의 교훈을 중시한다. 북한의 변화에 함의가 있는 1970~90년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행기 중국의 사회구조 변동과 가정생활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1. 이행기 급변하는 물질문명, 2. 개혁개방이 중국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로, 3.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이다. VII장은 결론으로 본문에서 다룬 북한의 가정생활 실태에 기초해 남북한 비교의 함의를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연구 추진방법

이 연구는 하나의 이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1차 연도(2022) 연구의 성과인 현상학, 신유물론, 생활문화의 역사, 주민생활과 연계된 다양한 구조 등을 주목한다. 즉, 새로운 연구흐름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접근을 중시한 학제 간 협동연구이다. 관련 선행연구 및 국제 기구에 보고된 자료에 대한 문헌분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요 기술적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탈북민 심층면접을 통한 녹취록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 계층지역별 가정생활의 다양한 모습들과 본 연구의 연구 영역들을 소재로,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살았던 탈북민들의 구술 내러티브(narrative)를 녹취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행한 면접대상자인 탈북민들의 주요 인적 사항은 <표 1-2>와 같다.

표 1-2 면접대상자 인적 사항

사례	성	연령	탈북연도	거주지	직업	면접일
1	여	40대	2019	평양시	사업소 직원, 한의사	2023-04-11
2	여	50대	2019	함경북도 청진시	노동자, 장사	2023-04-13
3	여	50대	2018	양강도 해산시	설계사, 장사	2023-04-14
4	여	50대	2018	라선시	농장원, 식당	2023-04-18
5	남	20대	2021	평안남도 평성시	군인	2023-04-18
6	여	30대	2019	평안북도 신의주시	의사, 무역	2023-04-21
7	여	40대	2018	양강도 해산시	회계원, 주부	2023-04-22
8	여	30대	2018	양강도 해산시	간호사, 노동자	2023-04-23
9	여	40대	2018	평안남도, 함경북도 ○○군	노동자, 장사	2023-04-24
10	여	40대	2019	남포시	회계원	2023-04-30
11	남	30대	2017	평양시, 자강도	외화벌이	2023-07-05
12	남	20대	2019	평양시, 해산시	군인, 중장비기사	2023-07-08
13	여	60대	2019	황해북도 사리원시	농장원	2023-07-11
14	남	40대	2019	남포시	법일꾼	2023-07-14

가정의 안과 밖의 다양한 행위자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를 통해 가정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실태,

행위자들의 역할, 행위자들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한다. 구술 내러티브를 취득하기 위해 본 연구진이 심층면접 대상자들에게 질문한 주요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심층면담 주요 질문

-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어린 시절에 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부모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북한 거주 시 가정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본인이 생각하는 북한에서 가정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해주세요.
- ‘가정’은 어떤 곳이고, ‘가정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북한 거주 시 가정에서 식생활이 어떠했으며, 먹는 문제를 주로 누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상·중·하 계층, 지역별/도시-농촌 간, 세대별 차이가 어떠했는지요?(계층, 세대, 지역, 성별 차이 포함)
- 북한 거주 시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세요.(계층, 세대, 지역, 성별 차이 포함)
- 북한 거주 시 가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세요.(계층, 세대, 지역, 성별 차이 포함)
- 김정은 집권 후 탈북하시기 전까지 가정생활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말씀해주세요.
- 김정은 집권 후 과학기술 발전, 각종 건설동원사업 증대 등 정책 관련 변화가 있었는데,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이나 지시 등은 무엇이었는지요?
- 핸드폰, 컴퓨터, 태양열판, 녹화기 등 주민들의 가정생활 변화에 영향을 미친 물질들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요?(계층, 세대, 지역, 성별 차이 포함)
- 북한 거주 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그 외 동거 가족들(조부모 및 주택문제 등으로 인한 복합가정 등 고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요?
- 북한 거주 시 북한정권이 교육하는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어버이-수령’, ‘어머니-당’은 어떻게/무슨 의미로 생각하셨는지요?
- ‘어버이-수령, 어머니-당’이라는 북한정권의 담론과, 실제 가정생활에서 아버지, 어머니 역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요?
- 북한 거주 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친, 가정 밖 주요 행위자는 누구였으며, 주요 기관/조직(인민반, 학교, 시장, 군대, 직장, 보위부, 안전성 등),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요?
- 김정은 집권 전후 지난 10년간 북한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그 실태는 어떠했는지요?

-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각각을 가정생활을 통해 볼 때, 지속적인 특징과 변화를 보인 점들이 있었는지요? 변화를 보였다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남한에서 생활하시면서, 북한의 가정생활과 남한의 가정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계층, 세대, 지역, 성별 차이 포함)
- 남한에 와서 결혼이나 가정생활을 생각하면, 북한과 어떤 점이 가장 달랐는지 말씀해주세요.
-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Ⅲ장에서 계층·지역별 가정생활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목한 사례별 가정의 특징은 <표 I-4>와 같다.

표 I-4 계층·지역별 가정생활 사례의 특징

구분(계층지역)	가정과 구술자 특징
사례 1 (도시 중층)	수도 평양에서 감시받는 생활을 한 40대 중층 가정
사례 2 (도시 하층)	무력한 폭력 남편을 견디지 못한 50대 도시 하층생활의 이혼 가정
사례 5 (농촌 하층)	지독한 가난 속 애뜻하게 살았던 20대 농촌 극빈층 가정
사례 7 (도시 중상층)	유복하고 화목했으나 자식의 미래를 위해 탈북한 40대 상층 가정
사례 8 (도시 중상층)	경제적 부를 이루었으나 ‘성분의 벽’에 갇혔던 30대 상층 가정
사례 9 (도시 중층)	경제권은 평등하나 육아·가사는 오롯이 아내 몫이었던 40대 맞벌이 중층 가정
사례 10 (도시 중상층)	권력과 재력이 있는 두 집안이 만나 상층생활을 한, 지역유지 2세인 40대 가정
사례 13 (농촌 중층)	28년 인민반장을 하며 농촌의 중층으로 살았던 60대 가정
사례 14 (도시 중상층)	결혼으로 권력과 부를 확대 재생산한 상층 40대 가정

둘째, 북한 공간문헌 분석과 가정생활 관련 북한 소설의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이다. 『조선녀성』,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간행 문헌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2장에서 북한 소설 속 언어로 드러난 가정의 생활 실태와 집단별 차이, 갈등 등을 문화비평 방법론으로 분석한다.

셋째, 남북한과 구 사회주의 국가 비교 분석이다. 주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남북한과의 비교 시각을 견지하며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와 더불어 이행기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정생활을 분석해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중국의 교훈과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넷째, 공동연구진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이다.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연구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공유한다. 관련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워크숍으로 북한 가정생활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검토하며, 연구의 통일성을 기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추진방법에 기초한 학제 간 협동연구로 공동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전체 연구를 진행하나, 장별로는 각 분야의 세부 전문가가 집필한 후 연구책임자가 전체적 맥락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며 수정·보완한다. I. 서론, V. 역할과 관계, VII. 결론: 남북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은 연구책임자인 박영자가 책임 집필한다. II. 문학적 재현을 통해 본 가정생활은 북한문학 전문가인 이지순이 책임 집필한다. III. 계층·지역별 가정생활의 다양한 모습은 연구책임자인 박영자와 북한 양육 전문가인 이운진이 공동 집필한다. IV. 물질환경과 재생산은 북한 양육 전문가인 이운진이 책임 집필한다. VI. 이행기 중국의 가정생활 변화는 중국 전문가인 김란이 책임 집필한다. 각 장이 완성된 후 연구책임자가 전체적 내용을 조율하며 수정·보완한다.

Ⅱ. 문학적 재현을 통해 본 가정생활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문학적 재현을 통해 본 가정생활

이 장에서는 최근 가정생활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제7차 당대회(2016) 이후에 조선작가동맹 기관지 『조선문학』과 『청년문학』 등에 발표된 북한 소설을 선별하여 가정생활의 일면을 분석한다. 북한 소설은 국가와 당의 정책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당 문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사회의 현재성을 반영하는 실재성 또한 함의하고 있다. 서사의 행위자와 그들의 시점, 사건의 맥락은 가정생활을 구체화하고 젠더와 세대의 문제, 계층과 지역의 기호화된 목소리를 전달한다. 소설 속 언어는 텍스트 외적으로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지시하는 약호로 포괄될 것이다. 이때 『조선녀성』과 노동신문 등의 문헌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이자 일상의 경험과 텍스트 생산에 영향을 주는 텍스트 외연으로 참조될 것이다.

한 가지 전제할 것은 각각의 소설에서 가정생활이 배경으로 존재하거나 소략되는 양상을 띠는 점이다. 대개 일상생활을 다루는 소설일 경우에도 가정생활보다 사회주의 건설 주제를 종자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 창작된 다수의 소설 각각을 한 편씩 세부적으로 다루기보다 가정생활의 장면을 징후적으로 반영한 부분을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로 독해한다. 이를 통해 젠더와 세대, 지역과 계층 문제가 가정생활에 어떻게 용해되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가정-안은 가족관계와 사적 경험이 구축되는 공

간으로,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정형화된 성역할과 관련된 젠더와 세대 간의 문제, 재생산 갈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가정-밖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역 격차와 외부 행위자의 관계로 살펴볼 예정이다.

1. 가정-안: 가족관계와 사적 경험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삶을 공유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단위로 생활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로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고 가족 구성원의 안식처로 기능하는 장소이다. 또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사적으로 경험될지라도 사회적 규범과 기대의 영향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가정 안의 갈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욕구가 충돌하거나 구성원 역할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지만, 개인의 인식과 태도가 사회의 규범 체계와 행위기대와 불일치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가정 안의 갈등은 구성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위체계인 사회와도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역할 위계와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정 안의 가족관계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정 내 성역할 변화

(1) 고난의 행군 이후 젠더 수행 변화

북한의 법과 제도는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지만, 가정에서는 정형화된 성역할이 오랫동안 강고하게 유지되었다. 북한의 가부장제 질서는 여성이 가정을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과

돌봄이라는 사적 영역을 담당하고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적인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암묵적 합의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여성의 장마당 활동은 가부장제의 조건을 변화시켰다. 가정생활에서 부부의 성역할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젠더 수행의 믿음을 반영하는데, 남성의 역할을 여성이 대신하게 되면서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여성의 시장 활동은 가족관계와 가정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여성은 정형화된 성역할에 구속되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노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에 시달렸다. 여성은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던 남성과 부부간의 불화를 겪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한편에는 생활환경과 조건에 적응하며 가치관과 의식이 변화했다면, 다른 한편에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성역할을 옹호하며 변화를 거부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여성성과 남성성, 아내와 남편의 역할 분담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젠더가 사회적·문화적 구성물이듯이, 남성다움을 압축하는 남성성(masculinity)에도 단순하고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 남성성은 여성성(femininity)을 전제하고, 여성성은 남성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는 모두 불안정하며 맥락과 관점에 의존한다.^{15/} 고난의 행군과 여성의 시장활동은 주로 여성의 가치관과 의식 변화를 견인했지만, 남성들 또한 시대의 흐름과 젠더 관계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적응하며 행동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15/ Mats Alvesson and Yvonne Due Billing, *Understanding Gender and Organiza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9), pp. 43~44.

가정생활에서 발견되는 젠더 수행의 변화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대적 요인과 성역할에 대한 가치와 신념의 변화, 이에 대한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 변화의 단초는 국제부녀절 의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이 종식된 이후 국제부녀절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침밥을 해주고 꽃을 선물하는 풍습이 생겨났다.^{16/} 여성의 명절을 기념하며 남편이 차리는 ‘아침밥’은 식사 준비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성이 시장활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은 가장의 역할에서 주변화되었다. 남녀가 하는 일을 가려서 하는 남자들을 “남편이 아니라 ‘불편’”^{17/}이라 한다는 탈북민의 언급은 가장의 권위가 이전처럼 견고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생계 부담과 별개로 여자다움과 남자다움,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구분하는 인식은 일상의 하부에서 변화와 대치하거나 적응하며 조정되었고, 신문·방송의 공적 언어와 문학은 느리게 현실을 반영했다.^{18/}

한편, 사회적으로 가정의 성별 분업을 재고하는 움직임은 자녀교육

16/ 『조선문학』 2003년 3호에 수록된 리진목의 시 “안해와 부엌,” 2005년 3호에 수록된 럽형미의 시 “3월 8일”은 국제부녀절 아침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침밥을 차린다는 내용을 소개로 했다. 남편의 아침밥 차리기는 국제부녀절이라는 여성의 명절에 행해지는 일종의 이벤트성 행사였다.

17/ “2000년대 이후 북한에도 ‘가사 도우미’ 등장,” 『자유아시아방송』, 2009.2.2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ouse_job-02242009142538.html> (검색일: 2023.8.26.).

18/ 예컨대 TV 드라마 〈수업은 계속된다〉처럼 아내 대신에 아이를 보살피고 집안일을 하는 남편의 등장은 과격적이긴 했으나 대중예술에서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남성을 일반화한 것은 아니었다. 드라마에서 남편은 외과의사로서 사회적 지위와 가정 내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가 혁명의 후비대를 양성하기 위해 집을 떠나 있게 되면서 이루어진 남편의 한시적인 역할 분담에 불과했다. 북한의 TV 드라마가 지배적 가치를 외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이긴 해도 가사를 분담하는 남성의 등장은 가정 내 성별 분업의 변화 징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김봉오 감독, 〈수업은 계속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텔레비전극장작단, 2006.

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남자아이는 남자다운 일을 해야지 가정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가정일을 시키면 학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키지 못하겠다는 등의 그릇된 인식”^{19/} 이 있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가사분담이 가정 윤리와 인간의 성장 과정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논지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나타난 남성의 가사 참여는 국제부녀절 아침에 아내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하는 등^{20/}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불과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일상적인 풍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터와 가정을 오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이 반영된 실화문학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가정 내 성역할의 변화를 보여주어 주목해볼 수 있다.

실화문학은 “현실에 실재하는 인물들의 생활과 투쟁을 사실에 기초하여 그대로 진실하게 묘사하는 서사문학의 한 형태”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인민들에 제때에 알려주며 사회적으로 널리 소개·선전할 목적으로 창작”되기에 시의성과 기동성을 특징으로 한다.^{21/} 실화문학은 소설의 형식을 가져오되 허구를 상대적으로 적게 취함으로써 사실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장르이다.

여명의 사업이 학력과 경력에 맞게 여성을 일터에 보내는 데에서 끝난다면,^{22/} 김홍균의 실화문학 “행복한 사람들”(2017)은 가정과 일터를 오가는 여성들이 겪는 갈등을 팝진하게 묘사한 텍스트이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 정형화된 성역할이 유지되는 동시에 변화하는 현

19/ 본사기자, “자녀들에게 가정일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조선여성』, 제3호 (2018), p. 54.

20/ “기쁨넘치는 아침,” 『로동신문』, 2020.3.8.

2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편, “실화문학,” 『문학예술사전 (중)』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 351.

22/ 본사기자, “이들처럼 더 많은 여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자-평양시 대성구역녀맹위원회 사업에서,” 『조선여성』, 제12호 (2017), p. 52.

실에 맞게 조정되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

(2)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가사분담

“행복한 사람들”은 약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온성군 의약품관리소 소장으로 허문숙이 임명되어 오면서 여성 직원들과 약초밭을 개간하는 이야기이다. 남자 소장도 어찌지 못했던 풀밭을 여자 종업원들을 모아 약초밭으로 개간하는 작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특히 기혼여성들은 약초밭 개간이 시작되며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때가 많아지자 집에서 온갖 불평을 듣게 된다. 식사 준비와 세탁과 같은 가사에 대한 남편들의 불만이 주었다.

엿저녁에 들어가니 애아버지가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밥을 짓기에 옷이나 갈아입고 할것이지 하고 속상해서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지. 치마가 있으면 내 당장 갈아입겠는데...> 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 심술을 쓰는게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에 잘못 왔나봐요.

(...)

그건 행복한 투정이야. 사정은 다 같애. 나도 세대주가 밥이 타는줄도 모르고 자는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한마디 했다가 되몰리워 눈물까지 흘렸는데 뭐. 남편이나 자식두 거두지 못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고 하지 않겠어.

— 김홍균, “행복한 사람들,” 『조선문학』, 제2호 (2017), p. 34.

비교적 젊은 화숙의 남편은 늦게 귀가하는 아내 대신 밥을 지으면 서도 세탁은 아내 일이라고 선을 긋는다. 가사는 여성의 일이라는 통념 속에서도 식사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가정에서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틈새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화숙보다 나이가 많은 영희는 남편의 비난에 눈물을 쏟는다. 영희는 밥을 올려놓고 자버린 남편에게 한소리 했다가 남편과 자식을 돌보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희의 남편은 가사와 남편 내조, 자녀 돌봄은 모두 아내의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

「행복한 사람들」에서 화숙과 영희는 모두 전문직 여성들이다. 화숙은 경제전문학교를 졸업했지만, 결혼 후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의약품관리소에서 회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영희는 약품을 배합하고 가공하는 제제원으로 일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는다. 회계원과 제제원은 의약품관리소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지만 그들의 사회생활은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의약품관리소 소장인 문숙의 남편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에게 이상적인 남편상을 보여준다.

소탈하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한 남편이었다. 아침출근길이 급하면 아이를 안고 탁아소로 달렸다. 안해가 만류하면 흔연히 웃었다.

《군당부원도 아버지고 남편이겠지. 별소릴 다하누만. 남들이 보면 어쨌단 말이요. 나만 출근시간이 급하고 당신은 급하지 않단 말이요? 괜치 않소.》

그런 남편이었다.

저녁이면 퇴근이 늦은 남편이었지만 간혹 빨리 들어온 날이면 설레발을 치며 안해를 기다리지 않고 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서곤 했다.

— 김홍균, “행복한 사람들,” pp. 35~36.

문숙은 온성으로 오기 전에 인민병원 약제사로 있으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하늘’이라고 생각한 문숙은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인 남편에게 죄스러워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식을 가진 사람이다. “아이들을 낳아키우고 남편들을 내세우는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소박한 녀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가정과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서 론할수 없”^{23/}다고 생각한 문숙이 가정 내 고정된 성역할을 재생산한다면, 남편은 아내의 일을 존중하며 기꺼이 육아와 가사에 동참함으로써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그러나 해체의 동력은 그가 순직함으로써 텅 빈 기호가 되었다.

문숙의 회상과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인물이 됨으로써 상실된 과거이자 현실에 없는 존재, 추상적 이상형으로 존재한다. 한편 문숙의 남편과 같은 유형은 보편적이지 않지만, 완전한 허구도 아니다. 이야기 초반에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들을 타박했던 남편들이 아내의 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점차 변화하기 때문이다. 화숙과 영희의 남편은 일하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불평을 늘어놓았어도 가사에 손을 보태던 사람들이다. 완고한 가부장의 태도를 고수하지 않으나 집안일과 정서적인 돌봄이 아내의 영역이라는 인식은 남아 있다.

아내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남편의 모습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균열을 내는 지점이다. 서사의 후반부에서 남편은 아내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조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 여성이 순조롭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협조가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여성이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사익을 얻기 위해 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헌신하느라 가정에 부재했기 때문에 남성의 가사분담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는 여성을 공적 노동으로 소환하는 국가 담론과 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3/ 김홍균, “행복한 사람들,” 『조선문학』, 제2호 (2017), p. 36.

(3) 여성의 사회진출 독려와 국가 가부장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인구가 부족해진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비공식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여성들의 노동력을 소환하고자 했다. “녀맹조직들은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24/} 한다는 김정은의 요청은 가두여성, 즉 전업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일할 나이의 여성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로력문제, 기술자, 기능공문제”^{25/}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단순 노동부터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식노동의 분야에서 여성들이 ‘한몫’하도록 고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진출을 확산하고자 했다.^{26/}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강조된 여성의 사회활동 촉구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생계책임자에 더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으로 확대되며 여성의 부담을 가중했다. 한편으로 가족생계와 가정생활에 역량을 국한하지 말고, 실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으로 활약하여 사회와 집단, 국가에 공헌하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과 담론으로 요구된 여성의 사회진출은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부족한 노동

24/ 김정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조선녀성』, 제12호 (2016), p. 6.

25/ 로은하,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자,” 『조선녀성』, 제3호 (2017), p. 28.

26/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강조하며 여성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여성들은 생산력 양양에 기여하는 기계나 약품을 개발하고, 과학적 성과를 가져올 기초 학문을 발전시키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주목받았다.” 여성들은 대학과 연구소, 공장기업소에서 전문적 역량으로 혁신을 일으키고 연구성적을 올린 공로를 인정받으며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꾸준히 호명되고 있다.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54.

력 확충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가정을 돌보고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이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할 때, 여성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사회와 국가의 호명에 응할 때 여성 대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이다. 여성의 과중한 부담을 덜면서 여성의 부재를 대체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역할이 남성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에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여성의 직업활동을 독려하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사회의 공식노동에 참여하게 된 기혼여성이 마주하는 갈등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서사에서 의약품관리소는 군민과 전쟁 노병, 영예군인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그들이 일에 헌신할수록 가정생활의 시간은 감소하게 된다. 그들이 가정에 부재할수록 갈등은 커졌다. 이때 갈등의 정점은 ‘밥짓기’로 나타났다. 여성이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희생하여 국가의 보건의료 부문에 기여하는 동안, 남성은 아내 대신에 가정을 유지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한편,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는 것이 마땅한 인민의 본분이 됨에 따라 여성은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국가의 이익과 존립에 힘써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2017년 ‘노동신문’ 논설에서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일지라도 당이 부르는 곳에 기꺼이 탄원해 가며 집단주의와 동지적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자질이였다.^{27/} 그러나 2019년에는 가정이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자기 가정을 귀중히 여기고 가사를 잘 돌보는 것은 인간 본연의 의무이지만, 그보다 먼저 나랏일을 생각하고 국사에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가사가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라면 국사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가정의

27/ “대고조격전장들은 청년들의 활무대,” 『로동신문』, 2017.3.30.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사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28/} 국가적 위기에 당면하여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 호소는 계속 강조되었다.^{29/}

‘조국의 큰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헌신분투하거나 스스로 떠맡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사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데 있다.^{30/} 공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들’은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 의무를 앞에 놓고”^{31/} 헌신하는 애국자로 호명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 독려와 함께 가정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라는 국가의 요구는 국가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남성이 가정을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에 동참하게 됨으로써 성역할 분담과 위계가 약화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나. 가족 구성의 재현과 재생산 갈등

(1) 만혼화와 가족 구성의 지연

가정은 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적 관습과 정치적 상황, 국가의 이념이 알레고리로 표상된 공간이기도 하다. 가정의 변화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며, 사회변화는 가족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가정환경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규모

28/ “가사우에 국사가 있다.” 『로동신문』, 2019.9.26.

29/ “가사보다 먼저 국사를,” 『로동신문』, 2020.4.24.; “우리 시대의 가장 값높은 삶의 지향: 가사보다 국사를,” 『로동신문』, 2022.1.4.; “너맹은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어로 선도하는 어머니들의 조직이다,” 『로동신문』, 2022.11.16.; “국가를 떠맡고 혁명을 지키는 가장 위력한 힘은 전체 인민의 애국심이다.” 『로동신문』, 2023.1.26. 참조.

30/ “꽃다발,” 『로동신문』, 2021.9.29.; “고귀한 부름-로력혁신자,” 『로동신문』, 2023.5.27.

31/ “고귀한 부름-로력혁신자,” 『로동신문』, 2023.5.27.

가 축소되고, 저출산과 만혼화가 일반화하며 가부장적 가족문화도 약화되는 형국이다.

여성을 꽃으로 젠더화하는 북한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본분’이자 ‘애국’의 실천이다. 그러나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함에 따라 결혼을 늦추거나 피하는 미혼 여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국가 정책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지만, 일상에서는 만혼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저출산 지표를 그리고 있다. 만혼화 경향은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는 남성과 생계활동 내지 사회활동에 몰두하는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조훈일의 단편소설 “흰눈치녀”(2020)와 최영훈의 단편소설 “우리의 생활”(202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머니가 것처럼 마음을 쓰는 것은 온 식구가 함께 모여 별식을 들며 회포나 나누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만머느리감 즉 나의 배우자문제를 락착짓자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안달할만도 했다. 설을 쇠면 내 나이 서른셋이다.

시내의 어느 한 초급중학교 교원을 하고있는 누이동생이 은밀히 보내온 정보에 의하면 어머니가 애용하는 수첩에는 벌써 여러명의 처녀들의 이름이 올라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처녀의 나이와 직업, 학력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다고 한다.

— 조훈일, “흰눈치녀,” 『조선문학』, 제1호 (2020), p. 37.

정말 남의 딸 말하듯 하는군요. 그렇게 생각있는 애가 스물아홉을 코앞에 두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밖에 모르겠어요? 아니, 딸 가진 부모들은 자식이 련애를 한다거나 총각이 너무 찾아와서 시끄럽다는데 어이구, 난 당대 어느 총각이 허리굽석어구 들어와서 딸 주시오 하는걸 한번 보기라두 했으면 좋겠수다.

— 최영훈, “우리의 생활,” 『조선문학』, 제11호 (2020), p. 9.

“흰눈치녀”의 주인공 ‘지성’은 제대군인에 당원이고, 대학졸업으로 30대 초반에 박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33세가 되도록 미혼인 남성이다. 어머니는 ‘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라며 아들의 결혼에 관심을 쏟으며 주변 처녀를 물색 중이다. “우리의 생활”의 주인공 ‘국화’는 29세를 코앞에 둔 미혼 여성이다. 이웃집에서 맞선이 들어왔다며 권하는 어머니에게 딸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 인용문은 연애는커녕 결혼할 생각도 없는 딸 문제로 노심초사하는 어머니가 태평한 아버지에게 푸념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국화는 어머니의 염려와 달리 제대군인에 당원인 건물관리소 노동자와 연애하고 결혼한다.

만혼화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개인의 성향과 조건 등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남성의 군사복무와 여성의 사회활동은 만혼화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일문의 단편소설 “꽃으로 피라”(2020)에서 살펴볼 수 있다.

“꽃으로 피라”는 ‘40고개’가 된 여성이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자문하다 결혼을 결심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수정은 박사이자 공훈과학자이며, 대학교원으로 첨단기계를 만들어내는 데 정열을 다한 조종기계연구사이다. 소설의 화자이자 수정의 동생 수옥은 남들처럼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젖 먹여 키울 권리가 있기에 언니 스스로 “안해나 혹은 어머니로 불리워야 할 녀성임을 인정했다는 것”^{32/}을 다행으로 여긴다. 수옥은 군사복무를 마친 후 공부에 열중하다 혼기를 놓친 심장 수술 권위자인 정국을 수정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정은 그동안 독신생활에 익숙했던 자신이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연구사업에도 지장이 갈거”^{33/}라며 거절했다. 일에 대

32/ 변일문, “꽃으로 피라,” 『조선문학』, 제10호 (2020), p. 65.

33/ 위의 글, p. 71.

한 열정으로 독신을 고집했던 수정을 다시 만난 정국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능력있는 녀성들이 흔히 가지고있는 남자들 일반에 대한 그릇된 견해이지요. 물론 아직도 우리 남자들속에는 안해들이 집에 곱게 앉아 자기들의 뒤바라지나 해야 하는것처럼 생각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속엔 일부 녀성들도 있지요.

— 변일문, “꽃으로 피라,” p. 73.

정국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성별 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며, 이런 편견이 사회에 그릇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정국은 덧붙여 가정은 사회의 한 세포로, 남편과 아내, 자식들만의 것이 아니라며 자신에게도 그러한 편견이 한때는 있었다며 고백한다. 정국의 말은 고정된 성역할을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의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수정 또한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과연 성공한 것인지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제판엔 가정도 사랑도 청춘도 다 기계를 위해 바쳐왔다고 생각해왔지만 그것이 혹시 자기 하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사회가 부여해준 녀성으로서, 공민으로서의 가장 초보적인 안해와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는가고 말이다.

— 위의 글, p. 76.

그렇다면 수정은 왜 독신자 생활을 청산하고자 했을까? 제자가 수정처럼 살고 싶다면 “녀자가 과학에서 성공하자면 가정을 이루지 말아야지요?”라고 물었던 때가 계기가 되었다. “나때문에 과학이 청춘 남녀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갈라놓는 매개물로 된다면 얼마나 무서

운 일”인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34/} 제자에게 마음 놓고 결혼하라며 과학도, 가정도, 사랑도 가꾸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전했다. 수정의 사연을 듣고 수옥은 의과대학을 졸업했음에도 가정의 행복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운운하며 직장을 그만두려던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한다. 언니 수정이 가정의 꽃이 되는 것을 외면해왔다면, 자신은 가정의 행복만을 가꾸는 온실 속의 꽃이 되고자 혁명이 맡겨준 초소를 이탈하려 했기 때문이다.

40세가 되어 결혼을 결심하는 수정의 서사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추세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여성이 꽃으로 필 때만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언급은 결혼과 출산의 의무를 강조한다. 소설은 2년 후에 수정 부부가 조종기계학 책과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책을 구입하는 장면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내포하며 마무리된다. 북한의 젠더정치는 여성을 꽃으로 호명하며 가사와 양육, 사회를 만드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견인한다.^{35/} 사회적 인정과 동원을 결합한 ‘꽃’의 상징성은 이 소설에서 결구를 장식하는 이념적 장치이다. 가정의 꽃이 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나라의 부강에 기여한다는 소설의 메시지는 만혼화와 저출산 현상이 북한에 만연해 있음을 함축한다.

(2) 남아선호 잔재와 소자녀 지향

북한은 출산을 부담스러워하고 육아를 고역으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자녀 출산을 위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춰져 있다고 주장한다.^{36/} 다자녀를 낳은 여성을 ‘모성

34/ 위의 글, p. 77.

35/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p. 250.

36/ 최숙영, “여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본분이며 애국이다,” 『조선여성』, 제9호 (2017), p. 32.

영웅'으로 우대하며 출산을 장려하지만, “자식을 낳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자식을 조국을 받드는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 녀성들만이 어머니의 본분을 다하였다”^{37/} 사회적 기대는 여성의 부담을 가중한다.

북한의 정책과 담론의 모순은 여성에게 사회적 활동을 독려하면서 어머니, 주부와 아내, 며느리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으로 여성을 속박하면서 다자녀 출산을 원한다는 데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수록 출산과 양육에 투입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지기에 소자녀를 선호하게 된다.^{38/} 비공식 노동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북한 가정에서 다자녀 출산은 부담이 크다. 최근 소설을 보면 인구재생산과 관련한 가정의 갈등은 남아선호사상과 비출산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서술되고 있다.

우리 집에는 자식이 언니와 나 이렇게 두 딸뿐이다. 어머니가 두 번째로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는 딸이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입맛을 다 젖히고 자리에 드러누워 앓기까지 하였다.

— 배경휘, “첫걸음,” 『조선문학』, 제2호 (2017), p. 23.

영미는 외동딸로 태어났다.

3대외독자로 태어난 그에게 자식문제는 가정의 대와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더욱이 안해가 병으로 더는 자식을 볼수 없는 몸상태라는것을 알았을 때는 딸자식이라도 아들 못지않게 키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위안하였다.

— 서현길, “수삼나무,” 『조선문학』, 제3호 (2017), p. 43.

37/ 전태범, “어머니의 본분을 자각하고,” 『조선녀성』, 제1호 (2018), p. 32.

38/ 홍제환 외,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95.

배경휘의 “첫걸음”과 서현길의 “수삼나무”의 각 가정은 소자녀를 두었다. 많아야 두 명이다. “첫걸음”에서 주인공 ‘은숙’의 어머니는 둘째 딸을 낳고 앓아누울 정도로 실망감을 표현했지만, 아들을 낳기 위해 애쓰지는 않는다. 서현길의 “수삼나무”에서 3대 독자 아버지에게 자식 문제는 가정의 대를 잇는 중대한 일이었지만 아내가 외동딸 ‘영미’를 낳고 불임이 되었기에 하나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일찍이 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윤리도덕관으로 규정했으며,^{39/} 근로자의 가정에서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낡은 관습이 없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40/} 북한의 출생성비는 전 기간에 걸쳐 1.05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남아선호 문화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41/} 태아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이 미비하여 성별을 선택하여 낳을 수 없으나 장남이 부모를 부양하며 대를 잇는다는 전통적인 습속이 가정문화의 기저에 있었다.

《자네가 딸을 낳았다고 울상이 되어다니던 그때가 생각나누만.
 딸이면 어쨌단 말인가. 영미 같은 딸이라면 아들 열보다도 열싸하지.》
 용세의 그 말이 석길에게 기분 좋게 들려왔다.
 (그래, 가정의 대가 아들로써만 이어져야 하는가. 아니야, 아들
 이든 딸이든 대대손손 애국으로 이어져야 마땅한거지.)
 — 위의 글, p. 52.

“수삼나무”에서 주인공 영미의 아버지는 딸이 태어났을 때 울상을 짓고 다녔을 정도로 아들이 아니라는 서운함이 컸다. 그러나 아들 못지않게 키운 외동딸은 아버지와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 서사 대부분

39/ “남존여비사상.” 『조선대백과사전』 DVD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1-2005).

40/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조선의 민속전통 3: 주택과 가족생활풍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p. 309.

41/ 홍제환 외,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p. 79.

분은 아버지가 제기한 공장현대화를 딸인 영미가 실현하는 과정에 할애되었다. 대북제재로 원료 수입에 곤란을 겪는 아버지를 본 영미가 ‘국산 원료’를 찾는다며 화학을 공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장에 걸린 자강력제일주의 구호는 영미의 가정에 흡수되어 양육에 영향을 주었고, 성장한 딸은 공장현대화와 원료의 국산화를 이루어 아버지의 대를 이으며 국가담론을 계승했다. 가정의 대를 잇는 문제는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 국가의 과업으로 이어지며 애국으로 환유된 것이다.

“첫걸음”은 딸이 대를 잇는다는 점에서 “수삼나무”와 동일선상에 놓인다.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직업을 승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첫걸음”의 주인공 은숙의 집은 할아버지 대부터 아버지, 삼촌 모두 간석지에서 대형 트럭 운전사를 해왔다. 부모는 운전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바랐던 것이다. “첫걸음”은 여성 주인공이 간석지의 거친 환경과 고된 업무 조건, 남성 운전자들의 텃세에도 불구하고 트럭 운전사로 안착하는 과정을 그린 성장형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을 원했으나 딸이 태어나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소설의 서술은 남존여비와 남아선호의 잔재로 볼 수 있다. 두 가정의 딸들은 학업과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정 안에서 성역할의 장벽을 먼저 만났다. “수삼나무”에서 영미가 화학공업대학을 지망했을 때 가족과 친척들, 주변의 모두가 만류했다. 특히 아버지는 영미에게 기왕이면 여성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권고했다. “첫걸음”에서 딸이라고 아버지 뒤를 잇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은숙에게 여자는 운전사를 못 한다며 제일 처음 반대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가정에서 정형화된 성역할이 학습되는 양상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딸의 진로를 반대했던 아버지는 딸의 지지자가 됨으로써 딸이 성공적으로 가문과 가업을 승계하도록 도왔다. 가정에서 더 나

아가 사회에서의 성별 분리 장벽을 뛰어넘는 맥락을 보여줌으로써 남아선호사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한다.

(3) 재생산 갈등의 국면들

재생산 갈등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남아선호사상의 잔재와 함께 비출산이 공존한다는 점에 있다. 리춘미의 “사랑하라”(2020)는 다자녀 출산 장려, 낙태와 비출산, 소자녀 선호, 남아선호사상 등을 세대 간 인식 차이로 그리고 있다. 특히 “부부의 사랑이 꽃이라면 자식은 사랑이 창조한 열매라고, 그 열매를 고이 익히지 않고 따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일”^{42/}이라며 낙태 정황도 반영되어 있다. “사랑하라”는 시인민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설희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안무가 남편을 설득해달라는 무용배우의 부탁을 받아 아들만 다섯 집의 막내며느리인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액자형 소설이다.

“사랑하라”의 시어머니는 ‘끝끝한 아들 다섯’을 낳아 어딜 가나 떠받들리며 살았지만, 다섯 며느리는 모두 딸만 낳았다. 첫째 며느리는 “대처럼 쪽쪽 올리빠진 녀자가 다섯이나 들어와선 아들 하나 안겨주지 못하니. 대사도 잦은 집에 한번씩 모일적마다 좀 창피해”^{43/}라며 전통적 남아선호를 보여준다. 둘째 며느리는 “이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지 몰라. 하지만 어찌됐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44/}라며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으리라 말한다. 설희의 남편은 지금이 만족스럽다며 아이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음을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설희는 두 번째 임신에서 딸 쌍둥이를 낳고, 세 번째 임신에서 아들을 낳았다.

42/ 리춘미, “사랑하라,” 『조선문학』, 제7호 (2020), p. 56.

43/ 위의 글, p. 58.

44/ 위의 글, p. 58.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도 복된 세월이어서 자그마한 근심걱정이 없다 해도 울어대는 아이머리에서 모자 벗겨지는줄 모르고 한밤에 소아병원으로 종달 음칠때면 눈물이 피잉— 서리군 하였지요.

하지만 투지좋은 잔소리군이며 어느새 민활하고 역세여진 나는 밤이면 저저마다 엄마곁에 눕겠다고 숨막히도록 목을 꼭 그러안는 네 아이의 토실토실한 손맛들을 감촉하는 순간이면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행복속에 빠져버리고만답니다.

— 리춘미, “사랑하라,” p. 61.

설희는 아이를 키우며 갖은 근심걱정에 시달려도 아이들의 “토실 토실한 손맛”에 행복에 빠져든다며 자식이 많은 것이 부담이나 불편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희열, 사랑을 느낀다. 안무가는 설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쪽의 보석화’ 같다는 감상을 표현한다.^{45/} 게다가 설희는 엄마 곁의 잠자리와 엄마의 고운 치마에 만족하던 아이들이 더 발전한 엄마 모습을 원하자 논문도 집필했다. ‘자식 많은 어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법’이라며 “나는 지금껏 내가 너희들을 키워온줄 알았어. 하지만 너희들이, 너희들이 엄마의 성장을 안아왔구나!”^{46/}라는 깨달음에 더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교복과 학용품이 김정은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던 안무가는 귀중한 것을 가르쳐주었다며 설희의 손을 잡고, 무용 배우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며 소설이 끝난다.

45/ “이제는 저녁마다 넷이 나란히 텔레비전을 봅니다. 알고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 세살이 안된 막내는 누나들옆에 앉전히도 앉아 직심스레 파고들니다. 뒤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나는 웃고말았습니다. 정말 나만이 웃을수 있는 일이지요. 단발머리와 두 토끼머리, 넙치의 눈과도 같은 아들의 쌍가매가 왜 그리 웃음을 자아냅니까? (...) 애교가 반지르르하고 약삭바른 맏이가 뽀르릉 일어나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뽀뽀하니 쌍둥이와 막내가 순서를 기다릴새 없다며 풍풍 뛰어요.” 위의 글, p. 62.

46/ 위의 글, p. 62.

여성에게 부과된 현모양처와 같은 전통적 가치관과 경제활동의 이중 부담은 소자녀 선호와 출산율 하락의 결과로 나타났다.^{47/} 이에 대해 북한은 모성 신화를 대중운동으로 재맥락화하며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대응했다. 대표적으로는 2012년에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어머니날과 전국어머니대회는 전통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선군시대 모성영웅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으로 키우는 사상의 교양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면,^{48/} 어머니날 제정 이후에는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이 모성영웅으로 호출되었다.^{49/} 김정은은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책임감을 깊이 자각할 것을 요구하며 “아들딸을 많이 낳아 잘 키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50/}라고 강조했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다자녀를 출산하여 미래의 주인공을 혁명의 계승자로 양육하는 모성영웅과 노력영웅이 되어 국가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했다.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51/}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여성에게 다중의 의무를 부과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47/ 홍제환 외,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p. 204.

48/ 안지영,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과 영화 속 모성담론,” 『여성연구』, 제88권 1호 (2015), pp. 43~81, 참조.

49/ 김은희, “일곱 자식모두를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지켜가는 선군시대 총대감들로 키우겠습니다.” 『조선여성』, 제2호 (2017), p. 43; 최숙영, “여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것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본분이며 애국이다.” p. 32;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빛나는 어머니들의 값높은 삶: 1990년대 이후 수십명의 모성영웅 배출,” 『로동신문』, 2017.11.17.; “축복받는 모성영웅들,” 『조선중앙통신』, 2021.11.13.;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여성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로동신문』, 2023.4.14.

50/ 김정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p. 7.

51/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 『로동신문』, 2018.3.9.

한편으로 북한은 전통적인 가족문화가 유지되는 편이다. 그렇기에 여성들은 비혼보다는 결혼을 선택하고, 비출산보다 소자녀를 선호한다. 모성영웅에 대한 미담은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일상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랑하라”는 남아선호사상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모두에게서 잔존함을 보여준다. 설희를 제외하고 네 아들네는 모두 소자녀를 두었다. 게다가 비출산 임신중지를 원하는 안무가는 국가의 인구정책과 대립된다. 설희는 안무가를 설득해야 하지만, 동시에 안무가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독자도 설득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소설 “사랑하라”는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기를 강조하지 않는 대신에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행복과 사랑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여기에 덧붙여 국가와 지도자가 출산과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지 부연함으로써 설득력을 보강한다.

다.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갈등과 통합

(1) 자녀 교양의 공간으로서 가정

북한에서 가정은 혈연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회의 세포, 생활의 한 단위이다. 또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행복의 요람’이지만, ‘생활기풍’을 바로 세우도록 교육하는 교양의 공간이다.^{52/} 어린 자녀가 자라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역군이 되려면 ‘자식의 첫 스승’인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3/} 이때 자녀를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지닌 건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54/}

52/ 본사기자,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도덕교양을 잘하자,” 『조선녀성』, 제11호 (2017), p. 44.

53/ “부모는 자식의 첫 스승,” 『로동신문』, 2017.11.2.

새 세대가 ‘혁명가의 풍모’를 갖출 수 있도록 좌우하는 것은 가정교육에 달려 있다는 김정은의 말은 학교와 사회가 할 수 없는 교양교육의 역할을 가정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54/} 학교는 시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때가 되면 졸업하지만, ‘인생의 첫 학교’인 가정교육은 중단이 없다. 가정교육에 교재나 정해진 교수안이 따로 없더라도 부모의 말과 행동이 ‘생활의 거울’이 되기에 사람의 성장에서 가정 교양이 중요하다는 논지다.^{55/}

그러나 성인기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와 다르다.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는 부모와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가치관과 인식 차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으로 치환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상과 목적으로 결합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살아 나가는 동지적협조관계”가 가정생활로 정의되는 것처럼,^{56/} 갈등은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협조 관계로 해소되면서 이상적인 가정생활로 재귀한다.

세대 간 차이와 갈등은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건 존재해왔다. 세대 구분은 공통된 경험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산출할 수 있지만,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선은 정의하기 어렵다.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 구분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범박하게 기성세대 또는 중장년세대의 상대적 개념으로 신세대 또는 청년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 비슷한 사람들은 살아오는 동안 겪은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경험의 차이보다 공통점이 크다.

54/ “자식의 성장과 부모의 실천적모범,” 『로동신문』, 2023.3.14.

55/ “가정교양은 가정의 대, 나라의 대를 잇는 중요한 사업,” 『로동신문』, 2019.8.22.

56/ “가정교육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로동신문』, 2022.12.11.

57/ “가정,” 『조선대백과사전』 DVD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1-2005).

일반적으로 가정생활의 범주에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관계에서 세대 간 인식과 갈등, 이해와 통합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학은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는 가르침을 받는 하강 구조를 주로 표상하고 있다. 기성세대 또는 사회와 집단이 정한 규범을 밟고 비약하려는 새 세대의 상상력과 일탈은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이다. 자녀의 일탈을 눈감아주는 것은 ‘무원칙한 사랑’일 뿐이기에 “비판도 요구도 통제도 없이 내버려둔다면 자식들이 나쁜길로 굴러떨어지게”^{58/} 된다는 경고는 부모의 교양자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으로 부모 세대가 비판하는 자식 세대의 부정성은 북한 문학의 외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리얼리티이다.^{59/} 이러한 부정성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지만, 청년세대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새로운 의식과 욕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학은 청년세대가 부모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소설에서 청년세대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선생이, 사회에서는 작업반장과 같은 기성세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신체를 규율 체계에 맞게 조정한다. 집단을 위해 공헌하는 부모의 모범성이 자녀의 교정을 이끌고, 자녀는 개인적인 즐거움과 이익이 아니라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공민’이 된다.

(2) 교양자 아버지의 역할과 세대 간의 갈등

홍남수의 “세대의 임무”(2015)는 공익을 위한 사색과 노력, 주체적인 자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아버지상을 통

58/ “가정교육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로동신문』, 2023.6.19.

59/ 오태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고찰: 사회주의적 이상과 현실의 균열적 독해,” 『인문학연구』 제38호 (2018), p. 169.

해^{60/} 농촌 생활에 대한 부자간 가치관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유발하고, 가정생활에서 세대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단편소설이다.

“세대의 임무”는 농촌 생활에 만족하며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은 젊은 세대인 아들과 사회와 집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아들을 발전시키려고 가르치려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소재로 하였다. 소설은 아들 ‘응일’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떠올리며 시작된다.

평생 농사일을 전부로 알고 살아온 아버지는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하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61/}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아버지는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는 공리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아들 응일은 농업 전문학교에서 농기계를 전공했어도 기계반 생활이 따분하리라 보고 농산반에서 일하며, 농촌 생활에서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이 ‘생활의 주인’이 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무뎡하게 살다가 앞으로 뭐가 되겠는지 걱정”^{62/}이라는 아버지의 우려에 응일은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생활방식이 다르지 않냐며 반박하면서도 자신이 ‘무뎡한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려 애쓴다. 그러나 응일은 탈곡 기계조 작업에 실패하면서 “생각이 저속하면 목표도 세울수 없고 래일도 내다보지 못한다. 사람을 알려면 그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목적과 하는 일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63/}라며 아버지의 비판을 받는다.

새 세대는 미래를 떠메고 나갈 기둥이자 주인공이기에 부모는 단

60/ 위의 글, p. 168.

61/ 홍남수, “세대의 임무,” 『조선문학』, 제11호 (2015), p. 55.

62/ 위의 글, p. 57.

63/ 위의 글, p. 62.

순한 보육자가 아니라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교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북한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영웅의 뒤에는 “인생길을 바로 가라고 손잡아 이끌어준 훌륭한 부모”^{64/}가 있는 것처럼, 새 세대에게 좋은 교양은 부모의 실천적 모범이 된다.

응일의 아버지는 연로보장을 받을 나이지만, 분조논물관리공이기에 휴식일에도 논에 나가 묵묵히 일하며 공익적 가치관대로 실천한다. 농사일밖에 배운 게 없는 아버지는 젊었을 때 더 배우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한다면서 아들에게 “오늘 하나를 배우지 못하면 래일에는 열, 백을 잃는다는걸 알아야 한다”^{65/}라며 충고한다. 시대는 발전하고 현실은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하기에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곧 집단의 믿음이라고 설파한다. 응일은 자신이 사적 즐거움에 탐닉하고 작은 지식을 뽐낼 때, 이웃 농장에서 새 형의 탈곡기를 만든 사람이 자신과 동갑에 “집단속에 자기를 세우고 사색했고 집단의 리익에서 자기의 일거리와 기쁨을 찾는 청년”^{66/}임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제는 너희들 세대가 이 벌의 주인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 또 너희네 다음세대가 여기서 살며 주인이 될게다. 넌 그들에게 이 들판에 무엇을 새겨야 하는가를 배워줘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또 다음세대도 인생길을 올바르게 잡아줄수 있다.

— 홍남수, “세대의 임무,” p. 65.

아버지의 가르침은 ‘세대의 임무’가 곧 ‘벌의 주인’이 되는 것에 있다. 배움은 다음 세대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계승의 원리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비판과 질타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도운 성장의 법칙이 되었다. 소설은 응일이

64/ “첫 교양자,” 『로동신문』, 2018.1.18.

65/ 홍남수, “세대의 임무,” p. 63.

66/ 위의 글, p. 63.

“나에게 생을 준 아버지이면서도 성장의 법칙을, 우리 세대들의 임무와 자각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준 스승이었고 동지였다고 생각한다”^{67/}라고 되새기며 끝난다. 부모 세대가 국가와 사회, 집단의 이념을 대변한다면 자식 세대는 최근의 이완된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자식 세대는 집단과 사회를 위해 고민하며 기성세대인 부모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묘사되고 있다.

(3) 어머니의 교육열과 국가 담론의 내면화

북한에서 가정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기초로 규정된다. 가정교육의 주요 행위자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단순한 보육자가 아니라 자녀를 ‘앞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첫째가는 ‘교양자’인 것이다.^{68/} 어머니의 본분은 “자식을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받드는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69/} 것이라고 강조된다. 김향순의 단편 소설 “나의 꿈”(2017)은 인재로 자녀를 키운 어머니와 갈등하는 아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군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나의 꿈”에서 주인공 ‘동혁’은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평양에서 대학을 나와 프로그래머가 되었지만 종일 컴퓨터 화면 앞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반복 작업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 어릴 때 커서 ‘트랙포르’ 운전사가 되고 싶었던 동혁은 농장원인 어머니의 바람대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진학하여 컴퓨터를 전공했지만,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동혁은 통역원이 되어 이따금 외국에도 나가며 편하게 살려고 직업을 바꾸려고 한다. 아들에게

67/ 위의 글, p. 65.

68/ 리현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제해설-〈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조선여성』, 제10호 (2017), p. 14.

69/ 전태범, “어머니의 본분을 자각하고,” p. 32.

실망한 어머니는 자신이 젊었을 때 들었던 “사람은 권리를 누리기에 앞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⁷⁰⁾라는 말을 전하며 깨우침을 주고자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인지 양심으로 시비를 가리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이 어디에 더 필요한 존재인지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대의 임무”의 아버지와 “나의 꿈”의 어머니는 모두 농장원들이다. 반면에 자식들은 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다. 농업전문학교를 나온 응일은 농업기계화를 위한 기술교육을 받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온 동혁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학기술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며 고되게 사는 것보다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아 안주하고자 한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는 부자 또는 모자의 갈등은 가정생활에 국한된 세대 갈등이 아니다. 기술과 지식을 갖춘 청년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가정에서부터 공익을 위한 도덕과 신념이 훈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에 머물지 않고 인생의 스승이 되어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소설에 표상된 부모 자식의 갈등은 구세대의 고루함에 원인이 있기보다 새 세대의 일탈과 결함에 기인한다. 이 같은 가정생활의 세대 관계는 노동당의 ‘계승위업’의 논리를 환유한다.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는 로동에 대한 무한한 성실성과 사랑의 정신을 체질화하고 자신들의 근면한 땀과 노력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안아온 훌륭한 사회주의근로자들”로 국가와 집단의 이익에서 자신의 행복과 보람을 찾았으므로 후세대는 “혁명의 전세대들이 창조한 위대한 전통과 사상정신을 빛나게 계승”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이다.⁷¹⁾ 소설이 발표된 시기와 기사

70) 김향순, “나의 꿈,” 『조선문학』, 제7호 (2017), p. 67.

71) “근본을 잊으면 살아도 죽은 몸이다,” 『로동신문』, 2022.12.11.

계재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담론이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개인에게 억압적으로 표출되는 양상에는 차이가 없다.

한편, 새 세대는 부모의 계도를 받지만 약진할 가능성이 큰 존재로 묘사되는 특징이 있다. “세대의 임무”에서 작업반장은 아들을 못마땅해하는 아버지에게 ‘아무 목적 없이 거들거리며 사는 젊은이들’과 달리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알고 있는 응일이 ‘단단히 한뫼’할 사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주변의 믿음과 지지는 리희찬의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2016)에서 결함을 가진 청년을 바라보는 정치지도원 ‘강명국’의 시선에서도 포착된다. 강명국은 한창 자라나는 청년에게 결함을 있을 수 있기에 타고난 부정인물이란 없다고 단언한다. 그는 자라난 환경에 따라 개성들이 제각기일 따름이라면서 장점을 먼저 보고 이를 살려주면서 결함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한다.^{72/} 이는 청년세대에게 각성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새 세대의 각성을 이끌고 조력하는 문제와 결부된다는 논의에 설득력을 준다.^{73/} 결함을 가진 새 세대에게 불안함을 느끼기보다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74/}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부모가 속한 기성세대의 책무인 것이다.

계몽주의적 교양의 수용으로 마무리되는 서사는 부모 세대의 계몽적 시선에 따라 자식의 욕망을 계도하는 억압적 구조를 드러낸다. 사회적 혁신보다 계승적 관점을 중요시하는 훈육과 교양의 강조는^{75/} 국가의 압력이 사적 공간인 가정에 작동하고, 개인의 가치관을 구속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72/ 리희찬,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pp. 103~104.

73/ 이예찬, “소설로 보는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향상’의 의미: 리희찬의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6호 (2022), p. 582.

74/ 위의 글, p. 581.

75/ 오태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고찰: 사회주의적 이상과 현실의 균열적 독해,” pp. 169~170.

2. 가정-밖: 이웃과 가정생활의 사회적 확장

각각의 가정이 이웃하며 공동체를 만들듯이 가정-밖은 가정생활의 사회적 확장이다. 가정-밖에서 각자의 가정이 접촉하는 이웃은 사회적 활동과 연계되며, 지역과 계층의 영역을 내포한다. 당문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 문학은 지역의 격차와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소를 전면화하지 않는다. 갈등보다는 화해를, 일탈보다는 통합을 지향하는 서사는 개인과 집단의 이야기에 모두 해당한다.

북한의 가정은 가족의 사생활이 구성되는 사적 영역이지만 사회의 규범 체계가 작동하며 공적으로 통제되는 곳이다. 사회주의대가정은 가정생활의 사회적 확장으로 공동체 생활과 연대하며 집단으로 결속하는 담론이다. 이 절에서는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밖의 요소를 지역과 행위자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생활의 사회적 확장은 생활의 터전인 지역의 공간성과 행위자와의 관계로 압축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가정생활과 지역의 공간성

(1) 지역편애주의와 거주환경 격차

외적 환경, 그중에서도 주거환경은 도시와 농·어·산촌에 따라 편차가 있다. 생활 인프라 접근성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주거공간의 차이는 생활의 격차를 나타내게 된다. 도시라 할지라도 수도 평양은 지방의 중소도시와 비교해 생활환경과 생활조건에서 특별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평양은 단순히 행정상 수도가 아니라 정치적·문화적 수도라는 도시브랜드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평해튼’으로 불리는 고층살림집은 평양에서의 일상을 스펙터클하게 보여주며, 사회주

의문명국을 상징한다. 게다가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고층살림집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특별한 직업과 직위,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함으로써 주거환경에 따른 계층별 격차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주택문제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력한 북한에서 주택을 보면 거주자의 지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주거형태는 계층 구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집권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지위보다 과학과 교육에 헌신한 지식 엘리트들이 주거의 우대를 받았다. 특히 평양에 건설된 초고층살림집은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우선 공급되었다. 결혼한 지 넉 달 된 신혼부부가 은하과학자거리의 고급살림집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입주자가 과학자였기 때문이다.^{76/}

북한의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 및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급되었고,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과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주택공급 부족이 발생했다.^{77/} 신혼부부가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도 많기에 신혼부부의 새집들이 소식이 대서특필되는 것이다.^{78/}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건설 사업은 초고층 살림집을 중심으로 한 거리조성이었고, 점차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국을 시각적으로 체감하도록 견인하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선진적으로 바꾸는 고층 빌딩들이다. 지방 거주민들에게 평양의 변화는 선망과 괴리감을 동시에 함의한다.

76/ 한동선,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 산다!,” 『조선문학』, 제12호 (2013), p. 62.

77/ 김진석, “북한 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2019), p. 1, <https://researcher.hf.go.kr/researcher/sub02/sub02_06.do?mode=view&articleNo=298207&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B6%81%ED%95%9C> (검색일: 2023.8.29.).

78/ “퐁매도에 울려 퍼진 고마움의 노래: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수십명 청년들이 새 가정을 이루고 새집에 입사,” 『로동신문』, 2021.10.29.

예컨대 려명거리에서 살게 된 입주자의 시선에서 고급살림집은 그야말로 고급호텔처럼 ‘황홀’하다. 려명거리의 살림집은 침실, 서재, 전실(거실), 식사실(식당), 위생실(화장실)과 같이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물이 ‘팔팔’ 나오는 수도와 가스콘로가 설치되어 있다.^{79/} 평양 중심지일수록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과 학원, 관공서 등 각종 편의시설이 근접해 있으며, 전기와 난방, 수도 등 인프라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80/}

평양의 중심지에 고급을 지향하는 고층살림집은 국가가 우대하는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조성되었다. 과학자와 교육자, 기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과학과 인재를 중시하는 국가 정책을 구체화하지만, 평양과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하며 특권적 공간이 되었다.^{81/} “여섯칸이나 되는 살림방들을 가진 집”^{82/}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홍길동’ 별명을 가진 과학자가 살 수 있다.

평양에서도 가장 ‘별천지’라는 고층살림집은 국가로부터 우대받는 계층들의 특별한 거주환경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달린 단칸방이 여럿 붙어 있고, 공동화장실과 공동수도 또는 우물을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선명하게 차별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는 주홍건의 “우리 집 노래”(2018)이다.

“우리 집 노래”는 대동강변에 있는 미래과학자거리의 고층살림집에서 신혼살림을 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소설이다. 소설은 “부엌과 전실이며 부부방, 종합살림방을 팽이마냥 뱅글뱅글 돌면서 남편의 길떠날 차비를” 서두르던 아내가 “세면장”에 있던 남편에게 주의사항을 말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83/} 신혼부부에게 배당된 집은

79/ 류명호, “우리집은 려명거리에 있다!,” 『조선문학』, 제5호 (2017), p. 18.

80/ 김진석, “북한 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 p. 5.

81/ 오창은,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에 나타난 평양 공간 재현 양상 연구: 사회주의 평등과 사적 욕망의 갈등,” 『한민족문화연구』, 제71권 71호 (2020), pp. 105~106.

82/ 김혜영, “행운,” 『조선문학』, 제2호 (2020), p. 25.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 “별들도 저마끔 창유리에 살짝살짝 걸터앉아 방안을 부러운 눈길로 엿보고 있는 듯”^{84/}한 살림집은 다세대 공동주택의 협소한 공간과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신혼부부가 평양에서도 가장 첨단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과학적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농촌 출신인 남편은 수리학 분야의 과학자로 청천강 계단식발전소와 단천발전소 건설에 공헌을 했고, 아버지가 산림감독원이어서 산골에 살았던 은하는 러시아어 교수로 새로운 교수안을 창안했다. 평양시민이 아니었던 이들 부부는 건설과 교육 분야에 업적을 쌓음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의 고층살림집에 살 자격을 얻은 것이다.

아파트 주거 유형은 평양시와 몇몇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85/} 주거환경의 차이는 계층을 구분하는 가시적 잣대가 될 수 있다. 평양의 모습은 제한된 자원과 공공재를 전용하여 일군 지역편애주의 (regional favoritism)의 산물이지^{86/} 지식 엘리트 계층을 우대함으로써 나타나는 특권의 가시화라 할 수 있다.

(2) 가족의 이주와 적응 갈등

도농 간 생활의 격차는 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불편함으로 경험된다. 오광천의 단편소설 “푸른 바다”(2018)에서는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부부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온다. 기사인 남편이 ‘스광산 지역’에 탄원하며 왔지만, 아내는 자녀교육을 위해 도

83/ 주홍진, “우리 집 노래,” 『청년문학』, 제4호 (2018), p. 52.

84/ 위의 글, p. 58.

85/ 박희진, “북한의 주택건설 현황과 생활환경 실태,” 『보건복지포럼』, 제298호 (2021.8.), p. 40.

86/ Yong Suk Lee, “International isol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Evidence from sanctions on North Korea,”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103 (2018), pp. 34~51.

시로 가거나 본교가 있는 갯으로 옮기자고 주장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당신처럼 이 산골에 묻히게 할수는 없”다고^{87/} 푸념하는 아내에게 ‘스광산 지역’은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교육 수준도 높지 못해 아이를 인재로 키울 수 없는 곳에 불과했다.

가정생활의 지역 격차는 평양에서 나고 자라 평양시민이라는 자긍심이 강한 인물들이 지방에 이주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묘사된다. 북한 주민들이 선망하는 평양은 누구나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가서 살 수 없는 곳이다.^{88/} 소설에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특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방 이주를 결정하고, 가족 구성원이 이를 따른다. 이주를 원치 않았으나 가부장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가족 구성원에게 지방 생활은 순탄치 않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집 노래”가 평양의 중심부에 살게 된 행복감이 주요 내용이라면, 이와 달리 김계숙의 “평양사람”(2016)과 한은희의 “김철녀인”(2019)은 평양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겪는 갈등이 묘사되어 있다.

“평양사람”은 주인공 ‘리평’이 평양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마쳤으나 농업성 부처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철산리 골짜기에 와서 6년간 지내는 이야기이다. 모두가 평양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눈이 밭으로 바뀌는 일에 책임감을 느낀 아버지는 벼종자를 갱신하기 위해 이주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주해서 처음 겪는 불편함은 제대로 된 집이 없다는 데 있었다. 선동원인 ‘초순’이 작업반장을 설득해 집을 제공하기 전까지 리평 가족은 철산리에 집도 없어 작업반 건물의 빈방에서 지냈다. 기능적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쾌적함을

87/ 오광천, “푸른 바다,” 『조선문학』, 제9호 (2018), p. 66.

88/ 평양시민증은 1997년부터 별도로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평양시관리법」에는 평양 거주와 관련된 까다로운 요건이 제정되어 있다. 지방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양 내에서도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데도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평양 거주는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는 것은 특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2017), pp. 99~100.

주는 “우리 집 노래”의 고층살림집과 대조되는 거주환경인 것이다.

리평의 부모는 평양사람의 풍모를 유지하며 산골 생활에 적응하길 바라지만, 리평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풀 베기도 못해서 어정쩡하게 걸돈다. 리평은 평양에 있는 애인과 통화하려면 전파가 터지는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철산리를 떠나 평양으로 돌아가길 갈망한다. 생활환경과 거주 인프라의 열악함은 리평의 부적응을 더욱 심화한다.

또한 거주환경의 격차는 전기문제로 나타난다. 불안정한 전력은 사망이 산으로 둘러싸인 철산리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마을에 전기를 대는 소형발전소는 겨울엔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다. 리평은 ‘태양전지’를 자체 개발하는 작업으로 전력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했는데, 이웃들은 ‘평양사람’이 “여기 와서 초불맞이랑 보니까”^{89/} 그런 걸 만들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생활의 기반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평양에 대한 전망이 내포되어 있다. 평양에서 이주해온 리평이 느끼는 불편함은 공간적 위계에 따른 인프라 격차, 지역 간 불평등을 드러내며 주변과 융화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한은희의 “김철녀인”(2019)의 ‘혜영’ 또한 남편을 따라 김책제철련합기업소(김철)가 있는 청진에 왔다. 혜영은 평양에서 나고 자란 ‘평양내기’로, “평양을 떠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꺾 막히는 것 같”았지만, “안해의 진정한 고향은 남편의 심장속”이라며 남편에 대한 사랑 하나로 평양을 떠났다.^{90/} 혜영의 결심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제한된 선택으로,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권력의 불균형을 사랑으로 합리화한 것이다.^{91/}

89/ 김계숙, “평양사람,” 『청년문학』, 제4호 (2016), p. 35.

90/ 한은희, “김철녀인,” 『조선문학』, 제3호 (2019), p. 35.

91/ 오창은,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에 나타난 평양 공간 재현 양상 연구: 사회주의 평등과 사적 욕망의 갈등,” p. 98.

혜영 또한 리평처럼 이주 지역에서 적응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쌍둥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평양으로 복귀하고 싶은 열망으로 괴로워하던 혜영은 아픈 몸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는 신발수리소 ‘박아바이’에게 감화되어 평양사람으로 특별하게 여겼던 자신을 반성한다. 또한 이웃 여성들은 이웃과 거의 왕래하지 않고 지내며 외롭게 지내던 혜영의 임신을 알아차리고 온갖 물건을 가지고 방문하여 혜영이 행복감에 울도록 한다. 이웃의 관심이 혜영의 마음을 녹인 것이다.

이건 산꿀이구 이건 미역이에요. 요건 애기웃 그리구 이건 말린 수산물인데 동해에만 있는 특산이에요. 참, 이 쌀은 평양에서 날라 온 쌀이에요. 쌀이야 평양쌀, 김철쌀이 따로 있겠냐마는 우린 평양에서 날라온 쌀을 별스럽게 여기구 아낀답니다. 왜 그런지 동무도 우리 맘과 같을것 같아서 우리가 아끼고있던 평양쌀을 동무에게 가져왔지요 뭐.

(...)

우리의 주체철을 위해서 평양사람들인 동무네 부부가 와준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돼요. 우린 동무들을 보면서 평양의 부탁을, 평양의 부름을 느껴요. 평양은 곧 우리 원수님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런 동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김철 사람들은 머리를 들지 못해요.

— 한은희, “김철녀인,” p. 39.

“듣던바대루 곱다야. 아직 평양여자같애”^{92/}라는 언급처럼, 평양을 특별하게 여기고 지방과 구별하는 인식이 크다. 평양에서 온 쌀을 ‘별스럽게 여기고’ 아끼는 행위처럼 평양이 곧 김정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혜영은 ‘주체철’을 생산해야 한다는 국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평양시민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버리고 청진에 왔다는 주변의 인

^{92/} 한은희, “김철녀인,” p. 41.

정을 수용한 후 평양에 가지 않고 청진에 남아 ‘김철의 여인’이 된다.

“평양사람”과 “김철녀인”의 인물들은 이주 지역에서 곁도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지방에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버지 또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 평양을 떠나야 했기에 이웃과의 경계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평양사람”에서 철산리 청년들은 리평네 가족의 단출한 이삿짐을 보고 그들 가족이 철산리를 ‘중간정류소’ 삼아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철녀인”의 혜영의 행색과 행동의 기준이 ‘평양’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평양중심주의는 평양 사람과 지방사람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소설은 리평과 혜영이 철산리와 김철에 용해되어 더 이상 평양으로 가고자 하지 않을 때에야 ‘진정한 평양사람’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평양이 특별하다는 인식의 경계가 더욱 뚜렷하다. 소설은 실질적인 지역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할 수 없기에 평양에서 온 사람들이 평양을 대리하고 녹아들으로써 지역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 가정생활의 외부 행위자와 대가정 연대

(1) 인민반의 돌봄 연대와 미담 재생산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가정의 영역을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이웃을 비롯해 주민들이 속해 있는 조직까지 가정의 영역에 포함했다.^{93/} 북한의 「가족법」은 가정을 사회의 기층생활 단위로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94/} 가족의 기

93/ 김미주,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가족담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69.

능과 역할에 통치 규율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이 모여 행정조직 중 가장 작은 단위인 인민반을 구성한다. 모든 세대가 소속된 인민반은 정치·사회와 행정조직을 결합한 정책집행의 말단 단위로^{95/} 가정생활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한다. 인민반에서는 각 가정의 사생활이 개방되어 있으며, 인민반원들은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상부상조한다.^{96/} 인민반장이 정치적 신임을 자각하여 인민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정일의 말과^{97/}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98/} 만들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은 인민반의 화목과 단합을 부각하는 최근 기사의 준거이다.^{99/} 인민반의 미덕과 미풍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고아를 보살피고, 작업반에 물자를 공급하며, 사회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나라살림에 보탬이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100/} 인민반 이웃과의 관계를 ‘한 식솔’, ‘대가정’으

94/ 「가족법」(1990.10.24. 채택, 2009.12.15. 수정보충),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21> (검색일: 2023. 8. 31.).

95/ 배영애,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제10집 2호 (2018), p. 95.

96/ 배영애,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pp. 9~10.

97/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 11일,” 『김정일 선집 2: 1970-197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00;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을 책임진 주인: 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 3. 19.; “인민반의 어머니, 다심한 주부,” 『로동신문』, 2023. 7. 24.

98/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 4. 19.

99/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이 국풍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23. 1. 14.;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인간,” 『로동신문』, 2023. 2. 23.; “화목한 이웃들,” 『로동신문』, 2023. 3. 18.;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을 책임진 주인-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 3. 19.; “우리 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 4. 18.; “인민반장의 새벽길,” 『로동신문』, 2023. 5. 31.; “인민반의 어머니, 다심한 주부,” 『로동신문』, 2023. 7. 24.

100/ 화목하고 단합된 인민반에 대한 기사는 “한 인민반에서 들은 이야기,” 『로동신문』, 2022. 11. 28.; “화목한 인민반,” 『로동신문』, 2023. 2. 2.; “자랑하고싶은 인민반,” 『로동신문』, 2023. 2. 27.; “화목한 이웃들,” 『로동신문』, 2023. 3. 18. 등 다수가 있다.

로 묘사한 소설에서 미덕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탁숙본의 단편소설 “이웃”(2019)은 새집 이사를 소재로 서로 돕고 사는 이웃 간의 관계가 서술되고 있다. 소설은 이삿짐을 싣고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인민반장은 꽃으로 장식한 고리가 달린 집 열쇠를 쥐여주고 인민반원들이 현관에 모여 박수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인민반원들은 이삿짐을 하나둘 들고 방에 가져가 정리해주며 새집과 새마을이 낫선 주인공 ‘나’에게 말을 건넨다. 이불장을 정리해주며 아이를 농구선수로 키울 생각이면 맡아주겠다는 키가 큰 여인, 몸이 아프면 언제든 말하라는 의사였던 할머니, 입맛이 없을 때 먹으라며 고추장 절임을 가지고 온 할머니까지 ‘나’는 이웃의 환대를 받지만, 이사 결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웃과의 정이 끊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걱정이어서 새집 이사를 반대했지만 남편은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관리국 직명위원장에게 말해서 사정이 딱한 세대에게 새집을 양보할 생각까지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래전에 이 아파트 이사왔을 때 반장어머니와 옆집에서도 거의 동시에 이삿짐을 풀었다. 그때 그들은 층수가 높은 우리 집을 두고 걱정을 했다. 당시 나는 한다리를 잃은 장애인으로서 아들쌍둥이의 어머니였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나는 여섯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에 의해 높은 층에서 살면서도 불편을 몰랐고 낮은 층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 탁숙본, “이웃,” 『청년문학』, 제12호 (2019), p. 25.

‘나’는 속도전청년돌격대로 일하던 당시에 북부철길공사장에서 동지를 구한 후 다리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 높은 층수에서 별탈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이웃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장어머니’로 불리는 인민반장과 이웃들은 다리가 불편한

‘나’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 생활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인민반장을 앞세워 찾아온 시인민위원회 책임부원이 ‘거기에도 이웃들이 있다’고 설득하는 새집 이사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가 시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웃의 보살핌이 국가의 장애인복지의 사각을 채웠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주제는 “도시가 아니, 온 나라가 다같이 이웃으로 살고있는것이 우리 나라가 아닌가요!”라는 인민반장의 말과 “한집안, 한식솔로 사는 내 조국, 얼마나 따뜻하고 정으로 가득찬 좋은 나라인가”라는 주인공의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101/}

인민반은 이웃 돌봄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동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역할도 한다. “이웃”이 보살핌이 필요한 장애인을 인민반이 나서서 돕는 서사라면, 공천영의 단편소설 “60청춘”(2017)은 연로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분조장으로 일하면서 인민반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는 노인이 주인공이다. “60청춘”의 춘화는 연로보장을 받아야 하는 63세 노인이지만, ‘청춘의 기백’으로 각종 사회동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인민반사업에도 앞장서고 농촌지원에도 몸을 아끼지 않으니 구 사무소의 일꾼들도 좋아하고 농장에서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앞에 서나 뒤에서나 신뢰의 향기를 풍겨주는 것이었다. 언제인가는 사무장까지 찾아와 집살림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며 나라에서는 연로 보장자들, 로인들의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는데 생활에 불편이 없는가, 사회적으로동에 앞장서는 것은 고맙지만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친절하게 권고하는 것이었다.

— 공천영, “60청춘,” 『조선문학』, 제5호 (2017), p. 73.

101/ 탁숙분, “이웃,” p. 26.

춘화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은 푸른 잎’이라 여기며 인민반 생활을 하며 사회적 노동이 ‘보약’과 같으며 삶의 재미와 젊음을 준다고 생각한다. 춘화처럼 집단을 위해 앞장서고 돌봄이 필요한 주변에 진정을 다 한다는 노인의 이야기는 ‘애국’으로 재생산된다.^{102/}

지역구에서 춘화의 건강과 생활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묘사된 것처럼 북한은 「년로자보호법」을^{103/} 제정하여 노인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연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제30조~제33조) 노인의 ‘자발적인’ 사회노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노인은 인민반의 노인분조나 가내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국가부양의무는 가장 후순위에 있어 가족이 없는 노인은 인민반이 사회적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노동신문에서 소개되는 인민반 미담에 노인 돌봄이 많은 까닭은 여기에 있다.

노동신문 기사나 소설은 “서로 돕고 위해주는 인민반원들의 아름다운 소행”^{104/}을 서술함으로써 인민반을 이상적인 기층조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려운 생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위하며 산다는 인민반 사례는^{105/} 미담과 미풍이 일상에 확대될 것을 기대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인민반에 부과된 각종 역할과 통제에 대해 불만과 저항을 다독이는 역할을 한다.

102/ 허건일, “애국충정의 마음에는 로쇠가 없다.” 『조선녀성』, 제8호 (2018), p. 22; “애국의 마음에는 로쇠가 없다.” 『로동신문』, 2022.9.8.; “애국의 인생을 살자.” 『로동신문』, 2022.10.26.;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 『로동신문』, 2022.3.18. 참조.

103/ 「년로자보호법」(2007.4.26. 채택, 2012.4.3. 수정보충),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1> (검색일: 2023.8.31.).

104/ “화목한 이웃들.” 『로동신문』, 2023.3.18.

105/ “화목한 인민반.” 『로동신문』, 2023.2.2.; 위의 기사.

(2) 인민반장의 모성 리더십

기층단위에서 사회구성원을 결속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인민반장이 한다. 인민반장은 해당 인민반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주민들에게 존재감과 권한이 매우 크다.^{106/} 인민반장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과제와 세대별로 내야 하는 지원물자를 관리하고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일상통제를 책임진다.^{107/} 국가와 당의 정책이 일상에서 집행되도록 하는 인민반장은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인민반장의 검열과 통제를 사회적 압력으로 느낀다면, 공적 언술은 주민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인민반장의 모습을 전한다. 인민반의 단합과 화목을 이끄는 인민반장의 본보기는 주민의 불만이나 인민반장과의 불화를 불식한다. 인민군대를 원호하고 노병이나 고아를 혈육의 정으로 도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솔선한다고 소개되는 것처럼,^{108/} 인민반장은 이신작칙하는 모범을 보이는 기층조직의 관리인이다.

모범적인 인민반장 역할은 매 세대들의 사정과 형편을 “손금보듯 꿰들고”^{109/} 보살피는 데 있다. “알뜰한 일솜씨와 뜨거운 인정미”로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하여 풀어주며 인민반 세대를 ‘한식술’로 품는 어머니 역할도 한다.^{110/} 인민반장

106/ 배영애,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p. 2.

107/ “인민반은 인민반장을 통해 해당 구역의 주민들을 모두 관리하며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노인까지 모두 일상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인민반장은 주로 숙박 검열을 통한 외부방문자 감시, 각 세대의 위생검열(목욕이나 이발),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 관리, 불온서적의 출판물 검열, 전기검열, 각 가정의 양육문제와 부부싸움 등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도와 일상통제를 책임지고 있다.” 배영애,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p. 24.

108/ 본사기자, “참된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조선녀성』, 제2호 (2017), p. 30.

109/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을 책임진 주인-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3.19.

110/ “인민반의 화목을 위해,” 『로동신문』, 2023.4.25.

의 책무는 모성의 리더십으로 인민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반장어머니’ 호명이다.

‘반장어머니’로 불리는 인민반장은 사적인 모성 경험을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한다. 모성이란 용어가 자녀에 대한 어머니 역할(mothering)을 함축하듯이 ‘반장어머니’는 인민반에 대한 어머니 역할을 인민반장의 본분으로 내재한다. 인민반장에 대한 공적 언술 대부분에서 보살핌의 행위는 사회적 차원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비단 인민반장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초급단체 간부들이 사회 속의 다양한 보살핌을 실천하도록 모성 리더십의 가치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111/}

인민반장의 모성적 보살핌은 방역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 두드러졌다. 2022년 북한이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했을 때 주민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보낸 사람은 인민반장이었다.

식구많은 우리 집이 힘들거라며
인민반장 들고왔던 한바가지 쌀이
내 집 밥가마에 하얀 김 올리고
체온을 재어보고 처방을 떼주며
하루에도 그 몇번 문두드리던 소리

지금도 다정히 우리 집에 올리고

— 성영길, 시 「눈물로 새긴 모습」, 시초 「맑은 아침」 중에서,
『조선문학』, 제9호 (2022), p. 25.

동시에 다급히 문두드리는 소리와 인민반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약국에 파견되어온 군의부문 전투원들이 의약품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 당의 사랑이 어린 불사약을 먹고 나는 고열과의 싸

111/ 양민석, “모성의 사회적 확장과 여성 리더십,” 조형 역음,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 리더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pp. 106~110 참조.

음에서 승자가 되어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 오혜심, “향기,” 『조선문학』, 제9호 (2022), p. 63.

환자를 찾아 하루에도 그 몇번 찾아오던 담당의사선생님, 식량과 부식물이 떨어질세라 세심히 걱정해주던 친정어머니와도 같은 인민반장이주머니 그리고 동사무소와 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의 모습들이 그 목소리와 함께 떠실려온다.

— 김철복, “문두리는 소리,” 『문학신문』, 2022.9.10.

최대비상방역체계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와 수필, 단상에서 인민반장은 ‘친정어머니’처럼 각 세대를 돌며 건강과 식량을 챙기고 의약품 배포에 힘썼다. “생물학적인 질병을 ‘덕과 정’이라는 공동체의 윤리와 연대로 극복했다는 내러티브는”^{112/} 인민반장이 발휘한 헌신과 관련된다. 노동신문 기사에서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앓는 세대들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차례 약국을 오가고 자기 가정에 떨어진 부식물보다 이웃들의 식생활을 걱정하여 아파트의 층계를 씹없이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만짐을 지고 뛰어다닌”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었다.^{113/}

사실상 방역위기 때 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보살폈던 인민반장은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공백을 채운 주체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기층조직이 대신했던 것이다. 인민반장의 헌신은 ‘당의 신임과 기대’를 받는 ‘인민의 총복’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과 본분으로 규정되고 있다.^{114/} 인민반장은 인

112/ 이지순, “북한 문학의 팬데믹 재현: 재난 리더십과 코로나19 경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12, 2023.3.28.), p. 5,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ba20cea6-2103-4b88-bf7e-cce6391b27b2>> (검색일: 2023.9.25.).

113/ “인민반의 어머니, 다심한 주부,” 『로동신문』, 2023.7.24.

114/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을 책임진 주인-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3.19.

민반 세대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일탈하는 주민 통제가 원활하다. 게다가 인민반이 수행하는 사회동원과 작업반 물 자지원은 북한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한다. ‘한 식솔’ 및 ‘대가정’의 단합과 화합을 이끄는 인민반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속내는 주민통제와 사회지원, 체제유지와 연결되어 있다.

(3) 가정생활 결정에 관여하는 외부 행위자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인민반과 인민반장이지만, 가두여성(가정주부 또는 전업주부, 북한식표현)이 가입하여 활동하는 초급여맹위원회부터 반사회적 행위를 적발하며 법을 집행하는 보안원과 보위부원의 영향도 크다. 북한문학의 주인공은 주로 사회와 집단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인물이 등장하며, 부정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법의 구속력을 받을 정도의 범법이 아니다. 따라서 문학에서 단속과 처벌을 주로 행하는 보안원과 보위부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에 당 간부는 인물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간혹 등장하며 가정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배경휘의 단편소설 “첫걸음”(2017)은 주인공 ‘은숙’이 간석지 대형차량 운전사이자 청년돌격대원으로 성장하는 내용으로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은숙이 운전사가 되는 과정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지자로 나서고 삼촌이 결심을 대견하게 여기자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내 죽은 다음에나 은숙애비 마음대로 하라구. 그러나 내가 앉아있는 동안엔 은숙이를 대학에 보내야 해. 운전사가 뭐야, 운전사가? 흥, 그 약한걸 차에 앉혀가지고 며칠 가겠어? 애를 병신 만들 잡도린가?”¹¹⁵라는 외할머니의 반대가 가장 거셌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요청으로 분사업소당

위원장이 방문한다.

당위원장동지가 직접 은숙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운전사를 시키자고 하는 바람에 내 어쩔수 없이 승낙하고말았다.

— 배경휘, “첫걸음,” p. 25.

모두에게 존경받는 당위원장이 ‘어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한 끝에 은숙은 허락받을 수 있었다. 당위원장은 가족 구성원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던 진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는 후방에서 제방 현장으로 보내는 결정도 내린다. 은숙에게 운전을 가르친 아버지와 합의를 본 후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차근차근 설득하는 사람도 당위원장이다. 운전사 진로는 은숙 본인이 선택했지만 당위원장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를 수 없었다.

당위원장이 은숙의 장래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자의 범주가 당으로까지 소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어머니’가 되어보자던 당위원장의 말은 당을 어머니로 비유하는 관습에 따라 당과 인민의 관계처럼 당위원장과 은숙의 관계를 맥락화한 것이다. 게다가 할머니의 동의는 당의 결정을 따르는 인민의 순응을 환유한다.

비록 분사업소긴 해도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산하기관과 단체를 지도하고 통제한다. 소설에서 분사업소당위원장이 키맨 역할을 한 은숙의 진로 결정은 “당정책의 운명이 초급당 역할에 달려있”다고^{115/} 할 정도로 당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초급당위원장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김정은의 방침과 관

115/ 배경휘, “첫걸음,” 『조선문학』, 제2호 (2017), p. 25.

116/ “김정은위원장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한 결론,” 『조선중앙통신』, 2016.12.26.

련되어 있다. 제방에 나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당위원장의 말은 김정은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간척지 개발을 역점 과제로 꼽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117/} 과제로 하달한 김정은의 정책 방향을 실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은 리명순의 단편소설 “친정나들이”(2019)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수도의 식료상점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경숙은 80 고령으로 홀로 사는 친정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모셔가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어머니는 “난 아직 너희들의 짐이 될 생각이 없다”^{118/}라며 거절한다. 경숙은 어머니가 ‘우리위원장’에게 준다는 사위의 스웨터 선물을 따로 챙기고 말끝마다 위원장을 꺼내며 고향에도 분공수행에 열심인 어머니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까닭이 동당위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경숙이 만난 동당위원장은 ‘큰어머니’로 불리고 동주민의 이름과 칭호와 모두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숙은 어머니를 모셔가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

어머닌 새로 이사오신 전쟁로병 아무개지요? 하는게 아니겠니?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자기가 동당비서(당시)라는게 아니겠니? 그 래 다시 봤다. 뭐 특별한데가 없더구나. 헌데 그가 불쑥 이렇게 묻 지 않겠니? 어머니넌 식량이 모자라지 않나요?... 난 그 물음에 눈 물이 나왔다. 나라가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구있던 때여서 녀자들이 누구보다 허리띠를 더 바싹 졸라맸던 때였지. 헌데 그 녀자는 자기 자식두 아닌 남의 집 식량걱정을 다 해주더구나... 난 그 한마

117/ “북한, 국경지역 평북 월도 간척지 완공... “농업발전 토대 구축,” 『연합뉴스』, 2022.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8059200504>> (검색일: 2023.9.3.).

118/ 리명순, “친정나들이,” 『조선문학』, 제8호 (2018), p. 67.

디 물음에 그 녀자의 금새를 다 매겨놓았더랬다. 내 짐작이 틀릴리 있겠니? 제 집 재산을 퍼내어 그것으로 어려운 세대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벌써 20여년째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있단다. 사실 우리 위원장은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는 감초 한가지란다...

— 리명순, “친정나들이,” pp. 71~72.

어머니와 동당위원장의 인연은 고난의 행군기까지 올라간다. 대어근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에 새로 이사 온 어머니의 식량 사정을 헤아리던 동당위원장의 일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아들을 잃고 생을 포기하려던 어머니를 보살핀 것도 동당위원장이었다.

동당위원장은 수십 개의 인민반으로 구성된 동의 관리자이다. 인민반장에게 국가 방침을 전달하고 물품 동원과 생산을 지시하는 초급당위원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녀자를 보면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체취를 느끼게 된단다”^{119/}라는 어머니의 고백은 초급당 일꾼의 모성적 리더십의 체감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당위원장은 전쟁노병을 존중하고 보살피고 이웃의 화목을 두텁게 하는 고상한 정신세계의 체현자이다. 소설의 주제는 자신과 어머니와만 연결되었다고 생각되던 친정나들이가 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온 나라로 이어졌다는 경숙의 깨달음에 있다. 경숙과 어머니의 관계에 외부 행위자인 동당위원장이 개입함으로써 사적 가정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119/ 리명순, “친정나들이,” p. 75.

Ⅲ. 계층·지역별 가정생활의 다양한 모습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계층·지역별 가정생활의 다양한 모습

이 장에서는 구술사 시각에서 주요 사례분석을 통한 ‘가정생활의 총체성’을 드러내려 한다. 분석 주제를 중심으로 절단되어 묘사되는 가정생활은 자칫 모자이크 조각만을 보여주는 결과를 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층 간 격차가 중요한 가정생활을 탈북민 구술에서 밝혀진 대표적 도시와 농촌의 주요 사례^{120/}를 선정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밝힌다.

1. 하층, 농촌과 도시 가정의 사례

가. 지독한 가난 속 애뜻한 가정

(1) 옥수수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싶어

2021년에도 옥수수밥을 배불리 먹는 것이 꿈이었던 평안남도 농촌 출신 20대 청년 칠성 씨(사례 5, 가명)는 아직 한국에서의 ‘배부르고 자유로운 삶’이 믿기지 않는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연한 사건으로 두만강을 건넌 후 난생처음으

^{120/} 사례별 특징은 서론의 <표 I-4> 계층·지역별 가정생활 사례의 특징을 참조하길 바란다.

로 고기를 배불리 먹으며 들어봤다. 농촌 하층민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외부문명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는 ‘탈북 후 현재의 삶’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럽곤 하다.

빈부격차가 심한 북한의 농촌에서 최하층 농민가정에서 생활한 칠성 씨는 군대 갈 때까지 약 20년을 하루 세끼 풀떼기에 옥수수가루를 넣어 끓인 ‘강냉이죽’을 먹고 살았다. 어릴 적 엄마에게 “옥수수밥 좀 해달라”라고 졸랐다가 그 상황이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었던 엄마에게 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한다. 칠성 씨는 입대 한 후에도 곰팡이가 낀 밥일지라도 처음으로 주기적으로 먹어봤다. 그는 2020년 군대 가기 전까지 자신의 가정에서 먹고살았던 생활실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한국에 못지않게 북한도 빈부의 차이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기준을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저희 같이 살아온... 저희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아마 최하층이라고 말해야 될까.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저희는 솔직히 옥수수밥을 변변히 못 먹어 봤어요.(북에서. 그럼 식사를 어떤 걸로?) 풀로 먹죠. 냉이나 뭐 이런 거. 풀뿌리 이런 걸로. 옥수수가루 이렇게. 가루 조금 이렇게 넣어서 죽을 쑤어 먹고 그러죠. 그렇게 하루 세끼 먹죠. 저는 거의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군대 나갈 때까지 그렇게 먹었어요. 군대 나와서 처음 그저 밥이라는 거 주기적으로 먹어 봤죠. 어렸을 때 “엄마 내 옥수수밥 좀 해달라”고 하다가 엄마가 안타까우니까 자꾸 때리고 그런 기억도 좀 있고.”^{121/}

121/ 밑줄과 강조는 면접자(이하 동일).

(2) 농촌 가정은 대부분 하층생활

칠성 씨는 2021년 현재 북한의 농촌 가정은 대부분 하층민으로, 숨죽이고 생활한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때 마을에서 그렇게 사는 분이 열 가구에 몇 가구나 그렇게 먹고 살았나요?) 대부분이 그렇게... 저 농촌에 살았는데 지금 살면서 가장 불쌍한 게 농민계급이고요. 정말 이게 인간 취급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예요. 농장원. 지금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차마 말도 안 나와요. 농촌... 이게 임격정 아시겠지만 그저 그때 시대죠. 백정은 그저 농사하는 기계, 짐승 동물로. 소보다도 못한, 소나 개보다도 못한 인물들이죠.”

“제가 기억나기에도... 어렸을 때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만세(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는 부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아빠에게 물어본 적 있었어요. “아빠,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니깐 “뭘” 해서 “아니 나라에서는 1년 365일 일해도 아무 것도 주지 않는데 아빠하고 엄마는 왜 매일 나가서 이렇게 그냥 일을 해주나?” 하니깐 때리더라고요. 저를, “그런 말 하지 말라. 잡혀간다. 수갑 채워서 끌고간다”라고 해서, “왜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나?” 하니깐 “맞는 말인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디 가면 농장원의 본분이기 때문에, 농장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말하라. 너 그런 소리 했단 잡아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잘 사는 인간들은 일을 안 하거든요. 나와서 호통이나 치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 타고 다니고, 너무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알곡을 생산한... 쌀과 벼를 생산

한 사람은 옥수수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걸 하나 만지도 않은 사람은 흰쌀도 골라 먹으면서 산다는 걸 보면 좀 이상한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감히 말은 내뱉지 못하는 사회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와 생각해 봐도 농민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국인들이 상상도 못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해도 상상도 아만 안 갈 거예요. 집도 뭐... 아직도 초가집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진흙으로 다 벽을 바르고.”

(3) 농촌에 중층생활 가정은 간부 가정

칠성 씨는 농촌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간부들이고 “농장원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라며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관리위원장은 잘 살죠. 관리위원장, 당비서. 그리고 또 농촌에서도 반장이나 비서, 서기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밥술은 굶지 않죠. 잘 산다고는 말 못 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핸드폰도 없어요. 다 오토바이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나 있으면 잘 사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자전거를 놓고 기준으로 볼 때, 잘 사는 편이죠.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제가 못 산다는 농민들의 삶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자전거 한 번도 못 만져봤어요, 군대 나갈 때까지.”

(4) 돼기밭으론 먹고살기 힘들어

한편, 김정일 시대부터 농촌에선 농민들에게 국가수매사업 외에 개인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돼기밭(개인경작밭)을 나누어 주었는데, 김정은 집권 후 도둑들도 많아지면서 그것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웠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땀기밭은 있어요. 땀기밭, 어느 정도 있는데 뭐 그게 효력을 못 내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씨를 또 구매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체로 감자도 심고 뭐 이렇게 좀... 거기서 뭐 한 30% 도둑한테 또 바쳐야겠죠. 다 도둑...(도둑이라면 간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 도둑. 밤마다 이렇게 그걸... 매일 밤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거의 다 도둑 맞히고 이러는 거죠. 뭐. (도둑은?) 저 같은 사람들이 도둑질해가죠. 젊은 사람들이. 펄펄 나는 것들이 하나까. 솔직히 뭐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제 나이에 북한에 지금 그때까지, 아직 살고 있다면 저도 아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고. 그 무거운 걸 캐서 매고 달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이렇게 얼굴 뭐 쓰고 도둑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다 가을하고 나면... 한 6~70% 가을 하면 그거 조금 좀 도움이 되죠.”

“어쨌든 제가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군대 나올 때까지, 저는 가족이 뭐 가을에 분배받은 거 한 번 보지 못했어요. 자체로 산에서 부대기를 일궈서 좀 고구마라도 심고, 옥수수 조금 심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째째이 탄을 추시고(석탄을 주워 팔고)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좀...”

(5) 신기하고 부러운 손전화(휴대전화)

2021년 탈북하기 전까지 칠성 씨도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휴대전화도 갖고 자유연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았으나, 자신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도시에 가면 다 핸드폰하고. 평성시만 해도 이런 핸드폰(한국의 스마트폰)은 못 쓰고요. 이런 핸드폰은 그때 제가 나올 때(2021년)까지 없었고. 요만한 핸드폰 있잖아요. 단추 뽁뽁 누르는 거. 그런... 그런데 이런 손전화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손으로

티치하면 되는, 이걸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이. 이런 건 뭐 부자나 쓰는 거다 생각을 했고, 이렇게 좀 조그만. 그때 북한말로 말하면 따거다라고 하는데 손전화. 조금 밀거나 단추 누르면 되는. 그런데 그거 구경하러도 이따금씩 나가곤 했어요. 손전화라는 게 뭔지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면은.”

“도시에 나가면은 요런 아이들까지도 요만한 거 가지고 “여보세요?” 하며 다니면 신기해가지고, 부러워가지고, 저것들은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저런 걸 쓸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뭐 어떻게 이용되는지, 어떻게 누르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그거 부러워... 어쨌든 한국처럼 이렇게 온 가족이 핸드폰 가지고 그런... 도시에 없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핸드폰이 다 뿌려졌더라고요, 도시에는, 시골에는 한 대도 없고, 저희 마을에도 하나도 없었어요.”

(6) 그럼에도 높은 충성심

이렇듯 농촌주민들이 무노동·초과노동에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생활을 함에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은 도시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칠성 씨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삶의 질이 낮을수록 더 높은 거 같아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굶어 죽으면 죽을지언정 김정은을 모시겠다는 그런 입장이 투철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라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국경을 넘으면서 생각한 게 나는 뭐 나라가 나쁘고 김정은이 나빠서 탈북하는 건 아니고 순간에 육하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넘지마는 두 군데는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는 김정은한테 죄송하고, 두 번째는 나를 17년 동안 먹여서 키워서 군대 내보내 준 부모님들에게 죄송하고 해서 국경을 넘는 순간까지도 김정은 동지한테

는 죄송한 마음으로 국경을 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원수님한테 고맙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드는 건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알게 돼요. 북한은 원래 그렇거든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건재하고 자살자도 한국에 뭐 이만큼 될 때 요만큼도 안 되는... 아주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북한이 경제는 가장 한심한 나라지만, 그 원인이 바로 이게 세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세뇌 교육. 태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거나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하면은 여기 한국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 나쁜 놈이야. 예수님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면 이거 당장 죽일 놈이라고. 미친놈... 그거나 마찬가지로.”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환상에서 그러니까 “하늘이 낸 위인”이란 이런 주입을 받고 매일 매 시각 듣고, 교양 자료 보고 저녁에 와서 밥 먹으면서 티비에 그 현지 지도하고 인민들 눈물 흘리면서 만세 부르고, 매일 그 태어나서부터 그때 말 못할 때부터 그걸 매일 보고 매 순간 보고 자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인이 백이는 거예요.”

철성 씨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일반인과 다른 존재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인지했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걸 언제 느끼셨나요?) 저는 뭐 초등학교 되니까 벌써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환상에 벌써 완전 문혔더라고요. 초등학교쯤 되니까, 하니까 한 8살, 9살 되니까 벌써 ‘김일성’ 하면, ‘김정일’ 이걸 일반인과 좀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신과 같은?) 네, 그죠.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 한 번 휘두르면 다 날씨가 변하고 비 오던 날에 해 나고 그저 이런 완전히 환상에 물 젖었죠. “와,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망하겠구나.” 이런 완전히 환상에 물 젖은 그렇게 되죠.”

(7) 2009년 화폐개혁과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하층민 증대

칠성 씨는 탈북 전까지 북한에서의 가정생활을 돌아보며, 2009년 화폐개혁을 기점으로 하층민이 증대하였다며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2007, 8, 9년도가 조금 괜찮았던 거 같아요. 북한이 화폐교환을 하기 직전애가 가장 좋았던 거 같아요. 화폐교환하면서 북한이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했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망했던 거 같아요. (하층민이 더 많이 망한 거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북한의 정보... 이게 구입 이런 게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대로 다 믿으니까 그저 북한에 속아가지고 화폐의 가치가... 금용이 계속 높아지니까 쓰지 말고 놔두라. 거기 속아가지고 너무 순간에 올라 버려가지고 그 돈의 가치는 쪽 떨어지고 하다 나니까 다 망해버려 가지고 너무 어렵고...”

특히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 10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가정생활에 변화가 있나요? 김정은 집권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칠성 씨는 김정은 집권의 햇수가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살기 힘들어졌다고 구술한다. 특히 그가 살던 농촌에는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 10년 지났잖아요.金正은 집권이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좀 더, 좀 더 열악해졌다고 보면 되죠.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가을에 어느 정도라도 이렇게 농장원들에게 조금 좀 푸는 그 기별이라도 좀 있었어요. 다만 1년에 옥수수 50킬로라도 이렇게 주고, 벼 이렇게 30킬로 이 정도라도...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뭐 내라는 것도 많고, 국민들의 혈세는 계속... 전기도 점점 더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사일 쏘 올린다는 소식만 자꾸 들리고, 보편은 와, 진짜 점점 가면서... 가장 심한 게 전기더라고요, 보편은 예전에 비해서 한 3분지 1, 4분지 1로 이렇게 쪽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그런...(전기가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은 더 열악해지는 거죠. 태양열광판 뭐 배터리 하나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래도 태양열판 쓰는 사람들이 열 집 중 몇 집이었나요?) 제가 나올 때만 해도... 군대 나올 때만 해도 태양열을 그 광판을 많은 사람들이 좀 구매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허리띠 조이면서 해놓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뭘 캐다 팔고, 뭘 해다 팔고 해서라도 그저 한 마을의 30%는 그걸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농촌에서, 2021년 그때는?) 저녁마다 암흑과 지옥이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서러움 있고, 저희 집은 뭐 나올 때까지 (태양열광판을) 해놓지는 못했지만은 진짜 뭐 요만한 전지 하나로 그저 살았죠. 하니까, 등잔 디젤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잔도 켜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저희 집도. (태양열판도 없으면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그냥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대로 사는 거죠. (일이 없으면) 그냥 자죠. 저희 집은 티비도 없었으니까요.”

(8) 어둠을 뚫고 돈벌이를 찾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녁에 무작정 누워만 있었으면 칠성 씨 가족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도 칠성 씨 가족은 철길에 나가 탄을 주워와 팔고 누나는 옷가공을 하며 최소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 경험에 대해 칠성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럼 자는 시간이 많겠네요? 그런데 뭐 많을 수가 없죠. 또, 자는 시간이 많으면 북한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 뭐 해요?) 탄을 쳐가지고 팔고 이러죠. 그러니까 철길에 나가서 탄을 चु니다(줍는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잠을 자면 살 수가 없는 게 무보수로동 하잖아요. 남편과 와이프가 다. 무보수로동하고 와서 자고, 나가서 무보수로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와서 자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거 하나도 없고, 일은 계속 하고 하면은 못 살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해 뜨는 시간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이걸(노동) 바치고, 그다음 시간에 자기가 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북한의 삶이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고 그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 뭘 해가지고 팔고, 뭘 해가지고 팔고 해서 그다음에 그건 자기 몫이거든요. 그다음에 버는 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가공을 하고, 저희 누나도 가공을 했어요. 도시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옷에다 구슬을 박아서 저고리를 만들고, 뭐 이런 거 누나가 좀 재간 있어가지고, 누나는 그거 만들고, 누나도 힘들게 살았었죠. 여자로서, 누나도 일했거든요. 농장에 나와서, 졸업하면 다 군대 못 나간 여자는... 우리 누나는 발이 이렇게 좀 안으로 굽어져가지고 다행히 군대를 못 나가 가지고 면제돼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또 그걸 하고.”

“저는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철길에 가서 로반에 가서 탄을 추거든요. (북한의) 철길을 보시면 이렇게 자갈 있어요. 레일이 있고 철 레일 쇠 레일이 있고 이렇게 자갈밭이 있어요. 그런데 열차가 사람 태운 열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한국처럼 전철만 다니는 게 아니고 화물 시멘트 차 다니고 연료 차도 다니고, 석탄 이렇게 실은 차도 다니는데 그 째이 있어요. 열차에, 그 째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흘리는 거예요. 탄들이 흘러면은 자갈밭으로 이렇게 쪽 들어가겠죠. 철길에 나와서 이렇게 삼으로 그 자갈을 헤치고 그다음에 속 안에 고인 거 이렇게 담아서 채를 받아서 탄을 밑에 떨구거든요. 나가면 한 50킬로씩 추워 오죠. 한 마대 50킬로면 그저 2시간 정도 추면은 그렇게 돼요. 그거 추워서 오면 그저 옥수수 한 네 킬로 정도 받거든요. 그럼 그걸로 또 먹고살고 이러는 거죠. 탄도 못 때봤어요, 저는.”

(9) 흡수저로 태어나 살아가기

2021년 북한의 20대 청년으로 살았던 칠성 씨 역시 남한 청년들과 같은 금수저, 은수저, 흡수저와 같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부와 계급의 대물림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북한에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이런 생각 안 드나요?) 그저 임꺽정 시대를 생각했어요. 저는, 왕의 자손은 왕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나마나 왕 되는 것도 김정은의 자식이 되겠죠. 또, 김정은이가 뭐 딸을 싸든 아들을 싸든 거기 싹 놔. (부모가 잘 사니까 잘 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임꺽정이다 생각했죠. 백정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태어난 게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했

고, 뭐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 욕하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재는 나보다 우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육체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학생, 잘 사는 집의 자식들에게는 당연히 수모를 받고, 학폭을 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뭐 (이제는) 이렇게 육체가 건강하지마는 그때는 너무 몸이 약해서, 운동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뻥하잖아요. 집도 가난하고, 경제도 너무 빈약한데 몸까지 육체까지 허약하니까, 그저 왕따를 당하고 바보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저... 그런데 그걸 뭐 억울하거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또 억울하고 기가 막힌 거죠.”

(10) 술과 가난

한편 북한 가정, 특히 하층민 가정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여전히 ‘술’과 ‘가난’이다. 칠성 씨 가족도 애뜻하고 화목한 편이었으나 젊은 시절 아버지가 사는 게 힘들어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폭행하곤 했다. 그 바탕에는 가난이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칠성 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가정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였나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컴퓨터, 태양열판, 빙두, 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시골에는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그 외에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술을 끊으셔가지고, 예전에는 술 때문에 좀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하시더라고, 매일 매 맞고 아버지한테. 그 어렸을 때는 뭐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말할 수 없으니까, 엄마 맞는 거 보기만 하고 그런...”

“(술을 마시면 가정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나나요?) 다 그래요. 남편들이라는 게. (술 마시면 왜 그렇게 때리나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요... 저도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군대 때. 그러니까 아는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술이라는 액체가 몸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고. 이 사람 몸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서로 몸에 들어와서 노는 작용은 똑같거든요. 역할은. 그래서 저도 술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술, 담배 다 끊었지만. 군대 때 너무 힘 들어가지고 막 술 먹고.”

“그런데 술 먹고 저도 보니까 야, 이거 술주정하고 먹고서 와이프들 때리고 하는 남자들, 이거 개새끼들이로구나. 이거 쓰레기들. 하나... 정신이 멀쩡하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기억되고요. 기억 안 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뺨이고. 술 먹고 와이프 때리고 뭐 집어던진 거 기억 안 난다? 이거 다 쓰레기들. 다 기억나요. 이게 모든 게 다 멀쩡해. 다만 그저 기분이 조금 좋고, 몸이 조금 이상하다. 힘든 게 조금 좀 풀어진다는 정도지. 하나 뭐 이렇게 뭘 집어던지고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11) 안타깝고 비겁한 화풀이

칠성 씨는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북한 남성들에 대해 가난으로 인한 ‘안타깝고 비겁한 화풀이’라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냥 술을 빗대고 술을 구실로 삼고 술 마시고 화풀이를 하는구나. (답답하니까.) 그죠. 맨정신으로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런데 보면은. 제가 매일 들어본 것도 그 말이에요. 경제, 가족관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는 아마 그런 말이 있을지는... 없

을 거예요. 아마 북한에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난이 원수다”
이게...(한국에도 그런 말 있어요. 특히 옛날에.) 그때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이게 사랑이 깨지더라
고요. 가난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옥수수 한 바가지를 놓고 아
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이런 갈등이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을 끊으셨는데.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식들
이 점점 성장하고 하면서 좀 보는 눈도 있고, 또 힘도 점점 자라고
하니까 아버지도 좀... 술을 끊으셨는데 절대 안 드시더라고요... 담
배는 못 끊으셨어요. 아버지가. 담배는 이걸 마약이기 때문에 못
끊더라고요. 저 군대 때 담배 세계 봤는데 저도 담배 힘들게 끊었어
요. 저는 손가락 깨물면서. 경제가 너무 가난하고, 살림이 너무 가
난하다 나니까 싸움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걸 좀 더 아껴서 어
떻게 하자느니, 자식들 좀 먹이자니 이런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와 관해서 좀 갈등이 너무 심했
던 거 같아요.”

(12) 가난하다고 행복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칠성 씨 가족은 한방에서 살아가
며 애뜻한 가족애를 나누었다며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북한에서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거에 관해
서는 뭐 한국이나 다를 바 없을 거 같습니다. 뭐 생활상 흐름이나
모든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양적 질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만은 그래도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한국이나 뭐 다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 인간들이고, 나라가 다르고, 정부가 다르고,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하늘과 땅 차이 이런 삶을 겪고 있지
마는 그래도 다 같은 인간이고 다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으로써

가정이라고 하면은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귀한 모든 고민을 떨쳐버리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국수 한 그릇, 옥수수밥 한 그릇일망정 나누고 다 같이 편안히 대화를 나누고 잠들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 하니까 많이 기대되는.”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그거죠.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을 위해서 무보수로동을 하면서 그저 오직 기대되는 따뜻한 보금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온돌이 따뜻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진 무보수로동과 고역 그 속에서도 끝내고 다 같이 저녁에 가족이 모여 앉아서 입담도 나눌 수 있고,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다 하니까 좀 안식처죠.”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누구나 다 소중하고, 무슨 일을 하든 시간에 저녁에 빨리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이미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한국이나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3) 한방에서 생활하는 북한의 보통 가정

북한의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이 북한의 대부분 가정은 (소수 최상층을 제외하고) 방이 2개라도 한방에서 모든 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칠성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저도 듣고 깜짝 놀란 게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따로 자는 방이 있고 뭐 자식들은 그거 보면 안 되고 딸 방을 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한 가족에서 저게 가능하나. 그런 게 없어요. 북한엔. 다 같이 살아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방 한 칸에서 다 쓰고?) 그죠. 다 같이. 온 가족이 생활하고, 좁죠. 솔직히 여자

들은 더 자주 씻는 이룬데 뭐 샤워실도 없고 하니까 또... 솔직히 가족이지만 눈치 안 본다는 것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삶의 흐름 자체가 다 부모 방, 남녀 방, 동생 방, 누나 방 그런 이런 이미지가 없었어요.”

“가족이다 하면 그저 한 집안, 한방에서 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북한의 가정은 더 돈독하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걸 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나요?) 그런 거 같아요. 한국처럼 좀 삶이 그렇지도 않으니까.”

(14) 빨리 자리 잡아 가족을 데리고 와야

북한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며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애뜻한 가족애를 경험했던 칠성 씨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학업에 매진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에 온 지 4개월, 아직 많은 걸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북한의 부모님을 모셔오고 싶은가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뭐 된다면은. 내가 지금 그래도 월세라도 집을 쓰고 살고 있고. 흰쌀이라도 배를 곯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충분하진 않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건만 된다면 모셔오고 싶죠. 모셔다 부모님들... 한국에 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모든 건 다 자유가 있고, 선택의 권리가 있고, 뭘 하나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라서는 나라가 아니에요. 노력하면 열매가 얻어지는 이런 나라에 하루빨리 모셔오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나. 무력한 폭력 남편을 견디지 못한 이혼 가정

(1) 사회생활에 좌절한 남편의 폭력

함경북도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왔던 순남 씨(사례 2, 가명) 가정은 먹고사는 데 한 달에 약 50달러를 쓰는 도시 하층민의 생활을 하였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즈음 23살에 결혼한 그는 결혼 초부터 지속된 남편의 술과 폭력을 견디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기 5년 전 어렵게 이혼을 하였다. 남편의 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막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재판이혼제도를 지속하는 북한에서는 이혼도 돈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이혼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남편은 보안원(한국의 경찰)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연줄과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실이 답답했던 그는 장마당을 단속하는 규찰대도 해보고 고기잡이 뱃일도 해보았으나 권력과 돈에 근접하기는 너무 어려웠다. 순남 씨 가정이 그나마 도시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남 씨가 장마당에서 장사도 했지만, 틈틈이 도와주었던 시댁, 함께 생활했던 어머니, 그리고 친정 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2) 15년 만에 이혼

순남 씨와 같은 도시 하층민 가정에서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남편의 가정폭력^{122/}이 비일비재하다. 이혼을 하고 싶어

122/ 주목할 점으로 북한에서 가정폭력은 대개 남편이 아내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자식에 대한 폭력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이 아내에 이어 자식에게까지 행해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에 비해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그 원

도 하루 벌어 먹고사는 도시 빈민의 처지로는 쉽지 않다.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고 참다 이혼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순남 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북한에서 가정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건가요?) 기억에 남는 거. 가정하면... 실지 가정은 자식을 키우면서 뭐 남편도 이렇게 좀 챙겨주며 가정이라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5년 전에 이혼해가지고, 이혼 이유가 저희는 남편이 계속 술 마시고 때리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혼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저는 바로 이혼을 하려 했는데, 그때 이혼이 너무 힘들 어가지고 그걸 오래 끌고 오다가 5년 전에 한 거죠. 한국 오기 5년 전에 한 거고, 그래가지고 가정이라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진짜 그, 이게 진짜 가정이다 하고 재밌게 살아본 기억은 하나도 없고. 남편한테 조금 좀 많이 당하며 살다나니까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거죠.”

“(남편의 성격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북한, 특히 그 지역 남자들이 그런 건가요?) 그런데 우리 북한은 대체로 이렇게 저희 남편 처럼 이런 남자들이 많거든요. 가정에 들어가서... 북한이 살기가 조금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 보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보면 저희 주위에서도 보면 가정이 정말 저 가정은 진짜 내가 보기에든 부럽게 사는 가정은 사실은 얼마 없었어요. 다 그냥... 저희 남편처럼 술 마시고 때리는

인 중 주목할 점으로는, 북한의 가정에서 자식은 어머니의 그늘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가부장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관념에 비해, ‘아버이 수령’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겐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에 아버지가 쉽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가족법」에서도 자녀는 어머니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혼 후에도 3살 미만 자녀의 양육권은 1차적으로 어머니에게 주어진다. 「가족법」(1990.10.24. 채택, 2009.12.15. 수정보충),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21> (검색일: 2023.8.31.).

것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이 또 따로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운다던가 이런 것도 많은데, 대체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가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폭행하는 그런 예가 좀 더 많거든요.”

“김정은 집권 후 이혼하셨는데, 그때는 재판이혼이라도 이혼하기 좀 쉬웠나요? 안 쉬웠죠. 결혼하고... 저희가 결혼해서 바로 저희 남편이 자꾸 이렇게 때리다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사람하고 못 살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애가 바로 있어가지고, 사실 애 때문에 많이 그냥 참으며 살은 거죠. 그런데 이혼이 잘 안 돼가지고 (이혼 제기하고) 15년 만에 한 거죠.”

(3) 가난이 초래한 가정불행

순남 씨는 살던 지역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심한 폭력을 쓰는 가정의 비율을 약 30%라고 증언한다. 순남 씨 부부가 40대 장년층이고 남성중심적인 봉건적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들이 할 일이 없고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 돈이 생기면 술, 담배, 빙두(북한산 마약)를 쉽게 접한다. 무력한 하층민 남성일수록 현실도피적으로 술과 폭력에 젖어드는 것이다. 순남 씨는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게 경제인데, 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화목한 가정생활이 어려웠다고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가정은 이렇게 부부간에 너무 의가 맞아 재밌게 살며 자식하고 함께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가정이죠. 그런데 그걸 제가 못해 가지고 가정이란 그거... 박사님 질문하시니, 가정이 뭐지? 할 정도로 느낌이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가정에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았나요?) 좀 이 가정이라는 게... 그거는 무조건... 가정은 여자들이 나이가 되면 남자를 만나가지고 자식을

놓고 이걸 생활이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는데.”

“그렇게 그 가정이라는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 저는 50%도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우리 북한사람들의 생활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성격인 거 같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고 나니까 성격도 다 변하는 거 같아요. 네, 경제적인 문제죠. 그런데 실지 한국도 같잖아요. 경제가 안 되면 가정이 화목도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싸움도 좀 많아지고. 네, 일단은 경제가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그게 다 제대로 된 거 같지 않아요.”

(4) 외부문명을 접하며 가정생활에 불만이 커져

북한의 도시 하층 가정이 경험한 가정생활의 변화에는 정권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50여 년간 북한에서 가정생활을 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모두 경험한 순남 씨는 김일성 시대를 가장 좋은 시대로 기억하며, 가정생활을 하면서 국가 탓을 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라고 한다. 순남 씨 가정의 경우, 해외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모두 겪으셨잖아요. 시대마다 가정생활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순남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가정생활은 그래도... 저희가 가정이라 하면 시집오기 전에 부모하고 살던 때가, 그때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가 웬지 저희는 아직... 여기 와서 김정일이 나쁘고 김일성이 뭐 그렇고 하는 걸 들었지 그땐 저희가 몰랐잖아요.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그냥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김

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때 진짜 힘들게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그런 진짜 나쁜 감정도 하나도 없고 그냥 좋았어요. 그러가지고 결혼하고 진짜 막 힘들게 살면서도 국가가 이렇게 돼서 저희... 우리 힘들구나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식한 때가 탈북하기 전, 한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진짜 정부 탓인가? 이런 걸 조금씩 좀 인식하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부터 된 거 같아요. (2015년 정도?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맞아요, 한 2015년, 그런 생각은... 너무 저희가 힘들어, 그때부터 힘들게 고난의 행군부터 몇십 년을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한국 드라마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린 주위를 못 보잖아요, 북한 너무 이렇게 닫아 매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5) 고기 먹기 힘든 하층 가정은 물과 전기 공급도 더욱더 어려워

한편, 순남 씨와 같은 도시 하층민 가정의 먹고사는 생활 모습은 어떠할까? 순남 씨 가정을 비롯한 2019년 기준 북한의 도시 하층민들은 하루 세끼로 쌀밥이나 잡곡밥, 옥수수국수 등에 김치, 콩나물 등 채소를 주로 먹는다. 고기는 명절 때나 먹는 음식이다. 북한도 2015년경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 중층 정도만 되면 밥 먹는 문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층민들 중에서도 도시에서 장마당 장사라도 하는 가정에서는 쌀밥을 주식으로 한다.

순남 씨 가정에서 수도물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급되었다. 생활수는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다 쓰고, 먹는 물은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북한에서 생산한 “샘물(생수)”을 사서 먹었다. 전력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에 매 가정에서는 태양열판과 배터리(충전기)를 개별 구입

해 사용하였다. 태양열판과 배터리 용량은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역에서도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나 시간이 있기에 돈을 주고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한다. 하층 가정의 전기사용 수준을 순남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전기는... 북한도 조금 잘 사는 데 있고 못 사는 데 있잖아요. 잘 사는 데는 조금 이렇게 전기 나오는 그런 데하고 사업해서 다 전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태양열 아니면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바테리(배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일부러 이렇게 돈... 전기 들어오는 데 가서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돈을 내서 충전해오거든요. 이걸 한 번 충전하면 그걸로 이렇게 등 같은 거는 못 보죠. 전기가 많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12볼트로 보는 거. 그거 작은 거, 그걸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한 번 (충전)하면 이게 용량에 따라 이렇게 오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만약에 티비 같은 거 있잖아요. 노트북이라던가 노트텔 같은 거 있거든요. 작은 거, 그걸로 지금 저희가 몰래 한국 드라마도 다 보는 거 있어요. 그거까지 보면 오래는 못 보죠. 그래가지고 전기 같은 건 진짜 북한에 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집집마다 이런 개구리 등 같은 거 그걸 전기 얼마 안 들어가지고 그것도 딱 시간 외에는... 밥 먹는다던가 그 시간 외에는 다 끄는 거죠, 그걸 아까워가지고. (등 하나 켜고 생활하는 거고, 배터리로 일주일 정도 사는데, 배터리 한 번 충전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돈으로는 중국 돈, 아는데 가면 거저, 공짜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짜가 없잖아요. 이제 말하면 중국 돈 10원 정도예요. (북한 돈으론) 12,000원이에요. 싼 건 아니죠.”

(6) 한 칸 집 생활에 빨감이 중요

순남 씨와 같은 도시 하층민 가정은 방과 부엌이 구별 없이 한 칸으로 된 한국식으로 보면 원룸 생활을 한다. 가정생활에서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감이다. 빨감이 있어야 밥을 해 먹고 추위를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순남 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주택에 사셨잖아요. 방이 몇 칸이었나요?) 제가 살 때는... 처음에는 결혼할 당시에는 단층에서 살다가, 단층이면 북한 집은 대체로 그런 게 많아요. 그거 이 정도 사이즈(한국의 3평 수준)거든요. 그 정도 해가지고 북한 집들 보면 주방하고 이렇게 방이 다 이렇게 통칸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저희 살 때는 이렇게 이 솔이라 하죠. 쇠가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주방에 이렇게 달려 있고. 그냥 불 때서 했어요. (몇 년도까지 불 때신 거예요? 곤로 같은 거 안 쓰시고?) 지금도 빨감 때요.”

“북한은 나무 사다가, 석탄 같은 거 사다가. 그런데 그 석탄도 엄청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불 못 때는 집이 좀 많아요. 그게 사실은 불 때는 값이면 그걸로 식량 같은 거 사는 게 더 낫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게 연진탄 같은 게 나왔거든요. 구멍탄 같은 거예요. 그건 또 엄청 싸요. 그거 하나면 밥을 다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번개탄같이?) 맞아요. 구멍 송송 뚫리고. 그런데 그거 북한은 좀 절약해가지고 좀 작아요. 높이는 좀 높죠. 그 정도 사이즈면 밥하고 반찬하고 국까지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그게 너무 좋죠, 우리 북한사람들한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멍탄이에요. 구멍 송송 뚫다고. 그걸로 하고.”

“아직도 북한은 난방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궁이에다 불 때가지고 방 안을 덥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

아요, 아파트도 그래요. 가마가 다 있어요, 북한은 지금도.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좀 가스 쓰는 집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워 가지고 딱 밥할 때만. 중국에서 가스통 같은 게 따로 나오거든요.^{123/} 그걸 사다가 가정집에 들여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냄비는 또 따로 사는 거죠. 곤로 같은 것도 가시고, 다 중국 거예요, 저희는.”

(7) 너무나 꿈같은 한국의 식생활

순남 씨는 한국에서 약 3년 정도를 생활했다. 그에게 “한국에 오신 지 3년 됐잖아요. 북한과 한국에서 살림하면서 가장 큰 차이는 뭡가요?”라고 질문하니, 주방에서 밥해 먹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진짜 한국에 오니까 너무 꿈같은 일이죠, 이거는. 저희 주방에서 한 번 한 끼를 해 먹으려면 여자들이 너무 부담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은 나무를 사다가 또 아궁이에 불을 지피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게 “한 끼 해 먹기 힘들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한 끼 해 먹기도 너무 힘들다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 같은 것도 그냥 여기는 수도 탁 틀면 바로 물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또 이렇게 펌프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주방에 가서 하려면 보통은 앉아서 다 하거든요. 처음에 여기 와서 너무 익숙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는 다 서서 하잖아요. 주방이 높다 나니. 저희는 이렇게 다 낮아요. 그냥 바닥하고 딱 똑같은 거죠. 바닥 면하고. (불고기라도 하나 재려면 야채도 씻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밥을 하는데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밥하고 국하고 해서 반찬 3개 정도 놓는데, 그런데 불... 이게 달궈야 되잖아요. 솔도.”

^{123/} LPG 가스를 담은 가스통으로 추정됨.

(8) 화폐개혁 후 2015년 기점으로 가정생활의 변화

순남 씨는 북한에서 가정생활 수준이 변화 발전되었다고 느낀 시기는 2015년경이며, 가정생활을 변화시킨 중요한 물질로 중국을 통해 건너온 것들을 지목한다. 특히 2009년 북한 화폐개혁 후의 중국 돈, 노트북(컴퓨터 기능이 없는 노트북, TV를 대체하며 USB 재생 등에 활용), 휴대전화라고 한다. 국경지역과 가까운 청진시의 경우 중국 돈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주목할 점으론 그 배경이 북한의 화폐개혁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순남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태양열판, 컴퓨터 등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잖아요. 북한의 가정생활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물질문명은 뭐가 있을까요? 물질 문명은... 북한은 아무것도 나오는 거 없잖아요. 이게 식품이라던가 뭐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북한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문화가 생활수준이 조금 발전한 게 중국을 통해서 발전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아무리 힘들 때도 중국하고는 북한이 그걸 거래를 했잖아요. 개별적으로도 밀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저희 오기 한 5년 전(2015년)부터 사람들 생활이 조금씩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바뀌기 시작한 건 저희가... 북한이 화폐교환을 2010년도^{124/}에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진짜 힘들게 장사를 했는데, 국가에서 화폐교환을 탁 하면서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 화폐교환을 해도 저희 돈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

124/ 북한당국의 화폐교환은 2009년 말에 이루어졌으나, 일반 주민들에게 그 여파는 2010년 초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 중에는 자신들의 생활을 기준으로 화폐개혁은 2010년으로 증언하기도 한다.

자면 무조건 중국 돈이라던가 달러를 깔아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 달러로 깐 사람들은 돈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북한도 이게 장사가 중국 돈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북한은 중국 돈으로 그냥 쓰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화폐교환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생활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돈을 모아봤자 국가에서 화폐교환을 하면 다 돈이 없어지는 거, 그럴 바에는 좀 이제는 자꾸 돈을 모으지 말고 사람이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사람들의 생활이 10년 전부터 조금씩 올라서기 시작한 게 제가 오기 5년 전(2015년) 후에부터 사람들의 생활이 엄청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래가지고 명품 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북한도, 그다음 개별적으로 개인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택시가 또 많이 나왔어요. 북한에서 택시를 많이 풀어가지고, 북한은 자전거 하나면...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기차도 바로 안 뛰고 버스도 바로 안 뛰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다음 개별적으로 개인차도 생기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중국 수입... 물건도 많이 입었고 옷 같은 것도 신발 같은 것도.”

(9) 노트텔을 통한 외부 문명의 유입

또한 “김정은 시대에 가족관계나 의식주 생활에 영향을 미친 물질이 어떤 건가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순남 씨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이야기한다.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이제처럼 사람에게... 그거 노트텔하고 핸드폰하고. (UBS 사용해서 한국 드라마 등을 컴퓨터로 안 보고 노트텔로 보신 거죠.) 네, USB로 꽂아가지고 한국 드라마 보는 거죠. 그거를... 그제 애들이 많이 신경 썼어요. 노트텔 진짜... 부모들이

별면 “이번에 제일 뭘 사고 싶은가?” 하면 진짜 “이 노트북 하나 사고 싶다” 할 정도로 그게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노트북도 있고 노트북도 있어요. 다 중국 거거든요. 노트북은 컴퓨터인 거죠. 그런데 노트북은 컴퓨터 역할은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화면으로. (그걸 따님이랑 같이 보셨나요?) 네, 같이 봤죠. 둘이 앉아서 북한 거는 그냥 걱정 없이 봐도 괜찮은데, 한국 거 같은 거는 진짜 잡히면... (북한 거 같은 것도 USB로 해서 봤나요?) 원래는 티비로 보거든요. 북한도 그게 통로가 있잖아요. 만수대 통로도 있고 통로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북한 거는 신경도 안 쓰죠, 저희는. 북한 거는 신경을 안 쓰고...”

“태양열판은 그냥 조명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배터리)는 노트북. 노트북뿐 아니라 또 이 정도 크기... 그걸 액정이라 하거든요. 액정티비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이거 배터리로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실지 돈 많은 집은 배터리 이렇게 엄청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큰 것도. 차에 막 쓰는 그 정도 배터리. 그거는 진짜 오래 보거든요. 그거. 그걸로 어떤 집들은, 괜찮은 집들은 이거 큰 액정티비 까지도 보거든요. 그거 티비나 같은 거니까.”

순남 씨 가정을 비롯한 도시 중하층민들의 의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물질은 노트북을 통한 외부 문명의 유입이다.

“노트북이...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 결국은 노트북을 통해서 한국문화 같은 걸 저희가 보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노트북은 한국뿐 아니라 저희가 미국영화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드라마까지도 다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중국 생활이든 한국...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통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사는구나 하는 걸. 대체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느라고 그걸 못 보고, 이거는 그렇게 마음대로 볼 수가 없고 딱 저녁 시간에 봐요. 모두, 그래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대체로 보면 저희가 이거 단속하는 상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걸 단속하는 상무들이 밤이면 대체로 돌거든요, 문 다 잠그고 저녁 시간에 보거든요, 10시부터면 한 2시, 새벽 2시 정도까지, 이게 돌려 돌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매일은 안 보고, 어떻게 매일은 못 봐요, 진짜로, 그냥 한 달에 세 번, 네 번 정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 빠르잖아요, 이런 데에 민감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보지 않을까.”

(10) 하층 가정에서도 여가문화가 형성

2015년을 기점으로 북한 사회에서 이제는 쓰고 살아야겠다는 문화가 확산되며, 북한 하층민 가정에서도 여가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드라마 등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 바닷가나 휴양지로 돼지불고기 등 음식을 싸들고 가서 가족, 연인, 친구 들끼리 신나게 놀며 스트레스를 풀곤 한다. 이에 대해 순남 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가정에서 휴식이라고 할까,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노트 텔로?) 네, 진짜 그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조금 좀 높이 올라선 게... 이렇게 쉬는 날 같은 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우리 명절 같은 때 있잖아요, 뭐 우리 명절은 4월 15일, 그 태양절 같은 때라든가, 아니면 8·15 해방날 같은, 7·27 전승기념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 바닷가 놀러 가서, 바닷가... 재밌게 놀아요, 지금은, 그때는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삼겹살이라는데 저희는 불고기라 하거든요, 이렇게 불판 같은 거 가지고 나가서, 저희는 돼지불고기라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오징어라 하는데 저희는 낙지라 하거

든요, 불고기 같은 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족이 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연인들끼리 갈 때도 있고, 북한 생활도 좀 어느 정도 올라선 거...(당일치기로, 아침에 갔다가 하루)."

“차는 이제처럼 이렇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좀 우리 북한에서는 개인차가 사실은 없잖아요. 여기처럼 개인차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장사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트럭 차도 있어요. 빌려서 가는 것도 있고 자기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가는 거죠... 저희 사는 데서는 바닷가까지 얼마 안 멀어요. 여기서 지하철역으로 5개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어디 여행 같은 거 가자면 제주도 같은 데는 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 그 바닷가 주위, 저희 사는 데는 집 가까이 됐거든요. 그냥 집 앞에서 보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굳이 차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가족이 재밌게 걸어가도 될 정도의 거리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오기 전까지는 버스도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버스도 이용하고.”

“(바닷가에서 하루씩 가서 불고기 먹고, 노는 거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던가, 배터리 가져가서 놓고 그러나요?) 그죠. 거기서는 저희는 녹음기라 하지, 그렇게 그거 들고 가서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먹기도 하고. (주로 친구들이랑 같이 가나요? 아니면 가족 단위로 가나요?) 친구들이 가는 것도 많고, 가족들이 가는 것도 많고. 지금은 북한도 진짜 살아봐야 뭔가 지금 자꾸 없잖아요. 계속 살고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뭐인가 자꾸 추구하며 사는데 그 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제는 좀 벌어서 자꾸 놀러 다니자. 그런데 북한은 놀러 다니는 것도 딱 막아놨으니까 북한 안에서 밖에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역에 있는 바닷가라던가 그냥 그렇게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놀러 가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인가요?) 1년에... 그전에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자주

가요, 사람들이. 딱히 명절이 아니라도 이번 주말은... 주말도 아니라도 날씨가 좋다면 이렇게 하면 가족끼리 “우리 이번에 한 번 놀러 나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요, 지금은, 하층민들도, 지금은 이렇게 장사를 풀어 놓다나니까, 옛날엔 진짜 고기 같은 거 먹자면 딱 명절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좀 수입이 괜찮다 하면 그냥 고기 같은 것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된 거죠. 저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11) 계층 간 생활격차 확대

청진시에서 살았던 순남 씨는 북한을 떠나기 전(2020)에 이미 그 지역에서 가동하는 공장이 없었다고 한다. 모두 시장을 통해 하루살이 벌이라도 해서 살아야 하고, 출근하는 직장은 보안서나 청년동맹 등 국가 공공기관들뿐이다.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계층 간 생활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순남 씨는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잘 사는 가정이다 하면 저희는 그... 그 사람이 어떤 장사를 하는 거 보고 잘 사는 건지. 네, 이제처럼 매대를 하나 가지고 있다던가. 북한은 상점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던가. 그러면 벌써 저 정도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 저희가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가정은 배를 몇 척 갖고 있다던가. 개인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나무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오징어 철에는 오징어잡이 나갈 때는 그거 한해에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뿔고 뿔고 해서 돈 많은 집들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엔 하나 갖고 시작했던 이런 분들이 좀 돈이 늘게 되면 배 같은 거 두 척, 세 척 가지고, 그걸 보면 저 집은... 그다음 이제처럼 돈이 많이... 트럭 같은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집이면. 트럭 같은 거는 그게 아마 가격이 한 만 달러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게. 그러면 아, 저 집은 어느 정도 또...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거, 배를 가지고 있는 집, 상점을 가지고 있는 집 이런 게 북한에서는 좀 높이 잘 사는 계층이죠. 그게.”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어떤가요?) 진짜 제일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 이거... 장사라는 거는 사실 밑천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거 장사를 시작하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못 사는 집은 이제처럼... 저희 북한 보면 이렇게 집을 싼고 다니는 이런, 여기서 구루마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그걸 끌고 다니고 남의 장사물건을 실어주는 거죠. 그게 제일 최하층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집에 돈이라는 건 아무... 1전도 없는 거죠. 그날 그거 끌어가지고 와서 그날 번 걸로 그날 먹는 거죠. 북한에서는 그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 딱 직업이라고 정한 건 없어요. 네, 하루 벌이하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남자, 그런데 지금 여자들도 많아요. (청진에서 이렇게 하루살이 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딱히 짐 구루마 같은 거 아니라도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 열 집이면 하루살이가 50% 정도도 넘을 거 같아요.”

“(열 집에 다섯 집. 그렇게 많았다고요? 이분들은 출근도 안 하고?) 네, 북한은 출근이 없어요. 회사가 없잖아요. (공장이 있긴 있지만) 출근은 보면 보안서라던가 그다음에 국가기관... 그런 데만 출근 있지 그다음 사실 회사도... 청진에서 회사도 사실 많아요. 좀 넓은 대도시 다니니까 회사는 많은데, 이 회사도 사실은 다 개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국가 명칭으로 하는 거죠. 그 회사에 혹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돈을 투자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출근 있지 북한은 이제 출근이 거의 없어졌어요. 진짜로.”

“그다음에 또 청년들 단속하는 청년동맹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종사하는 그 사람들. 그런 국가기관 같은 게 출근 있지. 우리 같은 진짜 사람들이 어디 벌려고 가는 회사 같은 게 없거든요. 아예 없어요. 진짜로. (그래도 남자들은 무조건 어디 적을 뒤편에 되잖아요?) 적을 뒤편에 되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처럼 적을 두는 경우에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 회사가 다 개인회사인데 거기다 적을 두는 거죠. 적을 두고 출근은 안 해요. 출근은 안 하고 반대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북한은 실지 그 회사는 없는데 출근 안 하는 걸 무직업자라고 단속은 또 엄청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런 개인 회사들 같은 데에 걸거든요. 적을 걸어놓는 거죠. 외화벌이 회사예요. 네, 이제처럼 개인 바다를 운영하는 사람은 또 그런 바다를 운영하는 자기 명칭이 다 있거든요. 국가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국가 거라든지 개인 거라든지 거기 무조건 적을 거는 거죠. 거기다. 적을 걸고. 사실 거기 출근해도 자기가 할 일이 없거든요. 북한은 자기 개인 장사 외에는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 데 가서 노가다 같은 일을 해서라도. 또 혹시 회사에 제기된 일이 있으면 회사 거하고. 회사에 계속 거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알바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다 세금 같은 형태로 돈을... 8·3이죠. 돈을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12) 2010년 기점 저출산 문화

순남 씨는 북한 가정에서 자식 하나 정도만을 낳는 저출산 문화가 자리 잡은 시기를 2010년 이후라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자식을 이쁘게 잘 키우고 싶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만 낳을 수밖에 없고, 도시 중하층민 가정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북한에서 딸 하나만 낳고 더 안 낳으셨어요?) 안 낳았어요, 저는. 북한도 지금은 이렇게 애들 잘 안 낳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죠, 많이. 사실은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뭐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애들 안 낳아요. 지금도. 그래서 북한도 애들 2명 벌써 그 정도 낳으면 “왜 저렇게...”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게 한 10년 전부터예요. 벌써 그때부터 애들 안 낳기 시작했어요.”

“북한도 지금은 조금 좀 사람들이 다른 문화도 보고 이래가지고, 진짜 애들 키우려면 예쁘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모르고 가정이라는 게 이뤄져가지고 애를 그냥 낳았거든요. 그냥 낳고 보니까, 진짜 애들 키우기도 힘들고, 애들이 너무 예쁘게 못 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도 터 가고 하면서 야, 이거 애를 이렇게 낳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애를 잘 안 낳았죠. 그리고 저때도... 저희 때는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그렇게까지 애들 안 낳은 때도... 그때부터 조금 시작이 된 거예요. 실지 그때부터 애들 안 낳기 시작한 거. 그래도 저는 애는 더 있고 싶었거든요. 하나면 실지 외롭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 같은 게 있으면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도 형제끼리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저도 좀 그런 생각 있었는데, 아빠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더 낳고 싶지 않은 거죠. 자꾸... 그런 사람 애를 더 낳고 싶지가 않은 거죠.”

(13) 다른 세상에서, 자식의 미래를 꿈꾸며

순남 씨가 북을 떠나기로 결심한 원인은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생긴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심과 함께, 무엇보다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니 고향에서의 미래가 안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혼을 못 했거나 국경에 사는 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고향을 떠나진 못했을 거라며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북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뭐가요?) 저는, 북을 떠나겠다는 거는... 사실 다 드라마를 본 거죠. 인간이면 남들처럼 좀 잘 살아보고 싶고. 그런데 진짜 북한에서 본...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진짜 그건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지. 왜 우린...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은 많이 했죠. 우리도 저런 데에 갈 수 없을까. 그런데 그때 그 주위에서 보면 저희는 저 청진에서 살다 나니까 잘 몰랐어요. 언니네 같은 경우에는 국경에서 살다나니까나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가족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낀 거죠. 저희도 저기 가서 좀... 그런데 그때는 한국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해. 다만 중국까 지라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지. 그런데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좀 자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 데에 가서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자식이 좀 커가니까나 자식들도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서 저도 가면 나보다도 ‘딸하고 같이 가서 살면 어떨까?’ 생각은 좀 많이 했었죠. 그때부터 생각은 한 5년 전부터 했거든요. 한 2010년 지나서부터. 그런데 저희는 안 되는가 했어요. 누가 갔다면 부럽기만 하고.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했다가... 언니가 량강도에 있다 나니까 이제 더는... 아빠하고도 이혼하고 뭐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점점 더 진짜 그렇잖아요. 제 가정이라는... 그래가지고 여기 오자고 생각한 거 같아요.”

(14) 그리운 나의 어머니

그렇게 원하던 탈북을 하고 북한생활에 비교하면 천국 같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50대인 순남 씨는 고향의 어머니가 너무 그리다. 금쪽같은 내 새끼는 일찍 이 사회에 적응하여 발랄하게 살아가는데, 순남 씨는 자꾸 몸이 아프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

“(남한의 가정생활, 북한의 가정생활을 보면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오면 진짜 좀 내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지 와보니까... 저희 딸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한국에... 어리니까 적응도 빨리 되고 좋아하는데. 제가, 제 생각은... 물론 한국은 자유국가라서 너무 좋죠. 그런데 이거 사람이 가정생활이란 결국은 자기가 노력 안 하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보다는 한참 많이 낫죠. 진짜 국가에서도 저희 북한사람에게... 많이 엄청 해주잖아요. 너무 잘해주고 그건 좋은데, 결론은 사람 사는 건 가정이 사는 데는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거 같아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신... 많이 좋죠, 한국이 많이 좋은데 대신 또 그게 계속 가족이 그리다나니까나 이게 조금조금 마음을 아프며 산다 할까. 네, 저희 가정생활에서.”

“가족을 그리면서 사는 거죠. 엄마도 보고 싶고, 고향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사실 거기선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대신 생활은 아주 편찮아졌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고 외롭고?) 네, 그거 때문에. 자식이 왔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북한에서 거의 그래도... 제가 이젠 오십 지났으니까. 40년 이상을 북한에서 살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게 좀 힘들어요, 고향 생각. 그게 좀 힘들어요. (여기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새로 맞을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같이 온 분들은... 저희 나이 또래분들은 지금 다 살아요. 다 남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데 저는 진짜 여기 와서는... 남편한테서 너무 맞으며 살아가지고 전 여기 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이랑 꾸리고 좀 살아야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싹 바껴졌어요. 여기 와서 내가 왜 굳이? 이게 남자를 새로 맞아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지? 계속 옆에서 지인분들이 그래도 남자는... (왜 그럴까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거 같아

요. 귀찮은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북한에서 살은 그 가정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나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이런... 그게 뭐 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데다 몸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조금 좀 몸이 엄청 아파요. 저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15) 그럼에도 “지금, 너무 딱 좋은 거”

고향의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오십 평생 북한에서 여태 참았던 사신이 아파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지만, 순남 씨는 “일단은 한국에 온 게 너무 좋아요”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저희 북한에서는 뭔가 사람이 이렇게 억누르는 거 같아요. 사람을.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몸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뭘 또 이렇게 지켜야 되지. 너무 북한에서 사람 통제 속에서 살다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불안감. 그렇게... 네, 거기다가 또 국가가 사람을 불안케 하는 데다가 남편마저 그렇게 하니깐, 저는 항상 심장을 조이며 살았거든요. 뭔가 누구 날 억누르는 이렇게. 그런데 한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누구도 간섭 안 하고, 내가 노력만 하면 살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물론 외로움은 있어도 대신 그냥 내 몸이 그저 탁 풀린 거예요. 와,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너무 저희가 인민반장은 반장대로 보안은 보안대로 사람을 자꾸 이렇게 통제를 하며 통제 속에서 살다보니까. 그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탁 풀려가지고 너무 지금 좋은 거죠. 지금은 그게 좋아요. 자유. 한마디로 너무 자유잖아요. 여기는.”

“(2~3년 있으면서 좀 안 좋은 점도 보셨죠? 남한 생활에도?)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안 하고 그냥 수급자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거래가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감정밖에 없어요. 지금은, 너무 딱 좋은 거.”

2. 중층, 도시와 농촌 가정의 사례

가. 맞벌이 중산층 가정: 경제권은 평등하나 육아·가사는 오롯이 아내 몫

(1) 장동건 닮은 군인 남편과 연애 결혼

명순 씨(사례 9, 가명)는 스스로 북한에서 상류층 삶을 살았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람들은 아사하는데 친정은 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이 불편했다. 유복한 가정의 2남 4녀의 셋째 딸로 태어난 명순 씨는 결혼 전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고 했다.

“그 90년도 제일 힘든 고난의 행군 때, 집에 사람 오는 걸 좀 부끄러워할 정도로 좀 괜찮게 먹은 거 같아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기 잘했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저 하고픈 거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명순 씨는 군인(장교)이었던 남편의 직업뿐 아니라 권투, 격술 등 격한 운동을 잘하고 장동건 닮은 외모에 반하여 연애를 2~3년 하고, 2000년에 부모님도 만족하는 결혼을 했다. 자녀는 딸 1명을 2002년에 출산했다. 남편은 함경북도에 살다가 군복무를 위해 명순 씨가 살고 있던 평안남도로 오면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애를 했다. 남편도 명순 씨가 그 지역의 잘 사는 집의 딸인 것을 알고 본인의 장래 등을 고려해서 연애를 시작했다. 결혼생활은 부부싸움 크게 한 적 없이 대체로 만족했다.

“남자들은 대개 그 지대에서 군복무하면서 어느 집이 잘 사는 걸 알아요. 남자들은 대개 사는 집 여자를... 자기 앞날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함북도가... 산골이에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고 저희 집에 그러니까 평안남도에 떨어질 걸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걸 원해서 떨어질려면 재산이 좀 있고 괜찮게 사는 집을 원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그냥 맞았으니까... 남편이 말도 잘 하고요. 생긴 게요, 이게 뭐야 저희 딸이 여기 와서 <신사의 품격>을 보더니 “우리 아빠는 장동건이처럼 생겼어” 그래요. 딸이 그 정도니까 이렇게... 거기다 옷까지 잘 입으면...”

(2) 부부 각자 수입을 관리하면서 유다른 가정생활을 영위

경제난 이후 북한 가정의 경제권은 여성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125/}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수입은 여성이 관리한다. 그런데 명순 씨 부부는 각자가 번 수입을 독립적으로 관리했는데 이는 북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사례라고 했다. 장사를 하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타인보다는 배우자에게 빌리는 것이 편하고, 또 부부 어느 한쪽이 망했을 때, 나머지 배우자의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부부가 각자 관리했다고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장사하고 저는 저대로 장사하고. 저희는 여기를 때까지, 오는 순간까지 남편 재산 따로 있고, 저도 재산 따로 있고. 제 돈으로 여기 왔어요. 좀 특이한 생활 했어요. 왜냐면 장사하는 분야가 달랐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재산을... 북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남편이 장사하면 아내는 뭐 같이 그 재산을 이렇게 합류해서 쓰는데, 저희는 경쟁식으로... 부부간에 경쟁식으로 돈을 벌고... 집에다가 각자 보관하는 거예요, 저는 제 돈을 따로 보관하

^{125/} 김혜영, “북한 가족의 특징과 변화의 불균등성: ‘고난의 행군기’ 이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9권 1호 (2017), pp. 67~104.

고,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보관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
는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장사라는 게 망할 순간도 있잖아요. 그
걸 대비해서 각자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장사하다가 밑돈이
없으면은 남한테 꾸느니 우리 남편한테 꺾가지고, 남한테 꾸면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자. 네, 그런데 이자 없이 그냥 꺾 쓰고, 남편이
좀 모자라면 내 돈을 주고, 네, 이런 식으로, 그게 북한에서도 있을
수 없어. 우리는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특이하게도 산다”고...”

명순 씨 부부가 돈을 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평양에 거주하기
위해서였다. 부부는 본래 평양시 출신이었다. 명순 씨의 친정아버지
가 평양시에 살다가 축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시대에 축산업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평안남도에 배치받으면서 이주하게 되었
다. 4천 달러만 있으면 평양시민증을 살 수 있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어느새 일만 달러로 오르면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

“저희가 거기서 장사를 더 많이 바쁘게 힘들게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한 거는요. 원래 평양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둘 다 평
양시 출신이니까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아빠가 축산대학교를 졸
업하고 배치를 받은 게 평안남도 ○○군이라는 고장에 배치를 받아
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축산대학이라고 있어요, 7년짜리. 네, 그
러니까 김일성이가 그 북한 주민들을 “이밤에 고깃국 해 먹이겠다”
고 축산에 그거 할 때, 축산대학을 해가지고... 그 평안남도 도중
축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모든 그 새끼돼지 생산기지거든요. 거
기서 모든 각 도에 다 보내주던 그 기업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기사장으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배치를 받다나니까, 저희가 거기
온 것이거든요... 아빠 따라온 곳이니까 마음은 항상 그래도 평
양... 저희 남편도 평양 ○○○구역 ○○ 사람이예요. 여기에서 다
지방에서 서울 와서 일자리 얻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평양에서 살
아보고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평양시민권 증명 그런 거

가 4천 달러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했는데... 그런데 4천 달러를 버니까 이제 만 달러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자꾸... 여기도 이리잖아요. 옛날에 얼마 하었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 처럼 한 번 거기(평양)서 나오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3) 한국은 화장실 청소해도 돈을 준다!

평양시로 입성할 꿈은 실현하지 못했고, 남편은 “앞으로 국경지대가 더 활발하니까” 함경북도로 갈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 명순 씨는 반대하다가 결국 함경북도로 이사하였다. 함경북도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과 연계된 일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함북도 와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한국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한테 일 시키는 것도 또 그런 거 일 시키는 거야. 한국 사람들 연계된 거. 국경에서 밀수업자들에게 대한 그 감시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듣고. 그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한국 친척, 딸 이런 사람들이 보내준 걸로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돈 준다는 거 자체는 거기 잘 사니까 돈 주는 거 아냐.” 그러니까 긴가민가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하며 일부러 접근하면서 하다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더 많이 인적으로 인간관계로 가깝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화장실 청소해도 돈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야, 한국에 가면 화장실 청소해도 돈 줘. 이렇게 힘들게 장사할 필요 있어?” 머리 쓰고 때울까 봐 그래, 기차에서 단속될까 봐 그래. 그거 안 해도 화장실 청소하면 하면 되잖아. 화장실 여기서처럼 이렇지 않

다며 물로 청소한 다음에...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거기서도 인민반장도 했거든요, 오기 전까지. 그런데 아침마다 일도 할 것도 많아. 장사도 해야 되겠는데, 제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집집마다 다녀요. “빨리 나와서 청소하라” 그러고 이런, 그거 다 공짜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돈 준다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마을 청소를 공짜로 우리가 해주고 그다음에 공동변소를 우리가 다 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화장실 청소 그거 돈 준다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고, 한국에 친척 있는 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면 일자리 차려질까?” “너 아직 한창...” 제가 그때 마흔다섯에 떠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마흔다섯, 40대가 젊은 거래요. 진짜일까? 우리는 여자들은 55세면 자기 일은 끝마치는 걸로 돼요. 60이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처럼 그걸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남편은 돈 벌러 러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러시아 가니까 여자들이 많이 우대를 받더라. 그런데 한국은 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라며 노골적으로 한국으로 갈 결심을 내비쳤다. 그러나 남편은 탈북에 실패해서 같이 오지 못하고 명순 씨와 딸만 한국으로 왔다.

“러시아 갔다 오고 나서 더 깎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더 저거한 사람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자긴 한국 가겠대요. 노골적으로.”

(4)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적극 지원

장손인 남편은 아들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딸을 낳고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으나 남편과 합의하여 낙태를 했다.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부가 적극 지원했다. 딸에게 공부만을 강요하지 않았

다고 한다. 딸이 무용이나 배구를 배우고 싶다면 하면,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적극 밀어주었다.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말고 가발 장사를 하는 이모 밑에서 장사를 배우라고 했다. 이러한 교육관은 남편과 합치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관에서도 자유로웠다.

“북한이지만 자유세계에서 살았어요, 저희 부부가. 터치 안 했어요. 재산 터치도 안 하고,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 크게 안 했어요... 딸이 무용 다니겠다고 무용도 보내보고, 그다음에 배구 좋아해도 하라 하고, 소년회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잘 살고 좀 힘 있는 자식들 받아들이고 하거든요. “거기 가겠다.”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 얼굴 보고 바로 잡아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넣어보고... “너 공부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해” 하고서는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보내고, 그게 “싫다” 그러면 너 그것도 하기 싫으면 두각을... “공부에서도 두각을 못 나타내고, 여기서도 두각을 못 나타내면 차라리 장사 이번에 해보라” 하고 마지막에 한 계 장사 쪽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 애가 한 15살 때, 고등학교 한 2학년쯤에 보냈어요. 그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고 저기... 기술 배우고 이모가 “어디 가서 돈 받아오라” 하면 그런 거 받으러 오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올 때는 제 돈으로 제 손으로 벌었다고 아빠 엄마 신발도 사갖고 오고, 뭐 상품도 가뜩 사왔더라고요. 그러며 돈도 챙겨 오고 그래서 나름 딸은 딸대로 돈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내는 돈은 남편이 다 지원했다. 북한은 경제난 이후, 무상교육체제도 붕괴되면서 급식 제공이 끊겼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심지어 교사의 월급까지도 돈 있는 학부모들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명순 씨의 남편은 자녀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딸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같이 저저 했죠. 북한에는 학교에서 뭘 내라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남편이 다 해줬어요.”

(5) 육아, 가사는 부인이 전담: 남편에게 육아와 가사는 함정

부부가 각자 장사를 해서 바빴지만 남편은 집안일은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장사로 명순 씨가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시댁의 도움을 받았다.

“저희 남편이 해준 거, 살면서 생애 한 번도 (해준 밥은) 못 먹어봤어요... (아이) 밥은 챙겨 안 주고, 그리고 뭐야 시집이라던지 거기서 어떻게 밥을 가져오든 어떻게 하든 했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스스로는 안 하려고 해요. 부엌 가는 게 함정 같대요. 제가 우리 남편을 군인 출신으로 한 거는 군출신이니까, 식당 근무랑 나가서 식당일 잘하겠지 하고서 얻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할려고 안 해요. 자기는 죽어도 못 하겠대요. 청소는 좀 했어요. 청소는 제가 밥하는 시간에 자리를 다 정돈은 해요. 그런 거는 해요. 빨래는 당연히 안 하죠.”

나. 수도 평양에 감시받는 가정

(1) 남편의 탈북과 딸의 죽음으로

평양에서 태어난 경애 씨(사례 1, 가명)는 한의사라는 남부럽지 않은 직업과 한 달 100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수도 평양에서 탈북한 남편으로 인해 수 년간 감시를 받다 정치범관리소에 갈 상황에 처하며 탈북을 고민하였다. 결정적으로 연탄가스 중독으로 큰딸이 죽자 남편이 선을 댄 브로커들^{126/}

을 따라 탈북하였다. 금쪽같은 자식의 죽음을 본 경애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작은딸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큰딸의 죽음 후 한 달 만에 맨몸으로 딸의 손을 잡고 평양을 떠나게 되었다.

남편은 지방 출신으로 평양시민이 되기 위해 군사복무를 13년 하고 평양건설대에 자원 배치되어 평양시민인 경애 씨와 결혼하였다. 경애 씨는 남편이 능력을 키워 평양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 해외노동자로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해외를 들락 날락하다 외부문명의 맛을 알게 되며 탈북하였다.

(2) ‘꼼짝달싹을 못 하고 감시’ 받는 생활

남편의 탈북 이후 경애 씨와 자녀들은 ‘꼼짝달싹을 못 하고 감시’ 받게 되었다. 그 상황에 대해 경애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남편이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제가, 우리 가족이 힘들어진 거예요. 한 4년 동안을 꼼짝달싹 못 하고 감시를 받았어요. 병원에 다니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솔직히 얼굴 들고 병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평양에서는 대한민국을 적대계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보는 거, 노래하는 거, 이거 한국에 대한 거는 김정운이가 방침포치로 나오는 게 “가차 없이 역적으로 취급하라”고 이렇게 그 상태니까... (자제분들은 어땠어요?) 학교 다니는데... 학교 안 가면요, 우리 북한은 조직의 나라로 또 학교에다 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솔직히 뭐 “평양에서는 화목하게 살았다” 하니까,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분명히 “이거 처자식들을 데려가려고 브로커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감시받았어요. 감시를 받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126/ 경애 씨 가족의 북한지역 탈북 브로커는 평양에서 국경지역까지 안내한 안전원(한국의 경찰)과 압록강을 건너게 도와준 인민군대 하전사였다.

감시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감시해요?) 집 앞에 뭐 경비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이게 보위원한테 가서 내 사사일거동을 하루일거동이고 뭐고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 다 이렇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물며 밤에 내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바깥을 한 번 나와봤는데, 우리 집이 1층이었어요. 우리 집 밑에 앉아서 지금... 그때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메모리 줘서 중국 드라마들 보냈거든요. 그거 보다가 나왔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는가 해서 경비가 앉아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줄은 모르고, “뭘 해요?” 하니깐 짹짹 놀라는 거예요. 솔직히 경비도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도 어쩔 수 없지요. 시키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저는요, 솔직히 반감도 크게 나더라고요.”

(3) 평양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

경애 씨는 남편의 탈북이 알려지며 다니던 병원을 사직하고 살아보기 위해 여맹위원장도 하고 집에서 개인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 경험을 살펴보자.

“저 이 병원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맹위원장을 했어요. 남편 간(탈북) 다음에 집에 들어왔죠. 남편 가기 전에는 병원에 다녔고, 병원에 일 다니는데 남편 도망쳤다고 보위원들이 뭐 원장이랑 솔직히 세포비서도 있고 소장도 있고 직맹위원장도 있고 한데, 그 일꾼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일거일동을 다 알아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말이라는 게 한마디, 한마디 퍼지니까 선생님들 속에서... 우리 병원에 한 35명인가 의사가 그렇게 돼요. “야, ○선생네 남편 뛰었다, 뛰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얼굴 들고 병원에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직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

와서 제 재간이 뭐 솔직히 치료하는 거라 사람들 아파서 그러는 사람들 침놓기 시작하니까, 그게 발이 달려가지고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치료하느라고 설 명절도 없고, 주말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잘 먹고 잘 살았죠. 너무 사람이 많다나니까.”

경애 씨는 촘촘한 감시 속에서도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살아보기 위해 자신을 감시하는 기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생활을 돌봐주며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저는 솔직히 저 감시하는 사람들도 제가 거꾸로 다 섬겼어요. 별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저... 솔직히 보위원이라는 직업도 직업이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저 자기 직업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먹고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도 내 감시하는 사람들과 편하게 좀 지내고프고. 그리고 내가 정치일군을 했으니까, 뭐 뜨려는 생각은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감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년 동안... 우리 집에 24시간 감시 붙어 있는데... 솔직히 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환자들이 많으니까. 인맥 있는 환자들 통해서 이렇게 하다나니까 우리 남편이 시범 견에 걸렸으니까 그 조직책임자들, 한다 하는 간부들 다 지금 철직 해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애매한 사람도 해임시키는데 우리 가족이라고 뒤돌 수 없죠. 후에는 나를 감시하는 반탐과장하고도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나니까 그 반탐과장이 날 보고 “시집을 가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년 있어 보니까 남편한테서 소식 오는 거 같지는 않고. 솔직히 남편한테서 소식 주고받는 거, 저 핸드폰 2개였어요.”

(4) 내 딸에게 정치범관리소 생활을 경험하게 할 순 없어

큰딸의 죽음과 함께 탈북한 경에 씨는 작은딸에게 정치범관리소 생활을 경험하게 할 순 없었다. 핵기지에 있는 정치범관리소의 생활은 감옥보다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작은딸이라도 살려보려 탈북을 결행한다.

“(자식이) 하나니까 데려가려고. 결국 그 애야 잘못이 없잖아요. 그 애 데리고 관리소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운명은 다 주어졌으니 까. 이 관리소에 가야 된다고, 나보고. 그래도 반탐과장이 하도 4년 동안을 감시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도... (정치범수용소 말고 관리소?) 이제는 정치범수용소에 안 보내요. 이제는 핵기지 있죠. 지금 북한에서 맨날 핵 쏘죠. 핵기지는 이렇게 군대들, 군대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무장보초 서고 그러는데, 그 핵기지에서 군사복무 하는 애들은... 다른 애들은 일반 부대에서 10년 복무한다면 개네들은 5년 복무를 해요. 방사선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워서요. 그래서 거기에 다 안 가겠다니까, 거기는 부모들이 안 보겠다니까, 거기 가는 애들은 5년 군사복무하고 대학 추천해서 보내고 입당시켜 보낸다. 그런데 거기 군사복무하고 온 애들은 3년 만에는 다 죽어요. 방사선이 사람 인체에 그렇게 해롭다고요...”

“죄수 먹듯이 먹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죽지 말고 일하다가 죽으라고. (정식 명칭이 뭐예요?) 핵기지. 정치범관리소가 이제는 정치범들을 그냥 밥 먹고 일만 시키는... 그냥 그래서 명을 이어놓지 않고 핵기지에 가서. 핵기지는 일반 사람들 누구나 다 안 가겠단 그러죠. 그리고 군사복무 하는 애들도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서 하는데, 이제는 죄수들도 죽어야 되는 대상들은 거길 보내는 거예요. 감옥이나 같죠. 가두고, 뭐 살림집 쥐가지고 거기에서 생활 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있다가 나가서 일하고.(거길 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란 걸 아셨던 거고.) 네, 그러니까... 저 그러지 않았으면 나 여기 한국에 안 와요. 제가 힘들게 터 닦아서 먹고살 만해서 소리 칠만 했는데, 일이 터져가지고. 저 지금도 우리 남편 미워요. 사람이 사는 건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먹고살자니까 다 노력해야 되고.”

(5)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가정생활’

경애 씨는 북한에서 살며 가정생활이 행복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자식 때문에 살았으며 가정보다는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며 환자를 돌보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생활한 자식들에게는 남편을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기쁨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저 우리 애들보고 이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저 행복했다 하면 내가 그래도 고치기 힘든 환자들 나한테 들어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애들이 나한테 치료받고서는 그래도 지팡이 짚고... 살짝살짝 이렇게 절긴 해요. 그래도 아예 일어도 못 나던 아이들이 그 정도면 성과죠. (따님들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거는 있던가요?) 그리움은 그저... 제가 애들한테는 내가 막 그저 우리 가족이 아무래도 다 돈이 있어야지 사니까 “아빠도 나가서 고생하면서 돈 벌러 나갔으니까 네 아버지도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숭배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본 아빠 모습은 또 달랐고요. 마지막에는...”

(6) 2018년 이후 심각해진 평양의 배급: 1년에 5개월 15일치를 받는 배급생활

남편의 탈북이 알려지기 전에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중산층의 가정생활을 꾸려 온 경애 씨 가정은 수도 평양의 배급을 받았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며 북한의 배급 상황은 심각해졌다. 경애 씨는 그 시절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평양에) 공장도 방직공장 하나 돌아갈걸요. 그건 방직공장은 군수라, 군복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방직공장 하나만 돌아간다고. 뭐 남편들이 일 나간다고 하면 건설자들은 나가서 집을 지어서 집 한 채에 7천, 8천 달러씩 해도 로동자들이 그 집을 지어갖고 자기 집 없는 사람 집 한 채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저 월급 5천 원, 쌀 1킬로. 그거 뭐 술 2명 먹으면 다인데, 그건 뭐 미리 일 다니면서 퇴근 후에 다 먹어서 생활비도 제대로... (식량 배급 하나도 안 줬나요?) 배급 쌀표 하나. 세대주한테 달리면 가족들이 쌀 배급표라고, 식량공급표. 이거 보고 쌀표, 쌀표 하는데 네, 그것도 지각하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자르거든요. 한 달이면 상순, 하순으로 해서 보름씩, 보름씩 옛날엔 줬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부터 고난의 행군 한다 하면서 평양시도 고난의 행군 들어간 게 아마... 2000년도부터는 고난의 행군 들어갔겠죠. 그런데 한 달 배급표를 이렇게 상순, 하순으로 2장씩 나눠서 주거든요. 상순에 열흘 치, 하순에 5일 치 이렇게 보름치 주던 게, 지금은(2019) 상순에 한 주일 치, 하순에 5일 치 이렇게... 그것도 하루에 원래 700그램 타는 대상 450그램 줘요. 그런데 450그램도 배급소에서는 이거 쌀 식량공급소에서는요, 쌀을 실어 올 때는 기름 주고... 차를 나라에서 대주는 게 아니라 배급소 자체에서 차를 사갖고 가서 실어 와야 되는 거예요. 배급 주는 데서 450그램이라고 그래도 또 제 킬로 수 안 되죠. 350그램 될까.”

그런데 김정은 집권 후 평균 한 달에 15일 치의 평양지역의 쌀 배급도 추수 이후 5개월 간만이라고 한다.

“한 달에 15일 치씩 주는데 그게 1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그렇게 줘요. 그런데 3월달 지나서부터는 쌀이 없으니까 한 8월달... 7월 말, 8월 초에는 햇감자 나오잖아요. 햇감자 지방에서 이렇게 햇감자들 심은 거 또 거둬들여 가지고 감자배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하고 그다음에 잡곡 옥수수. 여기서 말하면 옥수수죠. 옥수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일 힘든 세대들, 곤란한 세대들. 그렇게 하고 평양에서 말하면 “제일 힘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배급을 주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여객 운수, 그다음에 탄광 부문,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부문 이렇게 좀 힘든 분야에 그 남자들이 다니는 집에서는 가족까지 배급을 조금씩 줘요.... 4월부터 8월달까지 (배급을) 안 줄 때, 그때. 그때는 또 이 가족들 한해서 배급을 주고, 다른 가족들은 뭐 배급 준다, 안 준다 말도 못 하죠.”

(7) 장마당 통해 가정생활을 유지

그나마 배급을 받지 못하는 평양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챙기며 아내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남편의 경우 해외에 나가야 그 가정이 중산층으로 살 수 있었다.

“배급을 못 주면서부터 이제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어쨌든 벌어야 지 먹고사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벌어서 자기 가족을. 여자들 혼자서 시장에 가서 벌어가지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여자들이 이젠 소리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불편하고, 남편들은 뭐 집 지키는 명명이다 그러고, 이혼할 때도 남자들이 조금 그러면 “이혼하자” 하고 큰 소리도 여자들이 칠 수 있는. 네, 이제는 그런 정도가 지금 되어 오면서 맥줏집에도 가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배급이 11~3월 간만 나오니) 시장 나가서 벌어들인 1년 먹을 거 식량을 사요. 나라 믿고 안 살고요. 그리고 남편들을 대체로 다 해외 내보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지만 살고...”

(8) 해외노동자들의 귀환으로 어려워진 살림살이

특히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 국가’를 선언하고 민생분야까지 대북제재가 전면화된 2018년부터 평양지역 주민들의 가정생활도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2018년도부터 경제제재 받으면서 18년도에는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불러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어쨌든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뭐 회사직업도 들어가려면. 운전수 직업이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인데, 운전수 직업 할려면 한 300달러씩 넣어야 되고. 그런데 또 그 돈도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저 그래도 시장에서 여자들이 돈 버는 게 제일... 그래도 먹고살으려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나라에서 뭐 주는 거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하나라도 사야 되니까 시장에서 돈이 유통되는 거예요. 2018년도... 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장사할려고 아파트 밑에... 여기(남한) 거리에서도 옷도 팔고 굉장히 될 많이 놓고 팔아도 말 안 하죠. 우리(북한)는 나라 망신한다고. 이거 인공위성에서 다 촬영돼가지고 나라 망신한다고. 아파트 앞에 이렇게 장사를 못 하게 해요. 그 장사 딱 시장^{127/}에 가서만 팔고 사고하지. 제가 이따금씩 유튜브랑 보면 이렇게 북한에 대한 거 쪽 촬영한 것들 나오더라고요. 그 장사들 하는데 골목 장사들 하는 거, 그건 북한이 아니예요. 그 지방에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평양의 시장 같은 건 여기 이마트, 이마트처럼 잘 꾸린 시장도 있어요. 네, 통일시장이라고. 아마 여기 이마트만큼 그렇게... 달러로 파는 데예요.”

^{127/} 규율과 통제가 강한 평양의 경우, 시장은 오후 1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

(9)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전기와 물의 경우 지방보다 공급이 원활한 평양지역에서도 제한적으로 공급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애 씨 집에 수도물은 아침 5~7시까지 하루 2시간 공급된다. 전기는 저녁 7~11시까지 하루 4시간 공급된다. 단 명절날은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온다. 따라서 각 가정에 태양열판은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다. 수도물은 아침에 통마다 받아놓고 하루 종일 쓰고, 전기는 일단 저녁에 배터리 2개 충전까지 시켜놓고도 태양열판을 이용해야 한다. 중산층의 생활을 한 경애 씨 가정은 세탁기와 냉장고뿐 아니라 냉동고도 이용하였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빨래해주는 사람들에게 맡기어 빨래 문제는 해결하곤 했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 하루살이 벌이꾼들을 통해 부족한 물과 필수품을 수월히 배달받을 수 있었다.

(10) ‘아버지 역할’이 제대로 서야

북한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야기하다 경애 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있고 자상한 아버지/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제 ‘아버지가 돈 번다.’가 아니라 ‘엄마가 돈 번다.’가 됐어요... 가사도 엄마데 될수록이면 이젠 아빠가 그 자리를 조금씩 메꾸는데 아직도 한국하고 달리 북한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요. 생활 센스가 떠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많이 당하죠. 멍멍이라 그러고. 좀 그러는데.”

“(그럼 아버지는 가정생활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 사회적으로 아버지들이 큰

야단이 났네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아버지 역할이 과연 될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있어야죠,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들은 남편이 벌
든 못 벌든 화목하게.”

“그러니까 그저 이게 외국에 나가서 보고 들은 것만이 전부는 아
니에요. 사람됨의 문제 같아요. 나하고 대단히 친한 큰엄마가 있는
데... 이모죠. 그 이모 그 형부가요. (외국에 나갔다 2018년 평양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야 뭐 돈 못 버니까. 그 대신 이모가 집에서 이렇
게 순대를 해서 매대들 내주는 거 하는데, 이모가 벌거든요. 그런데
그 형부가 이 이모를 끔찍이 생각해주시니까 그 집은 진짜 행복해요.”

“(자식에게는 어떤 게 좋은 아버지일까요? 자식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 이 말을 내가 한국에 와서 말하자니가
조금 힘드네요. 북한의 아버지들이 좀 불쌍하네요. 행복한 집이 많
진 않으니까. 아버지들이 자기 구실을 해야지만 아버지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자기 구실은 어떤 걸까요?) 어
췌든 세대주라면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은 있어야 세대주라고 하겠
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 거죠.”

다. 인민반장으로 마을의 어머니 역할을 하며

(1) 내륙 농촌의 고난의 행군은 김정은 집권 후

순덕 씨(사례 13, 가명)는 북한 농촌지역에서 80세대를 관리하는
인민반장 직을 28년 하며 지역 농민들의 어머니로 살았다. 그의 가
족들도 지역 행정기관에 근무하였기에 농촌의 중산층 생활을 하였
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은 시대에 사는 게 확
박해졌다. 내륙 곡창지대에 살며 가족이 지역의 간부급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기아’를 경험하지 않았던 그의 가정, 김정은 시대

고난의 행군이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 들어갔다 그러는데. 94년도는 김일성이 죽고 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 들어갔는데 우리 ○○○는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몰랐단 말야. 왜 그러냐면 농사 ‘산 부대기’도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고, 또 농사도 그만하면 괜찮게 되고. 그런데 뭐 나부터도 솔직히 지나가면서 강냉이 있으면 강냉이 하나라도 채다가 삶아 먹던가 구워 먹던가 하지, 그저 지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란 걸 모르고 살았던 말이야. 그런데 량강도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죽은 시체가 깔려 있고... 우린 그런 거 모르고 살았던 말야. 그런데 김정일이 죽고 그다음부터 고난의 행군...”

그 이유에 대해 그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다. 하나는 김정은 집권 후 농촌개혁을 한다며, 국가수매를 늘리고 농민들의 자발적인 산에서의 농사(비경지 경작)를 통제하며 가용할 수 있는 식량 생산이 줄어든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식들이 자리 잡는 데 필요한 비용은 늘어나는 등 소비수준은 높아지는데, 각종 국가통제로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는 좁아졌다는 점이다. 농촌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던 순덕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식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산 부대기’도 못 하게 하지. 그러다 나니까 좀 먹을 게 딸리고. 나 같은 것도 아들 둘이 군대 나갔다가 2013년도에 제대돼 왔다. 그렇게 제대돼 와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군대 나갔다 오면은 어쨌든 싹 다 갈아입혀야 되니까. 갈아입혀야지, 맡아들 장가보내야지. 그러다나니까, 에이 어디 돈 버는 데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벌러 가자 하고 사실은 떠났던 노릇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2) 동원과 사회적 과제

김정은 집권 후 농촌지역의 인민반장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은 농촌지역 노인여성들을 조직하여 농장에 동원하는 것이다. 파철수거 등 사회적 과제도 있으나 도시에 비해 그 책임은 그리 크지 않다. 인민반장은 농촌의 부양가족으로 연로보장을 받는 55살 이상 노인들을 동원해 농장 작업반장과 협상하여 자그마한 이권이라도 챙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뭐 파철도 좀 걷고, 매달에 파철도 조금씩 걷고, 사무장이 시킨단 말이야. 리에 사무장들은 1명씩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인민반장들 모여서 먹고 그다음엔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또 “인민반장들 모여라” 하면 가서 또 과제 받아 갖고 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농촌이 돼서 이 농산기 때니까 모내기하고 씨 붙임하고 그럴 때는 로력이 딸리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북한은 여자들 55살이면 나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농촌이든 배급제든 관계없어요. 그저 55살이면 연로보장 그렇게 돼가지고 들어오다 나니까, 집에서 노는 부양가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업반장이나 리에서도 “인민반장 동원 시켜서 동원시키라” 해요.”

농사에서 55세 노인들의 동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은 비위를 맞추어 잘 조직하고, 한 끼 식사라도 잘 챙겨주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노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촌의 연로한 인민반장들은 경륜이 있어 이들의 동원에 능숙하고, 그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생활수준도 결정하게 한다. 그 이유를 순덕 씨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왜, 우리는 공짜 노력이니까. 학생들이나 로동자들이 동원 나오면 돈도 받아가고 뭐 점수도 받아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그래서 내가 ‘자, 우리 할머니들 시킬라면 점심밥은 보장하라.’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초복 때, 그다음에 단옷날, 명절날 그럴 때는 분조별로 모여서 잘 논단 말이야. 돼지 잡아놓고 뭐 그저 자기 분조장들 수단껏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작업반에 나가서 ‘자, 우리 할머니들 일만 시키지 말고 먹을 거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돼지고기도 타고 쌀도 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우리는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대로 먹고 논단 말이에요.”

농촌지역 인민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촌 동원이다. 그다음으로 사회적 과제도 김정은 집권 후 점차 증대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사회적 과제로 만든 물품의 질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민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촌 동원. 다음으로 사회적 과제가 뭐 파철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백두산돌격대 장갑도 내고, 장갑 못 내는 경우에는 돈 내라. 그런데 그것도 못 하는 경우, 못 하는 집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천이라도 하나 내라. 그래서 사람 하나 동원시켜서 재봉을 해가지고 갖다... 사무장한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천이라는 게 옷티 입던 헨 옷들. 헨 옷을, 그러니까 1시간도 못 끼고 장갑이 다 깨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어쨌든 하라니까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매 세대 한 켈레면 한 켈레, 두 켈레면 두 켈레.”

품질이 낮더라도 사회적 과제 역시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농민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다.

“농장원들이 솔직히 언제 장갑 만들 새가 있어요? 자기네 농장 땅 다뤄야지. 개인별 포전별 담당 이거 해야지. 고구마밭도 김매야지. 남새밭도 김매야지. 눈코 뜰 새가 있나 뭐. 어쨌든 새벽 5시면

나가서 김매고 조금 밥 좀 먹다가, 먹고서는 나가서 일하다가는 10시쯤이면 얼마나 날이 더워요...”

(3) 여전히 중요한 ‘초상화’와 빈부격차 심화

김정은 시대에도 사회주의대가정을 추구하는 북한의 가정에서 소위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초상화’를 잘 모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모든 가정집에는 여전히 제일 잘 보이는 정면에다 초상화를 모시고, 그 옆에다 ‘가화만사성’과 같은 가훈 등과 관련된 액자를 걸어두기도 한다. 초상화는 기본적으로 백두산 3대 장군 초상, 김일성 부자의 사업토의상, 김일성·김정일·김정숙 가족상/사업토의상 중 3개 상을 모시는 것이다. 최소한 그가 탈북한 2019년 상반기까지 김정은 초상화 모시기는 없었다고 한다. 이 초상화 모시기 사업을 관리하는 것도 인민반장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리당이나 리 간부들이 인민반장하고 매 집 돌면서 초상화 검열 다 한단 말이예요. (인민반장이 초상화 검열) 오점 있나 뭐 있나 그거 다 초상화 검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로 또 교체해주고 그렇게.”

김정은 시대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가정생활의 빈부격차 심화이다. 이런 양상은 농촌에도 일반화되었다. 농촌에서 쌀밥을 먹으며 중층생활을 한 순덕 씨는 그 실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개인이 좀 살림이 깎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좀 잘 살고, 일하기 싫어하고 밑천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든 거예요. 하늘 땅 차이가 됐다 소리예요. 분배 주고 그럴 때는 그저 그만만 해도 비슷해가지고, 암만 먼저 (식량) 떨어져도 그저 어쨌든 분배는

탔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분배를 못 주니까 땅을 준단 말이에요. 땅 주면서 이... 솔직히 분배 준다는 땅이 옥토는 안 주는 거고. “너희 네 식구면 여기서 너희 분배 몫을 생산해 먹어라.” 지금은 그렇게...”

(4) 농촌의 도덕경제: 각 세대의 ‘가마뚜껑부터 열어봐야’

북한,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농촌지역에서 인민반장은 가정 간의 갈등에 중재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세대원들이 굶어 죽지 않게 지원해주는 역할도 한다. 현재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농촌 내에 상부상조하는 도덕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웃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인민반장들은 담당 세대 중 어려운 가정을 파악하고, 그 가정의 구성원을 동원하기 위해 각 가정의 부엌 가마솥에 먹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아유, 돌아가며 막... 그러게 우리 동네는 뭐 별로 싸움하고 갈라지고... 한 번은 옆에 작업반하고 우리 작업반하고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 소리예요. 아니 밤중에 잘라고 누웠는데 퍽퍽거리며. “이게 뭐야?” 하고 제일 먼저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뭐 남조선에 시위 투쟁한다더니 아니 딱 그 짚이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서 막 생야단하고. 그, 그쪽 작업반에 가서 “손해배상 내라. 딱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을에서 각종 싸움이 발생하면 이를 중재하고, 옆 마을과 분쟁이 발생하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어쨌든 세대들 싸움하면 그... 솔직히 거기도 제 가족끼리 마음 안 맞아 싸움하면 그거 가서 말려줘야지. 밥 없는 세대들... 그

버릇이 돼서 그저 아침에 가면 “내일은 농촌지원이야” 하고서 가보면, 가마뚜껑부터 열어본단 말이야. 왜? 어쨌든 살림들이 넉넉지 못하니까. 나 같은 건 그런대로 뭐 나올(탈북) 때까지는 이밥 먹고 살았으니까, 그만하면 편안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고구마도 우리(굴)로 하나 한 30마대, 강낭콩도 30마대씩 그저 우리 해놓고 먹고 살아. 벼도 한 톤, 강냉이 한 우리.”

또한 각 가정들이 최소한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촌의 작업반장과 사업을 하여 지역에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인민반장은 좀 더 큰 땅을 얻어 여유 농지를 확보한다.

“인민반장이라는 게 매일 아침마다 농촌지원 때는 “오늘 일 나오지?” “일은 나오는데 못 해 먹어요, 밥”, “야, 그럼 우리 집에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좀 낫다 하는 집에 가서, “야, 강냉이쌀이라도 한 뭇 킬로 내놓으라마. 가을걷이할 때 내가 보상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사는 집에 먹을 것도 좀 쥐서 농촌지원 데리고 나오고.”

“나 같은 경우는 옆에 작업반장하고 사업해서 땅도 좀 먹고, 그 건 비경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촌 마을이니까 집에 텃밭들이 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고추나 김장배추, 무는 텃밭에서 실컷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작업반장 보고 그러지 뭐. “아니, 그 작업반 사람들 쥐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들도 다만 한 열 평씩 고구마 심을 땅 달라. 그래야 내년에도 또 일 시켜 먹지, 못 시켜 먹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들도 주면서 나는 조금 더 받고.”

김정은 집권 후에 식량을 자급으로 해결해야 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현금이 필요한 일이 많아지면서 농촌에서도 약초 캐기, 지네 잡기 등 다양한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식량배급이 줄어들면서 농장 일을 갔다고 식량을 조금씩이라도 훔쳐 와야 최소한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농장 작업반장들하고 (얘기) 해가지고서 저 사업하니까 땅도 좀 더 얻을 수 있고, 유리한 점이 좀 많죠. 그런데다가 작업반에도 솔직히 (사람들이 동원) 나오란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식량 없는 사람은 한 사람 식량 벌러 가야지. 산에 가서 지네를 잡던 뭐 약초를 캐던 해서 벌러 먹어야 되고. 그전에는 약초 캐고 지네 잡고 그만 거 몰랐어요. 어쨌든 김정일이 죽어서 생활이 그저 갑자기, 분배도 안 주지, 뭐 암만 땅을 준다고 그래도 솔직히 분배 주는 것만 하나. 그러니까 농장원들이 저녁에 일하고 들어갈 때에는 바구니에다가 분조장이나 반장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그저... 좀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움큼씩 넣고, 우리 할머니들도 가서...”

“(농장에서 몰래 훔쳐 오는?) 훔쳐 오죠. 뭐 그래야 자기네도 먹고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들키지 않게 잘 주위라. 하다못해 허리춤에라도 차라.” 허리춤에 차면 한 열 개씩은 찬단 말이에요. 강냉이가 이만큼씩 실한 것들. 그렇게 차고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암만 밥 해주는 건 밥해주는 거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모으니까 농촌지원들도 잘 동원되고. 또 그만하면 작업반장들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자기네 농장원들 일하는 것보다 우리 할머니들 일하는 게 더 많이 일하고 일들도 잘해요. 여기도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 잘하듯이.”

(5) 당근과 채찍, 여전히 중요한 수령님의 선물 ‘명절 공급’과 통제

현재까지 북한 최고지도자의 인민사랑을 현시하는 대표적 제도가 ‘명절 공급’이다. 북한의 명절 때는 인민반별로 상점에서 술과 상품을 국정가격으로 싸게 준다. 인민반장은 각 세대에서 돈을 거두어 명절 때 국정가격으로 싸게 공급하는 술, 비누, 기름, 사탕과자 등을 세대수에 맞추어 상점에서 한꺼번에 사서, 리어카와 인부를 써서 자

신의 집으로 가져온다. 이후 각 세대에서 인민반장 집 등으로 와서 세대별로 분배받는다.

명절 공급은 새해 1월 1일, 김정은 생일,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인 4대 명절과 함께 북한의 국경절로 공화국 창건기념일인 9·9절과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10절을 기념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북한에서는 명절 때가 되면 보위부에서 내려와서, 토대가 걸린다던가 탈북민 또는 행불자 등의 가정을 검열한다. 그 감시와 세대별 구성원의 이상 행동에 대한 검열도 보위부와 사회안전부, 또는 지역당의 지휘하에 인민반장이 앞장서야 한다.

“명절 때긴, 정세가 좀 긴장하고 하면 “어느 세대, 어느 세대 누구 인민반장이 사람 시켜서 감시 좀 붙이라.” 무슨 다른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까 봐. 보위부하고, 기본 인민반장이 사무장하고도 사업하지만, 여기는 경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안전부,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기본 다 사업하죠. 그리고 리당에서는 만약에 나라 쪽으로 무슨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돌아갔죠. 그럴 때는 인민반장 다 리당 비서가 모여 놓고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거 지금 이렇게 유언비어가 돌아가는데 이 노래도 이거는 남조선 창법이다. 이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 하면서 급작스레 불려가서리 인민반장들 불려가서 포치시키면 나는 또 세대마다 다니며 “이 노래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돌아가며 저거하고 그거 그렇게 하죠.”

(6) 중층은 태양열판을 쓰지만 “전기 올 때는 밤을 꼴딱 새워”

인민반장은 각 인민반 전기관리도 책임진다. 따라서 그 역할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주민생활과 관련한 거의 모든 사업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에서는 세대원들에게 돈을 거두어 수도와 전력 공

급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수돗물을 거의 공급받지 못하고 우물물 생활을 하는 농촌에서는 탈곡 시기에 노동력관리와 전력관리가 중요한 일이다.

“(인민반장 권한이 되게 섰겠네요?) 섰어요. 그러니까 반장들이 땅도 주고 하지. 어쨌든 저희도 인민반장하고 틀리면 뭐 이익은 없으니까. 하다못해 뭐 타고 가다가도 (인민반장에겐 인사해야 하고)... 농장원들이 100% 다 나온다고는 말 못 한단 말이에요. 먹을 거 없는 경우 있고. 벼 털기 하면 와서 물어본단 말이야. “야, 이거 인원이 모라자서 그러는데 인민반 좀 동원시킬 수 없나?” 그러면 “그래, 그럼 젊은이들로 몇 명 동원시켜줄게. 그 사람들도 매일 농장원들 쌀 500그램씩 주면 우리도 500그램씩 달라요.” 그럼 “주겠다.” 전기 올 때는 밤에도 꼴딱 새우면서 야간 한단 말이에요.”

“(전기사정은 어땠나요? 그 동네는) 명절 때 오고 그러고 탈곡 시기에는 100% 다 와요. 그런데 전기세는 못 받아 간단 말이에요. 왜, 불이 와야 전기세를 받아 가지. 그것도 인민반장이 이 배전부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다니며 전기세 이달에는 얼마 썼으니까... 뭐 전기세라는 게 싸니까.”

순덕 씨 마을 농촌지역에는 탈곡 시기 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80세대 중 약 40세대는 태양열판을 사용한다. 농촌지역에서 먹고살 만한 절반 정도의 가정에서는 문짝만 한 태양열판을 사다가 텔레비전도 보고 전등도 켜고 살지만, 태양열판이 없는 농촌 하층민들은 텔레비전이나 전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마철 등비가 많이 오는 시기는 태양등 충전을 못 해 전등도 쓸 수 없다.

(7) 농촌에선 인민반장이 여맹위원장을 겸직

북한의 도시에서는 여성들의 조직생활을 담당하는 여맹과 행정관리를 주로 하는 인민반장이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위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농촌에는 “대개가 다 여맹위원장이 인민반장 겸 여맹위원장”이라고 한다. “도시는 따로따로 있고, 농촌은 그저 인민반장 겸 여맹위원장 겸 검사검사”로 겸직을 한다. 순덕 씨는 그 실태를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여맹위원장이라는 게 뭐 여맹에서 “이번에 백두산들격대 나가는데 초급단체별로 장갑 몇 개 내라.” 사무장이... 사무장 쪽으로 내는 것도 있고, 여맹위원장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장하고 여맹위원장하고 이따만큼씩 좀 따붙이 돼서 조금 의가 안 맞을 때도 있다고. 왜, 자기는 사회적 과제 더 많이 하고 싶고 사무장은 사무장대로 더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인민반장들은 여맹에도 해야 되고 사무장에도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만하면 뭐 그저 편안하게. 사무장한테도 그저 편안하게, 여맹위원장도 편안하게. 저기 리에는 여맹위원장이 따로 있고 사무장이 따로 있고. 작업반은 그저 거진 다 인민반장이 여맹위원장까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 뭐야 작업반에 맨 간부만 되겠는데요.”

“농장원들은 농근맹. 농근맹이고 나이가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 80이 돼도 여맹생활, 70이 돼도 여맹생활 그렇게 하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여맹비만 받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맹비만 받고 환갑만 지난 사람들끼리. 그런데 솔직히 농촌지원 동원될 때, 60 지난 사람들로만 몇 명 되나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오라. 할마이, 집에서 가만있으면 뭘 하나? 나와, 나와” 해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필필한 사람들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랬어요.”

검직을 하나 지휘체계가 다르기에 역할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농촌에서는 조직생활을 담당하는 여맹보다는 인민반장의 역할이 훨씬 많고 권한도 세다. 왜냐하면, 농사 인력 동원을 인민반장이 주도하고, 농사로 바쁘기 때문에 여맹이 주도하는 생활총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맹위원장은 별로 뭐 사회적 동원 시키고 그런 게 없고. 여맹 쪽으로 뭐 여맹비 받고 생활총화하고. 생활총화 언제 농장원들 하나들 데리고 생활총화해요? 여맹위원장은 생활총화 안 한다고 야 단해도 야단하겠으면 하고 꿈도 안 꾸고 생활총화도 안 하지요. 뭐... 여맹위원장은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하다못해 못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생활총화하라” 그런데... 아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여맹 생활총화하고... 그래도 또 특별히 조직하고 할 때, 그럴 때 있으면 “여맹원들 다 모이라” 하는 게, 알짜 농장에서 뭐야, 이거 55 지나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늙은이들이지 뭐 늙은이들...”

전체적으로 농촌의 여성동맹 활동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농촌의 여맹 구성원은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55세 이상인 분들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도 도시에 비해 순응적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생활 관리는 좀 더 느슨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맹비도 뭐 내는 시늉만 하죠. 실제 역할이 별로 없는데 생활총화하라 그러는데 생활총화도 안 하고, 어떤 때는 또 문답식도 초급단체별로 하고. 이기면 또 다른 리에 문답식도 가고 하는데, 그건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배전부에 다닌다던가 관개관리소에 다닌다던가 그런 젊은이들, 갓 시집온 여자들 그런 사람들로만 따로 또 “너희 몇이 가라.” 여맹위원회가 아니고 여맹에서 문답식을 조직한 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여맹이) 시내는 세대요. 여맹

생활 세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농촌만 해도 뭐 생활총화... “생활 총화했어요?” 그러면 “했어요.” “책 보자.” 그런단 말이야. 그럼 토론도 안 한 것도 토론 다 한 것처럼 몇 명들은 무슨 토론 하고 무슨 토론 하고...”

“(생활총화할 때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인다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가 무슨 과제가 떨어져서 해야 돼야 하지. 아니 세상에 매주 생활총화를 어떻게 하나 이거야요. 바빠 죽겠는데... 시내는 여맹조직에서 뭐 돌격대 조직해가지고 백두산돌격대도 가고, 려성강돌격대도 가고, 삼지연돌격대도 가고. 뭐 아주 이름들을 날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도 논다.” 하고.”

(8) 식량 현물배급은 없어지고 ‘배급 땅’ 또는 ‘분배 땅’으로

김정은 집권 후 식량배급을 줄이면서, 농촌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배급을 받는 ‘배급세대’는 공공기관이나 주요 가동 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세대로 축소되었다. 그런데 그 배급도 국정가격의 월급이 나오는 공공기관과 기업소별로 1인당 농지를 나누어주고, 단위별로 알아서 식량을 생산하여 구성원에게 배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장은 거진 80세대예요. 그저 적어도 50~60세대. 한 마을에 주둔해서 살아요. 작업반 단위로. 그런데다가 배급세대가 한 열여덟 세대 된단 말이야. 배급세대는 그러니까 배전부... 배전부라는 게 이거 전공들. 그리고 우리처럼 ○○○는 관개관리사 하했으니까. ○○은 뭐 술공장, ○○○은 양정창고. 뭐 그렇게 배급제들.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데 다니는 사람들?) 네. (그럼 이분들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배급이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은 기업소별로 땅을 준단 말이예요. 배급 땅을, 배급 안 주고 배급 땅으로, 배급이 줄 게 있나... 그러니까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1인당) 평수는 한 50평 되게 받는데 (우리 가족은) 그거 아니더라도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보고 “너 줄 사람 있으면 주라. 네 땅은 남 주라. 우리는 이것만 해도 다루기도 힘드니까.”...월급은 주지만 많지 않고 조금씩 준단 말이야. (북한 돈 3,000~4,000원?) 그렇게 주는데 조금 더... 술공장 같은 경우는 그달에 생산을 많이 했다 하는 경우에는 뭐 1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다 지금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분배 땅을 받아 자체로 먹거리를 생산했던 인민반장 출신 순덕 씨 가정은 약 500~600평을 경작했다. 이 정도면 벼가 700킬로 정도 생산되는 규모이다. 농사는 기본 공식적으론 농장에서 정년퇴직한 자신과 남편이 하고, “짬짬이 자식들이 노는 날 김매기 동원시키”며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급 땅은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적인 행위로 걸리거나 다른 주민에 의해 고발되면 몰수된다.

(9) 고리대로 먹고사는 ‘절량세대’와 유일한 탈출구인 군대

기본적으로 북한 농촌의 가정들 중에는 도시와 같은 상층생활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순덕 씨 가정과 같은 간부층 가정 외에는 대부분 하층생활을 한다. 그중 극빈층에 해당하여 ‘대장 오늘내일 먹을 식량이 없는 절량세대’는 그나마 작업반 성원 중 옥수수라도 있는 집에서 꺾다가 먹는 생활을 한다. 이를 중계하는 이가 작업반장이 다. 최소한의 먹거리가 해결돼야 농사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량세대는) 농산기에는 작업반에서 뭐 좀 잘 산다 하는 집에 가서 강냉이를... 그 집에서는 그거 강냉이를 다 못다 먹으니까, 옥수수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꺾다가 매일 일 나올 때마다 한 킬로씩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누가?) 작업반장이. 그러니까 절량세대라는 게 식량

없는 세대보고 절량세대라고. 그저 한 열 세대 그 미만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80세대에서. 배급세대 한 열여덟 세대 빼놓고... 배급제들은 이악스레 산을 조금이라도 몰래라도 와서 부치고.”

순덕 씨 동네의 인민반 80세대 중 농촌 작업반 가정 단위로 볼 때, 배급세대 18세대를 제외하면 64세대 정도인데, 거기서 10세대는 식량 고리대로 하루하루 먹고사는 절량세대인 것이다. 추수 후 군량미 등 국가가 지정한 식량계획을 맞추고 나면, 절량세대는 봄철부터 2배로 갚아야 하는 고리대 식량을 빌려 생활한다. 그런데 옥수수라도 2배의 식량을 갚을 수 없는 농촌 가정에서는 그들이 받은 분배 땅(식량분배 대신 개인 시간을 활용해 농사지어 먹고살라고 주는 경지)을 고리대에 맞추어 빚 대신 내주어야 한다.

“절량세대라는 거는 고정 지정돼서 그저 반장이 어쨌든 잘 사는 집의 거 강냉이를 돌려다가, 작업반에는 12월달이면 탈곡장에 낱알이라고 생긴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군량미 실어 가고 뭐 저저하고 사회적 과세요, 뭐요. 이거 계획 못 하면 다른 데 가서라도 돌려서라도 무조건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 해 가서는 또 그 사람들 꺾간 걸 2 대 1로 물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못 주니까 가면 “땅 한 평이라도 달라” 하면 또 저쪽에 있는 땅.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땅. 간부들이 와도 저 땅은 관심 안 두는 그런 땅에다가 빚 대신. 만약 우리 집에서 강냉이 500킬로 가져갔다 하면 한 톤 나올 땅을 값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빚 처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절량세대 때문에 반장들이 봄철이면 강냉이 꺾다가... 쌀로 꺾다 줘가지고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순덕 씨는 북한 농촌의 하층민인 절량세대가 형성되는 원인으로 첫째, 대부분 부지런하지 못하고 생활력이 없기 때문이긴 하나, 둘

째, 그 가정은 매년 고리대로 먹고살아야 하기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생활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싶는데, 농촌에서 도시로 갈 방법은 군대, 특히 군관학교 외에 방법이 거의 없다. 군관학교라도 나와야 도시로 갈 기회가 생기며, 농촌으로 돌아와도 행정기관 등에서 일하는 배급세대나 간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도 못 하고 원래 그러고 좀 생활력이 없다고 그래야 돼요. 부지런하고 그저 닭 기르고 염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그러는 사람들은 돼지 길러서... 작업반장이 “너희 돼지 기르라. 그리고 다른 데다 팔지 말고 작업반에다 내놓으라. 가을에 가서 벼로 줄게.” 그렇게 구호를 내밀어도 못 사는 세대는 먹을 게 있어야 어쨌든 돼지도 기르지... 농촌 아이들이 군대 나가가지고 군관학교 가는 것들이, 배급제들은 이 노동자 자식들은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군관학교를. 그런데 농촌 자녀들은 배급제 되고파서, 세대를 바꾸고 싶어서 몽땅 거진 다 군관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배급세대라는 말은 노동자·사무원 가정을 의미하며, 분배세대는 농장 가정을 지칭한다. 김일성 시대 형성된 개념으로 노동자·사무원은 식량을 배급받고, 농민들은 협동농장 등에서 경작한 식량을 분배받기 때문이다. 지역에 군부대 세대의 경우, 경작지를 분배받지는 않지만 작업반별로 할당이 있어 지역 군부대 세대에 식량분배를 일부 해준다.

(10) 포전담당제 수확물은 국가 것, 우리는 분배 땅에서

김정은 집권 후 농업개혁 조치로 농민들의 생산능력에 따라 분배량을 늘려준다는 포전담당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현실 농촌에서

포전담당제는 농민들에게 “너희 여기서(담당 포전) 생산한 거는 다 내놓으라”라는 제도였다. 그리고 농민들은 분배 땅에서 생산한 농작물 중에서 종자와 비룻값은 제외하고 생산된 농작물을 먹거나 팔아서 생활한다. 그런데 농장 중에서 현지도가 있었던 단위는 종자와 비료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지원되지만, 보통 농장에서는 종자와 비료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포전담당에서 생산한 거는) “다 국가에다 내놓으라” 그렇게 하고, 저기 뭐야 이거 분배 땅을 준단 말이야. 분배 땅을 뭐 만약에 우리 식구가 네 식구라면 120평, 다섯 식구라 하면 150평 그렇게 준단 말이야. 거기서 주는 데서 종자값하고 비룻값은 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집으로 다 거둬들여 간단 말이야. 실지 거둬들여 가는데... 내가 그랬잖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작업반에서 종자 빌려준다고 그래도 종자도 모자라게 주며 배급... 이거 비료 같은 거는 더군다나 더. 왜, 현지교시 이렇게 뭐 이름 있는 사리원미곡협동농장, 청산협동농장, 선군문부리농장, 범안협동농장 같은 경우는 교시 단위들이니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다 두고 관리위원장들이 틀고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료 받으러 비료 공장에 가면 우선권으로 준단 말이야. 왜, 이 나라가 국회의원들이 뭐 세금 받은 거로 돈 받아먹고 살듯이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좀 대우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수확물 모두를 국가에 바쳐야 되는 건 포전담당제, 포전담당에 묶인 땅은 100% 국가에, “다 바쳐야 되는 거. 개인포전담당은 저희끼리 농사지었어도 가을 할 때는 온 작업반이 분조가 다 같이 달라붙어서 수확하여 다 바쳐야”된다. 우선적으로 군량미로 나가거나 계획으로도 나가고, 결국 국가에 바치는 것이다. 분배 땅에서 나온 수확물 중 비료와 종자 값을 제한 생산물이 농민들의 몫이다.

분배 땅 수확물 중 종자값과 비료값을 제하면, 아껴서 생활해도 1년 중 6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따라서 감자, 옥수수가 나오는 4~5월경까지 추수한 식량을 먹고, 4~5월경부터는 구황작물로 보충하여 식생활을 해결한다.

“아유, 6개월이나 먹겠나. 6개월도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거 4월달부터는 농산기란 말이에요. 모내기는 씨 낙정 들어가야 되고. 5월달부터는 벼 강냉이 파종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괜찮은 사람들. 농사 괜찮게 지은 사람들은 뭐 그런대로 자기 거를 먹는데, 이거 절량세대 열 세대 같은 거는 강냉이를 꺾다가 열 킬로씩 한 번에 줘도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못 준다 소리에요, 며칠에.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킬로씩 공급해준단 말이에요, 작업반의 통계원이.”

작업반 통계원이 강냉이라도 절량세대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아사자를 막아야 하는 것과 농사 동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농한기인 겨울에도 작업반에서 아사자를 막기 위한 관리를 한다. 그러나 생활력이 없는 농민들은 그저 작업반에서 빌려준 곡식으로 최소한의 연명을 하며 버틴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한 삶을 지속하게 된다.

“겨울에는 일할 게 없잖아요. 거름 생산하고 개인 집 거름 파내고. 가마니 짜는 사람은 가마니 짜고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 내년엔 농사지으려면 벌써 벌러 갈 수 있는 사람이면 벌러 가라.” 금장을 가던 바닷가를 가던. 그것도 조금 뭐 다녀본 사람들이 다니지. 뭐 우물 안의 개구리들 같은 게 우물을 벗어날 수 있어요? 암만 먹을 거 없는 집들도 벌러도 안 가요. 천상... 뭐 안타깝게, 가서 벌러다가 먹지 않고 이거 작업반에서 주는 거 안 받아먹고, 2 대 1로

내놔야 되니까. 그만큼 식량 땅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작업 반에서 준 쌀.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돼 있고 그저 계속 못 살게 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식량부족분을 보충하는 구황작물 농사는 분배 땅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경지인 ‘비경지’에서 한다. 이런 비경지는 공식 농경지가 아니기에 작업반 단위에서 융통성 있게 배분한다.

“비경지는 최하로 고구마 심고, 분조별로 주면서 “이걸로 너희끼리 농사지어서 분조원들 노나 먹어라.” ... 식량 땅(분배 땅) 주고도 비경지는 왜? 너희 농장원들 먹고 일 나오라는 구호(지침)니까. 뭐 세대당 100평, 50평 그래서 고구마 지어가지고, 고구마들은 또 땅이 좋아서 뭉땅 다 이렇게 잘 돼요.”

감자의 경우, 북한의 주요 식량이기에 수확물을 국가에 바쳐야 하는 포전과 개인에게 배급 대신 나누어주는 분배 땅에서 대개 재배한다. 그리고 비경지 농사는 상황에 따라, 작업반장의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생산, 분배한다.

“올감자는 또 이거 남새포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올감자 심어 먹고 거기서 가을 남새 보장하라” 하고 준단 말이야. 따로 고정된 땅이 있어요. 식구별로 많이씩 안 주고 여기서 올감자 심어 먹으면 그렇게 하고 반장들이 조금 수단 있고 한 사람들은 강냉이밭 걸. 개인 포전땅이 아니고, 개인 포전땅이 있고 분배 땅이 있고. 비경지는 고구마 땅이 있고, 나머지 땅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뤄야 또 수매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다가 집에서 가까운 그 평지 땅에다가 올감자. 너 여기서 올감자 심어 먹어라. 뭐 너희 두 줄. 무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장원들

이 작업반에다가 거름은 못 내도 자기네 감자 잘 돼야 되니까 거름을 주고 비료 콧콧 주니까, 강냉이는 강냉이대로 잘 되고 올감자는 올감자대로 잘 되고, 그러니까 그저 서로 다 이득이지 뭐. 작업반도 이득, 개인도 이득.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 일 시켜 먹으려면 쥐야 되니까, “그 올감자 땅들 우리 할머니들도 한 골씩 달라.” 그런데 부지런하지 못한 것들은 심어는 났어도 김을 매야 뭐 농사가 잘 되고 강냉이도 잘 되는데, 부지런히 김도 잘 매고 비료도 좀 넉넉히 준 집은 벌써 강냉이도 알리고 올감자도 알리는데, 이 할머니들도 부지런하지 못한 것들은 뭐 강냉이도 한심하고...”

(11) 농촌은 시대가 변할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모두 경험한 순덕 씨는 정권이 바뀌면서 생활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 순덕 씨의 가정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김정은 집권 후 지역 농장에 군부대 농장이 건설된 사건이라고 한다. 군부대의 목화농장이 들어서자 분배방식도 좋아지고 다양한 혜택이 생겼다고 한다.

“○○ 군부대 목화농장 그렇게 돼가지고 식량 땅도 조금 더 주고, 그 대신 행정위원회, 경영위원회 소속이 안 되다 나니까 사회적 과제가 없어졌대요... 사회적 과제 “매달 너희 몇 달러 내놔라” 하면 반장들이 갑자기 돈이 있나. 12월달 되면 탈곡장은 텅텅 비고 없는데. 그러니까 개인 거 가서 꺾다가 물어주고, 사회적 과제 저 거 해주고는 가을에 와서 2 대 1로 강냉이로 주든 돈으로 주든 뭐 그렇게 주고 하는데, 이 군부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분배를 탄다고, 농장분배... 그러니까 식량 땅으로 줬으니까 낱알은 아니고 분배해가지고 돈들을 타는데 제일 많이 탄 사람이 그때 25만 원 탔나... 사람들이 너무나

도 오래간만에. 김일성이 때 분배 타보고 못 타보고 그랬으니까, 그 25만 원 탄 것도 너무나도 좋아서... 농장원들 솔직히 짝금만 보 장해줘도 일도 잘하고 뭐 다 잘 하는데, 나라가 못 사니까 그걸 보장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부대 농장 돼가지고 먹고살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현지도도 농장이나 마을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은 전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변화하면서 점점 더 생활이 어려워졌다. 최고지도자의 현지도가 있었던 소위 ‘현지교시단위’만 여전히 중앙의 각종 지원이 존재할 뿐이다.

(12) 고독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잠시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한국까지 오게 된 순덕 씨는 북에 남겨져 자신 때문에 고초를 받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눈물 흘리며 돈을 모으고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약차같이 벌어서 북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탈북민 사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두려움이 밀려든다.

“작년엔가 서울에 마흔 몇 살 난 사람이 와가지고 정착 생활 잘 해서 뭐 하나재단에도 나가 다니고, 그러다가 고독사로 죽은 지 1년 만에 발견해서 시체가 다 빼빼 말라서... 나 그거 본 날은 며칠을 잠 못 잤어요. 그 녀석도 평양이 집이라면서 잘 살겠다고 왔겠는데, 아니 이 나라는 돈 벌기가 얼마나 험해요. 자기만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 먹을 거 한 달 치 벌어. 아니 머저리같이 왜 죽나 그거야요. 야, 솔직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가면 죽을 거 같으니까 못 가지. 뭐 총살될까 봐 못 가겠지, 뭐.”

순덕 씨는 북의 가족들이 생각나서 사과 하나를 사 먹지 못하고 약착같이 돈을 모은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라는 면접자의 질문에 순덕 씨는 “그저 그렇게 살다 돈 벌어서 아들들 다 보내주다 그저 그러고 살다 말래요. 희망이 없어”라며 다음과 같이 답한다.

“지금도 항상 마음이 자식이나 남편한테 죄지은 마음이지. 마음이 깨끗치를 않아요. 밥 먹는 것도 밥 먹는 거 같지도 않아. 하루에 그저 한 11시쯤에 배고프다 하면 그저 한술 먹고 그러는데,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보내주면 좋겠어. 나는 진짜. 북한도 욕이 저절로 나가. 북한사람들 온 게 다 고향으로 100만 원을 보내든 50만 원 보내든 돈을 다 보낸단 소리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먹으란 말이야. 먹고 본인한테 그거 돌려주면서 70% 떼든 50% 떼든 떼먹고 우리 가족들한테 무사히만 갈 수 있게 해주면.”

“남편도 애뜻하고 자식들도 애뜻하고 그래요... 항상 죄지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그러니까 뭐 고난을 당하게 생겼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뭐 감시가... 우리 자식 보위부 감옥 갔었으니까... 책임져 줘야지. 내가 엄만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3. 중상층, 도시 가정의 사례

가.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

(1) 시아버지 중매로 결혼

진영 씨(사례 7, 가명)는 해산시 출생으로 유복한 가정 1남 3녀 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진영 씨가 다녔던 전문대학교의 교장이었던 시아버지의 소개로 보안원인 남편을 만나 2002년에 결혼하여 딸 둘을 출산하였다. 시댁은 교육자 집안으로 남편은 좋은 가정환경에서 반듯한 가정교육을 받은 신사였다. 친정도 유복한 가정이었다던 진영 씨는 결혼 후 처가살이를 1년 정도 했다.

“저희 연애결혼도 아니에요. 중매결혼이다 보니까 서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석 달 만에 약혼식을 했고 그다음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서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걸(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마찰이 좀 심하게 일어난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결혼 1년간 밀월 같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신혼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신혼이 없었어요. 신혼 기간에 엄청 싸움을 했거든요.... 1년 동안에 이혼까지 거의 갔었어요. 그 시점에서 멈추고 돌아가 보니까 저의 결함, 배우자의 성격도 파악했고 이 사람이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감이 그때 잡힌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싸움 한 번 안 하고 진짜 재미있게 살았어요. 저희 주변에서도 너무 재미있게 산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2) 고위직 남편 덕에 경제적으로 유복한 삶

일반적으로 북한의 40~50대 이상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진영 씨 남편은 자상하고 가정적이었다. 남편이 고위직이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진영 씨가 남편의 뒷배(배경)로 장사(밀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경제력이 아내인 진영 씨에게 있었지만, 부인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실질적인 원동력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였다. 보안원이었던 남편은 직업 특성상 지역을 이동하면서 근무해야 해서 양강도의 도시와 농촌 지역을 옮겨가면서 생활하였다. 진영 씨가 살았던 양강도의 ○○○군은 농촌지역이지만, ‘북한의 리비아’라고 할 정도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곳에 거주하면서 남편의 인맥을 이용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128/}

“저희가 장사를 한다는 게 여기도 보면 장사라는 게 인맥 장사잖아요. 인맥이 얼굴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장사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냥 앞선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보안원들은 한곳에서 5년 이상 정착을 안 시켜요. 인맥관계가 형성되면 법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다녀요. 양강도 지역 이상으로 못 가고 도 내에서... 북한에서는 ○○○군을 ‘조선의 리비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 당시 리비아가 잘사는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자기 투자가 없이 육체만 넣으면 돈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근데 국경경비대를 뛰지 않으면 밀수를 못 하거든요. 국경경비들 공관들이 애 아빠 담당 관내에 있다 보니까 공관들이 저희 집에 술 마시러도 오고 해서 얼굴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면에 안 나서도

^{128/} 자상하고 가정적인 진영 씨 남편은 한국에 와서 병환으로 사망하였다.

제가 가서 나한테 이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대방을 선정해 주고 물동을 넘겨줘요.”

(3) 가정이 내 삶의 전부

진영 씨는 북한 여성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나는 없고, 가정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한에서 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낯설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결혼하면 ‘아무개’ 엄마, ‘아무개’ 부인으로만 호명되곤 한다.

“북한에서의 가정은 안식처가 아니라 자기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사람들이 일단 가정을 이루면 오직 이 가정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름은 없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회사 생활하고 ○○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쑥스럽고... (북한에서는) 결혼해서는 아무개 엄마, 아무개 부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나’라는 건 없어요.”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강한 신체와 함께, 건전한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 진영 씨에게 자녀에게 건전한 정신을 심어준다는 것은 ‘공부’였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탈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였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은 탈북 원인의 커다란 변화 흐름이라 볼 수 있다.^{129/}

내가 꾸린 가정이 내 삶의 전부이며, 이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영위하는 역할이 여성인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했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습득해 내면화되었다. 북한 어머니의 롤모델은

^{129/} 한국인들이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 서구사회로 이민 가는 것과 유사하다.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이었다.

“내 가정이라는 건 하나의 세포다. 이 세포가 건강해야 그 세포들로 이루어진 하나가 건강하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입을 주고 있으니 학교에서부터도 그렇게 배워지고. 근데 저희는 특히 여성들 많이 주입시키는데 김정숙이거든요. 김정숙이 진짜 김일성한테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고 그걸 애들부터 주입을 주고. ‘아, 우리들이 김정숙과 같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나. 경제적 부는 이루었으나 ‘성분의 벽’에 갇힌 가정

(1) 출신성분 문제로 더 이상의 신분 상승은 어려워 탈북

경아 씨(사례 8, 가명)는 현재 30대 후반 여성으로 2018년에 가족과 함께 탈북하였다. 특이점으로는 경아 씨의 친정어머니가 행방불명자(행불자)여서 낮은 출신성분으로 분류되어 소위 “좋은” 직업이나 직위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표 III-1〉 참조)는 점이다. 북한의 출신성분은 “본인이 출생하여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부모의 사회적 치생활경위”에 따라 결정되는 “계급적 토대”이다.^{130/} 친정어머니가 행불자인 경아 씨는 교사가 되고 싶었으나 출신성분 때문에 될 수

^{130/} 이재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p. 113.

표 III-1 주민요해사업상 계급적 토대

계급적 토대
혁명가의 가정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
노동을 하였거나 기업을 한 사람의 가정
사무원의 가정
체포, 처단, 월남, 도주, 행방불명된 자의 가정
종교를 믿는 가정
아버지,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출처: 위의 책, p. 113.

없었다. 이러한 한계가 자식세대에게도 세습된다는 것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이 있어도 이미 정해진 계급적 토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북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염증이 탈북으로 이어졌다.

“한국이랑 틀린 점이 내가 학위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도 내 자격증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얻기 전에 나의 자격증이나 나의 이제 어느 정도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출신이라는 성분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좋은 대학을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일성대나 교원 대학 같은 경우는 출신을 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교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요...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행복이, 행방불명이 됐는데... 이런 거 따지거든요. 조상뻘을 우려먹고 사는 거죠. 내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다 했는데, 발휘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깐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게 불만이고... 여기는(한국) 내가 노력하는 것을 100%를 안 해도 50% 이상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아예 그게 이제 100%가 안 되니까 결국 부모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상뻘을 우린다는 게 부모가 직업이 있으면 자식도 그 직업을 물려받고... 우리도 부모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식까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 인생을 이제 한 번을 태어나서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목표를 하는 것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아 씨는 2008년에 의사 남편과 연애결혼을 해서 딸 1명을 출산했으며 부유한 시댁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경아 씨는 연구자가 북한에서 생활수준을 상, 중, 하 중에 어

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서슴지 않고 “상”이라고 응답했다. 그런데 경아 씨는 억울한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했지만, 본인이 원하거나 권력이 있는 직업이나 직위를 갖지 못한 결핍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지같이 그냥 바라만 봐야 하구. 내가 그런 수준이면 감당할 수 있는데 나도 그런 수준을 다 갖췄는데도. 출신이라는 애매한 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살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말을 타면 경마를 잡히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처럼. 먹고사는 게 어느 정도 되니까 나한테도 직업이 있고 싶고 권력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너무 억울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자 그러면 어찌겠냐 했는데 자식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돈은 많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출신(성분)이거든요.”

경아 씨가 가진 북한체제의 불만은 김정은 시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커져갔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예전에는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면 눈감아 주었는데 뇌물로도 해결이 안 되면서 북한 사회의 부조리에 점점 깊은 회의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가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돈(뇌물)으로 해결되었던 문제가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한 것이다.

“김정은이 되면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김정은일 때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늘렸다 줄였다(단속했다가 단속을 풀었다가) 숨통을 트게 했거든요. 김정은은 계속 아예 못 하게 목 조르는 거에

요... 제가 2008년도 결혼해서 애 낳고 2010년도부터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남한테서 물건 받아서 길거리에서 팔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구루마 있잖아요, 인력거 같은 거. 거기다가 짐을 싣고 다녔어요. 그래도 단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또 1년이 지나서 통통이라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빨간 통통이라고 거기에다 싣고 다녔어요. 그게 또 이제 한 1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또 단속을 해서 아예 이제 차에다가. 북한에는 개인이 자가용을 갖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기관에다, 힘이 있는 기관에다가 적을 걸어놓고 하는데. 경찰들이 차 세우고 뭐 있어? 그것도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뒤져도... 여기로 말하면 구청장이라든가 시청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 상황이 엄청 악화가 돼서 김정은이 되면서 법이 더 강화가 되가지고 예전에는 돈 얼마 있으면 찢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간당, 한 시간이면 교도소 1년을 가야 해요. 그렇게 엄격해졌어요.”

(2) 부유한 시댁과 의사 남편, 그러나 권력은 없었다: 돈은 방어만 할 수 있고, 권력은 공격을 할 수 있다

경아 씨의 시댁, 더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는 ○○시에서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유명인사였다. 시어머니는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큰돈을 벌었던 반면, 시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못 했다. 2009년의 화폐개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가정이나 개인들이 속출했던 상황에서도 경아 씨 시댁은 건재했다. 경아 씨 시댁은 가정의 경제권이 시어머니에게 있었고, 시어머니가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건사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에서 (저희 시어머니) 모르면 간첩이에요. 나름 다섯 개 손

가락에 꼽힐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가 좀 장사를 엄청 잘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돈을 쥐주고 그랬거든요. (북한) 화폐가 얼마 없었어요. 위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손해는 안 봤어요. 그때 상품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엄청 부자가 되고. (2009년 말 화폐개혁 후) 물건값이 100 대 1 올라가니까 1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00원짜리가 1만 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쥔 변화가 많았어요. 아예 잘살던 사람들이 순간에 거지가 되고, 거지였던 사람이 오히려 순간에 이제 부자가 되는데 1년 사이 아파트 사고 막 이렇게 변화가 엄청 많았어요... 저희는 손해도 안 보고 이득도 본 게 없어요.”

경아 씨는 만며느리였는데 북한에서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무조건 원칙이라고 했다.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 사회의 무조건 원칙이므로 경아 씨는 시어머니가 일찍 사망하면서 치매인 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큰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북한 사람들은 솔직히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다 그래요. 지금두요. 시어머니가 계시면 여기 한국처럼 실버타운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자식이 모셔야 돼요. 내가 딸이라고 해도 첫 번째가 아빠, 엄마를 모실 수도 있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무조건 원칙이에요.”

경아 씨의 딸이 어릴 때, 할아버지랑 놀다가 할아버지 뺨을 때린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는 손녀를 꾸짖지 않고 손녀의 뺨을 똑같이 때린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만며느리인 자신이 시부모를 당연히 모셔야 하는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장사하면서 집안일, 육아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었던 치매인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면담 내내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에는 치매라는 말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그냥 뇌혈전, 뇌출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뇌출혈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약간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식물인간. 다 정상인데 나(자신)밖에 몰라.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씻는 거 싫어하고 자기를 천대한다고 이렇게 담배를 자꾸 피워서 폐가 안 좋으면서 담배 피우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자기 담배 못 피우게 이리면서. 그래서 애가 얘기 때 그냥 저희 이제 저녁때랑 아버님 저녁 준비하고 하면 애랑 같이 놀아주면 아기니까 앉아서 할아버지는 어찌고 하다 할아버지 뺨을 계속 딱 때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같이 손녀를 때린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의사였던 남편과는 연애결혼을 했다. 북한에서 의사는 권력이 없는 직업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무상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아프거나 응급 시 또는 출산할 때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로부터 받는 뇌물 액수는 권력자가 받는 액수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한다. 한국에서 의사는 최고의 직업이지만 북한에서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검찰, 사법경찰이 최고 인기 직업이다.

“의사도 북한에서 뇌물을 많이 받지만,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한테 담배, 술... 제한적이죠... 국가에서 월급(배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뇌물 단위가 높아요. 만 단위 이상이면 의사는 천 단위밖에 안 돼요. 의사는 간부가 아니에요! 급이 틀려요. 북한에서는 사법경찰이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경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불법을 하면 뺏을 수 있는 경찰이 제일 좋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다음으로 부러워해요.”

그 역시 다른 면담사례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결혼으로 재력과 권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 돈은 방어는 할 수 있지만 공격은 할 수 없다고, 공격하려면 권력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의 “돈은 방어만 할 수 있고 권력은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북한에서 통용되는 격언(?)을 소개해주었다. 이로써 권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읽을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토대는 좋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여자가 잘 사는 집에서 그 사람(토대 좋은 집안 남성)을 아예 데릴사위로 삼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대체로 여자가 돈이 많으면 출신 좋은 남자를... 옛날에 가문, 가문끼리 사돈을 맺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오히려 지금 더 그런 거 같아요. 장사하기 힘들고, 내가 장사를 하려 해도 권력이 없으면 힘들고... 사위가 경찰이라든가 보위부라든가 하면 내 딸도 장사하기 쉽고... 저희 남편은 권력이 없었죠. 권력을 하려다 안 돼서 (한국에) 온 거니까... 북한에도 상위 1%이려면 단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권력이 있어야 하죠.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방어만 할 수 있고 권력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연구자에게 질문함) 어떤 게 더 좋아요? 공격이 좋지 않아요? 둘 다 필요한데 방어는 공격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두 번째잖아요. 방어가 좋긴 한데 방어만 하기에는 아쉽죠. 하다가 조금 못 해서 아쉬운 거고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억울한 거죠.”

(3) 육아와 가사일, 기본적으로 여성의 일

경아 씨는 간호대학 출신으로 결혼 전에는 간호사로 활동하다가 결혼 후에는 도매업 장사를 했다. 출산 후 1년 정도 지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육아는 주로 새(친정)어머니가 해주었고, 유일한 형제인 남동생도 종종 조카를 돌봐주었다. 경아 씨의 집과 친정집은 도보

10분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친정 식구로부터 육아와 가사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었다.

북한은 한국과 달리 식구들이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문화이다.^{131/} 기본적으로 학교나 직장이 집과 가깝고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녀도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으며, 남편도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오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여기는(한국은) 아침에 헤어지면 저녁에 만나는데 북한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 와서 먹어요) ...출퇴근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 30, 40분 걸어서 출근했다 걸어서 점심밥 먹으러 왔다 걸어서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한편, 남편이 출근할 때 입을 옷을 챙기고, 구두를 닦는 일 등은 부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한다. 삼시세끼를 집에 와서 해결하는 문화에서 남편에게 손이 가는 일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빗길에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오면, 북한은 비포장도로여서 구두나 바지에 흙탕물이 튀는 경우가 많은데 오염 물질을 깨끗이 닦는 역할을 부인이 한다. 남편의 “깨끗한” 외모가 곧 내조를 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큰 도로가 아스팔트가 아니고 비포장이니까 비가 오면 바지에 다 튀고 더러워지고 아침에 나가면 신발을 반짝반짝 닦아 신고 나가야 되고 점심에 오면 또 먼지를 닦아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남편이 곧 내 얼굴이니까요. 남편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가면 저 남편 와이프 애미네이가 잘 거둬 준다, 그러니까요.”

^{131/} 다른 면담사례들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거세진 ‘치맛바람’에도 자녀의 의사 존중

경아 씨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북한 교육에 변화는 ‘무엇이든지 잘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재다능한 아이는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한 분야를 제대로 잘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다재다능한 아이로 키우려는 변화에 따라 자녀에게 피아노, 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게 하려는 ‘치맛바람’이 거세졌다고 한다.^{132/}

“피아노도 배우고... 김정일이 때는 다재는 못하는 거라구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김정은이 때는 다재, 다 잘하는 사람이 되어 된다고 바꿨어요. 요새 부모들이 난리예요. 피아노에 태권도에... 다 사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들 치맛바람이 심해요.”

경아 씨는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 듯했다. 한국에서 와서 딸이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학원은 안 보내고 있다.

다. 지역유지 2세들의 결혼

(1) 지역유지 두 집안 아버지의 중매로 결혼: 남편 권력과 부인 재력의 만남

수경 씨(사례 10, 가명)는 양강도 출생으로 유복한 가정의 1남 2녀 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수경 씨는 친정아버지가 “여자도 결혼을 해도 모르는 일이니” 대학교육을 받도록 지원해줄 정도로 나름 성차별 없이 자랐다. 친정아버지는 권력은 없었으나 지역에서 존경받는 재력가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한국에 비유하면, 친정아버지는 대기

^{132/} 참고로 경아 씨는 본인의 직접 경험보다는 주변이나 사회적 변화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업 회장의 운전기사였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좋아 인맥을 잘 쌓았고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수경 씨를 의과대학보다 가기 어렵다는 경제전문학교에 보냈다.^{133/}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지역 유지였는데,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두 사람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5년 연애를 하고 2007년에 결혼하여 아들 한 명을 출산하였다. 남편은 검찰 간부로 북한에서 고위직이었다.

“친정아버님은 량강도에서는 모르면 안 될 그런 분이었고, 시아버님은 더 했죠. 아버님보다 더 이름 있는 분이셨고요. 친정아버님이 많이 존경받던 분이니까, 또 시아버님도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그 딸이면 나는 좋아.” 이렇게 됐고, 또 우리 친정아버지도 “누구의 아들이다” 하니까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겠지” 하고서 또 이렇게 오케이 했고... 친정아버지가 권력이 없어 그렇지 재력은 누구도 못지않게 많았다고 봐도 괜찮죠. 저희는 고난의 행군이 뭐인지는 사실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 힘들었다”고 이야기더군요. 돈이 있는 집안은 (권력을 얻기 위해) 권력 있는 사위를 얻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뤘고요.”

검찰 간부인 남편은 이해심도 넓고 성품도 좋아서 결혼생활은 평화로웠다. 가부장적이고 다소 폭력적인 북한 남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편은 북한에서도 특이할 정도로 자상한 사람이어서 부부동반으로 만나면, 동료들이 남편한테 그러지 말라고 자기네가 힘들어진다고 할 정도였다. 직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134/} 생겨 남편이 탈북

133/ 학생의 실력이 아닌 부모의 '백(권력)'으로 명문학교에 진학했다는 구술에서 북한의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은 것은 오래된 일이며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이 개선되기보다는 고착화되면서 결혼으로 권력과 재력을 유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4/ 면담에서 이 내용을 말하기를 꺼렸다.

을 결심했는데, 북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온 수경 씨는 한국에서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니어서 반대했으나, 결국 남편 뜻을 따라 한국에 왔다. 본인은 원치 않았으나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것은 남편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다.

“저희 남편은 충실했죠. 저희는 좀 이렇게 다른데... 저희같이 나 이도, 연령도 좀 비슷한 부모들끼리 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와 보고서는 하나같이 “아무개 아빠처럼 좀 하라”고 남편들보고 너무 그래서, 그 남편들이 우리 남편 보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자기네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좀 그런 형태예요. 여기에 북한 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어렵게 살던 분들이 오시고 가정적으로 많이 폭행도 당하면서 사시던 분도 오셨는데, 저희는 그런 부류는 또 아니예요. 네, 저희 남편 자체가 이렇게 막 여자한테 손대고 이해를 못 해서 뭐 그런 폭언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아니고, 남편이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좀 이렇게 그런 거 했으니 더 좀 평화로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도 같이 사는 거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오지 말자”라고 했고, 저희 남편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였고... 저도 직업적으로 안정됐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됐고. 다음에 저희가 여기 와서리 정말 취업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살던 것만큼 산다고는 장담 못 하잖아요.”

(2) 부인·엄마 주도의 가정생활

부유한 가정에서 친정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자란 수경 씨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보였다. 결혼 후 경제권은 수경 씨에게 있었다. 결혼하고 집을 두 번 구입했는데, 두 번 모두 본인이 결정하였다. 신혼집은 친정에서 마련해주었고, 두 번째 살았던 단독주택은 본인이 평소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소원이어서 구입했고, 세

번째 아파트 구입도 본인이 했다.^{135/}

“경제권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장사를 계속했어요. 저도 돈을 벌고 남편도 돈 벌었지만 우선 남편이 번다고 해서 그게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 저한테다 줬죠. 저희 남편은 이렇게 주머니에 단돈 만 원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다 이렇게 꺼내서 놔요. 남편은 “아껴 써라”도 안 해요. 그런 말을 하는 거면 “네가 하라” 하고 나는 주죠.”

자녀계획도 남편은 2명을 원했으나 본인이 1명을 원해서 한 명만 낳았다. 사교육 선생님도 남보다 더 비싼 선생님을 데리고 와도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부인의 의사를 존중해주었다. 남편과 아들 모두 수경 씨가 원하는 대로 불평불만 없이 살아줬다.

“남편은 더 낳기를 원했으나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제가 하는 대로 아이가 움직여주고 남편도 움직여줬어요. 제 의견을 존중해서 다 움직여줬어요. 제가 좀 아이한테 공부하는데 너무 집착해서리 뭐 이렇게 남들이 좀 수강비가 낮은 데를 보낸다면 나는 오히려 수강비가 높은 선생님 채용해서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렇다고 해서리 그거는 어린아이한테 필요 없으니까나 일반 선생님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런 말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 그럼 해봐”...”

수경 씨도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권력의 상층부로 진입하게 하는 것이 엄마가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하면 때로 엄하게 다스렸다. 북한에서 가장 희망하는 직장은 검찰기관이라 한다. 수경 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검찰로 근무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시켰다.

^{135/} 구체적인 내용은 IV장에서 다룬다.

“(북한에서)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봤자 대학을 보낼 형편이 우리가 못 된다. 그럼 공부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모들보다 아이를 (원하는) 그 위치까지 올려놓기 많이 쉬운 그런 조건이 있었죠. 저희는, 아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그 위치까지, 너는 할 수 있고 잘될 수 있는 아이인데(그래서 애한테 공부를 더 시켰어요)... 북한에서도 검찰청에 가려면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됐어요.”

남편도 부인에게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맡겼다.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남편이 지원을 해주면 해주는 대로 아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조건 지원해줬다.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들이 부모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편은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하는 등 엄격하게 대했다.

“아이가 뭐 하겠다. 말하는 거는 100% 다 들어줬죠. 아버지한테 “나 태권도 배우주십시오. 나 축구 배우고 싶습니다. 나 권투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 아빠 같은 건 “너는 그거 못 한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시켜요. “그래? 그럼 해봐” 하고 무조건 시켜요. 개가 또 안 하겠다면 “그래 못 하겠으면 관둬” 하고 또 놔두고, “이거는 못 하겠는데 뭐는 또 하겠습니까” 하면 또 그거 시키고, 그럼 또 못 하겠다면 “관둬.” 이렇게 하고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줬었어요... 아이가 노느라고 (사교육) 수업에 안 오잖아요. 한 번은 그냥 말해. 넘어가. 그런데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죠. 그럼 나도 화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막 엄청 화를 내요. 그거 아빠가 듣죠. 듣고서 리 아빠가 그냥 가만히... 가만있어. 아이가 놀려면 그럴 수도 있어. 까먹고 못 올 수도 있지. 가가 지금 몇 살이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그런데 다음번에 꼭 지키라. 어머니 화나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그런데 그 아버지 말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무시했어. 아이가. 아버지가 한 번 말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키라는 게 우리 남편으로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지켜” 하고 말했는데도 그다음 날에 또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럼 그다음에는(체벌을 하죠)... 그런데 내보다는 많이 안 때린 거 같아요.”

라. 결혼으로 권력과 부를 확대 재생산한 가정

(1)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 어려움 없이 성장

준혁 씨(사례 14, 가명)는 북한에서 전형적인 엘리트였다. 부유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어려움을 모르고 성장하였다. 연구자가 북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질문했을 때, 준혁 씨는 북한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남한에 온 많은 탈북민을 보면서 자신은 북한에서 편안하게 잘 산 경우라고 자평했다.

“그냥 뭐 나는 그저 부유하게 살아왔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모르고 그저 부유하게 살아왔다 하는 뭐, 힘들게 살지 않았다. 그 기억밖에 그저. 북한에서는... 안정적으로 그렇게 생활해 왔다고 하니까 뭐 다른 탈북민들 만나보면 또 북한에서 내가 살면서 직접 보고 이렇게 본 경험, 체험한 거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게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 와서 우리 탈북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왜 탈북했냐?” “너무 살기 힘들어서 탈북했다.” 다 이런 증언들이니까 나는 그저 거기에서 놓고 볼 때 아, 나는 북한에서 살 때 너무 편안하게 살아왔다. 근심 걱정 없이 살았구나. 그 기억밖에 그저 뭐, 떠올린다면 그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준혁 씨는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도 북한의 모든 주민이 선망하는 경찰이 되었다.

(2) 결혼으로 부와 권력 확대 재생산

2006년 중매로 지금의 부인과 2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다. 결혼 당시, 집과 혼수용품은 부인(처가)이 모두 준비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준비한다. 소위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여자 측에서 집, 혼수, 자동차, 휴대전화 등을 모두 준비한다고 했다. 준혁 씨 본인은 이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자 측이 결혼에 드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처갓집이 돈이 좀 많았어요, 중매 결혼했어요... 그런데 원래 북한에서 (직업이 좋은 남성들의 경우)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집을 다 사거든요. 보안원이나 당일꾼이나 이런 검찰소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시집을 갈려면 여자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핸드폰을 사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대학을 나왔지. 내가 보안원이자 하면 그거 있고 벌써 중매가 이렇게 들어오면 결혼을 할 때는 빈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다 모든 거 준비해가지고 여자가 다 이렇게... 북한에서 그건 하나의 흐름이 거든요. 그러나 일반 노동자, 노동자끼리 살 때는 글썄 뭐 그런 사람들은 남자가 집을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업 있는 사람한테 시집 갈 때는 여자가 돈이 있어야 시집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오는 여자를 북한에서는 최고 신붓감이란 점에서 준혁 씨의 결혼은 “이상적(理想的)인” 결혼 사례라 볼 수 있다.

(3) 결혼생활을 주도한 남편

준혁 씨 가정의 경우, 부인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같이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준혁 씨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출산계획은

준혁 씨가 결정했다. 부인은 아들 1명을 출산하고 터울을 길게 두지 않고 둘째를 출산하고 싶어 했으나, 준혁 씨가 둘째 출산을 10년 터울이 이상적이라 생각하고 추가 출산을 늦췄다. 어렸을 때 형과 자주 다뤘던 경험으로 터울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 중심으로 해서 다 내가 가정을 끌고 나갔죠. 마찰은 있었지만 크게 싸우거나 그런 건 없었죠... 내 자체가 원래 (자녀) 계획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2년, 3년 사이를 두고 아이를 놓으면 형제간끼리 싸움을 많이 하는 게 내 경험이니까, 우리 형하고도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연령 차이를 뒤킵고 아이를 놓자. 그렇게 되면 너무 어린 동생이니까 싸우지 않고 되게 고마워할 거 같더라구요. (아내는 선생님의 자녀 출산계획에 동의하셨나요?) 원래 와이프는 빨리 몸을 털고 싶어 했죠. 젊었을 때 빨리 털려고 둘째를 만들려면 빨리 만들자. 그런데 내가 반대했거든요. 그거를, 한 10년 차이를 뒤킵서 낳아야 형제간에 만약의 경우 우리가 늙어도 형이 동생을 돌봐줄 수 있지 않겠냐고.”

(4) 엄부자부(嚴父慈夫)

준혁 씨는 아들에게 자상한 아버지보다는 엄격한 아버지였다. 본인이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에게 거는 기대도 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엄격하게 양육했다.

“엄격한 아버지죠. 잘못하면 따끔하게 때리죠. 와이프는 제가 (애를) 때릴 때 자주 말리죠. 그래서 와이프와 갈등이 있었어요. 공부 안 할 때, 거짓말할 때, 놀다가 밤에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싸움을 하고 들어왔을 때 그저 이럴 때 주로 때렸죠.”

지금 북한 사회가 거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

지만, 최고의 리더는 재력만으로 될 수는 없다. 높은 지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똑똑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인맥도 중요한 요건이다.

“사람이 리더가 되려고 해도 지식이 있어야 리더가 리더질을 하지, 지식이 없으면 리더를 못 하니까. 결국 돈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산다고 해도 지식이 없으면 밑에 사람한테서 욕이나 먹어요... 여기(남한)나 북한이나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사람을 아무리 또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이끌어줄 앞에 사람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해 기관사가 없으면, 앞에 기관차 대가리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지만, 부인에게는 가사일도 도와 하는 등 자상한 남편이었다. 여자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와줬고,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가사일을 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나 여기(남한)서나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와이프가 힘들어할 때 내가 다 해주고, 분담보다도 스스로가 하죠. 분담은 무슨 분담이에요. 나는 인민학교 때부터 내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제가 딸 노릇을. 우리 아버지 엄마가 딸을 너무 부러워하니깐 내가 집에서 딸 노릇을 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 때부터 하던 게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저 결혼해서도 와이프를 많이 도와줬죠. 와이프는 자꾸 하지 말라고. 제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사람 오면 뛰어 들어가요, 집에. 와이프가 부엌에서 하는 것같이 이렇게 하고.”

IV. 물질환경과 재생산: 소비·양육을 통해 본 가정생활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물질환경과 재생산: 소비·양육을 통해 본 가정생활

이 장에서는 김정은 집권 전후의 물질적 변화로 북한의 가정생활과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식생활, 주거환경의 변화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거환경은 거주하는 공간(주택),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전자제품,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자원(전기와 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가정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재생산 부분은 자녀 양육 및 교육, 그리고 가사일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1. 식생활과 주거

가. 식생활

(1) 계층에 따른 식생활 차이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식생활 수준은 그 가정의 경제력을 보여준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에서 중층 이상의 생활을 누린 가정

은 항상—고난의 행군 시기에도—흰쌀밥을 먹었고, 육류와 생선도 일주일에 꾸준히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면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평양에서 한의사를 하면서 월 100달러 이상을 썼던 사례 1, 부유한 시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와 권력을 세습한 사례들에서 드러났다.

“저는 솔직히 먹고 싶은 거 다 먹다 왔어요. 저희가 한 달에 100달러 이상 썼는데 100달러씩 쓰는 집은 잘사는 집들이예요. 그만큼 내가 그저 먹고 쓰고는 살았어요.” (사례 1)

“시어머니가 매 해마다 중국에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면은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쌀을 사놓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쌀밥 먹고 온 가족 고기 먹고 싶으면 장마당 가서 고기도 한 2킬로 정도 사가지고 고깃국 해서 먹고.” (사례 3)

“먹는 음식에서부터 그 집안의 경제력 수준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저희가 (남편의 직장으로) 농촌에서 살 적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반찬이 그래도 다섯 가지는 올라가요. 그 집 음식 가짓수를 좀 보면 이 집의 생활이 이 정도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음식상을 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잘사는 사람들이 백미에 고기, 생선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저는 애 아빠가 직업이 좀 그러다 보니까 갖다주는 게 많아요... 고기는 일주일에 세 번, 좋아하는 생선은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는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밥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빵도 먹고. 빵은 도시에서 그걸 가져와서 도매로 파는데 아무튼 도시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먹지 못하고 특정한 날에만 먹는 거죠... 빵이 왜 이렇게 발전이 됐냐 하니까 한국에서 빵 공장도 지어주고 하잖아요. 그게 다 지원 목적에 맞는 대상들한테 그 빵이 가는 게 아니고 장마당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이 전국 각지에 다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빵도 포장도 잘하고 맛도 맛있고.” (사례 7)

북한에서 먹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던 이들 가정은 먹거리 종류가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양질의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고 사서 먹을 수 있느냐가 잘사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결정적 차이라고 했다. 같은 라면, 쌀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한국산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을 먹느냐는 소비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먹거리)차이는 가격의 차이예요.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제일 비싼 게 한국산이구 그리고 일본산, 러시아산, 동남아시아, 중국, 국산(북한산)... 북한에서 중국 라면은 많이 먹긴 하거든요. 여기 진라면, 북한에는 매콤하니 엄청 좋아해요. 가격이 비싸니까 한국 라면은, 중국 위안으로 저희가 올 때만 해도 한 개당 3원20전. 중국산은 1원20전도 하니까 중국산은 3개 살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사 먹는 거구... 흰쌀도 가격 차이가 커요. 중국산, 수입산, 조선쌀(북한쌀)에 따라 찰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사례 8)

“평안남도 문덕군이 김정일이 부자가... 김일성이가 대대로 좋은 쌀 골라 올라가던 고장이예요. 거기에서 좋은 쌀이 제일 많이 나오. 그 평안남도 문덕군이라고 용림쌀. 문덕군 용림리라고 쌀이, 제일 1등쌀 하면 거기 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있으니까 사서 잘 먹고 하죠. 돈만 있으면 좋은 쌀로 골라 먹죠. 쌀 품종 보고 쌀 시장에 가서 좋은 쌀, 깨끗한 쌀만 사먹었죠.” (사례 9)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구매력만 있으면 수입제품 또는 국산의 라면, 빵, 우유 등 주식 외의 식품들을 장마당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세끼를 밥을 먹는 것이 일반적인 북한에서 사례 10은 오히려 아침은 밥 대신 빵과 우유를 먹었다. 북한에서 빵은 쌀보다 비싼데, 가격을 고민해본 적은 없으며 잡

곡을 좋아하는 개인적 취향으로 옥수수 죽을 일부러 해서 먹었다.

“간식도 떨कु지 않았어요. 라면은 우리 딸이 끊기지 않고 잘 먹었어요. 돈만 주면 거기 가서 라면 사다 먹더라고요. 함북도는 한국 라면은 없었고... 중국 라면이 엄청 맛있거든요. 쌀 1킬로에 5천 원이고, 라면이 천 원이면 비싸긴 비싸죠. 한 끼, 혼자서 먹기에는...” (사례 9)

“먹는 것도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엄연하게 다르겠죠. 저희는 북한에서 하루 세끼를 다 밥으로 먹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그냥 빵을 먹었고요, 우유 한 고뿌에다... (빵은) 쌀보다 비싸요.(살 때, 고민하고 사지 않으셨나요?) 고민할 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주로 소련 우유를 먹었어요. 빵은 북한에서 생산한 빵을 먹었구요... 저는 잡곡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옥수수죽 같은 것도 정말 좋아해도, 저희 남편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흰밥만 좋아해요.” (사례 10)

이에 비해 중하층 가정은 고기류는 명절 등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먹고, 평상시에는 김치와 채소 등 채소류 위주로 먹었다.

“밥은 흰쌀 먹었고 고기 같은 거는 명절 때나 먹는 음식으로 뒀고. 저는 집에서 김치, 콩나물 이렇게 야채 같은 걸 많이 먹었어요. 김치, 콩나물 뭐... 김치는 우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사례 2)

“기본 감자에다가 보리, 강냉이 있잖아요. 돼지를 한 마리 길러가지고는 돼지를 팔아서 옥수수 사다가 섞어서 감자하고 보리하고 옥수수하고(그렇게 먹었어요). 아침, 점심은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옥수수국수 있잖아요. 국수가 제일 거기서는 좀 싸고 좀 영양가 있고 하나까. 저녁에는 또 일을 안 하잖아요. 그저 먹고 자니까.” (사례 4)

(2) 지역에 따른 식생활 차이

2021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고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이하 VNR)를 보면, 농촌인구의 생활기준과 농촌경제의 물질적·기술적 기초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농격차 감소’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136/} 이는 북한의 도농격차가 크다는 반증이다. 본 면담조사에서 먹거리를 포함해서 도농 간 전반적인 생활수준이나 인식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평양시에 거주했던 사례 1의 면담에서 평양 주민과 비(非) 평양 주민은 세계관 자체가 달라서 남한에 와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생각이나 뜻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평양하고 지방하고 볼 때는요. 지방사람들은 평양사람들만큼 우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라 밖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이 불만이 더... 평양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보면요, 우리 같은 탈북자들끼리도 이 지방 사람들하고 평양사람들하고는 좀 안 맞아요. 네, 세계관이 벌써 그렇게... “너희들은 잘 먹고 살아 온 거” 이렇게.” (사례 1)

이처럼 지역 간의 인식 차이는 먹거리 격차로 이어진다. 농촌과 도시 모두를 경험한 사례 7을 통해 농촌지역 먹거리 실태의 일면을 알 수 있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먹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지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옮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2021.9.6., p. 35.

거리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농촌에서는 시금치, 콩나물, 두부 등을 자급자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농사를 여자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도시 여자들보다 생활이 더 힘들다고 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뭐냐 하면 도시는 그래도 장마당이라는 데 근처에 있다 보니까 금방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다가 먹을 수 있는데 농촌은 그렇지 못 해요. 장마당이 근처에 없고 장사하는 집들은 좀 있는데 여기로 말하면 편의점 같은 형태로 장사를 하거든요... 농촌에서 자기 텃밭을 일찍이 심는 거예요. 4월부터는 텃밭에서 나오는 시금치부터 시작해서 뜯어 먹을 수 있게 하고 콩나물 같은 건 길러서 먹어요. 또 두부를 집에서 파는 집도 많아요. 그걸 가져다가 먹고 그러니까 농촌 여자들이 많이 힘들죠. 육체적으로, 농사일도 하면서.” (사례 7)

농촌은 도시에 비해 먹거리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라면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농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물류유통에 필요한 운송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137/} 라면과 같은 공산품들이 농촌에 빠르게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사람들은 라면을 못 먹어 봤다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 평안남도 있을 때부터 그 라면을 박스로 가져오기 잘했으니까... 우리 딸이 좋아했어요. 여기서도 그때 먹던 중국 라면 맛을 자꾸 추억해요.” (사례 9)

137/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 129.

(3) 커피 등 서구 음식문화는 미(未)형성

이 면담조사에서는 북한에는 한국에서의 커피, 카페, 프랜차이즈 햄버거 식당 같은 서구식 음식문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 한 사례에서 커피가 잠을 깨운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캔커피를 마신 적은 있다는 정도였다. 북한에는 커피나 차를 마시는 다방이나 카페 문화는 아직 없다고 했다.

“북한에도 캔커피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캔커피를 마셔봤거든요... 저희 시조카가 드셔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뭐 이거 승능보다 못하구나. 잠 올 때 이걸 마시면 잠이 깬다고. 우리 조카애가 컴퓨터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밤새 영상 편집해야 될 일이 많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걸 먹는다고. 이걸 먹으면 확실히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무슨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마시며 브런치를 먹으면서 이런 문화는 없어요. 커피숍 자체가 없어요.” (사례 7)

신문보도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전국에 찻집과 음료수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커피도 팔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본 면담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138/}

나. 주거[住]

북한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직장을 통해 노동자에게 주택을 무상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난과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138/ “[남북교역]북한에서 다방의 사업성 분석 및 방향 설정,” 『한국경제』, 2018.1.10., <<https://www.hankyung.com/thepen/lifeist/article/202103238533Q>> (검색일: 2023.6.12.); “자본주의 상징하는 맛...북한 카페는 어떤 커피 팔까?,” 『동아일보』, 2020.7.2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0/102069829/1>> (검색일: 2023.9.26.).

중반 이후부터 국가건설자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주민 간의 주택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139/} 주택 구입이 사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 구매력이 없는 가정(개인)은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문제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에 북한이 보고한 VNR(2021)에 따르면, 늘어가는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분배하겠다고 발표하였다.^{140/} 이를 위해 2021~2025년 5개년 계획으로 평양에 5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141/}

본 면담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2021년 이전에 입국한 사례들이라 북한의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주택공급 계획 수립 자체가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간부였던 사례 14는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제공하지 못하면서 결혼할 때 처가에서 집을 장만해줬다.

“원래 (주택을) 줘요. 주는데 (현재는) 안 주거든요. 원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은 ○○○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에 내가 배치받아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에 배치받아서 들어갈 때, 원래 나한테 집을 하나 줘야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한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국가집이 부족하니) 아내가 집을 안 주죠.” (사례 14)

139/ 김진석, “북한 주택시장의 현황과 전망,” p. 1.

1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지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옮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p. 36.

141/ 위의 책, p. 37.

주택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은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는 확대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142/} 그래서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하는 여성은 최고의 신붓감으로 꼽힌다.^{143/}

한편, 북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집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경제난 이후 국가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144/} 본 면담조사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계급에 따라 주택 규모가 다른데, 상층계급이 거주하는 특호와 4호는 전체 주택에서 15%, 중층계급이 거주하는 3호와 2호는 25%, 일반주민들이 거주하는 1호는 60%를 차지한다.^{145/} 당 간부를 비롯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 칸 집으로 82.5m²(약 25평) 규모에 산다.^{146/}

〈표 IV-1〉은 2000년대 이전 탈북민들의 면담으로 작성된 정보라는 점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본 면담에서 나온 주거환경의 참조자료로 활용한다.

142/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주민의 삶과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114.

143/ 위의 책, p. 114.

144/ 통일부 북한인권포털, “일상생활,” <https://unikorea.go.kr/nkhr/current/life/living/daily/%3Bjsessionid=x+X7w3Y3VvCI2nb0795sYSlf,unikorea21?boardId=bbs_000000000000078&mode=view&cntId=51399&category=&pageIdx=> (검색일: 2023.6.9.).

145/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청소년백과,”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dict01/view.do?id=15451&mid=SM00000215&limit=10&qViewYn=true&odr=hits&eqDiv=04>> (검색일: 2023.6.8.).

146/ 위의 자료.

표 IV-1 북한 주택의 등급

구분	주택형	가옥구조	입주대상자
특호	독립고급주택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정원, 수세식변소, 냉난방장치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내각 부상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 아파트	방 2개 이상, 목욕탕, 수세식변소, 베란다, 냉온수시설	중앙당 과장급 이상 내각 국장급 이상 대학 교수, 인민군 대좌, 문예단체 간부,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방 2개, 부엌, 창고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방 1~2개, 마루방, 부엌	소학교, 중학교 교장 일반 노동자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방 1~2개, 부엌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단층 연립주택 방 2개, 부엌, 창고	협동농장원
	구옥	방 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변두리 농민

주: 상기 표는 북한 주택 관련 연구결과와 탈북민의 진술을 반영한 것이나, 김정은 시대의 변화는 충분히 담지 않았기에 북한의 최근 현실과 다를 수 있음.

출처: 국립통일교육원, “북한청소년백과,”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unifaq/list.do?mid=SM00000215&odr=news&limit=10&sc=T&sv=%EC%A3%BC%ED%83%9D>> (검색일: 2023.6.12).

(1) 자가(自家)

북한에서 도시의 중상 이상 가정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면담에서도 중층 이상 가정은 일부를 제외하고(사례 7), 신혼 때 시댁 또는 친정에서 아파트를 마련해줘서 분가로 시작했고 점차 평수를 늘려나갔다. 사례 3은 남편이 사망하고 재력이 있는 시부모 집에서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았다. 잘사는 동네의 물이 잘 나오는

두 칸짜리 아파트이므로 2호 내지는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오기 직전에) 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파트 두 칸 짜리예요. 부엌하고 방 하나. 우리 아파트는 물이 잘 나왔어요. 수돗물이 잘 나왔어요. 우리가 시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양강도 혜산시 ○○동 하면은 제일 중심구역이에요. 제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잘 나왔고...” (사례 3)

처가살이를 1년 정도 한 사례 7은 땅집(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평수를 늘려나갔는데, 탈북 직전에 살았던 집은 방 2개, 부엌, 개인 화장실 등이 있었으므로, 3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처가살이를 저희가 1년 2개월을 한 다음에 애 아빠가 돈을 마련해서 저희 둘이 신혼집을 따로 또 구해서 나갔어요(분가했어요)... 저희가 살던 곳은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땅집. 주택이었거든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렇게 여러 집이 꼬로록 있는 거. 이 집에 마당이 있잖아요. 공동 마당 할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개별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에 자기 화장실이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만 자기 개인 화장실이 집 안에 있거든요. 신혼 때 집은 방 한 칸이었고, 이후에는 방 두 칸, 부엌이 있었어요.” (사례 7)

사례 8은 신혼 때는 시댁에서 집을 장만해주었는데, 재력이 있는 시어머니가 일찍 사망하면서 치매가 있는 시아버지를 만며느리인 사례 8이 모시고 함께 살았다. 결혼하고 탈북 전까지 두 번 이사를 했는데, 장사로 돈을 많이 벌면서 20평대 아파트에서 40평대 아파트로 평수를 늘려나갔다. 집의 크기 외에도 주변 환경이 중요한데, 사례 8은 ○○시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위치에서 살았다. 방 2개의 신형아파트이므로 3호로 분류할 수 있다.

“저희 결혼하고 새로 산 집은... 한 20평 정도로 크죠. 위치도 좋구요... 여기로 치면 강남 중심이에요. 위치가 좋다 보니까 비싼 거죠. 방 두 개랑 부엌이랑. 거실은 없었고. 복도를 기준으로 윗방, 아랫방, 화장실 따로 있고요. 여기서 더 좋은 데로 갔어요. 장사가 잘돼서... 2012년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북한은 (평수가 크다고 해서) 방을 세 개, 네 개 만들지 않아요.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크기만 커져요... 저희 시어머님도 저희 결혼하고 바로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아버님은 제가 모시고 있었고 5년 동안 저랑 같이 있었어요.” (사례 8)

사례 9의 경우, 첫 번째 집은 남편이 구입했고 살림살이는 본인이 마련했다. 첫 번째 집은 단층집(땅집)으로 윗방, 아랫방, 부엌, 창고, 텃밭이 있는 세 칸짜리 집이었다. 사례 9의 집은 상기 표에 따르면,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 9의 면담에서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살림살이는 여자가 준비한다는 전통적 풍습이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성별을 떠나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는 측에서 준비하는 추세이다. 최고의 신붓감은 집을 장만하는 여성이란 말도 이러한 추세에서 나온 말이다. 사례 9는 처음에는 단층집에서 살다가 거주지를 옮기면서 새 거주지에서 방 2개, 부엌, 복도가 있는 거실로 구성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 3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거기는(북한은) 남편은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건 또 있어요. 다 있진 않아도 그래도 남편이 “남자가 집은 하고 세간살이 여자가 맡아야 된다.” 세간살이라는 게 티비고 냉동기고 세탁기고 이런 건 여자들이 하고. 첫 집은 남편이 전량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세간살이, 거기에 필요 되는 것만 맡았구요. 단층집으로 윗방, 아랫방 두 칸에다가 부엌 있고 대체로 세 칸인데, 세 칸이 다 구비돼 있는 집이었어요. 창고, 텃밭도 있고,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

함복으로 와서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어요. 새 아파트는 아니고 윗 방, 아랫방, 부엌, 거실이라고 전실(복도) 있었어요.” (사례 9)

사례 10은 결혼생활 중 총 세 번 집을 매입했다. 첫 번째는 신혼 때 친정에서 구입해 주었다. 사례 10은 고위직 남편과 결혼하면서 재력이 있는 친정아버지가 아파트를 마련해주었다. 두 번째는 남편 직장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거기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했다.^{147/} 세 번째는 2015년에 매입해서 탈북 직전까지 살았던 아파트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사례 10의 세 번째 집은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하면서 분가를 했죠. 집은 저희가 마련했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시로 배치받아서 **시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쪽 살았어요. 아파트가 부의 상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사는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에서 살죠. 생활이 편안하잖아요. 문 걸고 들어가면 끝이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후에 더 큰 데로, 더 좋은 데로 이사 했구요. 처음에 살았던 신혼집은 화장실 하나, 방 하나. 베란다 하나. 부엌 하나. 그랬죠... 남편이 ○○시에 나가 한 6개월 정도 산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단독주택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단독주택을 제가 구했어요. 그때는 6개월 산다고 생각 못 하고 그냥 장기간 살겠지 하고 이 집을 구매했죠. 저희는, 앞마당도 있고 다 꾸밈는데 저희는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다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다시 하면서 저는 집에다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놔뒀어요... 우리가 2019년에 왔으니까 2015년도. 그럼 그때 두 번째 아파트는 거실이 큰 게 하나 있고, 방이 3개 있고 화장실은 2개 있었죠.” (사례 10)

147/ 미장과 도배, 장판뿐 아니라 부엌과 욕실의 타일까지 직접 일꾼을 불러서 설비하는 것을 ‘꾸리기’라고 표현하는데 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하며 최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류열풍이 확산되면서 부유층에서는 한국식으로 꾸리기를 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주민의 삶과 공간』, pp. 47~48.).

(2) 동거가정

북한도 무상 주택공급제도가 붕괴되면서 현실은 개인 간 주택을 거래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경제력이 없으면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며, 이마저도 어려우면 친척이나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 한 칸을 얻어서 얹혀사는데 이를 ‘동거’^{148/}라 한다. 방 한 칸의 월세는 중국 돈 50원 정도이다. 월세는 불법이지만 ‘동거’ 외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149/} 북한에서 이러한 동거가정이 10명 중 3명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한다.

“북한은 진짜 주택이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또 집이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국은 집이 없으면 이렇게 전 세라던가... 그런데 아직 북한은 그게 안 돼가지고 집이 없으면 그냥 밖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좀 잘사는 사람들이 방이 몇 칸 있잖아요. 한 방을 따로 떼어가지고 동거 같은 거 주거든요. 우리 여기로 말하면 월세나 그런 식의. 그래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은 그 방 한 칸을 빌리는 거죠. 빌려가지고 거기서 살면 주인한테 한 달에 중국 돈 50원이예요. 그 정도로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 집을 빌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 열 명 정도에 집이 없는 사람이 30%는 더 되는 거 같아요.” (사례 2)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집 없이 남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같이 일자리를 언느라고 애를 쓰고 이 일도 해보고 남의 집 청소도 해보고 그다음에는 미장하는 데 가서 그런 일도 해보고... 2018년 기준으로 동네 10가구 중 5가구는 집이 없어서 어디 세간 못 낼 형편이면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사례 4)

148/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주민의 삶과 공간』, p. 113.

149/ 위의 책, p. 113.

이윤진 외의 연구(2021)에서도 동거가정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하층 가정이었다.

“방은 단칸이죠. 한방에서 친정엄마, 사위, 아이랑 다 같이 살았어요. 장난감은 못 사줬어요... 옷도 물려 입을 데가 없어서 손으로 다 만들어서 입혔어요.” (사례 2)^{150/}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어요. 아이 방은 당연히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았지... 장난감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사례 3)^{151/}

2. 가전과 ICT^{152/} 제품 구비 및 이용 실태

가. 전통적 가전제품 구비 및 이용 실태

2017년 유니세프에서 실시한 북한의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조사에 따르면, 북한 가정의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컴퓨터 구비 현황은 <표 IV-2>와 같다. 라디오(94.1%)와 TV(98.2%)는 대부분 가정에서 구비하였으며 지역 및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반면, 외부와 소통하는 수단인 전화기와 컴퓨터,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구비 정도가 낮으며 지역 및 가구소득에 따른 구비 현황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설치는 전체 1.4%이

^{150/} 이윤진 외,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p. 152.

^{151/} 위의 책, p. 152.

^{152/}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약자.

고 상위소득 40%도 2.7%에 불과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나라 밖의 뉴스나 정보와는 차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 북한 가정 내 가전제품 및 ICT 구비 현황

(단위: %, 가구 수)

구분		라디오	TV	집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	가구 수
전체		94.1	98.2	45.2	69.0	18.7	1.4	8,499
지역	도시	95.7	98.7	61.9	80.4	25.2	1.8	5,252
	농촌	91.7	97.3	18.1	50.6	8.3	0.8	3,247
가구 소득	하위 20%	86.4	95.8	11.7	36.4	4.6	0.5	1,690
	중간 40%	94.3	97.8	32.3	66.1	11.0	0.8	3,410
	상위 40%	98.1	99.4	77.3	91.2	35.0	2.7	3,399

출처: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7), p. 31.

그런데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북한에서 이러한 가전제품은 무용지물이다. 평양시조차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전기와 수도를 공급하며 수력발전소가 있는 혜산시도 시내 중심으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고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실정이다. 즉, 일부 여유가 있는 동네 주민들은 돈을 지불하고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하루 일정 시간만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있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양시에도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전기는 저녁에 7시부터 11시까지. 전기는 오전엔 안 주죠. 아침에도 준 적이 있고 안 준 적이 있지만 명절날은 하루 종일 붙은 쥐요.” (사례 1)

“○○발전소, ○○○○○○○발전소 이런 발전소들이 있어가지고 전기를 쬐는데 집이 위치가 좋잖아요. 시내 중심이니까. 우리 인민반이 20세대인데... 인민반이 단합이 돼가지고 우리 돈 만 원씩 내면은 그 시간에 우리 인민반만 공급을 해주고 하거든요. 시내 중심을 떠나서 조금 생활이 어려운 동은 ○○동이나 ○○동은 돈 안 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게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세탁기 있고 선풍기도 있지만 전기가 잘 안 오니까 하루에 5시간씩 주는 걸 그 순간에만 냉장고 켜놓고 쓸 수가 없고 하니까 별로 사용을 안 했죠.” (사례 3)

김정은 시기에 오히려 전기 공급이 더 안 돼서 농촌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도시라 하더라도 국경지역은 전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서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빨래는 손빨래로 하고, 냉장고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음식이 상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냉장고 대신 극동기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기를 구입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장마당에다 내다 판다고 했다.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뭐 내라는 것도 많고. 국민들의 혈세는 계속... 전기도 점점 더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사일 쏘 올린다는 소식만 자꾸 들리고. 보면은 와, 진짜 점점 가면서... 가장 심한 게 전기더라고요.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한 3분지 1, 4분지 1로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오는 그런...” (사례 5)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냉장고가 왜 필요해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런 걸 극동기라고 했어요. 그게 좀 더 실용성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는(남한은) 그냥 자기 편리성에 맞게 가전제품을

이용하지만. (북한은) 경제적 실리에 맞게. 극동기로 아이스크림이 라고 만들어서 여기다 얼려서 그걸 판매를 해요.” (사례 7)

“냉장고, 세탁기는 사용하지 않았고 필요가 없어요. 기본으로 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전기가 오면은 그냥 섹테레비 그냥 보는데 불이 안 오면 밧데리로 액정(TV)을 봐요.” (사례 9)

부족한 전기는 태양열광판을 구입해서 충당하였다. 농촌의 하층민 가정도 전기는 필요하니까 허리를 졸라매서라도 태양열광판을 구입했다고 한다. 구입한 가정이 농촌에 30% 정도 되고, 나머지 70%는 등잔으로 살았다 한다.

“저희가 태양열 빛판이 하나 있고 거기에 배터리가 3개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조명하는 배터리 하나, TV 보는 배터리 하나. TV도 태양광을 연결해서 배터리 충전해서 연결해서 봤거든요. 그렇게 밧데리 세 개를 가지고 썼어요. TV를 보는 게 배터리 하나로 다하지 못하니까. 밤새 TV를 보려면 밧데리가 모자르니까.” (사례 7)

“태양열을 그 광판을 많은 사람들이 좀 구매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값이 고달프니까. 허리띠 조이면서 해놓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뭘 캐다 팔고, 뭘 해다 팔고 해서라도 그저 한 마을의 30%는 그걸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저녁마다 암흑과 지옥이 찾아오니까 너무나도 서러움 있고. 저희 집은 진짜 뭐 요만한 전지 하나로 그저 살았죠. 등잔 디젤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잔도 켜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저희 집도.” (사례 5)

일부 면담에서 회사 전기를 사서 사용했거나 심지어 공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공짜로 전기는 사용했지만 수도물이 나오지 않아

서 세탁기는 구입하지 않았고, 대신 동네 할머니가 집에 와서 빨래를 해줬다고 했다. 빨래에 필요한 물도, 동네 사람을 고용해서 지게로 길러오게 해서 사용했다. 길러온 물을 구멍탄^{153/}으로 끓여서 온수로 사용했다. 이들 피고용인에게 수고비는 없었고 밥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고 했다.

“북한에서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사서 썼어요. 회사에 전기를 매달 돈 주고. 근데 이제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세탁기 돌리면 밑에 집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돌릴 때 엄청 조심하고.” (사례 8)

“전기는 공장들 회사들에는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은 사비로 나서 썼는데 저는 공짜로 그냥(썼어요)... 티비, 냉장고 가전제품들은 다 있었는데 세탁기는 없었어요. 왜 세탁기가 없냐. 수도가 안 나오니까. 집에. 세탁기를 어디 연결한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탁은 우리 마을에 할머니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와서 다 해줬어요. (수돗물이 안 나왔는데 물은 어떻게 사용했나요?) 사람을 고용해서 지게로... 목욕은 대중목욕탕에서 가서 씻고 머리하고 세면은 집에서 물 끓여가지고 샤워실 들어가서... 구멍탄으로 물을 끓여서... (할머니한테는 보통 얼마 정도 드렸나요?) 안 줘요. 집에 와서 그저 밥이나 먹죠.” (사례 14)

북한은 전기, 물과 같은 공공자원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재력이 있는 계층은 불법이지만 사비를 내고 사용했고, 권력이 있는 계층은 사비조차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본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권력층에서는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대신(구입해도 무용지물이므로) 사람을 고용해서 가전제품을 대체하였다.

^{153/} 도시에 중층 생활을 했던 사례들도 대부분 나무 장작을 사용했다.

나. ICT 제품 구비 및 이용 실태

컴퓨터, 스마트폰, SNS 등은 우리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오늘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 신문물은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더 나아가 정치 분야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폐쇄된 사회라 하지만, 북한도 ICT 제품 이용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앞의 <표 IV-2>에서도 집전화(45.2%)보다 휴대전화(69.0%)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휴대전화

김정은 시기의 주목할 만한 변화된 물질환경으로 먼저 휴대전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휴대전화 보급이 본격화되었다.

“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물질은 핸드폰이라 볼 수 있죠. 저는 2010년부터 사용했는데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생활을 크게 바꿨다기보다는 그냥 편리한 거죠. 친구들과 연락하고 여자친구랑 연락하고... 사진은 물론 찍을 수 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인터넷이 되는데 북한 국내망. 들어가면 폰 사용료도 많이 나가고, 들어가야 딱히 볼 게 없고 하니까 안 들어가죠.” (사례 11)

“2011년도부터 (핸드폰이) 보급됐죠. 그런데 그때 보급됐는데 잘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터지고 좀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니까 그다음에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례 14)

<표 IV-2>를 보면, 지역 및 가구소득에 따라 휴대전화 보급률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는 80.4%로 대부분 주민들이 휴대전

화를 사용했다면, 농촌주민은 약 51%로 절반가량이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보급률은 높는데, 가구소득 상위 40%는 10명 중 9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본 면담조사에서 도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높은 가정(예: 사례 1, 사례 14)에서는 휴대전화를 두 개 이상 소지하였다.

“저 핸드폰 2개였어요. 하나는 평양 전화만 할 수 있는 거 191. 하나는 지방 전화 195. 지방에는 산이 높기 때문에 좀 더 파장이, 이렇게 장애가 걸리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191 가지고, 평양시 전화 가지고는 지방 전화 잘 못 들어요. 파장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방 전화 195라는 게 나와가지고 지방 사람들은 다 195를 사용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2개씩은 다 갖고 다니죠.” (사례 1)

“내가 (핸드폰을) 세 대를 썼어요. 두 대는 내 거고, 한 대는 국가가 지급한 거고.” (사례 14)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품이다. 전파장애로 통화가 안 되는 지방과 거래하기 위해서 파장이 다른 휴대전화를 두 개 사용하기도 하고, 유선전화와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빠른 소통은 편하지만, 정보가 빠르게 전해지면서 장사이윤을 많이 남기지 못하게 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핸드폰이 주민들 먹고사는 생활에 당연히 변화를 가져오죠. 저희 와이프가 장사할 때 유선전화도 많이 쓰고 핸드폰도 같이 쓰고. 그런데 와이프가... 량강도, 청진 이런 데하고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핸드폰이 안 되거든요. 잘 안되니까 핸드폰으로 사용 못 하잖아요. 그게. 다 유선으로만 통화해야 되거든요. 거기. 그

러니까 그런 데는 유선으로 통화하고.” (사례 14)

“핸드폰이 좋은 점은 어떤 일을 재깍재깍 캐치할 수 있는 그게 좋은 점이라면 나쁜 점은 장사. 마진이 적게 떨어져요. (정보를) 너무 다 아니깐 많이 붙일 수가 없어요.” (사례 7)

한편,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탈북해서 한국에 온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란 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다른’ 물건이다. 즉, 탈북한 가족의 안부를 묻고,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데 휴대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다. 장사를 하지 않은 사례 1이 휴대전화를 두 개 소지한 이유도 탈북해서 남한에 간 남편과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사례 1의 남편은 러시아에서 남한으로 탈북하였다.

“내가 남편을 (러시아에서) 들어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한국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3년 만에 브로커를 통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나니가 4년 동안 감시받으면서 움짱달짱 못 하고... 솔직히 남편한테서 소식 주고받는 거. 저 핸드폰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평양 전화만 할 수 있는 거 191. 하나는 지방 전화 195.”^{154/} (사례 1)

(2) USB, 노트텔(NOTETEL), 액정TV(판형텔레비죤)

이번 면담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노트텔과 액정TV^{155/}가 많이 나왔다. 노트텔, 액정TV의 공통점은 USB를 꽂아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USB에는 주로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154/ 남편이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었던 상황이라 195는 받지 않았다고 함.

155/ “北 주민 노트텔 인기 시들... 요즘은 액정TV가 대세.” 『데일리NK』, 2019.7.30., <<https://www.dailynk.com/北 주민 “노트텔 인기 시들... 요즘은 액정TV가 대세/>> (검색일: 2023.9.22.).

저장되어 있다.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북한에서 태양열광판을 설치해서 노트북이나 액정TV로 한국 드라마, 영화를 시청할 정도로 한류 열풍이 높다고 볼 수 있다.^{156/}

USB는 작고 이동이 편해서 단속을 피할 수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외부 세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노트북, 액정TV가 인기가 높은 이유도 USB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온 USB는 다시 장마당에서 8~10달러에 거래되어^{157/}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 북한 당국은 일상적으로 검열과 단속을 실시하며,^{158/}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액정TV에 USB, DVD 등을 연결하는 장치를 막아버리는 기능을 부착하고 있다.^{159/}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북한에서는 지능형 손전화보다 노트북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160/} 노트북은 중국에서 수입하며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높지 않다. 무엇보다 알판(CD)은 단속반이 들이닥쳤을 때 쉽게 빼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노트북은 USB를 꽂기 때문에 그냥 빼서 버리면 되므로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161/}

“그전에는 알판이라고 말하거든요. 알판은 조금 좀 많이 불편했어요. 불순녹화물 이걸 집중단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검열을 하면

156/ 강동완은 북한 주민들이 USB, DVD를 통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한류가 북한 주민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한류, 북한 주민의식 영향, 체제변화 마중물 될 수 있다.” 『통일과미래』, 2022.4.4., <<http://www.tongnastor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 (검색일: 2023.9.26.).

157/ “미 단체, 한국 영화 담은 USB 3천 개 북 반입.” 『자유아시아방송』, 2019.8.7.

158/ 이러한 전문 단속반을 “109 그루빠”라 함(『데일리NK』, 2019.7.30.).

159/ “북, 신형TV에 외부 방송영상물 시청 방지 장치 부착.” 『자유아시아방송』, 2020.11.19.

160/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노트텔.” 『자유아시아방송』, 2023.6.26.

161/ 위의 기사.

이 알판이 들어가 있는 걸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히는 게 많은데 지금은 USB잖아요. 이거는 보다가 조금 인기척 나면 그걸 쑥 뽑아서 치우면 다니까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단속 한 사람들은 잡아내기가 힘들고.” (사례 7)

이 면담조사에서 중층 이상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가전제품, 노트북, 액정TV와 같은 ICT 제품들을 구비한 경우가 많았다.

“있을 거 다 있었어요. 믹서기, 냉장고, 극동기, 액정TV 제일 처음에 나온 것도 있었고, TV는 52인치. 북한에서 기업 같은 데서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제일 큰 거 샀고, 노트북도 있었고, 아이패드 비슷한 거도 있었고, 핸드폰도 각자가 다 있었고, 18세 미만은 핸드폰은 가지지 못 해서(딸은 없었고)... 집전화도 있었고, 선풍기랑 피아노 있었고.” (사례 8)

“핸드폰은 저와 남편이 썼고, 집전화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다 있는 거죠. TV도 있었고 세탁기도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고. 전기밥솥, 에어컨도 있었고... 컴퓨터, 선풍기, 믹서기 같은 것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다 있었지 않나. 좋고 나쁜 거 간의 문제여서 그렇지.”(사례 10)

3. 재생산: 자녀 양육교육과 가사를 중심으로

가. 가정 안-밖으로 증대된 여성의 역할

배급제도가 붕괴된 오늘날 북한의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남편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 양육과 가사도 여성이 기본적

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면담에서는 배우자가 가사일에 일부 참여하기는 하지만, 남녀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도 자녀 양육과 가사일은 본인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다.

“내가 장마당 나갔다 와도 애 아빠가 저녁도 안 해놔요. 밤늦게 들어와도 애 아빠가 저녁도 안 해놓고 나 들어오기만 기다려요. 그럼 내가 들어와서 저녁을 다 해서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술만 마시고 앉아 있어요. 설거지를 해준다? 그런 건 상상도 못 해요.” (사례 3)

“아침에 해서 점심까지 먹고 저녁은 또 다르게 먹어요. 다 여자가 하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여자, 장사하는 것도 여자. 저희 아침에 장사 나갈 때는 아침에 일찍 밥을 해서 다섯 시면 일어나 밥을 다 지어요. 여기는(남한) 아침을 안 먹고 나가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가족이 다 같이 상을 차려서 먹고 출근을 해요. 그다음 여자는 장사하러 가요.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또 다 점심 먹으러 들어와요, 집으로. 애들도 밥 먹으러 다 학교에서 오고. 통학거리가 먼 애들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례 7)

“여성이 장사하고 가사일도 하고, 남편 구두도 닦고 애 키우고 애 학원 보내고 빨래하고. 이런 건 여전히 여자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례 8)

나. 자녀 양육, 여성의 몫

자녀 양육도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 활동으로 인한 집안일의 빈자리, 특히 육아의 빈자리는 주로 친정집에서 도와준다.

“저는 결혼하고 딸을 낳아가지고, 바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혼자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엄마하고 저희가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하고는 너무 좋았는데 계속 이렇게 남편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나니까나 계속 재밌게 못 살아가지고 엄마가 저 언니 집으로 다시 갔거든요... 같이 살면서 친정엄마가 애도 다 키워주고.” (사례 2)

“엄마가 집으로 와서 애를 봐줬어요. 유치원 다닐 때는 애가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친정) 엄마 아빠가 등하교시켜주고 도시락 싸주고... 애가 커서 초등학교 다니고부터는 장사하러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시장 가면 아침 시간부터 저녁까지 했지만. 지금은 오후부터 장사하러 나가니까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챙겨먹고... 장사하기 힘들니까 남동생이 집에 와서 도와줬어요.” (사례 8)

친정집에 부담을 주기 어려운 경우는 일종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육아를 해결하였다. 딸 한 명을 둔 사례 9는 이웃에게 돈을 주고 어린 자녀를 맡겼다. 그리고 자녀가 세 살 때부터는 혼자 집에 두고 장사하러 다녔는데, 남편이 교대해서 잠깐씩 육아를 보조하였다. 탁아소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엄마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돈을 내면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이웃에 맡길 수 있어서 탁아소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친정에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옆집에다가 이렇게 돈 좀 주고 봐주기로 했는데 애가 그 옆집 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 살 때부터 애를 가두고 다녔어요. 그럴 때는 남편하고 교대식으로.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제가 가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남편이 가고 이런 식으로... 탁아소는 저희 같은 거 대상이

안 돼요. 돈을 주면 되는데 굳이 거기 주는 것보다 옆집에다가 그보다 더 적게 주고 잘 봐주고 안전하니까. 더 잘 봐줘요.” (사례 9)

여성의 자녀 양육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본인이 남한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려고 한다.^{162/}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감 때문이다. 사례 4는 북한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혼자 남한에 온 경우이다. 남편은 재혼해서 의붓어머니가 사례 4의 아들을 키우고 있으나, 여동생 편으로 돈을 보내서 아들을 돌보게 하고, 아들의 군복무가 끝나면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이 목표이다.

“북한에 있는 자식한테 돈을 보내고 있어요. 재작년인가 전화하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갔다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은 10년 복무하잖아요. 그래 내 동생보고 돈 보내주면 우리 아들한테 매달 보내줘라. 내가 전화상으로 말하니까 그거는 책임지고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보내주죠. 두 달 건너씩 200만 원씩 보내줘요. 북한 돈 천2백20만 원인가 간 것 같아요... (아들한테 언제까지 돈을 보내야 될 것 같나요?) 여기 데려오기 전까지. 이제 개가 스무 살이니까 아직도 한 8년. 8년까지는 보내줘야지요.” (사례 4)

자녀 양육이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남성(아버지)도 자녀교육에 개입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 14는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았다. 본인보다 더 ‘높은’, 더 ‘좋은’ 직업을 아들이 갖기를 희망해서 어렸을 때부터

162/ 기혼의 탈북민 여성은 남한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윤진·이정림·김경미,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2); 이윤진·김화순·김민주,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윤진·최은경,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21).

사교육을 시켰는데, 부인이 사교육 선생님을 물색해오면, 본인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 결정을 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이러한 결정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북한에서 인민학교, 여기서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입학하기 전부터 수학을 좀 시켰죠. 학은 가정교사를 집에 불러다가 했거든요, 그때는. (과외비가) 한 달에 10~15달러 정도 했는데 우리는 가정교사를 채용했으니까 한 달에 30달러씩 나갔거든요. 일주일에 6번 와서 그저 3시간 내지 4시간. 북한 이 지역에서는 제일 센 거예요. 제일 센 가격이라고요, 그게. 평양은 더 셀(비쌀) 수 있죠. 선생님은 와이프가 알아보고 내가 동의하는데, 이를 내지 3일 정도 교육 주는 거 보고 그다음에 “오케이” 하면 그냥 채용해서 쓰고. (최종 권한은 선생님한테 있네요?) 그죠. 집안의 가장인데 그래도.” (사례 14)

다. 자녀교육에 극성

본 면담에서 북한의 중층 이상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열이 매우 높았다. 사례 1은 결혼하고 절반 이상은 남편과 떨어져서(남편은 해외 노동자로 파견) 살면서 혼자서 자녀를 키웠다.

“솔직히 제가 벌어서 애들 다 한다 하는 진짜 그 ○○○학교라면 급수 있는 학교예요. 거기 우리 큰딸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작은딸도 네 살부터 아리랑 시키면서 영화까지 출연시켰고요. 저 솔직히 새끼들은 진짜 남부럽지 않게 키운다고 했어요.” (사례 1)

“그냥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육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먼저 길러주는 게 그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유치원부터 아이들에 학습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머리를 박았어요. 탈북하게 된 원인이 애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걸 마련해주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고 저희는 애들 때문에.”(사례 7)

높은 자녀교육열은 대부분 사교육으로 이어졌다. 사교육 선생 등의 정보를 알아보고 실행하는 주체는 여성(어머니)이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엄마의 정보력이 자녀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앞서 자녀를 키운 주변의 학부모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정보와 조언 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맞는 방향으로 교육을 한다고 한다.

“어머님들끼리 만나면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정보를 얻는 것은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접한 부모들은 100% 다 그랬고요. 제가 또 접한 부모들이 우리 연령이 아니고 대학을 붙인 부모들도 다 그렇게 아이들을 선행학습시켰고요. 그런 부모들의 조언을 우린 들어보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웠더라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더 든다. 그러니까 너는 ○○를 키울 때 이 방향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한 번 키워봐.” 이렇게 조언 주는 부모들도 많죠. 그 조언대로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 아이에 맞게끔 움직이죠.”(사례 10)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사례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대개 본격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소학교)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에서 권력과 재력을 다 갖춘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원하는 사회적 직위까지도 올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종종 이상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열은 매우 높았다.

“자녀 교육열이 엄청 높아졌어요. 진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사교육을 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가 5년제잖아요. 그때부터 시켰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조금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맞다 생각해서 수학하고 영어는 개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사례 7)

“남편은 일 하느라고 언제 자식을 키우는 데 신경 돌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아이를 선생님 붙여서 공부시키면 “응. 공부시키누나.” 이걸로 끝냈고.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다. 뭐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쓰셨어요... 사교육은 우리 정도로 사는 집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북한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수강을 시키는데 선생님 수강비가 30달러예요. 엄청 비싸요... 아이가 소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 나이 연령에 있는 부모들은 100% 다 아이를 1학년 학교 입학하는 그 교재를 다 완성해야만이 1학년 입학시켜요. 1학년 다니면서는 2학년 교재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 학급에 아이가 48명이 됐는데 그 아이들은 100% 다 (선행학습을) 했어요. 사교육 받은 아이들은 같은데 들어가서 실력이 어느 만큼 높은가에 달랐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 실력을 논하지 않아요. 부모들 자체가... 북한에서는 우리가 해줄 만한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를,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서 어느 위치까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리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 위치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발판이.” (사례 10)

라. 가사일: 계층에 따른 차이

북한 가정은 남녀의 성역할이 분명하나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확한 통계 등 뒷받침할 만한 공식 자료가 없어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하층 가정은 여성이 가사일을 도맡아서 하지만, 중

층 이상 가정은 남편이 가사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의사인 사례 8은 부인이 장사하기 시작하면서 가사일과 육아를 도왔다 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젊은 세대뿐 아니라 부모세대에서도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가 (장사하러 나가고) 없을 때는 (남편이) 많이 했어요. 제가 바쁘고 할 때는 빨래도 돌려주고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아기도 씻기고.” (사례 8)

“저희 부모들이 살 때는 우리가 다 성장한 다음에 가스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때는 이렇게 그런 걸 써보지 못했어요. 나무불 때고서 밥이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엄마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나무불이랑 다 때놔요. 때서리 가마가 끓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를 깨우곤 하셨어요. 가사일이라고 다 여자 일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셨어요.” (사례 10)

한편, 북한도 사회적 직위가 높을수록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집으로 수십 명씩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음식 마련은 여성이 담당하면서 여성에게는 고된 일이었다. 그런데 김정은 시기 들어서면서 외식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권 강화와 가정 내에서의 위상 강화와 연결해서 볼 수 있다. 외식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중층 이상 가정 면담조사에서 주로 나왔다.

“외식문화가 있어요. 가족이 다 같이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먹고, 그리고 생일도 그런 곳에 가서 해줘요. 그전에는 집에서 다 해줬어요. 친구들 불러다가.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들 생일도 밤새워서 준비해가지고, 떡도 하고 반찬도 하고, 혼자 못 하니까 사람들 불러

다가 준비해서 하고, 한 30~40명을 데려다가 집에서. 여기도 보면 밥을 자주 사줘야 그 사람 위상도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누가 자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급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밖에서 식사를 할 때 그쪽에 가서 여기를 말하면 예약을 하는 거나 같죠. 여기서 예약손님 받는 것처럼 그쪽에 음식점 사장한테 가서, 음식점을 다 개인이 하니깐 며칠날 몇 시부터 몇 명 이거 주문하겠다 하면 딱 비워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사례 7)

외식으로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지만, 요리사를 집으로 불러 손님을 집에서 대접하기도 한다. 후자가 비용이 더 저렴하고 여성이 음식을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선호한다고 했다.

“생일상은 집에서 차릴 때도 있고 나가서 식당에다가 주문할 때도 있어요. 식당으로 다 사람들 부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선 저희가 식당에서도 해보고 집에서도 해보니까, 돈은 식당에 많이 들지만 집에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손님 초빙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요리사들을 부르니까요. 하루 요리사 하는데 얼마라는 가격이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집에 간, 그날에 생일날에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해. 그러면 “우리 아빠 생일 때도 좀 저 요리사 쓰게 연락처 좀 다오” 해가지고 우리도 또 “와서리 해주세요” 하죠.” (사례 10)

일부 사례에서는 손님 접대와 같은 특별한 경우뿐 아니라 평소에도 외식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냥 먹고 싶을 때 사서 먹었어요. 식당에서 가서 양꼬치도 일주일에 두 번씩 갔었고.” (사례 8)

김정은 집권 이후 결혼식을 전문식당 등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결혼식 전문식당이나 호텔 같은 공공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문화는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163/}

“결혼식장 문화가 김정일 때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 때 돼서 이제는 집에서 힘들게 결혼식을 왜 하나, 그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사진 찍어도 예쁘지도 않고. 다 비디오로 남겨야 하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다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해요.” (사례 7)

4. 지속과 변화의 양상

가. 변화하고 있는 요소들

(1) ICT 이용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외부 세상과 차단되어 있고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도 최신 ICT 제품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에서 사상단속을 한다고 각종 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들을 제정하고,^{164/} 외부 영

163/ “북한의 바뀐 결혼 문화와 비용,” 『자유아시아방송』, 2018.7.2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priceindex-07232018102552.html> (검색일: 2023.6.12.); “북한이 궁급해 <北집대신 식당에서 백년가약>,” 『MBC 통일전망대』, 2018.9.8.,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4826633_29114.html> (검색일: 2023.6.12.); “북, 결혼식의 계절 맞아 대형식당들 성업,” 『자유아시아방송』, 2019.11.2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weddingseason-11132019083017.html> (검색일: 2023.6.12.).

상물을 시청하지 못하게 최신 전자제품에 USB 접속을 못 하게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노력을 하지만, 외부 세계와의 완전한 차단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흐름이 되어 북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러시아에서 탈북한 사례 5는 휴대전화, 인터넷을 러시아에서 처음 접했는데 이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생각했던 한국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핸드폰이란 걸 만져봤고, 인터넷이란 걸 접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말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또 한국의 삶이란 걸 쪽쪽 알게 되면서 보니까, 올 때까지 믿겨지진 않았어요. 와, 이런 나라가 있구나. 내가 생각한 남조선은 이런 게 아닌데, 남조선 사람은 다 승냥이로 알고 6·25전쟁 침략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알고 있었고, 와, 이건 다 미국놈들이 짓밟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살기가... 너무 자유롭고, 너무 돈이 많고, 너무도 자유... 이렇게 일하면 모든 대가가 차려지고 이런 걸 보니까 에이 이럴 수가 없다. 이거 다 그냥 남조선 놈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수단. 선전용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얼마나 어처구니없겠어요.” (사례 5)

북한의 물질환경 변화 중에서 주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 중 하나가 손전화(휴대전화)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증하여 약 700만 명(201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북한 전체인구의 약 28% 수준”이며 평양, 나선 등 대도시는 가입률이 약 70%에 달하며 평양의 20~50대 60%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한다.^{164/} 그러나 북한은 북한 주민의 외부 연결

164/ “[김연호의 모바일 북한]노트텔,” 『자유아시아방송』, 2023.6.26.

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을 제한해서 북한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국제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된다.^{165/}

북한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례 14는 본인만 휴대전화를 석 대 사용했다(부인 휴대전화 포함 넉 대 사용). 이러한 휴대전화 보급은 인터넷 사용은 안 되지만, 북한의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특히, 장마당 활성화와 휴대전화 보급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선전화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휴대전화 보급으로 유통도 빨라지는 등 먹고사는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가 주민들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죠. 당연히. 먹고사는 데 가장 변화가 크죠. 빨랑빨랑 연락되고. 그럼 북한 내에서도 유통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빨리빨리 되고 하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사례 14)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물질환경으로 USB, 그리고 이를 꽂아서 재생·시청할 수 있는 노트텔과 액정TV 등이 있다. 이들 ICT 제품들 덕분에(?)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손쉽게 보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서 각자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맞물리면서 한국행을 결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작은 USB—에 저장된 영상물들—가 북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에서 수준 높은 남한의 생활을 보면서 긴가민가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65/ 신용주, “북한의 ICT 현황 및 군사적 함의,” 『국방논단』, 제187호(21-38), 2021. 9.20., p. 5., <https://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_x=382&idx=1930&depth=3&lang=kr> (검색일: 2023. 9. 4.).

166/ 위의 글, p. 3.

“북을 떠나겠다는 거는... 사실 다 드라마를 본 거죠. 그렇게 하고 왜... 저희도 사실 다 같잖아요. 인간이면 남들처럼 좀 잘 살아보고 싶고, 그런데 진짜 북한에서 본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진짜 그건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지. 왜 우린...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은 많이 했죠. 우리도 저런 데에 갈 수 없을까... 북한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 데에 가서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자식이 좀 커가니까나 자식들도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에서 저도 가면 나보다도 “딸하고 같이 가서 살면 어떨까?” 생각은 좀 많이 했었죠. 그때부터 생각은 한 5년 전부터 했거든요. 한 2010년 지나서부터. 그런데 저희는 안 되는가 했어요. 누가 (남한에) 갔다면 부럽기만 하고.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했다가... 언니가 량강도에 있다니까 이제 더는... 아빠하고도 이혼하고 뭐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점점 더 진짜 그렇잖아요. 제 가정이라는... 그래가지고 여기 오자고 생각한 거 같아요.” (사례 2)

“학교 교육은 (이전과) 동일하고 외부적인 변화가 있어요. 한국 비디오. 밀수로 들어와서 한국 드라마, 그런 비디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북한 가정생활에 엄청난 걸 가져다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 너무 현실적으로 나와서. 그리고 거기 나온 가정생활에 일상이 너무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라면 현실을 그리지 않거든요. 다 허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나도 이렇게 리얼하게 나와서 저게 거짓말일 것이다. 저희 애 아빠도 그랬어요. 저게 진짜 실생활일까. 저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아무리 한국이 그때는 한국을 남조선이라 했어요. 남조선이 경제 수준이 높다는 건 알지만 저 정도일까. 그리고 여성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차창을 짝 내리고 바람에 머리가 날리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건 현실이 아닐 것이다’에 70%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100%가 다 현실인 거예요.” (사례 7)

“(한국) 영화도 보고 이게 진짜인가. “우리나라처럼 거짓말하는 게 있는지 알아?”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쑥덕쑥덕하거든요... 아니 진짜 저럴까? 자네 저렇게 발전했다. 우린 자네, 자네 했으니까. 한국 보고 “자네는 진짜 저렇게 발전했을까?” 진짜일까, 진짜겠지.” (사례 9)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북한 가정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호칭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으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20대 애들은 자기 연인 사이를 다 오빠라고 불러요. 저희 때는 아무개 동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오빠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북한의 가정생활에 엄청난 걸 가져다주고 있어요.” (사례 7)

(2) 자녀 양육¹⁶⁷과 자녀교육의 계층·지역별 격차 심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무상보육·교육제도는 붕괴되었다. 본 문답에서 보면, 평양시 정도만 탁아소와 유치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평양시도 무상은 아님—(사례 1),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녀가 어릴 때 탁아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친정부모,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탁아소를 보내려면 각종 비용이 들고, 급식도 제공되지 않아 도시락도 챙겨 보내야 해서 잘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양육의 사적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은 특히, 취학 직전의 유치원 높은 반은 의무교육 단계라 대부분 가정에서는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167/ 해당 내용은 이윤진 외,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II: 모성과 양육』, pp. 154~156.에서 자세하게 다룸.

사교육이 시작된다.

“평양은 탁아소, 유치원이 다 있으니깐. 여전히 작동이 되니까. 솔직히 들어갈 때는 의무적으로 돈 얼마씩 30달러면 30달러 50달러면 50달러 내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돈을 따로 주니까... 지방은 내는 게 너무 많아서 보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뭐 재간이 없죠.” (사례 1)

무상교육 체제가 붕괴되면서 소학교(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사교육이 성행하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어서 학교 운영을 학부모의 주머니에 의존한다. 또한 남한처럼 학원이 없다보니 사교육을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력 있는 부모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 출신으로 평양의 우수 대학을 간 사례 11은 부모가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진짜 깡그리... 부모님들 자기네 진짜 노후 걱정이나 이런 거 하나 생각 안 하고 우리 형이나 나 공부시키는데 모든 걸 다 바쳤거든요.” (사례 11)

“애들 키우기 힘들고. 돈 있는 집 애들하고 돈 없는 집 애들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교실 꾸리기 하는데 돈 내라. 등록금 같은 건 안 내도 교실 꾸리기 하는 데 무슨 돈 얼마 내라 대학까지. 초등학교부터 매일같이 교실을 꾸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고 대학이고 다 컴퓨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컴퓨터도 새것이 나오면 또 바꿀 때마다 애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 바꿔오거든요. 나라에서 해줄 수가 없지. 나라에 돈이 없으니깐.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번에 컴퓨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1인당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면 돈을 걷어가지고 컴퓨터를 교실에다 놓고. 그다음에 겨울

이 되면 땀나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겨울이 되면 화목대라는 거 중국 돈으로 50원씩 내요. 50원씩 내면은 이제 그 학급이 나무를 사서 이제 교실 뒤에다 다 쌓아놔요. 따뜻하게 애들 공부시키고.” (사례 3)

(3) 권력과 재력에 대한 갈망 고조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은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국가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기 살길을 스스로 만들어나가야만 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더 높고 강한 권력을 찾게 되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편법과 불법이 만연한다.

권력과 부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결혼’으로, 사랑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 남녀의 만남보다는 비슷한 계층끼리 우리 집안이 부족한 부분을 결혼으로 메우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 보였다. 결혼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돈’이다.

“연애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중매결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토대가 좋고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지방이다. 그리고 집이 좀 못산다. 이런 남자들은 여자 집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결혼시켜서 그 집을 사주고, 여자 집에서 다 하거든요. 일체 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집을 잡아주는 것까지. 거기까지 여자 집에서 다 해요. 그래서 사위를 기른다고... 돈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한국도 같지만. 그래도 한국은 자기가 그런 걸 해야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니에

요. 애가 공부를 못 해도 뇌물을 주면 좋은 대학을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잖아요 (뇌물로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사례 7)

“여자가 있던 남자가 있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상대를 선택을 하지요. 내 사촌동생 애들은 다 남자애들인데 뭐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를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좋다는 여자랑은 어떻게 살 의향이 있는데. 결혼해도 집도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한다 비혼주의요. 우리 사촌동생이 둘이나 이제 서른아홉 살짜리하고 서른일곱 살짜리가 다 결혼 못 한 애들인데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사례 3)

결혼을 매개로 권력과 재력을 키워나가면서 이를 자녀에게 세습 시키려 노력한다. 자녀교육의 목표는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간부로 키우는 것이다. 김정은이 과학기술을 엄청나게 강조해도 북한에서 과학자는 그다지 인기 없는 직업이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가 과학자들 좀 내세워준다 하고 그런 시책을 펴긴 했는데 이름 있는 과학자들 집 지어서 집 좀 주고. 그냥 선전에 불과 하죠. 그게. 크게 무슨 그 사람들 생활이 개선되거나 뭐... 과학자들 삶이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공대 이런 데는 안 가거든요. 북한에서 보면 다 해외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국내에서 간부 자식들. “우리 자식을 국내에서 간부로 키우겠다” 하면 김일성대 보내고. 외교관이나 무역관들, 무역하는 사람들. “우리 자식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살게 하겠다” 하면 외국어 대학 보내고. 그렇게 나가거든요.” (사례 11)

“나는 아들을 검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나는 목표가 김일성종합 대학에 보내가지고... 김일성종합대학 아니면 금성정치대학 같은 거. 거기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검사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애를. 검찰이나 당기관이나 보위부나 이런 사람들은 제 새끼가 어디 나가 사고를 쳤다면 그걸 감싸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거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사례 14)

(4)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여성의 ‘리버럴한’ 가치관

중층 이상의 여성 중심으로 출산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부모세대가 자녀를 3~6명 출산했다면, 자녀세대(30~40대)는 1~2명을 출산하였다. 남아선호사상도 자녀세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딸 2명을 출산한 사례 7의 경우, 시부모가 둘째 손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서 서운했으나 추가 출산을 하지 않았으며, 사례 10은 남편이 둘째를 원했으나 본인의 뜻대로 한 명만 출산하였다. 북한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은 젊은 세대에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이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북한의 상층부 중심으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이혼은 남편의 승진 등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제 이혼은 하지 않고, 부부가 맞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상층부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변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러다 보니까... 윗사람이(상층 가정) 부부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거의 한국과 비슷해요. 명목상 결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내 애인 만들고, 남자는 또 남자들을 만들고, 와이프는 와이프 대로 만들고 서로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그게 유행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인 사생활 터치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자. 그렇지만 보이는 이미지는 둘

이 손색도 없이 잘 맞춰가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간부도 남편이 좀 뽕뽕하게 잘나가니까 와이프가 의부증이 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어떻게 남자만 만날 수 있어요. 여자도 만나고 사업상 측면에서. 그럼 남편이 바람피운다고 따라다니고 이런 싸움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평양에 있는 자기 오빠 집으로 갔어요. 오빠 집에 가서, 오빠가 중앙당의 높은 간부예요. 오빠 집에 가서 형님하고 속상하다고 말하니까 형님이 올케 그렇게 몇 세기 떨어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남편 바람피운다고 소리소리 지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냐. 위신이 없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고모도 같이 바람을 피워.” (사례 7)

출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하고,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성의 경제력에 있다. 본 면담사례에서 여성들의 경제력은 친정의 재력과 결혼 후 장사를 하면서 얻은 본인의 경제력이 결합되면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밀리지 않는 자신의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력이 있는 여성은 출세를 위해 남편을 대학에 보내려 한다. 남편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내 남편이 잘돼야 좋으니까. 무조건 대학 공부를 시켜요.” (사례3)

(5) 퇴색해진 남아선호사상: 딸은 심장, 아들은 맹장

면담 참여자들 중 기혼자들은 자녀 성별에 상관없이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북한에서도 남아선호사상은 거의 사라져서 딸은 ‘금딸’이지만, 아들만 있으면 부모는 ‘국제고아’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남편은 불편, 딸은 심장, 아들은 맹장”이란 말도 있다. 아들보다 딸이 부모에게 더 힘이 되는 존재임을 풍자하는 말들이다.

“지금 딸들이 보면 오히려 어릴 때는 좀 몰라도 딸들이 지금 바로 학교 졸업하고는 장사에 뛰어드는 애들이 많아요. 북한은. 북한도 돈이 없으면 대학교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다음 대학교 가서... 돈 있는 집들 애들이나 대학교 가서 공부하지 싶지 대학교 가서 돈이 없이 못 하잖아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바로 장사의 길에 나간 애들이 많아요. 꿈이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못 이루고, 학교 나오자 바로 지금 이렇게 장사를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조금 별게 되면 부모 같은 것도 많이 딸들이 챙겨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딸이... 그저 부모한테 딸이 최고다. 이 말에서 딸이 심장이다...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보다 못하다는 의미에서 딸은 심장이고, 아들은... 맹장은 진짜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사례 2)

“시아버님이 그랬었거든요. 무슨 계집애 생일상을 차리냐고. 시택은 아들만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애를 엄청 예뻐했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병적인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 무슨 계집애 생일상을 차리냐고. 요즘은 오히려 딸을 금딸이라고 딸을 좋아해요. 아들만 있으면 국제고 아라 해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은 사촌이 됐다가 이제 장가를 가면 딸촌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제 폭탄을 안고 온다고.” (사례 8)

현재 남한에서 둘째를 계획 중인데 사례 14는 딸을 낳기를 희망하며, 아들에게 엄격했지만 딸에게는 딸바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둘째는 딸을 낳으면 좋겠어요. 이쁘잖아요. 딸한테는 아들하고는 달리 딸바보 될 거 같아요.” (사례 14)

(6) 육아와 가사일의 아빠 참여 증가

기혼 여성도 경제력이 생기면서 육아와 가사일을 분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편이 도와주는 경우는 많았다. 젊은 세대 남성들은 장마당에 나간 아내를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해놓기도 하고, 자녀가 있는 아빠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도 하지만, 한국의 아빠처럼 애기띠를 하는 모습은 아직 낯설다고 했다.

“(아버지와 달리) 우리 아들이 젊은 애들은 차츰차츰 깨서 여자들이 나가 장마당에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이제 와이프가 장마당 나갔다. 막 여름 같은 때는 아홉 시, 열 시 깜깜해져야 들어오니까 저녁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먹으면 걸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례 3)

“북한도 많이 달라졌어요. 남자가 집안일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지금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혹시 누가 남자들은 재떨이 가져오라 양말 던지고 막 이런다고.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거는 옛날 소리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 바뀌면서 시대도 바뀌고 북한도... 나는 직장생활을 안 해, 돈 벌어도 없어. 와이프가 돈벌어도 하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서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남편도 집도 청소하고 세탁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고... 북한도 지금은 (남편이) 유모차는 끌고 다녀요. 애기띠까지 하고 나면 재 모자란 애 아니야? 저렇게까지? 이렇게. 조금 아직은 그런 시선이 있어요.” (사례 8)

나. 지속의 양상

(1) 집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걸기

북한의 가정생활에서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요소 중 하나가 집에 김일성 세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초상화를 걸어두는 행위이다. 집의 형태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도 초상화를 거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부모세대보다는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단독으로 살던 둘이 살던 집이 생기면 그건 무조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줘요. 인민반장이 와서 계속 검열해요. 없으면 안 돼요.... 저희가 젊은 세대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인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4월 15일 김일성이 생일,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에 초상화에 인사 먼저 하고,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먹었어요. (따님한테도 그렇게 가르쳤나요?) 딸도 그랬죠! 초상화에 먼저 인사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고 아빠, 엄마 순으로... 집에서 제일 좋은 곳에, 습기가 없는 데에 최대한 깨끗한 걸로. 뽕뽕한 걸루. 내 가족의 사진을 초상화보다 위에 모실 수 없어요. 그 밑에(걸어야 해요). 다른 벽에다 걸어도 그보다는 낮게.” (사례 8)

“북한의 모든 집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모신다는 생각을 못 해요, 감히. 그건 누구나 응당히 있어야 되는 걸로. 네, 더 잘 모셔야지 그 집이 잘사는 그거 의 상징이. 부의 상징이로나 같아져가지고요. 북한에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모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처럼 세대가 점점 틀려져가지고 내 때만 해도 어린 시절에. 저는 이거 어린 시절 클 때 당시 부모님들이 항상 명절날에나 뭐 할 때 항상 그 앞에서 인사하는 걸

저거 했는데, 굳이 이젠 내 자식은 그런 거 한 번도 시키지 않았어요.” (사례 9)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김부자 둘이 사업토의하는 사진 3개를 집 안에 걸어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올 때까지는 김정은이 사진까진 아니예요.” (사례 10)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김정은 시기에 평양의 신축 고급 아파트를 건설해서 인민들에게 보급했다는 홍보기사에서 가정 내부의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168/}

(2) 온 가족이 한방에서 자는 문화

본 면담에서 상층 가정을 제외하고 북한의 일반(중층 포함)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한방에서 잔다는 구술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 방이 한 개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자야 하지만(사례 3), 방이 2개 이상(대부분 2개)의 자가에서 사는 경우에도 온 식구가 한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 즉, 가족수 대비 방 개수가 적어서 한 방에 같이 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례 2는 부모님과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방이 두 개 있었지만 한방에서 다 같이 잤고, 남한에 와서 자녀들이 독립된 방을 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저희는 두 칸짜리 부엌을 제외하고 방이 두 개(였어요). 저도 짝 짝 놀란 게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따로 자는 방이 있고

168/ “나랑 축구 한판?... 북한 김정은의 ‘농담정치’,” The Korea Herald 한국어판, 2015.3.22.,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0322000030>> (검색일: 2023.9.26.).

뭐 자식들은 방을 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한 가족에서 저게 가능하나? 그런 게 없어요, 북한엔. 다 같이 살아요, 우리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 삶의 흐름 자체가 다 부모 방, 남녀 방, 동생 방, 누나 방 그런 이런 이미지가 없었어요. 다 같이 가족이다 하면 그저 한 집 안, 한방에서 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사례 2)

“단칸집에서 시어머니랑 (남편, 자녀 두 명이랑) 같이 살았죠. 한 집에서 다 같이 잤죠. 한방에 다 같이 누워서 잤지. 성생활하기 어려워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지.” (사례 3)

“같이 자는 줄 알았어요. 어떤 때는 남편하고 사이에 딸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이 눕기도, 딸은 저쪽에 옆에다 놓기도 하고... 커서도 같이 잤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사례 9)

이처럼 북한은 성별과 상관없이 한방에서 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문화이다. 물질환경 측면에서 그 배경은 비좁은 주택문제 외에 부족한 전기와 연료 문제 등이 결합된 것이다. 한편, 북한은 대개 20대에 접어들면 여자아이는 직장 또는 결혼으로 독립하고, 남자아이도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방에서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가족이 다 같이 한방에서 자는 문화가 남한에 와서도 계속되는 가정도 있다.(사례 7)

“저희는 다 한방에서 사는 거죠. 방이 두 개 있으면 한쪽 방은 가구랑 가전제품들도 이렇게 놓고 있지만 잘 때는 한방에서 다 같

이 자요. 자녀가 커서두요. 애 아빠랑 딸은 이성이잖아요. 그래도 다 같이 자요. (한방에서 자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그 차이를 떠나서. 어떤 집 보면 부부가 따로 자식들끼리 커서 이렇게 따로 자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 부모 때부터 그렇게 안 해봐서 조금 그래요... 여기(한국) 와서도 같이 자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신생아도 아기침대에 재우는 것을 북한에서 TV로 봤어요. 그래서 야, 저 아기를 저렇게 재우는구나.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조금 좀 부모하고 자식은 그냥 부대끼면서 같이 있어야 뭔가 서로의 우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 하는 일이 많으면 외로움도 더 탈 것 같고. 지금 한국에서 보면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게 커서 갑자기 그렇게 하자면 어색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때는 엄마 팔을 베고 그렇게 계속 비비면서 살아오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그런 게 없어요.” (사례 7)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방은 부모님이 쓰거나 손님이 오면 묵거나 가전제품 또는 자전거를 두는¹⁶⁹⁾ 용도로 사용하였다.

“방 하나는 손님이 올 때만 손님이 그 방에 가서 자는 거지. 여기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손님이 오면은, 대체적으로 남자 손님이죠. 남편 손님이 오면 여기는 손님방에 손님 혼자 재우잖아요. 저는 혼자 안 재워요. 남편이 같이 가서 자요, 손님하고. 그게 대접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자 손님이면 저하고 애들이랑 같이 자고. 남편만 따로 자고.” (사례 7)

169) “북한에서 자전거는 교통의 수단이자 생존의 수단,” 『국방신문』, 2021.4.15., <<http://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7>> (검색일: 2023.6.9.).

“아랫방에서 다 같이 생활했는데, 윗방은 그냥 자전거도 세워놓고, 자전거 무조건, 여기 와서 밖에다 세워놓지 거기는 자전거가 도적이 제일 잘 맞는 게 자전거예요. 제일 도적 맞하기 쉬운 게 자전거거든요. 교통수단이고 그거를 뜯어서 여기 치, 저기 치 바꿔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잘 팔리고, 제일 잘 나가고, 도적 제일 잘 맞는 게 자전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항상 방 안에. 그리고 그게 우리 집 장사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러 오면 그거 보여줘야 되니까, 윗방에다가 놓고 집의 아랫방은 저희가 자는 침실이고.” (사례 9)

“방 세 개 중 하나는 안방, 하나는 그냥 가구 넣어주고 어르신들 이랑 오시면, 어머님이랑 오시면 쉬게끔 일반 방 하나. 아들은 가가 방이 있었어도 거기서 자지를 앉았어요. 부모들과 같이 잤죠.” (사례 10)

한편, 사례 10은 TV에서 독립심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기 위해 자녀를 따로 재우는 외국 사례를 보고, 어린아이 때 한방에서 자되 혼자서 따로 재웠는데, 지인이 이를 보고 너무하다고 야단맞은 후부터 아들을 품에서 같이 재웠다고 한다. 사례 10이 평수가 큰 아파트(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 등) 이사 가셔도 잘 때는 온 가족이 같이 잤다.

“아이가 부모 없이도 살자면 야를 독립적으로 키워야겠구나 생각하고 아이인데다 그런 주입을 주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잠도 부모가 이렇게 끼고 자는 게 아니라 혼자서 따르는 자는데, 한방에서 자죠. 네, 따르는 자되 한방에서 자는데... 혼자서 자라고 그러면 아이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앤 처음엔 혼자서 재웠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고 없을 때 같이 어떤 분을 우리가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올라와서리 “아무개야, 내하고 같

이 자자”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이라고. 그래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아, 이거는 내가 너무나 거 같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사례 10)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한방 문화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14는 온 가족이 한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방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방 한 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례 14의 자녀는 유치원 때부터 독방을 사용했다.

“당연히 갈라서 자죠. 그제. 야, 아니 그제 같이 잔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 이해가 안 돼요. 내 자체가 여기서 들어보면, 아니 성인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애들은 소학교 때부터 이거 남녀관계 성교육... 여기 보니까 성교육, 아니 그런 애들 옆에다 놓고 어떻게 자요, 그거. 북한은 글썄 그런 게 없는데. 성교육하는 게 없는데, 벌써 인민학교 유치원 때부터 애들이 그런 데에 되게 밝아요... 그거는요. 이제 보면 글썄 북한에 그런 문화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면 자, 북한에 지금 전기가 안 오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북한에 전기가 안 오는데 갈라서 자면 선풍기를 두 대를 썩야 되잖아요. 아랫방, 윗방. 그리고 대부분 보면 윗방 같은 거는 창고로 많이 이용해요. 자가 5살, 6살. 유치원 때, 그때부터던가 따로 잤죠. 윗방에서 이렇게.” (사례 14)

(3) 가부장적 가치관

북한에서 가정의 혁명화가 다름 아닌 유교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인품(수신)과 더불어 가정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제가)의

식이 북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북한에서 자녀를 키울 때, 전통적으로 엄부자모(嚴父慈母)가 일반적인 역할분담이다. 북한에서의 ‘아버이 수령, 어머니 당’이란 말도 이러한 역할분담으로 인식한다. 아버지의 경제력에 크게 상관없이 아버지는 자녀를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권위이자 역할이며 어머니는 자녀가 잘못해도 따스하게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식에 남아 있다. 참고로 다음 증언의 사례 3, 4는 50대, 사례 11은 30대이다.

“북한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고 지금도 그런 봉건이 많아서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돈을 못 벌잖아요. 나가서 사회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돈을 못 벌어도 가장으로서의 그 엄격함이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따뜻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어머니 당이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해도 그 결함을 다독여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를 잘못하면 딱 벌세우고. 우리 애 아빠도 애들 다 그렇게 키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몽둥이를 딱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벌을, 아버지는 딱 벌만 세우고. 그리고 엄마는 또 가슴이 아프니까 아버지를 달래며 그만하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품어 안고 다시 그러지 말라. 이제 다시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제 혼난다고 이래서. 그러니까 엄마 하는 역할, 아버지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 (사례 3)

“남편의 역할은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여자들은 남편을 직장에 나가든 어디 나가면 그 여자가 잘 받쳐주는 게 그 여자의 본분이고,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엄마의 입장이고.” (사례 4)

“아버지의 역할은 그저 큰 선에서 아버지는 그냥... 크게 우리한테 잔소리하고 이런 거는 없죠. 아빠는 그냥 “잘하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고, 어머니가 잔소리하면서 숙제 검열하고 학교생활 물어보고... 그런 세부적인 거는 엄마가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과 연계도 가지고 그렇죠. 아빠는 그냥 “제대로 하라.” 크게 잔소리가 없죠...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로 돼 있죠, 인식이. 북한에서는.” (사례 11)

북한에서 이혼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성이 일, 가정 모두를 주변 식구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해내는 반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솔직히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해주고 술 먹고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내 숙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례 8)

“여자가 활동력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공감하거든요. 여자가 활동력이 많아졌다. 여자가 나가서 장사를 많이 하고 돈을 벌어들여 오고. 남자가 돈을 못 버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남자는 집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있어요. 술이나 빨고 있거든요, 남자는. 돈을 못 벌어. 여자가 돈 벌어들여 와요. 술 먹고 와이프를 때려요. 그래도 와이프는 절대 집에서 안 나가요. 그 남편하고 무조건 살겠다는 거예요.” (사례 14)

그런데 계층에 따라 부부관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면담조사에서 계층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른 사례들이 있었다. 일부 사례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중하층 가정(사례 2)은 남편의 폭력, 폭언이 있었다면 중층 이상 가정(사례 7)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폭언이나 가정폭력은 거의 없었는데 이러한 태도와 가치관은 부모세대로부터 전수되었다.

“실지 제가 보면 저희 남편이 제일 폭력이 심해요. 진짜 때리면 그냥 이렇게 한 번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때리는 정도 됐거든요. 너무 이렇게. 술만 마시면 이렇게 좀 막 사람이 정신이 그런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남편은 빙두(마약)도 했죠. 빙두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술로 그냥 해가지고 폭력한 거죠. 술을 마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은 안 때렸거든요.” (사례 2)

“가정혁명화라는 게 있어요. 이것 잘 하지 못하면서 자기 가정을 혁명화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밖에서 대중을 혁명화할 수 있느냐. 못 한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부터 잘 지켜야 한다. 이게 있어요. 이걸 그냥 변하지 않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싸우는 걸 결혼생활하면서 못 봤어요. 두 분의 관계도 화목하고 저희 시아버지가 교육자세요. 전문대 교장하신 분인데요. 아들 삼 형제, 딸 둘이에요. 5형제인데 아들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면서 부부간에 돌보며 살아야 한다. 싸움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례 7)

중층 이상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뿐 아니라 자녀교육에서도 성별 차이 없이 평등하게 대학교육을 시켰다. 사례 7은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어머니가 4남매를 키웠는데 4남매 모두 대학교육을 마쳤다. 사례 10도 학창시절 공부는 잘하지 못했으나 아버지가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해서 4년제 대학교육까지 시켰다.

V. 역할과 관계: 가정 안 · 밖의 상호작용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역할과 관계: 가정 안·밖의 상호작용

이 장에서는 북한정권이 가족과 가정 내외 구성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기획하고 있고, 현실의 가정성원은 이러한 국가의 기획을 어떻게 인식하며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또 ‘역할’과 ‘관계’를 키워드로 북한 가정-안의 주요 구성원이자 행위자들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 외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도 분석한다. 이어 북한 가정-밖의 주요 행위자인 인민반장, 보안원, 보위부원 등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정권의 국가가부장 담론인 ‘사회주의대 가정’,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아버이 수령’, ‘어머니 당’ 등을 어떤 의미로 인식하였고,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과는 어떠한 차이점과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정권의 변화 속에서 가정생활의 지속과 변화 지점은 무엇인지? 가정생활을 구성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에서 지속과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지? 등을 계층과 세대별 차이를 주목하며 분석한다. 각 절의 구성은 1. 가정-안: 역할과 상호작용, 2. 가정-밖: 국가/사회와의 맞물림과 어긋남, 3.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 4. 지속과 변화의 양상이다.

1. 가정-안: 역할과 상호작용

가. 국가의 기획

(1) 이상적 가족관계

북한에서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따라서 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재해야 한다. 관련하여 김정은 “《가정은 사회생활의 시발점이며 가정의 화목을 떠나서 사회의 화목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은 “가정은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우리 사회의 세포이며 기층생활단위이다”라고 정의한다. 한편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가족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관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도 사회적 관계인 것만큼 가족들사이에도 도덕적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가정에는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와 일생을 함께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있다. 이러한 가족성원들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육친의 정, 애뜻한 사랑도 도덕과 결부될 때라야만 참되고 열렬한 것으로 될 수 있다.”^{170/}

위의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체제에서 가족관계는 거대한 사회적 기획과 연동된다. 따라서 사회적 도덕이 작동하는 가족관계를 강조한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부자관계 담론을 살펴보자.

170/ “가정의 화목과 도덕,” 『로동신문』, 2023.3.24.

“무엇보다도 자식들은 부모를 극진히 존경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며 그들 앞에서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자식들이 당과 혁명을 위해 자기 맡은 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항상 원심을 쓰고 사회와 집단앞에 떳떳치 못한 일을 하였을 때에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픈매를 드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이다. 그런 부모들을 잘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에도 충실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조선사람들은 옛날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을 인간의 도리로 여겨왔다고, 우리는 마땅히 이런 좋은 점을 살려 후대들을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례절바른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부모를 잘 모시기 위해 항상 마음을 쓰며 성의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며 도덕적 의무이다. 부모를 존경하고 잘 모시는 것과 함께 부부사이,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도덕을 잘 지켜야한다.”^{171/}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어생활에서 평양문화를 적극 살려쓰고 옷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비롯한 도덕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자식들에게 올바른 영향을 줄수 있다.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가정은 불화를 피할수 없으며 가족성원들의 마음속에 그늘이 지게 된다. 그런 가정은 병든 세포와도 같이 하나의 생명유기체를 이룬 우리 사회제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172/}

위 담론을 살펴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의 기본은 전통을 존중하는 엄격한 계승성에 있다. 부모는 자식들이 당과 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아픈 매”를 들어 훈육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 이 속에는 노인복지라는 국가적 과제가 자식들에게 있다

171/ 위의 기사.

172/ 위의 기사.

는 ‘노인돌봄의 가정책임’논리가 작동한다. 다음으로 부부관계를 보자.

“부부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수 있고 때로는 의가 상할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에게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 이해와 양보, 헌신적인 방조로 일관될 때 부부간의 정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며 아름답고 영원한 것으로 될 수 있다.”^{173/}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이상적 부부관계는 ‘동지적 관계’이다. 따라서 부부 갈등 시 ‘자기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며, “헌신적인 방조”를 올바른 부부관계로 제시한다.

북한에서 가정이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기층생활단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점으로 혈연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결합을 제시한다. 부자관계의 중요 지점으로 부모는 자식들이 당과 혁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엄격하게 훈육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부부관계의 경우 이해와 양보, 그리고 헌신적 지원을 중시한다.

(2) 부부모델과 아내·어머니 모델

최근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와 함께 ‘자력갱생의 집단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 시대 북한당국이 교육·선전하는 부부 모델의 서사를 살펴보자.

173/ 위의 기사.

“윤전군 련담농장의 리경룡, 흥정화동무들은 이악하고 성실한 실농군으로 소문난 농촌초급일꾼들이다. 제 4 작업반 2분조 당세포 비서인 리경룡동무와 3분조 분조장인 흥정화동무는 다정한 부부이기도 하다. 더 많은 알곡생산으로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려는 불같은 일념으로 이들은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힘있게 내달리고 있다. 10여년 세월 당세포비서로 일한 리경룡동무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옳은 처방으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면서 농장원들을 알곡증산으로 불러일으키고 작업반을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당을 받들 한마음 안고 과학농사의 능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작업반원 모두의 거울로 되고 있다. 그의 안해 흥정화동무도 오래동안 분조장으로 사업하면서 당의 농업정책을 성실하게 받들어가고 있다.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알곡증수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는 분조원들과 함께 포전마다에 질 좋은 거름을 듬뿍듬뿍냄으로써 해마다 흐뭇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분조원들을 위해 바치는 마음 또한 뜨거우니 누구나 그를 《우리 분조장》이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다.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떠메고 나가는 주력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한마음 안고 남보다 새벽이슬을 먼저 차는 이들은 농장의 자랑으로 되고 있다.”^{174/}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부부 노력영웅 모델과 함께, 혁명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사들이 돋보인다. 관련하여 최근 노동신문에서는 국가의 농업증산에 앞장서야 하는 기층 당간부들의 역할 증대와 함께 그들의 아내 모델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사를 살펴보자.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닥치는 시련을 과감히 뚫고 치며 신심 드높이 전진하고 있다. 이 거창한 투쟁은 우리

174/ “농장의 자랑-부부혁신자,” 『로동신문』, 2023.3.20.

당일군들이 생ن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가 되고 인민들에게 당의 믿음과 사랑, 뜨거운 정을 안겨주는 인민의 심부름꾼, 진짜배기혁명가가 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면 당일군들이 자신뿐 아니라 가정도 혁명화하여 대중의 수범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가정을 혁명화하지 못하면 맡겨진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에 충실할수 없을뿐 아니라 대중을 교양할 자격도 사실상 잃게 된다. 그만큼 안해들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안해들이 흔들리면 그의 남편인 당일군들이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수 없게 되고 당일군들이 제구실을 못하면 혁명의 전진이 담보하게 된다. 이렇게 놓고보면 당일군의 안해는 단순히 한가정의 주부라고만 할수 없다. 우리 당일군들의 곁에 혁명가다운 훌륭한 안해들이 있을 때 당일군들이 당의 사상과 뜻에 더욱 충실할수 있고 대중의 신뢰가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배천군의 군당일군가족작업반에 대한 이야기는 의의 있는... 이런 훌륭한 안해들이 곁에 있을 때 우리 당일군들이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당조직들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는데는것을 이 평범한 녀인들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75/}

최근 북한의 저출산과 군입대 회피 문제가 대두되며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여성들의 또 다른 역할인 재생산, 특히 다출산-군인가정 영웅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즉, 저출산 시대 다출산하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 국가에 기여하고, 다출산 노력영웅이 된 혁명하는 여성 모델이다. “어머니의 의무 앞에 공민적 본분이 있다”라는 당과 수령의 요청에 따라 조국을 위해 자녀를 8~9명 출산하여 딸아들 모두를 군대에 보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로 키워낸 어머니들을 선전하며, 다출산 및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것을

175/ “얼마나 훌륭한 당일군안해들인가, 지난 10년간 농업생산에 고귀한 땀을 바쳐온 배천군 군당일군가족작업반의 애국적소행을 전하며,” 『로동신문』, 2023.4.11.

권장하고 있다. 관련하여 2023년 태양절(김일성 출생일)을 맞아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정영란, 송은희, 오순옥의 서사를 살펴보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성들은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는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장한 일로, 애국으로 여겨야 합니다.》 로력영웅,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특출한 로력적위훈을 세운 공민들에게 우리 공화국이 안겨주는 최고의 영예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훈의 주인공들이 아니다. 승호군 안골로동자구의 정영란, 덕천시 제남동의 송은희, 성천군 신지리의 오순옥녀성은 많은 자식을 낳아 훌륭히 키우고있는 것으로 하여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겉모습은 그 지없이 평범하지만 만사람의 축복속에 영광의 단상에 오른 세 녀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한다. 조국을 위하여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바치는것도 애국이다. 그러나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나라의 기둥감들을 훌륭히 키우고 있는 그들의 애국심이야 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것이며 그들의 헌신을 공민의 최고영예인 영웅메달로 빛내여주는 우리 조국은 얼마나 고맙고 위대한 어머니 품인가...** 조국의 천리방선과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치고있는 미더운 병사들의 뒤에는 바로 이렇듯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가정에 늘어나는 조선인민군입대증에서 더없는 긍지와 보람을 찾는 훌륭한 녀성들, 장한 어머니들이 있다.”^{176/}

이러한 북한당국의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 모델이 현실 북한의 보통 가정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그 실체는 어떠한가?

176/ “조국이 영웅으로 내세워준 훌륭한 어머니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정영란, 송은희, 오순옥녀성들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2023. 4. 23.

나. 국가 기획의 균열

(1) 중하층, ‘남편은 국가에 끌려다녀’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면접대상자인 최근 탈북민들에게, 북한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각 구성원의 실제 역할이 어떤지를 질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장마당에서 흔히 이야기한다는 “남편은 불편, 딸은 심장, 아들은 맹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중하층 가정생활을 하였던 사례 3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그게 이제 살기가 힘들면서. 그래서 딸 가진 부모는 우체국에 가서 소포 오는 거 받느라고 우체국에 다리를 걸고 있고,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는 살기 힘들니까. 남자애들은 나쁜 짓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부예다 다리를 걸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뭔가가 힘들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사례 3)

“남자들은 사회주의를 무조건 지키라고 요구를 하니까. 먹고 살 수 있게끔 돈은 안 주잖아요. 그래도 남편은 나가서 출근해야 되거든요. 출근 안 하면 또 분조소에서 와서 잡아서 단련대에 넣으니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지. 그때부터는 (직장에서) 이제 우리 애 아빠랑 조금 능력이 돼서 구루마를 끈다든가, 어디 집 꾸린다고 하면 거기 가고. 그럼 돈을 딱딱 주잖아요. (현금으로 주나요?) 네, 한 달씩 이렇게 몰아서 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집 꾸리는데 기간을 자기네가 정하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그 돈은 각자 몫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기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다가 수익금이라는 걸 내요. 그럼 당원이면은 한 달에 중국 돈으로 70원을 내고, 당원이 아닌 경우는 50원씩 내고. 그러면 자기가 벌어서 수익금을.”(사례 3)

중하층 가정의 경우, 배급과 월급이 나오지 않아도 세대주인 남자들은 국가의 직접적 관리하에 살아야 한다. 따라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보통 가정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의식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50대로 중층생활을 한 사례 4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남편의 역할은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여자들은 남편을 직장에 나가든 어디 나가면 그 여자가 잘 안받침 해주는 게 그 여자의 본분이고,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게 엄마의 입장이고.”(사례 4)

(2) 상층, ‘어머니는 당일꾼, 아버지는 행정일꾼’

일반적으로 북한의 상층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한 편이다. 아버지가 권력층이거나 권력층과의 연줄이 있으며, 경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나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다. 아버지가 은퇴해도 재직 당시 연줄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에 자식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이런 아버지들은 별일을 안 해도 가정에서 그만큼의 위신과 권위가 존재한다. 관련하여 북한 상층 가정 출신인 사례 6은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계 경험을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다른 집도 보면 아빠들이 저희쯤 되면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덕을 보면서 사시는 그런 역할인 거죠. (퇴직하셔서?) 네 (공식적인) 일을 안 하시죠. 우리 아빠도 60 좀 넘으셨거든요. 우리 아빠도 일을 안 했어가지고 장사했잖아요. 돈 벌어서 돈만 뭉 상급에 제출하면 되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아빠가 한 50대 되고 뭐 하면서 내가 다 장사권을 인계를 받고 그때부터 계속 노셨잖아요.”(사례 6)

상층에서는 세대주인 아버지의 위상과 역할이 여전히 굳건한 편이다. 특히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보다는 가정 밖의 행위자들과 연계를 가지고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람과의 사업’이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역할과 비교하면 어떠할까?

“(엄마는 그런 목숨과도 같은 존재인데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요?) 엄마보다는 약간 못 하죠. 엄마가 제일 그다음에 아빠. (아빠는 보통 어떤 역할을 가정에서 하는 건가요?) 자식을 보살피고 하는 거 엄마가 다 하고, 아빠는 세대주라고 하죠, 가정의 기본적인 큰 거만, 사소한 거는 엄마가 다 맡고, 사람과의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장사를 해야 되면 아빠가 나가서 간부들을 만나고 상의를 하고, 집안에 큰일은 아빠가 맡아서 해주고 엄마는 가정 살림하면서 장사 뒷바라지, 아빠 뒷바라지하고.”(사례 6)

가정의 살림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실제로 모든 결정을 다 하나, 그 결정과정에서 아버지의 생각이 우선 반영된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머니는 당일꾼, 아버지는 행정일꾼”인 것이다.

“실제로 결정을 엄마가 많이 하죠, 그래도 아빠를 항상 1순위로 두고. (대외 관계에서는?) 저희 집도 아빠가 벌지 않으셨잖아요. 젊었을 때 버시고 안 버셨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제일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제일 1순위 아빠. 순위별로 놓고 보면, 근데 또 자식 입장에서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가깝죠. 어머니 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당일꾼들은 큰소리 못 치잖아요, 항상 살뜰하게 대해주고, 행정일꾼은 아빠라서 큰소리 뽕뽕 치거든요. (행정일꾼이 아빠 역할이고 당일꾼이 엄마고?) 행정은 내리먹이고 욱하고 하지만 당일꾼은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고.”(사례 6)

(3) 자식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국가담론과 가정경험의 결합

자식이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국가담론은 전통적인 ‘효의식’,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강한 가족주의’와 맞물려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친딸처럼 시어머니를 같이 모셨어요.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할머니한테 너무 잘하시고... 나도 마지막까지 우리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부모님들을 책임지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고 놀러 다니고 싶었는데 다 놀러 다니게 하고 즐기면서 그냥 사시게 하는, 그렇게 사시게 하고 싶고.”(사례 6)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자식을 키워서 내세우는 것까지 시집, 장가 보내는 것까지 그건 부모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여기(한국)도 같잖아요. 그건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집, 장가 보내면 끝. 대신에 자식들이 시집, 장가 갔으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을 부양하는 그런.”(사례 6)

부자관계에서는 서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크게 작용한다. 그렇다면 딸과 아들의 역할 차이와 그 경험은 어떠한가?

“부모님들한테 충성 다하는 딸. 아들은 장가보내고, 장가 전까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하긴 하죠. 그래도 딸처럼 살뜰히 부모님 돌보고 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딸은 심장, 아들은 맹장이라고. 지금 바뀐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님들을 모셨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잖아요. 아들하고 살면 천대받는다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다 딸들이 부모 모시잖아요. (○○○ 시는 10가구면 몇 가구 정도?) 거의 딸들이 모시는 거 같아요. 한 60~70% 모시지 않을까요.”(사례 6)

중층 가정 출신인 사례 4 역시 딸과 아들의 가정 내 역할을 위와 유사하게 구술한다.

“나는 시집가서도 친정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시엄마하고 살면서도 그래도 친정엄마를 더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사는지, 뭐 어디 아프지 않은지 이런 생각... 아들들은 장가가면 여자에게 발목을 잡혀서 그러는지 아들들은 부모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내 우리 형제들을 보면 딸은 그래도 이따금씩 엄마한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들들은 진짜 우리 엄마한테 가끔 가다 오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들 딸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나요?) 모시고 있는 자식들도 있고, 또 대체로 여자네 집 가서 살 수도 있고.”(사례 4)

북한의 경제난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대와 함께 북한 가정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첫째 자식의 역할이 커졌다. 사례 6의 경우, 북한에서 장남과 장녀는 대개 가족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인식에는 세대별 차이가 존재한다. 50대 이상(사례 3, 4, 13)에서는 여전히 장손인 아들을 중시한다.

“저는 아들, 개가 장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도 엄마는 아들한테만 투자를 하고, 아들한테 바친 것만큼 나한테 바치면 나는 완전 멋있게 성장했을 거라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요.”(사례 3)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부모세대와 달리 시부모를 안 모시려는 문화가 팽배하다.

“(우리 대는) 그저 시집가면 응당 시부모 모시고, 그리고 지금 20대들은 시부모를 안 모시자는 그런 개념은 있지요. 우리 때는 죽으나 사나 시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젊은 애들은 만이가 있는 데로 안 가려고 해요. 거기 가면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 본분이 있기 때문에.”(사례 4)

그렇다면 형제·자매는 어떤 존재인가? 이동이 어려운 북한에서는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 살면, 서로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시집가기 전에는 형제가 다 한집에서 사니까 좋고, 시집간 다음에는 제 살림하느라고 가볼 새도 없고 거기는 뭐 다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는 기차 안 타면 걸어가야 하는데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의리도 조금 멀어지는 그런 감도 있고, 오가기 힘들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 와서는 시집보다 친정이 더 많이 생각나죠.”(사례 4)

그러나 자신이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친척 관계 중 형제와 자매는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자매관계가 중요하다.

다. 국가를 대신하여 확대되는 가정의 의미

(1) 경제공동체 성격이 증대

북한에서 국가배급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구조가 일반화되었다. 이로써

가정의 의미가 1990년대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 특히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면서 가정은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북에 사시면서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에 와서도 생각하는 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야 된다.”(사례 6)

“(장녀라서 특히 힘들었겠군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서. 저는 부담감도 없고 동생들 시집, 장가도 제가 다 별어서 집을 사주고 살림을 차려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부모님들이 터를 물려줘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장을 한 거니까 내가 당연히 동생들 다 책임져야 되고 장손이니까.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돈이 생기면 주고 싶어요.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 좀 더 즐길 수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럴까. 내가 뭐 먹을 때도 이거는 북한에서 못 먹는 음식인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려요.”(사례 6)

현재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의미 중 가장 주목할 점은 경제생활이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집중된 가정의 경제권과 그 양상이다. 사례 6의 가정은 한 달에 달러로 기본 350 정도를 쓰는 상층 가정이었다. 그 외에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나가서 놀아야 되고 쇼핑은 따로 들어가는 돈이고, 옷은 뭐 50불 이하짜리 거의 안 입었으며, 집은 북한 평수로 180평 정도(한국 기준 약 50평대) 되는 고급아파트에 큰 방만 4개가 있어, 형제들이 자기 방이 따로 있고 자기 옷장도 따로 있는 집에서 부유한 상층으로 살았다. ‘북한에서 상층으로 사시면서 가정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었나요?’라는 연구자

의 질문에 사례 6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저는 그냥 내가 돈을 벌기는 하지만 부모님들한테 전부를 다 드려요. 엄마한테 돈을 다 맡기고, 가정마다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저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마련해놓은 토대에서 제가 물려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도 돈은 일단 아빠도 밑수를 엄청 많이 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도 절대 자기 돈 한 푼도 안 가졌어요. 다 엄마한테 돈을 주고, 엄마도 잘 쓰지는 않고, 그래도 돈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돈은 내가 벌어서 다 부모님한테 드리고 엄마가 재정 관리를 하고, 대신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죠. 그래도 엄마한테 이거 뭐 어디다 쓰려고 해. 이런 식으로 지출은 엄마한테서 받는 걸로. 형제들도 다 같아요. 저희는 형제들이 다 엄마한테 재정을 맡기고, 엄마가 나중에 결혼 자금도 하고 뭐 다 엄마가... 저희 친구들은 다 그랬어요. 다 부모님한테.”(사례 6)

어머님에게 돈을 맡긴다고 해서 어머님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출 결정은 돈을 버는 남편이나 딸과 상의하여 지출한다.

“대체로 (엄마에게) 돈으로 많이 줘요. 근데 우리 엄마 또 그게 있더라고요. 딸이 번 돈이니까 엄마 마음대로 안 써요. 항상 상의를 해요. 친가고 뭐고 다 오잖아요. 우리 집에 진짜 많이 오거든요. 오면 나한테 상의를 하죠. 돈은 내가 버니까. 왔는데, 지금 뭐가 뭐가 필요가 돼서 먹을 게 없다든가 아니면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해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는 얘기 못 하죠. 엄마는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니까. 오케이하고 엄마 알아서 줘. 이러면 돈으로 인민폐 100원을 주던, 50불을 주던 주거든요.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1년이면 한 몇 번 정도나 될까요?) 우리 집에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와서 가져가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며칠 정도는 그렇게 손님들이

오세요?) 계속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못 사니까 그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사례 6)

한편,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재혼가정인 사례 4는 가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가족이라는 거는 남편하고 살면서 글썄, 조금 내 자식 없고 (본처) 두 자식을 기를 때 조금 내가 호강하며 살았을 때, 그때 좀 이런 게 가정이라는 걸 느껴봤고, 그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조금 좀 힘들었던 게 본처 자식하고 우리 자식이 조금 대립이 되는 거.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이라고 하면 아들이 좋지 않게 나를 생각하고. 그런 데서 내가 조금 마음이.”(사례 4)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수준이며, 그 외 사례 4로서는 남편의 바람기와 폭력이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재혼한 남편의 바람기로 힘들었던 사례 4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재혼한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기는 게 그게 제일 힘들고. (그러면 애를 키우는 데에서는 어떤 게 가장 힘들셨나요?) 그때만 해도 자식 키우기는 조금 괜찮았어요. 남편이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본처 자식도 잘 대해주고.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도 그다음부터는 돈 있으니까 떠받들며 키우고.”(사례 4)

한편, 부부관계에서 주목할 점으로 술만 먹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라도, 사망 시 고통은 아들 사망보다 남편의 사망이 더 크다고 한다. 가정생활을 하며 남편, 시어머니, 아들의 죽음을 모두 경험한 사례 4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남편 잃었을 때 제일 마음이 아프지요. (전)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고 그전에 조금 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간이 잘못되면서, 그저 술로 세월을 보냈죠. 술이 주식이에요. 그 입에 붙으면 뱀 줄을 모르고, 뭐라고 말하면은 좀 싫다고 또, 좀 맞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아들을 잃고 그다음에 남편이 잘못된 다음부터는 좀 마음에 상처를 내가 많이 받고 혼자 한 1년 살았어요.”(사례 4)

(2) 가족 확대와 제사 문화 양상

북한 역시 1970~80년대는 현재와 달리 장가간 아들 내외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탈북민들은 여전히 시부모 봉양을 의무로 여기는 이들이 다수이다.

“내가 시집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내가 스물두 살에 시집가가지고, 막내아들한테 시집가가지고 양부모를 모셨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시아버지는 좀 권력이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기관지 천식으로 계속 집에서 앓고...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내가 10리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 밭에다가 계속 농사를 짓지. 남편은 직장 일을 하니깐 농사를 지을 새도 없고. 그래서 나하고 시아버지하고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완전히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봤죠.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산을 올라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아침, 점심은 밥을 먹고 저녁에는 옥수수국수 있잖아요. 국수가 제일 거기서는 좀 싸고 좀 영양가 있고 하니까. 저녁에는 또 일을 안 하잖아요. 그저 먹고 자니까. 그리고 국수는 한 끼는 국수 먹었지. 저녁 한 끼는. 내가 시집(남편 사망 후 재혼) 가기 전에 94년도까지.”(사례 4)

‘2018년 기준으로 동네에서 10가구가 있다. 여기서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정어머니랑 같이 사는 가정은 몇 가정 정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사례 4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한 다섯이나 되나 절반 정도. 집이 없어서 어디 세간 못 낼 형편이면 다 같이 살고.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세간을 못 내면 다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러면 보통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가정생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집이나 지키고 손주들 봐주고”(사례 4)

그런데 최근에는 변화가 보인다. 물론 북한에서는 부모 봉양을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177/}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생활력이 커지면서 딸들이 부모를 돌보는 가정이 증대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 등 국가 육아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으며, 조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딸과 손주들을 돌봐주면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증대하였다.

“(○○○시의 경우 아들이 모시는 경우가?) 40%로 정도인데. 근데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좀 그러니까(좋아하지 않으니까), 딸들은 오히려. 어떤 부모님들 속에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딸하고 살면 머슴이라고, 엄마니까 엄마 밥해줘 하고 하잖아요, 근데 며느리하고 살면 몸은 좀 한가할 수 있는데, 대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눈치 보고 살고,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딸하고 따로 살다가 엄마가 좀 사고가 나서 가지고 지금 딸네 집에 가 있거든요. 동생네 집에 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래도 딸은 딸이다. 아들도 다 장가가고 다 했었는데도. 곁에서 다 지금 다 같이 살거든요. 근데도 역시 딸은 딸이래.”(사례 6)

177/ 한편, 북한에 양로원은 수가 적고 질차도 까다롭다. 양로원은 규정에 따라 자식이 없는 노인들만 갈 수 있다. “(요양원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북한은. 있긴 있는데 양로원에 들어가려면 규정이 많아요. 절차가 심사를 거쳐야 되고 자식이 없어야 되잖아요.”(사례 6)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선조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차례, 제사, 성묘 문화를 살펴보자. ‘차례나 제사를 일 년에 몇 번 정도 지냈나요?’라는 질문에 사례 4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성묘는) 추석 때 가고 그다음에는 다 집에서 해요. 설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아버지 생일날에 제사하고 그다음에는 추석에 하고, 추석에는 대명절처럼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이 다 가서 차례. 돌아가신 날도 지내고 생일제라는 것도 지내요. 1년에 차례는 설, 추석 두 번 한 사람당. 그 외 생일제하고 돌아가신 날은 따로.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 때는 시아버지하고 같이 하고, 시아버지 생일 때는 시어머니 같이 하고, 사진을 놓고.”(사례 4)

전체적으로 보통의 북한의 가정에서는 제사와 차례를 합쳐서 1년에 네 번 정도 지낸다. 주목할 점으로 이는 여성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조상을 모시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젊은 세대의 가정에서는 먹고살기가 바빠 설과 추석 외에 제사를 크게 신경 쓰기 어렵다. 한편,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지만, “친정 부모 (제사)는 시집은 다음에는 출가외인이라고 안 가”(사례 4)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라.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해: 저출산, 혼인 미등록, 이혼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지다보니 무거운 짐을 덜어내기 위한 여성들의 다양한 행위가 증대한다. 대표적인 양상이 저출산/무출산, 혼인 미등록, 이혼 등이다. 저출산은 경제적 문제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젊은 여성들의 자기 결정이 연결되어 드러난다.^{178/} 한편, 남편이 권력을 지닌 상류층에서 출산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한다.

^{178/}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풍부한 실례는 박영자 외,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서울: 통일연구원, 2021) 참조 바람.

“(출산을 안하는 것은) 돈이 없거나 동거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상층들은 좀 달라요. 제 주변에서 생기지 않아서 못 낳는 건 봤어도, 아이 못 낳으면 헤어져야 되는데요. ○○○가 고향이긴 하지만 제가 평양에서 엄청 오래 있었거든요. 평양에 가 있는 게 많아요. 사업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평양도 같아요. 아이 못 낳으면 헤어져야 돼요. 아직까지는.”(사례 6)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를 사례 3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뭔가를 잘못하면 내보낸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여자들. 돈을 버는 게 여자는 많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부터 장사를 하니까. 지금도 이제 돈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위치가 나쁘면 그만큼 싸겠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집 같은 거 하나 사놓으면은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다가도 잘못하면은 그냥 쫓겨난다고 이렇게 업포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그래 나가서 돈 잘 버는데 애도 잘 봐주고 뭐 이렇게. 2012년도, 2013년도 이때부터는 대부분 젊은 애들이 그랬어요.”(사례 3)

청년층 사이에서는 먼저 살아 보다가 계속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미루는 이들이 증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거가정의 자녀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호적에 올려줘요, 그때는 또 아빠 호적을 달기는 하는데 낳자마자 출생신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 혼인신고하면서 호적으로 올리는 거지. 애를 한 2~3년 후에 올리고 그래요, 개가 다섯 살 때 올렸나. (그래도 법에

걸리진 않고?) 괜찮아요, 돈 조금 주면 돼요. 나중에 혼인신고하면서 호적에 올리면 돼요. 엄마 호적으로 올리는 거는 없어요. (한부모 가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은 아빠 성이에요, 엄마 성은 없어요, 북한은.”(사례 6)

(그럼 만약에 강간 같은 거 당해서 애 낳았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키워야 되잖아요.) “강간당해서 애 낳는 게 있을까요? 북한은 다 지워버리죠, 그 꼭지가 붙으면 그 여자는 인생 끝난 건데.”(사례 6)

전반적으로는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문화가 팽배하다고 한다.

“하나만 낳아서, 그것도 딸을 낳아서 잘 키우자. 뭐 가정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겠죠. 아들 낳자, 딸을 낳자. 근데 대부분 그래요. 한 명만 낳자, 한 명만 잘 키우자. 그중에서 딸이 낳다.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일반화된 거죠? 2010년 이후에? 김정은 시대 그때?) 네, 그때 비슷할 거예요.”(사례 6)

한편 혼인신고 기피 양상과 이유에 대해 북한의 재판이혼제도 등으로 인한 이혼의 어려움¹⁷⁹⁾과 남녀관계의 신뢰 부족이 지목된다.

“혼인신고를 안 하죠. (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3년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라고, 북한에도 지금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실제로, 이혼은 안 해준다고 정부 방침은 계속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혼을 너무 여기처럼 손쉽게 이혼을 하니까 그래서...

179/ “급증하는 이혼 막아라... “재판소, 이혼 판결 심사속고” 방침 지시,” 『데일리NK』, 2023.1.3., <<https://www.dailynk.com/20230103-2/>> (검색일: 2023.2.13.). 이 기사에서는 북한당국이 최근 “세포인 가정을 지켜주고 사회적 역할 하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주의 헌법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재판이혼임에도 급증하는 현실에 대해, 재판소가 무책임하게 판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당국에서) 혼인 신고하라.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거주(등록)는 하라고. 근데 한 사람이 거주하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주를 해서 그냥 같이 살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혼인신고하면 나중에 이혼이 복잡하니까.”(사례 6)

이혼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내면에는 북한 사회에서 현재 남성과 여성 관계의 상호 신뢰가 저하된 측면이 있다.

“신뢰를 못 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는 진짜 못생기고 그래도 돈만 있으면 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돈이 있는데 여자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리고 대학도 그렇게 못 나오고 했는데. 남자는 잘났어요. 잘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했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돈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부부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경제문제 때문에 사는 거라서, 어차피 남자가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때 되면 남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가정이 그동안에도 아이도 생기겠죠. 근데 남자는 애를 버리고라도 싫은 여자하고 못 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살았지만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그다음에 헤어지는 거죠. 그런 실례가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결혼하는 확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돈으로 맺어진 사랑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확률이 너무 많아요.”(사례 6)

사례 6이 살던 북한의 도시에서는 경제적으로 맺어진 실질혼 관계에서 서로 신뢰는 못 하는 가정 비율에 대해, “거의 돈으로 안 맺어진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80~90% 정도 다 돈으로”(사례 6)라고 증언한다. 또한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빈곤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증언한다. 한편 농촌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아직 이혼이 어렵다고 한다.

“진짜 사랑해도 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빈곤해요. 둘이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애도 낳고 키워야 되고. 요즘에는 한국처럼 애도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어릴 때부터... 그게 다 안 되잖아요. 또 헤어지게 되죠. 진짜 사랑해도 또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북한에서 계속 가정불화가 생기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결혼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네 몇 년 살까?... 농촌에는 조금 괜찮더라고요. 농촌에는 그래도 아직 옛날 그 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살자 하고 사는 것 같던데 그 테두리 안에서 어차피 못 벗어나잖아요. 농민계급은.”(사례 6)

마. 상류층 가정의 새로운 구성원: 식모

상류층 가정에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구성원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식모(食母)이다. 최고위층에서는 운전사도 있거나 북한에서는 아직 상주 운전사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반면에 상류층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상주 식모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상류층 사이에 식모는 대개 믿을 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의 자녀들 중에서 선발한다.

“(가사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식모가 따로 있었어요. 친척들 중에 시골 쪽에 있는 애들 좀 착하고 그런 애들 데려다가 한 달에 50불 주거든요. 인민폐 300원 정도 주거든요. 그때는 300원 정도 줬는데, 그러니까 월급만 인민폐 300원 주고 옷이랑은 제가 사 입혀요. 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인데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옷을 사 입히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니까 같이 식구처럼 일 도와주고?) 그렇게 용돈도 주고 하다가 또 저는 조건을 그렇게 걸었거든요. 외삼촌의 딸을 데려다 썼었는데 너 시집갈 때 내가 집 하나 사줘서 보낼게 하고. 거기까지 내가 책임질게.”(사례 6)

식모가 친척일지라도 기본적으로 ‘고용-피고용’ 관계이다. 따라서 가르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식모는 내쳐야 한다.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깔끔해야’ 오래 두고 미래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다.

“(그 친구는 그러면 되게 좋은 거네요.) 좋은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워낙 시골에서 살던 애라서, 도시에서 살던 애면, 좀 집 안에 비밀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애네들은 어디 가서 누설할 데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비밀이 엄청 많거든요. 장사가 다 비밀이니까. 근데 애네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데려다가 썼는데 깨끗하지가 못 해요. 음식을 해도 깨끗이 해야 하는데, 음식은 웬만해서는 시키진 않지만. 엄마가 맛있게 하니까, 엄마 음식 좋아하니까. 근데 하루에 두 번은 집 청소를 계속하는데,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사는데 그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죠. (그럼 보통 그러면 한 몇 달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 몇 달 써보고 계속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청소는 제가 조금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다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어차피. 가르쳐줬는데 그걸 몇 달을 해보고 그래도 이거 못 고친다 하면, 굳이 내가 돈 주고 쓸 이유는 없죠. 돈값을 못 하니까.”(사례 6)

2. 가정-밖: 국가/사회와의 맞물림과 어긋남

북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행위자들 중 국가와 가정을 연계하는 대표적 행위자들은 인민반장, 보안원(한국의 경찰), 보위부원(한국의 정보기관원) 등이다. 일반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인민반장이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검열’을 포함한 각종 단속과 감시가 많은 북한 사회에서 중상층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는 보안원과 보위부원이다. 체제에 순응하는 중하층민들에게는 인민반장의 역할이 크며, 비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욕망을 꿈꾸는 중상층 가정에서는 보안원과 보위부원들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

가. 국가를 대리하는 인민반장: 주민 관리와 어머니 역할의 연계 모델

북한의 인민반과 인민반장은 가정생활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북한에서 “인민반은 주민의 기본 생활단위이며 주민들과 인민정권기관을 이어주는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인민반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강조한다. “인민반사업을 강화하여야 주민들을 우리 당정책으로 더 잘 무장시킬 수 있으며 가정과 인민반을 알뜰히 꾸려나갈 수 있다. 여기서 큰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인민반장들”이다. 관련하여 노동신문에서는 2023년 현재 인민반의 위상 및 인민반장의 구체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직분은 많아도 인민반장처럼 그 이름부터가 인민과 직접 연결된 직분은 흔치 않다. 인민반장은 인민들에게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과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이 더 잘 가닿게 하는 인민의 총복이다. 우리 당은 어렵고 힘들수록 인민을 더 따뜻이 품어안고 인민들의 피부에 하나라도 더 가닿게 하기 위한 사랑의 혜택을 베풀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당의 사랑이 더 빨리, 더 정확히, 더 뜨겁게 가닿게 하는데서 인민반장의 역할은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 수 없다.”^{180/}

180/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을 책임진 주인-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3.19.

“지난해 국가방역체계가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된 그때만 놓고 보아도 주민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드바쁜 나날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인민반장들이었다. 인민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인민반장들의 역할에서 사회주의대가정의 모습을 보고 고마운 혜택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인민반장 어머니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사회주의시책이 하나씩하나씩 생활에 와닿군 하였고, 정말이지 하루에도 여러번씩 생활을 넘려하여 찾아오는 인민반장의 모습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돌보는 어머니당의 은정,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폐부로 절감하군 하였다던 목소리는 수도의 인민반들에서만 울려나온것이 아니었다.”^{181/}

이러한 북한의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민반장은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사회주의대가정’을 지탱시키는 어머니 역할을 모델로 한다. 특히 북한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민반장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인민반은 단순한 생활단위가 아니라 한가정이다.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을 거느린 식솔많은 가정의 맏며느리가 쓰고 단맛을 띠우며 삼으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게 늘 마음쓰듯이 인민반장이 인민반의 모든 대소사에 마음을 쓰고 지성을 기울일 때, 인민반의 모든 주민들을 한식솔처럼 여기고 살뜰히 돌보아줄 때 인민반의 모든 가정이 화목과 행복을 꽃피우며 애국의 한길을 걸어가게 된다. 앓는 세대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는 인민반장의 손길에서, 늦은 밤에도 곳곳에 미흡한 점이 없는가 세심히 알아보는 인민반장의 발걸음소리에서, 하루에도 아파트의 층계를 몇번이나 오르내리며 크고 작은 모든 일감을 혼자서 걸머지고 마음쓰는 인민반장의 정깊은 눈길에서 주민들은 식솔많은 대가정의 맏며느

181/ 위의 기사.

리의 진정을 시시각각 절감하고 있다."^{182/}

“...언제나 인민반장들을 아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으시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땅의 공민으로서, 인민반장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한 인민반장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그들이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는 그 수고도 뜨겁게 헤아려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어버이의 이런 하늘같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민반장들의 커다란 영광이고 행복이며 크나큰 긍지이다. 모든것이 어렵고 힘든 지금 인민반장들이 여느때보다 더 세심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인민반을 돌보고 사회주의의 혜택이 매 가정들에 더 잘 가당게 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땀 때 충성의 7월 11일 붉은기인민반, 사회주의생활문화모범가정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들에는 언제나 사랑과 정이 차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민반장들은 어머니당의 신임과 기대, 인민의 사랑과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하여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된 충복이 되어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을 더욱 아름답고 문명하게 꾸려나가야 할것이다."^{183/}

최근 북한의 식량난 심화와 함께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생활과 공장·기업소 가동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동원이 일상화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30~8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가정을 관리하는 인민반 생활과 인민반장의 역할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에서는 ‘인민반장의 역할과 모델’을 소개하며 교육선전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대표 사례로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2동 31인민반 반장 김달미의 경험 소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182/ 위의 기사.

183/ 위의 기사.

인민반장 김달미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뒷담화도 많은 인민반 세대들을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연일 느끼고 있다. 이로써 인민반 사업에서 여러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된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서사, 즉 갈등 극복 과정을 보면, 첫째, 문제를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라고 생각하고, 둘째, 권위가 있는 당간부와 남편의 조언을 중시하며, 셋째, 그들이 권해주는 수령님의 노작을 통해 교훈을 얻으며, 넷째, “인민반장 사업이 사회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가를 가슴깊이 깨달았”고, 다섯째, 인민반을 내 가정처럼 헌신적으로 쟁길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개인, 가정, 사회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한 서사를 살펴보자.^{184/}

“...아무래도 자기는 반장일을 계속할것같지 못하다고 속상한 심정을 내비치는 안혜에게 인민군군관인 그의 남편이 준절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 인민반장일이 하고싶으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해도 되는 사업인줄 아오? 당신도 당원이지. 인민반장사업은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란 말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처음인민반장이 되었을 때 동초급당일군을 찾아갔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인민반장 사업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 그에게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젊은 나이에 직업도 성격도 각각인 인민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는것이 험치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무야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제대군인이 아니예요. 군대에서처럼 인민반원들을 한가정 돌보듯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될거예요.》그러면서 초급당일군은 그에게 인민반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을 안겨주었다. 집에 돌아와 로작들을 학습하면서 그는 인민반장사업이 사회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가를

184/ “우리 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4.18.

가슴깊이 깨달았었다. 그런데 또다시 나약한 소리를 하다니...”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김달미동무의 얼굴에는 굳은 의지가 비껴있었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인민의 충족으로서, 맘머느리로서의 뜨거운 마음을 지녀야 하며 그래야 인민반이 화목하고 나아가서 온 사회가 단합되어 우리 당정책이 잘 관철된다는 것을 자기는 실체험으로 똑똑히 깨달았다고. 얼마후 동안의 인민반장들이 모인 자리에 나선 그는 토론의 마감에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우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반장이 얼마나 영예롭고 긍지스럽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도 영원히 인민의 충족인 인민반장으로 살 결심을 다지는 그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인민반장 역할을 제대로 하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군인인 남편, 초급당비서, 그리고 수령이라는 점이다. 모두 사회적 위계의 상위에 있는 남성들이다.

이렇듯 북한당국이 인민반장의 역할 모델을 대대적으로 교육 선전하는 것에 비해, 현실 북한의 보통 가정에서 실제로는 어떠한가? 가정 밖에서 가정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자와는 어떠한 맞물림과 어긋남의 양상을 보이는가?

나. 중하층 가정에 영향력이 큰 인민반장과 여맹

북한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외부행위자들은 대개 국가를 대리하는 이들이다. 앞서 다루었듯이 대표적으로 인민반장, 보안원과 법간부, 보위부원이다. 이 중 중하층 가정에서는 인민반장과 여맹의 영향력이 크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중하층 가정에서는 가정생활에 영향 미친 외부의 주요 행위자가 인민반장이다.

“제일 스트레스가 인민반 동원이죠. 우리 일반적인 중산계층 가정에서 쪽 불 때 인민반 동원이 제일 스트레스죠. (인민반 동원이 어떤 게 있나요?) 도로 닦기도 하고 농촌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농촌 지원은 학교 때부터 나가잖아요.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나가고, 기관기업소들이나 우리 여맹원들은 여맹원대로. 여름에는 풀베러 나가야 되고. 우리가 돈 1전도 받지 못하면서 여름 피약벌에 나가 해야 되잖아요.”(사례 3)

기본적으로 도시의 경우 도로청소, 사회적 동원, 마을 가꾸기 등이 인민반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인민반장 주도로 해서 인민반원들이 돈을 걷어서 전력사업소(배전부)에 돈을 주고 전기를 끌어 쓰는 등 공동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인민반장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한 인민반이라도 세대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전부에다가 돈을 내면은 그 시간에 우리 인민반만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내 중심은 대부분 만 원씩 내줬는데 시내 중심을 떠나서 조금 생활하기 어려운 동은, 연봉동이나 탑성동 이런 동은 돈 안 내줬다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게 공급이 될 수가 없잖아요.”(사례 3)

가정사에서 중요한 장례는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하고, 직장이 없으면 인민반에서 장례식을 지원한다.

“신고는 안 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다 장례를 하죠. 직장 없는 집들은 인민반에서 와서 장례식을 하죠. (보통 화장을 하나요?) 아니요. 산에다 묻어요. 본인의 의향대로 산 자리를 가서 보지요, 자식들이. 아무 데나 묻을 수 있어요. 밭에다가는 안 놔요. 일구지 못하는 그런 산에다가. 시내 같은 데는 공동묘지 있는데 그런 데다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양지 있는 산 쪽에 가서, 대체로 거기 가면 다른 묘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리가 조금 빈다 여기다가 하겠다 하면.”(사례 4)

인민반장과 여맹위원장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나, 인민반은 행정기구이고 여맹은 사회단체이다. 따라서 인민반은 가정생활 운영에 영향력이 크고, 여맹은 조직생활과 사상관리를 중시한다. 즉, 그 위상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다 여자가 하지 남자가 하는 건 없어요. 여맹 간부라는 거는 여맹원들 할 때 여맹위원장이 있고, 여맹위원장도 인민반에 속하면 인민반장하고 같이 동원도 나가고.”(사례 4)

“(왜 인민반장은 다 여자일까요? 남자는 왜 안 할까요?) 여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의) 모든 걸 다 정치하지요. 남자들은 여자가 벌 어다가 주면 먹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우세라고는 못 해요. 남자들은 세대주라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억 누르고 이런 거는 있지만 대중에 나와서 하는 그런 거는 못 해요.”(사례 4)

직장에 적이 없는 주부들은 생활총화와 학습 등의 조직생활로 여맹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장사 등의 비법적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총화는 상당히 느슨하게 진행된다.

“여맹에서도 매주 생활총화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맹에서도 매주 목요일은 학습날이에요. 매주 생활총화로 따로 부르고, 학습 날에 생활총화까지 하라 하는데 생활총화는 대부분 가정주부들은 없어졌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토요일이 생활총화 날이에요.”(사례 3)

농촌동원 등의 ‘사회적 동원’에 가지 않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무리한 금액은 아니어서 시장에서 하루별이를 하더라도 동원 대신 현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중하층 가정에서는 인민반과 함께 여맹이 가장 중요한 가정 밖의 행위자들이다.

“학습은 돈을 안 내는데 여맹 조직에서 제기되는 농촌동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가면 돈을 내거든요. 한 번 안 가면 중국 돈으로 5원씩.”(사례 3)

“평상시에 우리는 보안원 얼굴도 몰라요. 저도 잡혀 들어가기 전 까지도 우리 담당 보안원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는 이상은 그들이 감시할 일도 없고. 근데 내가 여맹생활하면서 뭐 내라고 했을 때 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가고 이렇게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라, 내라 계속 그러고. 초급단체위원장들이 좀 내라, 내라 계속 이러는데 못 내겠다고 버티면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말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민반은 뭇을 딱 정해주는데 내가 안 나가면 내 자리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장한테 인민폐 10원 내면은 반장이 사람을 사서 또 시키고,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면 평균 인민반에만 20위안 정도 주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 또, 그냥 동원하러 나가고, 그냥 억지로라도 끌려다니며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고, 여맹도 돈 내는 거 있지요. 여맹은 외화별이를 하는데 1인당 땅콩 1키로 이렇게 과제가 떨어져요. 땅콩 1키로가 3원이면은 3원을 내야 되겠죠. 1년 과제니까. 1년에 땅콩 1키로, 그다음에 여맹에서 누에도 기르라 하거든요. 그럼 누에를 안 기르면 대신 누에꼬치값을 몇 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에 여맹에서 제기되는 돈들도 얼마 안 돼요.”(사례 3)

그렇다면 북한의 가정생활을 잘 아는 사람들인 인민반장과 보안원, 보위부원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

“그런 사람들은 인민반장하고는 사업관계가 다 좋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나쁜 점도 있어요. 맨날 동원 나오라고 하면 그게 시끄러워서 싸움하고 그러는 관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보안소나 보위부 사람들은 인민반장하고는 ‘ 좋게 하자 ’ 하고 관계가 나쁘면 안 되지.”(사례 4)

한편, 대개 북한의 가정에서 남성들은 소위 사회생활을 하기에 일상적인 동원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주목할 점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생활은 사회생활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니까, 사회생활 안 하고 장사를 한다 해도 적을 걸어놓은 회사에다 돈을 내니까 그 회사에서 다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일하죠. 시장생활은 사회생활이 아니죠. 사회생활은 회사 같은 데에 이름을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이고, 가내반도 사회생활이나 같죠, 결국에는. 시장은 개인 장사고, 사회생활이 아니라.”(사례 3)

다. 상층 가정에 큰 영향 미치는 보위부와 법일꾼

시장화 이후 북한에선 비법이 아니고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또 한 돈을 벌 수 있는 각종 정보와 연줄망이 중요하며 뇌물이 일상화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층 가정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1순위 보위부원, 2순위 보안원, 법간부, 행정간부 등이다.

“(가장 영향 미친 것은) 보위부. 가정적으로 부모님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북한) 사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와서 실수를 하면 그게 끝나니까. 그래서 항상 보위부 때문에 친척들끼리도 그런 엄한 말은 못 하고,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뻔지는 못하고. 그래서 보위부가 제일 무섭고 그리고 보안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당일꾼은 거의 접촉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 가족 경우에는 행정일꾼이나 당일꾼을 대할 일이 없어요. 1년 열두 달 내내 엮일 일이 없어요.”(사례 6)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럼 주로 어떤 기관하고 엮이나요?) 보위부, 보안성. 이게 무섭지 가정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왜냐하면 애내는 잡아가잖아요. 자기네 비위 거슬리면, 잡아가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을 버는데. (인민반이나 이런 데는 돈으로 내면 해결되는 거고?) 네네. 직장생활도 같아요. 법일꾼들은 감옥에 넣는단 말이에요. 일을 안 나가도. 그러니까 법일꾼들이 더 무서워요. (보위부, 보안성 다 법일꾼에 들어가는 거죠.) 당일꾼은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는데. 행정일꾼도 조금 무섭긴 하죠. 직장 해고시키고 이런 권한이 그 사람들에게 있으니까.”(사례 6)

한편, 상층 가정에서는 ‘부자가 인심을 써야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인덕을 베풀어야 한다. 도덕경제가 작동하는 북한 사회에서 부잣집이 돌봐야 하는 친척과 이웃 관계가 아직 건재한다.

“저희도 친척분들이 농촌에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집에 오고.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도 농촌에 있는데 계속 누이한테 와요. 우리 엄마가 누이니까 누이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 엄마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잘 살아요.

우리 아빠네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잘 살고 하니까, 먹을 거 없다는 데 굶어 죽으라고 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집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큰 건데 우리 집에선 아무것도 아니니까”(사례 6)

“(이웃들도) 우리 집에 오면 한 끼라도 잘 먹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했던 음식은 짐승 먹이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는 또, 또 우리 엄마가 동네 사람들 잘 먹여요, 못 먹는 그런 분들, 내가 성격이 좀 까칠해가지고 나 없을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음식 다 먹이고, 또 온 동네 먹이고 이러시나 봐요. (그럼 인덕이 좋으시겠네요.) 너무 좋아요. (어머님 무슨 인민반장 같은 거 하신 거 아니고?) 네, 안 했어요.” (사례 6)

3.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

이 절에서는 북한당국의 가부장 담론을 분석하고, 실제 가정에서는 이 담론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본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가족, 가정 관련 담론인 ‘아버이 수령’, ‘어머니 당’,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었는지, 국가와 수령 가부장 프레임에 따른 국가의 가정담론과 현실 가정생활에서 구성원의 역할과는 어떠한 차이점과 동질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즉, 북한 가정생활과 수령, 당의 역할과 관계,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 등을 살펴본다. 전체적으로는 ‘무력한 가부장’과 ‘사회주의대가정’의 균열 양상을 밝힌다.

가. 국가가부장 담론

북한당국의 ‘사회주의대가정’론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아버이 수령, 어머니 당, 부모(수령과 당)를 믿고 충성하는 자녀(인민)’라는 역할 논리이다. 가부장체제로 어리고 미숙한 자녀들인 인민을 ‘강하게 지도하는 수령’^{185/}, ‘따뜻하게 품어 안는 당’, ‘부모 역할을 하는 수령과 당을 믿고 충성하는 인민들’로 구성된 국가가부장 담론이다. 관련한 대표 서사를 살펴보자.

“위대한 당의 품에서 이 세상 가장 역세고 강의한 인민이 자라났다. 우리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 인생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신 위대한 은인...백두의 칼바람 속에서 키우신 계승자들의 대부대...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아버이의 기쁨이었다. 애지중지 품에 안아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오신 자식들이 너무도 대견하시여,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닥쳐와도 불사신의 용맹과 의지로 이겨낼수 있게 성장한 그들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미더우시여 터치시는 그이의 크나큰 희열이고 보람이며 더없는 긍지였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에, 자랑찬 승리들에 그처럼 한없이 고결하신 아버이의 기쁨이 어려있다.”^{186/}

특히, 최근 북한이 미래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 더욱 구체화하는 ‘아버이 수령-어머니 당’담론의 사례와 서사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우리당이 어린 소년단원들의 대화를 어이하여 그
토록 중시하고있으며 후대들을 위한 그 열렬한 사랑이 우리 국가의

18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당 주체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자.” 『로동신문』, 2023. 4. 11.

186/ “위대한 당의 품에서 이 세상 가장 역세고 강의한 인민이 자라났다.” 『로동신문』, 2023. 4. 3.

오늘과 래일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가꿔주는가에 대한 한편의 서사시이다. 정일심, 나이는 14살, 재령군 금장고급중학교 학생... 《당에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대표들을 위하여 전례없이 강력한 의료진을 무어주었습니다. 평양에 온 소년단대표들의 건강 상태를 료해하던 과정에 의료일군들은 정일심소녀에게서 본인도 모르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체없이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결과 소녀의 병은 하루이틀의 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어 일심이는 두달동안이나 김만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그날에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상상조차 못했던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게 되었다... 《이 교복이랑 솜옷은 아버지원수님께서 우리 산골학교에 까지 평양의 고급재단사를 보내시여 몸에 꼭 맞게 지어주신 것이예요. 가방과 신발, 양말과 혁띠도 다 원수님께서 주신 것이예요.》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에게 교복과 가방, 신발, 양말을 특별히 잘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옷이 날개라고 소년단대표들에게 옷을 잘 해입혀야 한다고 하시며 5000명 대표들이 사는 방방곡곡을 빠짐없이 찾아가 몸치수를 간간히 재여 유명한 피복공장들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도록 해주신 아버지의 그 보살피심에 학부형들은 얼마나 울었던가...”^{187/}

“편안하고 풍족한 때였다면 그 한별한별의 교복과 솜옷이 이다지도 우리 가슴을 걱정으로 파고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은정어린 교복과 《해바라기》학용품을 받아안고 잠못들던 그런 밤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있지 않았던가... (병원에 입원하여)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한 내소식을 아버지원수님께서 기다리시다니!...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일심학생과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할 소년단대표들에 대한 대책을 취해주시던 그때는 바로 력사적인

187/ “김정은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던 한 소년단원이 받아안은 각별한 사랑과 은정에 대한 이야기,” 『로동신문』, 2023.3.19.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준비로 그이께서 일본일초를 쪼개며 밤을 새우시던 때였습니다.》병원에서 긴장한 치료의 순간...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바쳐 그이께서 가꿔가시는 강국의 꿈과 이상이 한해한해 눈부신 실체로 눈앞에 다가오고있기에 이 나라 인민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아버지라고 목메여 부르며 당에 대한 일편단심 추호도 변함없이 만남을 곳곳이 헤쳐나가고있는 것이다. 어머니당에서는 퇴원을 앞둔 정일심 소녀에게 또다시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었다. 일심이는 대회에 참가했던 대표들의 로정을 따라 만경대고향집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참관지들과 옥류관에까지 가게 되었다.”^{188/}

한편 사회주의대가정을 구축하는 데 인민반장의 역할과 경험, 그리고 수령의 영향력을 선전하는 모델 사례를 살펴보자.

“김달미동무는 인민반장이 동에서 포치하는 사업이나 알려주기 위해 집집의 문을 두드릴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부터 먼저 두드려야 한다는것을 깊이 절감하였다. 지난해 5월 온 나라에 최대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되었던 어느날 김달미동무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약국들을 찾으시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자기 인민반에서 걸어서도 몇십분이면 가닿을 수 있는 약국들, 전염병위험이 그 어느곳보다 더 크게 도사리고있는 약국들에까지 서슴없이 찾아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이야기는 고열로 쓰러졌던 그와 인민반원들에게 사랑의 불사약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당의 사랑이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었다. 그 날에는 고열로 앓고난 자기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구했던 딸기를 인민반의 한 주민의 자식에게 보내준 사실도 있었다. 최대비상방역기간 김달미동무는 이런

188/ 위의 기사.

진정으로 인민반원들을 일으켜세우고 친어머니 심정으로 그들의 생활을 돌보았다.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는 그는 잠시간이면 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아이들의 옷차림도 보아주고 옷사람들에게 도덕을 잘 지키도록 교양하는데도 힘을 넣었다. 휴식일이면 직장일로 바쁜 세대들의 자식들을 가까이에 있는 룡라인민유원지에 데리고가 휴식의 한때를 함께 보내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당과 조국의 사랑을 알며 성장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하여 아이들은 김달미동무를 《우리 인민반장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인민반장을 만나면 머리회로인들도, 소년단넥타이를 맨 아이들도 지어는 인민반에 살고있는 일군들도 모두 인사를 한다. 자기들의 매 가정과 인민반의 단합과 화목을 인민반장을 떠나 생각할수 없기에.^{189/}

나. 하층 가정의 국가가부장 담론 인식

위와 같은 국가가부장 담론을 북한에서 살며 일상적으로 학습받았던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였는지? 북한에서 하층생활을 했던 사례 3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게 이제 김일성이 정치할 적에는 다 평등하게 살았잖아요. 그때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었어요. 평등했죠. 우리 학급에 아버지가 도 건설 부위원장이라고 엄청 높은 간부인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라에서 선물을 준 것 외에는 뭐 입지를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자식들도 다섯이 일곱이든 열이든 선물로 입고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배급도 똑같이 주거든요. 배급표가 보름에 한 번씩. 우리 가족이 뭐 자식 넷에 아버지, 어머니 까지 여섯이잖아요. 배급표가 그럼 일하는 성인들은 700g, 고등학교

189/ “우리 인민반장,” 『로동신문』, 2023.4.18.

오면 500g, 중등학교면 400g, 초등학교면은 300g 이렇게 체계가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골고루 살았어요.”(사례 3)

사례 3은 사회주의대가정 담론을 평등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대가정이라고 할 때는 김일성 시대에 국가가 다 동일하게 주민들에게 베풀었기에 그 의미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대가정 담론은 그 의미가 약해졌다. 베풀어주는 아버지 수령과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의 역할이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시대에는 다 국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까지 졸업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사회주의대가정. 지금은 의미가 많이 좀 깨졌죠. 이제는 자기 능력껏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하면서 장사를 다 열어놔서 능력껏 상품을 끌어들여서. 옛날에 우리는 아파트 밑에 있는 건 공공건물이잖아요. 옛날 아파트들이 다 밑에 공공건물이 상점이어서 공업품 상점, 식료품 상점, 가정용품 상점 이렇게 상점들이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운영을 못 하니까, 개인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상품을 끌어들여서 팔아요. 그러면 요만한 칸을 두 명에서 나눠서 이쪽에서는 가정용품 팔고 이쪽에서는 양말을 팔고.”(사례 3)

“지금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공공건물들을 개인들이 다 들어가서. 옛날 거기 책임자는 상업관리소가 딱 쥐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업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업관리소에 세금이 들어가요. 한 달에 중국 돈 천 원씩. 내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다음에 우리 ○○백화점은 한 달에 2천 원씩 매대 하나에. 백화점 안에 여러 사람이 매대를 하나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나라에서 다 틀어쥐고 있죠.”(사례 3)

반면, ‘조직생활’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강제와 통제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운명은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북한 상황에서 사상과 조직생활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도 그 의미가 현실에서 깨지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의미가 있죠. 거기는 하나의 사상과 영도에 따라서 모든 인민이 움직이잖아요, 어린 애들까지도. 탁아소 교육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김정일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전문대학까지 3년 6개월 졸업하면 그 몇 년을 공부시키면서 김일성 동지 혁명활동,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역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지금도 체계적으로 났기 때문에 한 가지 사상, 한 가지 체제 밑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조직생활로 사람들을 묶어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내 먹을 게 없는데 왜 나가서 행사를 참가해야 되냐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배짱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고, 또 생활총화라는 게 토요일 날마다 있잖아요. 그럼 단체마다 그 생활총화에 가서 비판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내 먹을 게 없어서 죽겠는데 거기 왜 나가냐 그러고.”(사례 3)

‘인민을 위해 강인하고 현명하게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아버지 수령’과 ‘인민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보살피는 어머니 당’이라는 논리는 김정은 시대 현재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인식의 흐름을 살펴보자.

“아버지 수령할 적에 우리가 김일성일 때부터 수령님, 수령님 하며 살았고 또 김일성이는 그만큼 베푼 게 많잖아요. 정말 전 지금도

생각하면 김일성은 정말 잘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김일성이처럼 잘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하면 그래요. 거기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다른 나라도 다 여기랑 같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4년 차 살면서 생각하니까 야, 정말 김일성이처럼 정치를 잘한 분은 정말 세계적으로 없구나.”(사례 3)

“(왜 정치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평등하게 살게 했고 그 다음에 범죄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땐 정말 국경경비대도 없었어요. 그래도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에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모택동이 하면서. 김일성이 그 사람들에게 다 무상으로 집주고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는 정말 생각해 보면. 여기는 와보니까 어린애들 왕따 무슨 성폭행, 이런 범죄자라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김일성 시대에는 범죄자가 없었어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잡아먹고.”(사례 3)

“어머니 당이라는 건 우리는 당은 다른 당이라는 게 없잖아. 딱 한 가지 당인데. 그 어머니 당이라는 자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주려고.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구호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살아왔잖아요.”(사례 3)

“최근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우선은 개인이 내가 먹고살겠다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사니까. 지금의 당이 하는 역할은 선전선동 사업. 그래서 우리 초급당 비서도 여맹원들이 몇백 명이 되거든요. 한 500명 되는데 거기에 다 초급당 비서가 있어요. 초급당 비서들은 다 입당하고 사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회의 나가면 우리가 미국놈들한테, 일본놈들한테 36년간 식민지를 살았는데 다시는 미국놈들, 일본놈들의 식민지 노예로 살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힘들어도 허리띠를 좀 조여매고 나라가 이제 일떠서면, 강성대국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김일성 수령님 때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선전을 계속하는 게 당 조직이지.”(사례 3)

그렇다면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을 비교해보자. 북한에서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이란 담론을 실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과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북한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고 지금도 그런 봉건이 많아서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돈을 못 벌잖아요. 나가서 사회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돈을 못 벌어도 가장으로서의 그 엄격함이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따뜻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어머니 당이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해도 그 결함을 다독여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엄격하게. 뭔가를 잘못하면 딱 벌세우고... 우리 애 아빠도 애들 다 그렇게 키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몽둥이를 딱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벌을 아버지는 딱 벌만 세우고, 그리고 엄마는 또 가슴이 아프니까 아버지를 달래며 그만하라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품어 안고 다시 그러지 말라. 이제 다시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제 혼난다고 이래서. 그러니까 엄마 하는 역할, 아버지 하는 역할이 다 다르죠.”(사례 3)

(근데 실제로 아버지 수령이나 당이 그런 역할을 했나요.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 역할은?) “**김일성 시대는 했다고 봐야죠.**”(사례 3)

“김정은이는 할아버지 정치를 많이 한다고, 인덕 정치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면은 이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체제 밑에서 교육을 받

아 쪽 고등학교까지 졸업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못 느껴봤으니깐 모르는 거지 거기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죠. 못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불평불만이 많지요.”(사례 3)

다. 중층 가정의 국가가부장 담론 인식

북한에서 중층생활을 한 50대 가정인 사례 4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 북한 정권의 담론인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어머니 수령, 어머니 당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말은 써도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명절 때는 공급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우리 인민반에서 명절 때는 모여서 놀자 하면 그 자체로 얼마씩 내가지고 놓고 이랬지.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주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사례 4)

“그러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주의 생명체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우리 사회주의를 지키겠다.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지.”(사례 4)

전체적으로 사례 4 역시 ‘사회주의대가정’은 국가가 이제 주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거의 없다고 증언한다. 반면, 조직생활과 사상교육, 주민들이 국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 등을 의미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여전히 김정은 시대에 의의가 있다고 한다.

“아버이 수령이라면 김일성을 아버지 수령이라고 하고. 어머니 당이라는 거는 한 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머니 당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수령과 우리 인민이 한데 뭉치면 거기에 대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랬어.”(사례 4)

“(그런데 실제 수령이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일성이 있을 때는 진짜 좀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직장 다니면 돈도 주고 배급도 배급소에 가면 배급 다 주고, 상점에 가서 먹을 것도 사고, 이렇게 살았는데 김일성이 죽고 나니깐, 우리도 생전에 수령이 죽는 걸 처음 겪어봤지. 그러니까 완전히 허무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이 수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딱 무너지는 그런 감도 나고.”(사례 4)

라. 상층 가정의 국가가부장 담론 인식

북한에서 상층생활을 했던 사례 6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 관련 인식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사회주의대가정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일심동체라고. 예를 들면 남한에서는 ‘무슨 일이 터졌어’ 하면 상관을 안 하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고맙고, 상관 안 하는데. 만약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단합이 돼가지고 나를 희생시켜.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집단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사회주의대가정. 대중을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죠.”(사례 6)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많이 들긴 했는데 이해는 하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생명체가 육체적 생명하고 정치적 생명으로 나누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육체적 생명이고 정치적 생명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나라의 몸이야. 나라에서 하려면 해야 돼. 그게

정치적 생명인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야 돼.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바칠 수 있어. 이게 정치적 생명이에요.”(사례 6)

“(근데 진짜 김정은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열 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처럼, 외국 사람들 많이 접촉을 하고 했는데도 외국 사람들을 거의 안 믿었어요. 그냥 내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선에서만 대해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고 너네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해도, 저것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잘만 사는고만, 이런 정도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사례 6)

그렇다면 아버지 수령, 어머니 당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례 6의 경우, 수령은 ‘엄마’,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수령은 내 엄마와 같은 거예요. 내 운명. 김정은이는 내 부모님과 같아요. 엄마하고 같아요. 아빠는 아니고요. 엄마라는 의미가 여기하고 틀린 게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나의 이익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엄마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엄마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엄마하고 틀리고. 그런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죽으려면 죽고 그런 각오가 다 되어 있는. 그래서 아버지 수령인거고.”(사례 6)

“어머니 당도 엄마가 살뜰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살뜰하잖아요.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늘 근심 걱정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어머니 님이라고 하는 거예요.”(사례 6)

전체적으로 북한에서 상층생활을 한 이들일수록 국가가부장 담론의 내면화가 중하층에 비해 높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상층일수록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많고, 국가담론에 대한 교육수준도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 국가-가정 관계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국가와 가정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에 대해 중층생활을 한 사례 4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가정에 신경을 안 써요. 국가는, 여자들이 눈만 뜨면 장사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뭐 인민들을 신경을 안 쓰니까 우리도 국가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국가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자체로 살아야 된다. 그 생각뿐이지 국가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사례 4)

상층에 비해 중하층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이나 보살핌을 받은 것이 거의 없고,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강화되다 보니 국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아졌다. 그러나 다수 보통의 북한 주민들은 지난 30년 이상 이미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거보다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즉, 국가에 개인과 가정이 헌신하는 것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국가-가정’의 관계는 ‘국가에 종속된 가정’이다. 그 인식을 살펴보자.

“(만약에 김일성 시대처럼 다 배급되고 이렇다면 북한에 가서 사시고 싶으세요?) **이제는 잘산다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한 번씩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 환멸이죠.** 완전히, 완전히 우리 인민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뭐 죽겠으면 죽고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 환멸을 느끼죠.”(사례 4)

“(북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북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지. 그래서 핵실험해도 우리는 진짜 핵보유국으로 만들면 우리가 더 잘 살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못 먹어도 진짜 그게 잘 하는 기다 하고는 한 번씩 쏘면은 우리가 기분이 완전 좋아지고 김정은이가 잘한다. 잘 생각했다 이런 생각뿐이지. 뭐 굶어 죽어도 김정은이 저기 나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가져봤어요.”(사례 4)

“(그럼 북에 사실 때 이렇게 김정은 정권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없었어요. 불만이 있다면 인민반에서 동원시키면 우리 오늘 하루 먹고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힘들어서 나가냐 그 정도지. 국가하고는 이런 그런 투쟁이라는 거는 입 밖에도 못 내봤죠.”(사례 4)

4. 지속과 변화의 양상

이 절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역사에서 가정생활의 지속과 변화 지점은 무엇인지, 김정은 시대 가정생활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다.

가. 동원의 증대

이전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 가정생활 변화 중 주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특징은 동원의 증대이다. 인민반으로 시작해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동원 사업이 ‘사회적 과제’와 맞물려 일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들이 뭐가 있었나요?) 매일 아침 동원이죠. 인민반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학교에서 돈 내라. 뭐 외화벌이 그런 거 해야 된다 하면서 매일 아침 인민반 동원 나가고. 그때만 해도 내가 라진에 들어와서는 직장 일을 했으니까. 여맹은 아니고 인민반으로 동원되니까. 인민반은 직장 생활과 관계없이 매일 아침마다. (인민반 동원이면 어떤 어떤 동원들이 있었나요?) 담당구역 청소. 눈 오면 눈 치워야 하고, 매일 조로 짜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도로 빗자루질하고, 돌을 얼마씩 걷는다 하면 마대에다가 돌을 나르고 그런 동원.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는 하지요.”(사례 4)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모두 경험해본 사례 4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바뀔때 따라 가정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김일성이 있을 때는 주로 농촌에 그릇을 현지지도하고 광산, 탄광 이런 곳. 김정일이 있을 때는 현지지도라는 게 전부 군사, 군대에 가서 현지지도하고,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식량 곤란도 많이 받고 농민들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그러는지 농사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어쨌든 김정일이 있을 때는 신년사라는 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우리가 있을 때 신년사를 했는데 이제부터 완전히 농업을 추진시켜서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풀겠다 그러고, 우리가 김일성이 있을 때는 설마다 그런 신년사를 했는데 이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본을 받아가지고 인민들을 완전히 생각해주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그거는 아니고 뭐 더 찌들어가죠, 생활이. 점점 형편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실망했지요.”(사례 4)

김정은 시대 동원의 증대는 특히 청년들과 어머니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방 대학생들의 동원 실태를 사례 6은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동원 다 했죠. 지금도 대학생들 공부 안 하고 계속 건설만 시키잖아요. 일만 시키고, 그거는 김정일이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안 그랬거든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되면서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건설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엄청 건설광이잖아요, 제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까부시잖아요, 건설 다 했던 것도, 그러면서 노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시스템은 똑같은데 건설을 하려면 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대학생 아니면 여맹, 가정주부들이 걸로 보충을 다 하고 있는 거죠.”(사례 6)

“대학생들한테 많이 (동원) 의뢰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얘기가 지방 대학만, 평양은 안 그렇거든요, 개네는 농촌 지원 1년에 두 달 나가면 끝인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근데 지방대학교 학생들은 건설 그리고 동원, 대학생들 아니면 건설을 못 한대요, 매일 나가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대학 다니는 거 보고 제가 왔거든요, 매일 수업만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 휴식이 없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토요일은 생활총화해야 되니까 그날은 노는 거거든요, 그날은 일이 없어요, 사상교양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일요일은 휴식일 이잖아요, 일요일에 휴식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명절이 아니고는 휴식하는 걸 못 봤어요, 맨날 일 나가요, 농촌동원 아니면 뭐 ○○○에 건설하는 것들 엄청 많잖아요, (무료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점심도 자체로 해결해야 해요, 자기가 도시락 싸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완전 노예죠, 일공 노동자로... 대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거 잘 안 참가하면 뭐 퇴학시키고 이러니까 무조건 참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는 게 대학생들이 거예요.”(사례 6)

한편, 개인과 사회뿐 아니라 국가도 돈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동원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내면 빠져나올 수 있는 양상이 구조화되었다. 중상층생활을 하거나 시장활동을 하는 도시의 어머니들은 인민반 동원의 경우, “조금 돈이 있었으니까 반장한테 돈 주면은 그걸 면제해주고 그랬어요”(사례 4)라고 한다. 국가에 몸으로 기여하지 못하면 돈으로 기여하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화되었다.

“그러면 적을 걸어놓고 대학도 안 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은 안 참가하죠. 돈만 내면 되니까. 저희 동생도 계속 돈을 냈었거든요. 하루에 인민폐 5원일 때 있고, 최고 30원까지 낸 적 있어요. 하루에 10원이면 쌀을 3kg 정도 샀었어요. (그럼 월급의 몇 배인 거잖아. 근데 하루에 그렇게 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무역을 하시니까, 또 누나가 돈을 버니까?) 내가 버니까 한 달에 내가 대학교에다가 인민폐 300원을 내줘요. 그러면 우리 동생은 거기 안 참가해요. 공부만 하고 집에 오면 끝인 거예요. 토요일에 생활총화만 참가하고.”(사례 6)

나. 여가의 탄생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볼 때 탈북민 대다수가 김정은 집권 후 약 2015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의식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상층의 생활수준은 확연히 높아졌고, 국가와 사회 모두 ‘돈’을 중시하는 문화가 팽배해졌다고 한다. 특히 보통의 가정생활에서도 여가문화가 자리 잡았다. 즉, 김정은 집권 후 가정의 생활수준뿐 아니라 생활문화의 변화가 크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정생활도 너무 올라가고 문화수준 상태가 올라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되게 바람피우면 막 그러고, 그런 면도 애가 정권 잡으면서 그거를 계속 깔았잖아요. 김정은이 간부들 속에서 제기되는 거, 간부들 자체가 이제는 뭐 세권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서 간부들 숙청도 많이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여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서 숙청을 한 거잖아요. (여자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 네. 그거는 크게 문제시 되지가 않아요. 김정일 때는 엄청 그랬다는데 안 그래요, 지금은.”(사례 6)

특히 상층 가정의 생활은 김정은 시대에 현격하게 변화되었다. 이전 시대와 달리 김정은이 소비문화를 촉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주 생활의 변화뿐 아니라 여가 문화의 변화가 크게 드러난다.

“명절 때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12시 이전까지는 괜찮아요. 통금은 아닌데 12시면 아파트 자야 되잖아요. 눈치 보여서. 명절이란 명절은 다 그래요. 명절이 엄청 많잖아요. 명절은 다 휴식이 되니까 무조건 휴식이잖아요. 4·15, 2·16, 1·8, 3·8 부녀절. (김정은 탄생일 날도 쉬어요? 공식적으로는 빨간 날이 아니거든요.) 쉬어요. 이틀씩 쉬어요. (언제부터 쉬었나요?)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못 쉬게 했잖아요.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제가 오기 한 2년 전인가. (그러면 쉬는 날이.) 1월 1일 설명절에 3일 쉬고, 1월 8일 이틀 쉬고, 그리고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에 이틀 휴식하고, 그리고 정월대보름도 하루 쉬고 음력 1월 15일에. 그때 온 시내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시내가 딱 차요, 식당이랑. (정월대보름은 민속명절이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 즐겨요. 그때 명복을 빌려고, 짧은 커플 엄청 많고,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 이틀 쉬고, 다음에 7·27 전승절 이틀 쉬고, 8·15 광복절 이틀 쉬고, 8·28 청년절에 하루 쉬고, 청년동맹 창립일이예요. 그다음에 9·9절 당 창건일에 이틀

쉬고, 10월 10일에도 이틀 쉬고, 일요일이 끼면 삼일 쉬고. (부녀자 날에도 쉬나요?) 원래는 공식적으로 쉬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냥 알아서 다 쉬어요. 국제부녀자날은 엄청 크게 보내요. 꽃다발 난리 나요, 온 시내가. 11월 16일 어머니날 하루 쉬고, 12월 24일 김정숙탄 생일에 이틀 쉬고, 12월 27일 헌법절에 하루 쉬고, 단오날도 하루 쉬어요. 거의 민속명절은 하루. 청명도 쉬고 하루, 추석도 하루 쉬고. (청명절은 음력으로?) 모르겠어요. 거기 달력에 표시된 거 보고 알아요. 동네에서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가족들끼리도 그러고 놀아요.”(사례 6)

수영장, 가족탕, 연인탕이 있는 사우나 문화도 활성화되어 한국의 찜질방보다 더 화려하고 규모도 크다고 한다.

“(사우나) 엄청 하죠. 가족탕도 막 빌려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면 수영장이 있어요. 들어가면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상가아파트 지하에. 그리고 수영장 옆에 찜질방들이 있어요. 2층에 식당이 있고 식당 옆에 놀이방도 있고 오락 시설들 게임도 하고. 여기는 수영복 입고, 다 벗고 한증칸에 들어가면 여자 남자 따로 있거든요. 1, 2층에 다 있는 거예요. (한국의 찜질방하고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여기보다 복한이 더 화려해요. 리모델링 자체가 다 화려해요. 탕도 크고, 수용 면적도 엄청 크고. (그럼 엄청 큰 수영장이네요. 옆에 따뜻한 물도 있고?) 다 있죠. 폭포처럼 마사지탕도 있고 수영장 옆에 다 있고 목욕탕은 따로 있고 찜질복도 따로 있고 마사지하는, 피부 관리하는 거 다 있고.”(사례 6)

“가족들 가고 친구들과끼리 근데 대체로 그 친구들과끼리 보다 가족끼리 잘 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명절날에 날 잡아서 ‘식구 다 모여서 가자’ 해서 한 사람당 인민폐 150원이거든요. 근데 하루 중 일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입장료만 150원. 계산은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게 없잖아요.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나갈 때 그냥 표로 줘요. 그리고 스마트가 있어가지고 라커 스마트로 다 돼 있거든요. 그니까 그냥 찍고, 그리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표를 줘요. 영수증 같은 거 주죠. 주면 저희가 보관을 하고 그제 카운터로 정보가 내려가요, 전화로. 그러면 나중에 결제하고.”(사례 6)

중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보통 주민들도 공원이나 바닷가와 강가, 수영장과 한층당에서 노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상류층에서는 가정 여행도 화려하게 즐긴다. 그 양상을 북한에서 상층생활을 했던 사례 6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겨울에는 대체로 실내에서 놀고, 추우니까. 그리고 봄부터 시작 이 되거든요. 봄부터는 시내 안에 놀이터들 있잖아요. 딱 차요. 사람들, 가족끼리, 친척끼리 다 먹을 거 사가지고 공원에 가고. (여름에는) 실외 수영장이 따로 큰 거가 있어요. 거기 주변에 식당들도 있고 공원에서 사람들이 막 무리 지어서 그러는데, 다 집에서 도시락으로 싸서 그렇게 노는 거죠. 집단마다 중폭기를 가지고 가니까, 유행 설비 같은 거. 자기네 가족에서 하나 가지고 가고... 저희는 바닷가로 잘 갔어요. 거기 멀어요. 그거는 더울 때 해수욕 하러도 가고... 차 빌려가지고 도시락 다 싸갖고 대체로 아침 새벽에 떠나서 가거든요. 5시쯤 떠나서 가고. 거기서 조개구이랑 해 먹고 철판 갖고 가서 소고기랑 구워 먹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놀면 놀고.”(사례 6)

“가족끼리 평양에 가서 또 놀 때 있고 호텔에 가서. 저희는 청년 호텔 갔어요. 거기가 엄청 잘돼 있어요. 호텔에 가족끼리 가면 거기도 사우나 있고 다 있거든요. 지하에 다 있으니까 그냥 호텔에서 놀죠. 그리고 호텔에서에서만 놀지 않고 호텔에서 하루 정도 즐기면 되고 들어가서 밥 먹고. 북한에 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꼭꼭 먹

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두 끼 먹고 하긴 했지만. 그러면 아침에 호텔에서 먹고 그다음에 점심하고 저녁은 나가서 먹는 거죠. 평양시 구경하고 명승지 구경하면서 맛있는 데 찾아다니면서 먹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고 다음 날에 또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좋은 거 보고. 그게 열흘 패키지로 갔었어요. 저희 가족끼리 열흘 동안 우리 평양 가서 놀다 오자 그러면 가서 몇천 불 깨지죠. 제가 그래도 수입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매달 가서 몇천 불 깨져도 한이 없어요. 너무 잘 놀고 오니까.”(사례 6)

다. 세대별 차이와 경제능력 중시

북한에서 50여 년을 생활한 사례 3은 김일성 시대부터 현 김정은 시대까지를 볼 때, 북한의 가정생활에 두드러진 특징이나 변화에 대해 ‘세대차’를 지목한다. 최근 북한의 청년세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기에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은 가족뿐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자라온 체제가 김일성 시대고 우리 애들부터는 다르잖아요. 부모들이 다 벌어서 먹였잖아요. 교복이나 교과서 같은 것도 다 학교에서 주긴 해도 내가 먹고살고 과외생활에서 필요한 거 뭐가를 사는 건 다 부모들이 해결해줬잖아요. (김정일 시기부터?) 그렇죠. 우리 딸이 199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내가 가끔씩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김일성 시대에는 잘 살았어 하니깐, 얼마나 잘 살았지 우리는 김일성인지 김정일인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우리 딸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게 사고 상태가 완전 변했죠. 그래서 내 부모가 내 능력껏 나를 키우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이렇게 하니깐.”(사례 3)

한편, ‘돈’이 남녀관계를 결정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과 양상을 사례 6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주목할 점으로 외화벌이가 발달한 도시의 경우 여자들보다는 능력이 있는 남자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시에서 남자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나요, 여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나요?’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남자들이 많죠. (이유가?) 원래 여자가 바람나면 가정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게 여자들은 돈을 벌다 보면 조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남자들은 꼭 여자한테 막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가정을 잘 안 돌보긴 하더라고요. 상대가 다 있죠. (그 사람들도 결혼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유부남하고 처녀하고 상관없이”라고 구술한다(사례 6). 연구자의 ‘원래 북한이 가정 도덕과 윤리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라는 질문에 사례 6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제 생각에는 외국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김정일 때는 그렇게까지 외국 문화가 안 들어왔죠. 근데 김정일이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엄청 차단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세컨드 들어 살고 그랬잖아요... 간부들도 여자 문제 제기되면 옛날에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간부들 자체가 여자 없는 사람이 없고 세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 무역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세컨 없는 남자 없어요.”(사례 6)

소위 세컨드라고 칭하는 내연자가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질문에 사례 6은 기혼의 능력 있는 남자들이 ‘내연녀를 능력 없는 남자에게 시집보내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사회정치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제 주위에는 여자(내연녀) 시집보내요. 보냈는데 남자가 완전 한심한, 능력이 전혀 없고 밥이나 해주고 그냥 와이프가 벌어다 주는 거... 이런 남편을 하나 형식상으로 있고 실제로는 이 사람하고 모든 부부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많아요. 우리 무역 계통에서도 많아요. 돈이 있어서. 돈 없는 사람 바람피워봤자. (그럼 생활비를 줘주는 거예요?) 주죠. 식당도 하나 사주고 그래요. 저희 같은 쪽에는 사장들도 많고 하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처녀들 다 데리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 못 하고 여자한테 가서 싸우고 이리저리요. 그러면 오히려 저 무식한 여자. 예전에는 본처 말을 들어주고 세컨 여자 나쁘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싸우러 다니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보면, 제가 시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창피하게 소리 내면서 다니냐고, 그러면 남자가 더 와이프 싫어한다고 이런 인식들이 있더라고요.”(사례 6)

이러한 현상은 무역업이 발전한 ○○○시의 경우 상층 남자뿐 아니라 “중층까지는 다 그래요. 하물며 하층도 있는데”라며 여성들도 상당히 많으며 약 10%는 그런 가정이라고 증언한다. 또한 그 관계 중 후견-피후견 관계인 ‘알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외부 문명의 유입이 늘며 이런 흐름이 더 증대하였다고 한다.(사례 6)

“(대강 ○○○시가 100가구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세컨 두고. 그러니까 아주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0% 되겠죠. 또 여자들도 저처럼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남자가 다 있어요. 자기 가정이 있으면서 남자 다 있고, 백을 봐주는 사람들 이죠. (그게 일종의 알쌈이라고?) 네, 맞아요. (그런 관계로도 서로 같이 장사하고 이러면서?) 장사하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김정일 때는 먹고 놀고 춤추고 이런 게 국가에서 딱 기념일 때만 이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되면서 중국 문화가 들어와서 생일 놀이

도 크게 하고 이리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게 더 많아졌고, 원래 놀러 가서 그런 게 잘 생기잖아요. 김정일이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부터 보편적으로 사회에 그런 게 결함이 아닌 것처럼. (한 몇 년 정도부터는 그랬나요?) 지금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요? 외국 문화 들어오면서... 왜냐하면 김정일이 때는 외국에 사람을 많이 안 내보냈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외국에 사람을 엄청 많이 내보냈죠. 무역 절차도 보면 예전에는 엄청 절차가 심했어요, 한 번 외국에 나가려면. 근데 지금은 감옥 갔다 와도 되고 대학 안 졸업해도 되고 당원 아니라도 되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김정일이 때는 막 사돈에 팔촌까지 토대가 걸리지 말고 이랬어야 되는데 (김정은 집권 후)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사례 6)

Ⅵ. 이행기 중국의 가정생활 변화: 북한에 함의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행기 중국의 가정생활 변화: 북한에 함의

이 장에서는 이행기 중국 사회구조 변동과 가정생활의 변화가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중국의 교훈을 중시한다. 북한 변화에 함의가 있는 1970~90년대 중국의 이행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생활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힌다. 본문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1. 이행기의 급변하는 물질문명, 2. 개혁개방이 중국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로, 3.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이다.

1. 이행기 급변하는 물질문명

가. 시장경제화와 자영업의 발흥

(1) 사회주의식 배급제의 종언

중국에서는 직물 배급표(布票) 제도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1954년 9월 15일 시행한 「면포 계획 구매와 계획 공급에 관한 명령(關於棉布計劃收購和計劃供應的命令)」 이후 1983년 12월 1일 상업

부가 전국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면포 등 방직 품목에 대한 배급표를 중단했던 시기까지이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 시기 이후 서구 국가들로부터 화학섬유와 비료생산과 관련된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방직업의 원자재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다. 1973년 3월 국무원은 「설비 수입 증가,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요청 보고(關於增加設備進口, 擴大經濟交流的請示報告)」를 승인하여 “앞으로 3년 또는 5년 내에 일정 수량의 플랜트와 설비를 집중적으로 수입하여 ‘5번째 5개년(1976~1980)’ 계획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일차적으로 43억 달러의 설비를 수입하는 방안을 제기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의·식과 관련되는 화학비료, 화학섬유, 알킬벤젠이 수입 항목 총 26개 가운데 18개, 전체 투자의 63.84%를 차지하게 되었다.^{190/} 그러다가 1983년 12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직물 배급표, 면화 배급표를 없앴고 이로써 직물, 면화 등의 민간 공급 제한이 해제되었다.^{191/} 195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직물 배급이 종결된 것이다.

그러나 직물 배급표가 사라지자 민간에서는 사재기 사태가 벌어졌다. 많은 민중이 가격 폭등이 두려워 그동안 모아둔 배급표를 가지고 백화점, 상점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상하이 제1상업국 업무처 처장이었던 천춘광(陳春舫)은 사재기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문을 읽고 바로 직물 배급표를 들고 직물 상점에 옷감을 사러 모여들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 직물 상점, 백화점 앞에 장사진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몇 년간 모은 배급표로 옷감을 샀어요. 하루 판매량이 평상시의 6개월치 판매량을 넘어갔어요. 다음 날에는 줄 서는 사람이

190/ 陳錦華, 『國事憶述』(北京: 中央党史出版社, 2005), pp. 14~15, 32~33.

191/ 國務院, “國務院批轉商業部關於全國臨時免收布票和明年不發布票的請示的通知,” 1983.11.4.,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7-09/13/content_5224678.htm> (검색일: 2023.9.12.).

더 많아졌고, ... 제1백화점, 제10백화점은 당일에 영업 종료도 못 할 정도였습니다.^{192/}

(2) 개체호(個體戶, 자영업자)의 등장

개혁개방 이후 통포통배(統包統配)의 취업제도가 와해되면서 계획경제 시기의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던 직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개체호와 민영기업이 활성화되면서 도시 가정의 취업 전략 역시 변화하였다.^{193/} 철밥통으로 볼 수 있는 체제 내의 직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 주택분배 혜택, 의료 서비스, 노후 연금 보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단위의 직급이 낮은 구성원들은 낮은 임금수준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려웠고 단위가 배분하는 주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위직의 경우 면적이 좁은 저품질의 주택을 분배받았다. 다른 한편 민영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인한 리스크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단위의 생활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단위를 그만두고 개체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체호로서 소득이 충분히 창출되지 못할 경우 직업안정성만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 도시 가정에서는 ‘체제 내’와 ‘체제 외’ 직업을 병행하는 ‘일가양제(一家兩制)’(한 가구에서 체제 내·외 직업 수행) 모델이 등장했다.^{194/} 대체로 남성은 리스크가 크지만 보상이 상대적

192/ 袁仄·胡月, “‘西装热’與改革开放,” 『光明日报』 2011.6.23.

193/ ‘통포통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취업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당시 취업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자 의무였다. 도시주민의 취업은 국가가 주도하여 도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노동연령이 되고 노동능력을 갖고 있으면 국가가 필요한 일자리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었다.

으로 많은 민영기업 또는 시장경제 관련 직업을, 여성은 안정적이고 복지 혜택이 있는 체제 내의 직업을 선망했다.

나. 식·의·주의 변화

새로운 물질문명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는 1980년대 초기 기록 된 해외 경험 중국인들의 구술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미국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적어도 매일 고기와 빵, 우유를 마시는 것이 보장된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중국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도 높다.”, “국내 사람들이 물질생활로 여기는 녹음기, 라디오,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미국에서는 사치품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이 고속도로다... 10차선이나 되는 길이 끝이 보이지를 않는다... 매번 고속도로 위의 고가다리를 건다가 늘 멈춰서 내려다본다.”, 독일에서는 “주인이 우리 대신 아파트 한 채를 빌렸고 20인치 컬러텔레비전도 일부러 설치했다. 서독에서 5개월 체류하는 동안 스크린은 우리 여가 시간의 작은 천국이 되었다.” 등의 경험 기록들이다. 하나같이 물질이 서구를 관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195/}

1970년대 말 개혁에 대해 각 사회계층은 서로 다른 바람과 이상을 갖고 있었다. 통치자는 문화대혁명의 실패로 인해 상실된 통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재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경제 건설을 통해 인민의 물질생활을 개선하고자 했다. 1985년 4월 15일 덩샤오핑(鄧小

194/ 郭康健·劉錫霖, “兩代人的關係: 北京·上海·廣州의比較研究,” 『青年研究』, 第3期 (1997), p. 27.

195/ 孫海燕, 『‘想象’中國20世紀80年代的中國生活與設計』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16), p. 106.

平)이 탄자니아 부통령을 회견한 자리에서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빈곤을 소멸시켜야 한다. 생산력이 발전하지 않고, 인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사회주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196/} 위로부터 아래까지 물질생활 개선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다.^{197/}

(1) 식생활

중국 공산당은 식량 배급제도를 1931년 도입하였다. 전국적인 식량에 대한 통일구매·통일판매(統購統銷) 정책은 1955년 8월 국무원이 발표한 「농촌 통일구매·통일판매 임시 시행방법(農村統購統銷暫行辦法)」과 「시와 진 식량 정량 공급 방법(市鎮糧食定量供應辦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정량 공급 방법은 도시에서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단위가 식량 배급표를 발급하며, 그 종류에는 식량부(糧食部)가 발급한 전국 식량배급표와 각 성·자치구·직할시 식량청(국)에서 발급하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방 식량배급표 두 가지가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주민들의 생필품, 이를테면 식량, 직물뿐만 아니라, 석탄, 술, 담배까지도 배급품에 포함되는 등 배급제도의 전성기였다. 식량 배급제도는 개혁개방 이후 점차 완화되어 1983년에는 국가가 통일구매·통일판매하는 것은 식량과 식용유에 한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배급제가 폐지된 것은 1993년 국무원이 발표한 「식량 유통체제 개혁 가속화에 관한 통지」 이후다.

중국인의 식생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이다. 먼저 코카콜라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시장에 가장

196/ “貧窮不是社會主義，社會主義要消滅貧窮。”『中國共產黨新聞網』，2017.3.22.

197/ 沈清，“美化生活與80年代初的日常生活轉型。”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2015，p. 27.

먼저 진입한 해외의 제품이자 기업으로 상징성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이미 코카콜라는 ‘모던(modern)’의 상징물이 되었고,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텐진(天津) 등 코카콜라 생산공장이 있는 도시들에서는 상류층의 음료로서 인기가 높았다.^{198/} 1940년대 말 상하이에서 일 평균 소비된 코카콜라는 약 17만 병으로 “만약 코카콜라가 흐르는 개천이 있다면 상하이인의 배속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199/} 1948년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코카콜라 한 병 가격은 수박 두 통 가격이었으며, 일반 시민의 한 끼 식사 가격 수준까지 도달했다.^{200/}

1949년 코카콜라는 주중미국대사관과 함께 중국에서 철수하였다가 1978년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반점에서 수교 협상을 할 때 코카콜라주식회사도 같은 층 다른 회의실에서 중국양유진출구총공사(中國糧油進出口總公司)와 협상을 하였다. 12월 16일 미·중 정부는 수교 방침을 확정하여 수교 공동선언을 하였고, 12월 19일 코카콜라는 중국시장 진출을 선언하였다.^{201/} 1979년 중국양유진출구총공사와의 협력관계로 코카콜라 3,000박스가 홍콩에서 베이징으로 운송되었으며 베이징(北京), 상하이, 광저우(廣州)에 위치한 우의상점(友誼商店), 관광호텔 등 외빈을 맞이하는 장소들에서 코카콜라는 외빈에게만 판매되었다.^{202/}

이처럼 30여 년 만에 중국 시장에 재진출한 코카콜라의 가장 큰 고민은 공장 설치였다. 중화민국 시기 상하이에 공장을 설립한 경험 이 있었기에 중국양유진출구총공사를 통해 상하이 정부와 교섭했지

198/ 姚靚, “科技·現代性與近代中國飲食習慣的變遷, 可口可樂在中國早期發展歷程的分析,” 『自然辯證法通訊』, 第6期 (2021).

199/ “我愛可口可樂,” 『新民晚報』, 1947.8.10.

200/ “上海貨物稅局局長方東,” 『新民晚報』, 1947.10.7.

201/ 劉欣, “可口可樂: 見證改革開放40年,” 『今日中國』, 第1期 (2019), p. 46.

202/ 위의 글, p. 47.

만, 결국 상하이 시정부로부터 공장 설치를 거부당했다. 코카콜라가 자본주의와 국제 패권의 문화적 상징이라는 1949년 이후 생성된 인식^{203/}으로 코카콜라를 수입하는 행위는 “매국주의”, “외국추종 철학”, “미국의 생활방식 유입” 등으로 비판받았다.^{204/} 그러다가 1981년 4월 베이징시의 도움으로 베이징 오리구이 공장에 비로소 코카콜라 공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코카콜라는 광저우 등의 지역에 추가로 공장을 설치하였고, 1988년 상하이에 원액공장을 설치한 뒤부터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코카콜라 원액은 모두 상하이에서 생산하게 되었다.^{205/}

그림 VI-1 1986년 10월 CCTV 방영 코카콜라 광고



출처: 优酷, <https://v.youku.com/v_show/id_XNDA1NTQ1MTgyNA==.html?spm=a2h3j;8428770.3416059.1> (동영상 캡처, 검색일: 2023.12.17.).

1980년대 초중반까지도 코카콜라 판매는 순탄치 않았다. 당시

203/ 張南, “新中國成立以來城市居民日常生活變遷研究,” 中央黨校(國家行政學院) 博士學位論文, 2020, p. 106.

204/ 劉欣, “可口可樂: 見證改革開放40年,” p. 47.

205/ 위의 글, p. 47.

0.45위안이나 되는 가격으로 국산 음료수 평균 가격의 3배나 되었고 대중들의 입맛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1982년 겨울 베이징의 여러 백화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으며, 1986년 10월 중국 중앙채널 CCTV 『뉴스 연합보도(新聞聯播)』에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해 전국 18개 방송국에서 동시에 코카콜라 광고를 내보냈다. 이 광고는 중국인들에게 앞으로 코카콜라가 중국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것이며,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206/}

‘맥도날드’의 경우, 1990년 개혁개방 선두 도시인 선전(深圳)에 중국의 첫 번째 지점이 문을 연 후 몇 년 동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추가 개설되었다. 1990년대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중국에 진출한 맥도날드는 중국인들의 화장실, 모임과 파티, 공부 장소 등의 역할을 했다. 또한 위생적이고 건강한 영양식이란 이미지를 확보하며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도시 가정에는 개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공화장실은 열악한 위생 상태인데다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에서 맥도날드는 깨끗한 화장실을 무료로 제공하였다.^{207/}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양적으로 적었기에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 등을 일반 대중이 이용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1999년 중국국가도서관에는 “대학생, 재직 인원에 게만 도서 대여증을 발급하며, 중학생(과 무직자)은 진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다.^{208/} 이러한 상황에서 맥도날드는 공공 화장실, 공원, 도서관, 아동 놀이터, 학생 서클, 학생 식당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했다.^{209/} 최근에는 정크푸드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

206/ 위의 글, p. 47.

207/ 劉祥華, “以公共空間形式進入中國的麥當勞,” 『社會雜誌』, 第1期(2003), pp. 33~35.

208/ “國家圖書館: “中學生不進入內?,” 『光明日報』, 1999.8.19.

는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와 KFC가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아이의 영양을 증진하는 ‘과학육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210/}

그림 VI-2 1990년 10월 8일, 선전에서 최초 영업을 개시한 맥도날드



출처: “13億人的40年: 老照片中的百姓生活變遷.” 『人民網』, 2018.12.19., <https://www.sohu.com/a/282851389_114731> (검색일: 2023.9.25.).

(2) 의생활

“치마는 부르주아의 것이고, 바짓가랑이를 허벅지 안쪽까지 말면 프롤레타리아트의 것이 된다. 허리라인이 드러나거나 스키니 같은 스타일은 망나니라는 오해를 받지만, 소매를 걷고 벨트를 차면 혁명적인 것이 된다.”^{211/}

209/ 劉湘萍, “以公共空間形式進入中國的麥當勞,” pp. 33~35.

210/ Susan Greenhalgh, *Cultivating Global Citizens: Population in the Rise of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p. 63.

211/ 華梅, 『新中國60年服飾路』(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2009), p. 206.

중국의 패션문화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던 문화대혁명(이하 ‘문혁’) 시기에 형성되었다. 당시에는 문혁 군복이 가장 유행했다. 문혁 군복은 중고등교육 기관의 홍위병, 공장과 기관의 노동자 중 조반파(造反派)들이 주로 입었다. 특히 1964년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이 통과시킨 “10만 명 제대군인의 사업부문 배정 완료 보고서”를 보면 “상업 부문은 정치사상공작 강화 경험을 해방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적시하였다.^{212/} 이와 함께 ‘전국인민 해방군 배우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군복이 일반 군중, 특히 젊은이들에의 추종 대상이 되었다. 그 외에도 간부와 공인들이 많이 입는 ‘중산복(中山裝)’, ‘공인복(工人裝)’과 홍위병들이 입는 ‘홍위복(紅衛裝)’도 주류 패션이었다.^{213/} 이 시기 의복은 신분과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였고, “간고분투(艱苦奮鬥)와 집체주의가 시대적 정신이 되어 복장 관념에 침투하였다.”^{214/}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복장으로 소유하거나 희망하는 신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의복이 신분의 기호가 되었다.^{215/}

1972년 이탈리아 감독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Michelangelo Antonioni)는 다큐멘터리 ‘Chung Kuo’에서 서구인의 눈으로 중국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중국의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길은 파란색으로 넘실거린다. 파란색 옷을 입은 수많은 인파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며, 냇물처럼 끊임없이 오가는 자전거들이 거리 전체,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있다. 8억 명의 파란색 중국인이 눈앞을 지나가는

212/ 中国共产党编年史编委会, 『中国共产党编年史1958-1965』(北京: 中共党史出版社, 2002), p. 2457.

213/ 孫沛東, “總體主義背景下的時尚: “文革”時期廣東民眾著裝時尚分析,” 『開放時代』, 第4期 (2012), p. 94.

214/ 劉元風, “北京服裝消費文化的變遷,” 『紡織學報』, 第3期 (2009), p. 94~98.

215/ 孫濤·吳志明·潘盼·楊旭, “改革開放30年來中國服裝文化心理模式的變遷,” 『紡織學報』, 第8期 (2011), p. 148.

듯한 느낌이다.”^{216/} 개혁기 이전의 중국은 실용적이며 꾸미지 않은, 체형을 드러내지 않은 옷이야말로 사회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다고 끊임없이 민중들에게 가르쳤다.^{217/}

이러한 의생활 문화는 1970년대 도시 노동자 증대와 함께 변화한다. 1966~1976년까지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주로 농촌으로부터 온 노동력 때문이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당시에는 지식청년 하방으로 인한 도시인구 감소를 농촌에서 온 노동자들이 메꾸었다. 이후 문혁이 종료되자 하방했던 지식청년들이 도시로 복귀하면서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218/} 도시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생활공간이 요구되었다. 특히 도시민들은 물질생활을 중시하였고, 정치적인 것의 침투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개혁개방기 이전의 의복문화는 개혁개방기 들어 크게 변모하게 된다. 의복 관념의 변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개혁기 이전의 지나치게 정치화된 규제에 대한 비판이고, 또 하나는 경공업 기술 발전과 서구의 패션 문화 도입에 따른 대중들의 인식 변화다.

패션계에서의 발란반정(撥亂反正)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 장칭복(江靑服)^{219/}에 대한 비판이 개시되면서부터였다. 장

216/ 舒云·桂清萍, “『中国』: 安东尼奥尼的传奇,” 『中国电视(纪录)』, (2009), p. 90.

217/ 孫沛東, 『時尚與政治 廣東民眾日常著裝時尚 1966-1976』(北京: 人民出版社, 2013), pp. 145~153.

218/ Kam Wing Chan & Xeuqiang Xu, “Urban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in China since 1949: Reconstructing a Baseline,” *The China Quarterly*, no. 104 (1985), pp. 584~613.

219/ 1974년, 공산당 조직선전조 부조장인 마오쩌둥 부인 장칭은 고대 당·송·원 시기의 여성 복장 특징을 참조하여 중국 남성이 입는 ‘중산복’처럼 중국 여성에게 걸맞은 ‘국복(國服)’을 디자인할 것을 문화부에 지시하였다. 1974년 10월 헨진에서 긴 원피스로 디자인된 ‘장칭복’이 처음 공개되었으며 위로부터의 ‘복장혁명’을 추진하고자 했다. “여성 간부, 여성 당원, 여성 단원이 선도해서 입어야 하며 여성 동지라면 모두 입어야 한다.” “從所謂‘國服’看江靑的政治野心,” 『文彙報』, 1976.11.29.

칭복의 칼라는 V자로 앞면을 가운데 단추로 채우며 밑은 주름치마였다. 진따루(金大陸)의 연구에 의하면, 1975년 여름부터 상하이시는 2년 가까이 장칭복을 홍보했는데, 일부 여성 청년들은 장칭복을 수선해서 입었다. “화이트색 칼라가 없어지고, 치마도 라인을 살리는 치파오 스타일로 수선하거나... 피터 팬 칼라 원피스, 양복 칼라 원피스, 일자형 칼라 원피스, 직사각형 칼라 원피스가 연이어 등장했다. 치마 길이는 대부분 무릎까지 오거나 무릎 위 4~7cm까지 온다.”^{220/}

당시 잡지 『문화와 생활(文化和生活)』^{221/}에 실린 상하이시 복장용품공업공사 연구실에서 집필한 “복장 역사상 드문 추잡한 일(服裝史上少有的醜劇)”이라는 글은 다음처럼 장칭복을 비판했다. “(장칭은) 텐진에서 오픈셔츠 치마를 디자인하고 텐진, 베이징, 상하이, 선양 등의 지역에서 홍보했다. 그는 그 치마를 우리나라 여성들의 ‘국복’으로 삼으려는 헛된 생각을 했다... 장칭복은 가성비도 안 좋다. 옷감이 많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하며 인건비도 비싸다.”^{222/} 장칭복은 출시된 뒤 매출이 부진해 공장 창고에 가득 쌓였다. 이는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정치적 힘으로 민중들의 자주적 선택 흐름을 억누른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223/}

문혁 시기 혁명패션으로 숭배되었던 군복은 1970년대 말부터 이미 대중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224/} 나팔바지의 등장은 1970년대 말

220/ 金大陸, “崇‘武’의審美及其蛻變,” 『社會觀察』, 第25期 (2006), p. 46.

221/ 문화대혁명 시기 반우파운동이 시작되자 문화생활, 패션, 여가 등을 주로 다루던 상하이 문화출판사(文化出版社)에서 “상하이 출판계 가장 많은 우파들이 ‘발각’되었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판사들이 모두 “자본주의의 독초”로 간주되었다. 상하이 문화출판사는 1979년에 계간 『문화와 생활(文化和生活)』을 발간했으며 1기 상하이 지역 발행 권수 180만 부, 1982년까지 최고 280만 부를 발행하여 대중적 인기가 많았다. 邵德新, “弘揚民族文化, 引導生活潮流,” 巴金 外編著, 『書海知音』 (上海: 文藝出版社, 1992), p. 462.

222/ 上海服裝研究室, “服裝史上少有的醜劇,” 『文化與生活』, 第1期 (1979), 재인용: 沈清, “美化生活與80年代初的日常生活轉型,”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p. 41.

223/ 沈清, “美化生活與80年代初的日常生活轉型,” p. 41.

그림 VI-3 장칭복을 입고 찍은 사진
(왼쪽 인물이 장칭)



출처: “1975年, 江青和張玉鳳合影, 江青穿的是自己設計的“江青裙,” 『網易』, 2023.5.12, <<https://www.163.com/dy/article/441MKMPA0523WUF9.html>> (검색일: 2023.10.23).

80년대 초 중국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다. 1978년 중국에서 나팔바지는 부르주아 생활 방식이자 불량청년의 이미지로 각인되는 등 대표적인 ‘기괴한 복장(奇裝異服)’이었다.^{225/} 중국 작가 왕쑤(王朔)가 쓴 청춘 소설 “노는 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다(玩的就是心跳)”를 각색한 드라마 <청춘과 관계된 날들(與青春有關的日子)>에는 1970년대 베이징의 젊은이들이 나팔바지를 입고 길에서 대중음악을 부르다가 파출소로 연행되는 장면이 나온다.^{226/} 경찰은 서로 나팔바지

를 가위로 자르라고 명령하는데, 한 청년이 ‘그냥 넘어가주세요. 이 바지가 값이 좀 나가거든요’라고 말했지만, 결국 경찰은 바지를 잘랐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중국 샤먼(廈門)대학교 교수 이중텐(易中天)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보잉 선글라스, 티셔츠, 나팔바지는 불량청년의 표준 옷차림이었다. 손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있으면 더 완벽해진다. 카세트 플레이어에서는 등려군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이것이 바로 불량청년의 표준 옷차림이다. 나중에 이 표준 옷차림이 캠퍼스에 전파

224/ 金大陸, “崇“武”的審美及其蛻變,” p. 46.

225/ 張南, “新中國成立以來城市居民日常生活變遷研究,” p. 106.

226/ 葉京 감독, <與青春有關的日子(청춘과 관계된 날들)>, 2006.

되었다. 우리 학교 학부생들이 -나는 (그때) 석사과정이었는데- 나팔바지를 입기 시작했다. 학교는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학교가 그래도 비교적 깨어 있어서 비판대회까지 열지는 않았다. 학교는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상정치 공작을 했다. 학교 내 삼거리에 플래카드를 붙였던 것이다. '나팔바지로 4가지 현대화로 향하는 나팔을 불 수 있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학우 중 하나가 플래카드 밑에 쪽지를 붙였다. '무슨 바지로 [현대화의 나팔을] 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27/}

이러한 구술 과정에서 이중텐은 중국 경제개발의 불균형과 문화를 다음과 같이 연결하였다.

“개혁개방 10년이 지났는데, 각 지역의 발전은 불균등했다.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 광둥(廣東)이었다. 광둥은 나팔바지를 가장 먼저 입은 지역이다. 당시 나팔바지, 티셔츠, 카세트 플레이어, 등려군 노래, 김용 소설 모두 광둥의 광저우 가오디지에(高第街)에서 유통되었다. 개혁개방 첫 10년,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고 가장 먼저 부유해진 지역이 제일 먼저 나팔바지를 입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앙이 지방, 특히 동남연해 지역을 보고도 못 본 체했기 때문이다. 중앙은 광둥 사람들에게는 눈을 감고 있었고, 푸젠(福建)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반면 상하이 사람들은 중앙이 과연 상하이에 눈을 감을까 뜰까 고민했다. 베이징 사람들은 중앙이 어느 쪽을 감고 어느 쪽을 뜰까 열띤 토론을 했다. 결국 광둥은 급속히 발전했고, 푸젠은 뒤처지고, 상하이도 뒤처지고, 베이징은 말만 하는 꼴이었다. 1988년 내가 상하이에 출장 갈 때의 경험인데, ‘페이마’브랜드 담배 한 갑을 사는데도 배급표를 요구했다. 그러면 왜 광둥 사람, 푸젠 사람, 상하이 사람, 베이징 사람

^{227/} 易中天, “楚漢文化和魅力徐州,” (“海峡两岸楚漢文化研討会” 강연자료, 2006.9.4.).

중양에 대한 태도가 다를까? 나는 그것이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지역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광둥의 지역문화는 무엇일까? 중앙정부의 통치 역량이 먼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다. 베이징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을 지방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하이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을 촌놈으로 생각하고, 광둥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을 북방사람으로 생각한다...^{228/}

한편, 1980년대 ‘양복’의 귀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였다. 아편 전쟁 이후 서구문화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엘리트 계층의 전통적 복장인 장포(長袍兒, 두루마기)가 양복으로 이행하였다. 1930년대에 양복은 새로운 조류의 상징이자 주류 패션의 기호가 되었다. 그러나 1949년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양복은 부르주아의 상징이 되었고, 국가 지도자부터 정치·사회 엘리트까지 주로 중산복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자 ‘양복열(熱)’이 부활하였다.

1981년 경공업부 주최로 전국 20개 성·시·자치구의 의류공업 부문이 참석하는 <전국 새의복 전시박람회(全國新號型服裝展銷會)>가 9월 22일~11월 5일 베이징 전시관에서 개최되어, 셔츠, 아동복, 코트, 양복 등 1,600여 가지 옷을 전시하였으며,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박람회를 찾을 정도로 인기였다.^{229/}

이러한 유행에 대해 청년층을 넘어서서 중년층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1983년 7월 22일 『베이징만보(北京晚報)』 1면에는 중앙서기처 서기 하오지엔슈(郝建秀)가 경공업부 부장 양버(楊波)에게 보낸 편지와 중년 지식인 독자의 편지가 같이 실렸다. 이 편지들은 의생활 변화에 대한 중년층과 노년층의 욕망이 담겨 있다.

228/ 위의 자료.

229/ 吳東彥·胡競成, “全國新號型服裝展銷會巡禮,” 『經濟管理』 第11期 (1981).

“내가 ‘5개 성·시 의류박람회(5省市服裝鞋帽)’에서 경공업부 동지에게 양복, 점용 상의, 치마, 치파오를 입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우려를 표하고 일부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라고 하며, “중노년층의 요구에 대한 주목이 아직 부족”함을 강조했다. 하오지엔슈의 편지 바로 옆에는 중년 지식인 독자의 편지 ‘중노년인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가 실렸다. 역시 “복장 개혁, 무늬와 색깔, 종류가 증가하는 것과 남성 동지가 양복, 점용 셔츠 등을 입는 것을 찬성”함을 강조한다. “시장에서 공급되는 의류의 대다수는 주로 청년들이 입는 유행을 쫓는 스타일이거나 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어른스러운 회색이나 파란색 옷뿐이다... 당신(하오지엔슈)의 발언 이후 각지의 의류 공장은 양복, 치파오, 점용 셔츠를 대량으로 출시하겠지만, 청년복만 중시하는 요즘 상황을 지켜보니 아마도 신식 옷들은 청년들에게만 공급될 것 같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중노년층의 의류 개혁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다.^{230/}

1987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기자회견에서는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양복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양복을 통해 대외 개방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양복을 장려하게 되면서, 중국 국내산 양복은 1980년대 초에 이미 결혼 예복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결혼 드레스가 중국에 수입되면서, 남성의 예복과 여성의 드레스 차림이 결혼 의복으로 고정되었다.

한편, 급증한 수요 덕분에 양복의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 각지의 의류공장들이 양복 생산에 뛰어들면서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양복이 대규모로 재고로 쌓이게 되었다. 적지 않은 의류공장이 판매

230/ “中老年人的要求應該得到滿足：同志就服裝問題致輕工業部楊波部長的信，”
『北京晚報』，1983.7.22.；“中老年人也是愛美的：讀者胡進兆致郝建秀同志的信，”
『北京晚報』，1983.7.22.

부진으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일부 기업은 공인에게 월급 대신 재고 양복으로 변상하기도 했다.^{231/} 1980년대 중반 중국 도시의 백화점, 의류시장, 옷가게에서는 각종 양복세일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결국 중국 자국산 양복은 도시주민들의 희망 소비재였다가, 이 시기부터는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민에게 헐값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가 되면 동부 연해도시에서는 험령한 양복 상의를 입은 농민공이 기차역이나 공사 현장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232/}

1990년대 이후에는 해외 의류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한국 한류의 영향이 컸다. 1990년대 중국에서 흥행한 한국 드라마 〈순풍산부인과〉, 〈보고 또 보고〉, 〈목욕탕집 남자들〉, 〈사랑이 뭐길래〉 등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은 한국 대중음악(H.O.T., 신화, 엄정화 등의 노래)의 영향을 받아 머리를 염색하고 한국 스타의 패션을 흉내 내는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청년들이 많았다.

(3) 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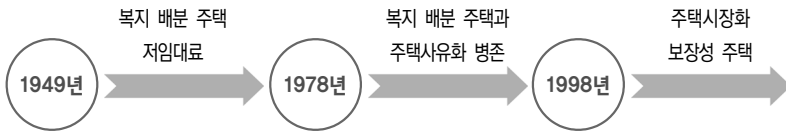
계획경제 시기 중국은 주택분배 제도를 운영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주택을 지어 단위를 통해 소속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였다. 이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냈고, 그 돈은 주택관리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분배의 불공평(중앙과 지방, 지역 간, 단위 간)과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정부와 단위의 재정적자 문제가 발생하여 도시 주민의 ‘거주난(住房難)’ 문제가 심화되었다. 건국 초기 중국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은 4.5m²였으나 1978년이 되면 3.3m²로 크게 줄어들었다.^{233/}

231/ 張南, “新中國成立以來城市居民日常生活變遷研究,” p. 106.

232/ 松風, “改革開放後, 西裝是怎麼火起來的,” 『文史博覽』, 第11期 (2018), p. 44.

233/ 李斌, 『住房利益分化與社會分層機制變遷』(長沙: 中南大學出版社, 2004), pp. 3~4.

그림 VI-4 중국 도시 주택제도의 변동



출처: 필자 작성.

1980년 중국에서 개인 부동산 건축과 거래, 부동산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는 주택상품화 정책이 발표되었다.^{234/} 1982년 정저우(鄭州), 창저우, 쓰핑 등의 도시에서는 신축 주택판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하였다. 주택을 구매한 개인은 주택거래 금액의 3분의 1만 지불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각 3분의 1을 부담하였다.^{235/} 그러나 도시에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노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데다 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보조금 제도는 1985년에 종료되었다.

1998년에 발표된 “도시 주택제도 개혁 진일보 심화, 주택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가 시행되면서 주택분배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949년부터 약 50년간 시행한 주택 계획제가 종료된 것이다. 주택 계획제 종료 이후 주택상황에 대해, 중국 언론매체 『時代財經』은 광저우시의 한 남성이 경험한 1980년대와 1990년대 주택 취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236/}

234/ 1980년 중공중앙, 국무원의 〈전국 기본 건설공작회의 보고 제강〉에서 처음으로 주택상품화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35/ 陳龍乾·馬曉明, “我國城鎮住房制度改革的历程與進展,” 『中國礦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02), p. 87.

236/ 당시 상황은 “단위가 새로 건물을 짓거나 빈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으면 몇 년 기다리고 운이 좋지 않으면 정년퇴직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을 받았지요.”라고 구술한다. “中國房改回眸: 請記住1998,” 『時代財經』, 2019.9.20., 〈<https://baijiahao.baidu.com/s?id=1645180185835101490&wfr=spider&for=pc>〉 (검색일: 2023.9.11.).

“광저우시 한 노후건물에 살고 있는 판위전기기계공장(番禺電機廠)의 부서 책임자인 차이핑(蔡鵬)의 집은 판위전기기계공장의 사무실 건물 4층에 있었다. 지식청년이었던 차이핑은 1978년 광저우로 돌아와 판위에서 가장 좋은 단위인 판위전기기계공장에 배정되었다. 그는 입사 후 2인 기숙사에 살다가 1982년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주택을 배분받았는데, 크기 40m²의 기숙사였다. 1993년 판위전기기계공장 사무실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1층과 2층은 사무공간이었고, 3~7층까지는 총 32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었다. 사무실 건물 내 주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장의 중급 이상의 관리직이었다. 차이핑 역시 4층에 위치한 80m²의 독립주택을 배분받았다. “나라가 집을 지어주고, 조직이 집을 배분하고, 단위가 집을 주는 것(等國家建房, 靠組織分房, 要單位給房)”이 과거 배분 주택제도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그런데 차이핑처럼 집을 배분받는 도시 노동자는 극소수였다. 차이핑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공장에 있던 총 400여 명의 직공 가운데 약 100명만 주택을 배분받았으며, 간부들이 우선이었고 기층에 있는 일반 직공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237/}

특히, 주택 배분 가능성 여부는 단위의 성과에 달려있었다. 생산이윤이 좋은 단위는 직공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배분받지 못했다. 10m²정도 되는 복도식 아파트(筒子樓), 칸막이실(隔板間), 지하실에 핵가족, 심지어 확대가족이 사는 경우가 흔했다.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없어서 공공 주방, 공공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식구가 많아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면, 승진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배분된 주택의 면적은 공인의 직급과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단위가 생산이윤이 좋아야 충분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237/ 위의 자료.

1998년 주택제도 개혁 이후 차이핑이 살고 있는 집은 7만 위안으로 책정되었다. 20년 근무 연한 보조금을 제한 다음, 자기 부담금 1만 6,000위안을 지불하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되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단위가 주택 본인 부담금을 낼 기한으로 6개월을 줬어요. 당시 1만 6,000위안이라는 큰돈이 나에게는 없었어요. 그중에 1만 위안은 친척, 지인들에게 빌려서 냈어요”라고 한다. 차이핑의 동료들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 차이핑에 따르면, 주택 제도개혁 이후에도 상품화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장사하는 ‘만원호(萬元戶)’^{238/} 또는 홍콩인들이었다. 일반 직공들은 상품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되지 못했다.^{239/}

개혁개방 이후 도시주민의 주거양식 변화는 칭화(淸華)대학 사회학과 교수 리창(李強)의 가구 방문조사 연구에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가구 방문조사로 소득조사를 진행했다. 1980년대에는 전화기가 보급되지 않았고 사전 공지 없이 방문하더라도 주민들이 비교적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 이유에 대해 리창은 두 가지 요인을 지목한다. 하나는 1980년대 중국 도시주민들은 대체로 경제적 조건이 풍족하지 않아 집에 값비싼 재산이 없었고 외부에 대한 경계의식이 높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 프라이버시 의식도 낮은 편이어서 직업이나 소득에 대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 관행이었다. 관련하여 리창은 1980년대 기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에피소드를 제시했다. 기차 칸에서 서로 초면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어느 단위에서 일하세요?”이고, 두 번째 질문이 “얼마나 벌어요?”였다고 한다.^{240/}

238/ ‘만원호’는 1970년대 말에 등장한 개념으로 개인경제 활성화로 ‘소득 만 위안 이상인 가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239/ “中國房改回眸: 請記住1998,” 『時代財經』, 2019.9.20., <<https://baijiahao.baidu.com/s?id=1645180185835101490&wfr=spider&for=pc>> (검색일: 2023.10.8.).

240/ 李強, “論當前的高收入群體,” 『江海學刊』, 第5期 (2008), p. 108.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 가정에 전화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불시의 가구 방문조사는 어려워졌다. 지인, 친척 사이라도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1990년대 가구 방문조사에서 여전히 가능했던 방법은 해당구역의 거민위원회(居民委員會)^{241/}에 협조요청을 하고, 조사가구 방문 시 본인의 조사 증빙서류 또는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사에 응한 대가로 선물을 주는 방식이었다. 가구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소비수준을 질문하거나 대형 가전제품을 기록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여전히 가구 방문조사가 가능했다.^{242/}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고급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관리인(物業管理)이 등장하면서 세대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이유로 가구 방문조사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도시주민의 가구 방문조사로 저·중소득 계층의 현황은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나, 고소득층은 거의 불가능해졌다.^{243/}

주방 공간은 일반 가정에서는 밀폐된 공간으로 비좁고 유해 연기가 가득 차며 난잡했다. 도시주민의 주거 면적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주방면적을 최소화하고 기타 거주공간을 확장하되, 주방과 식탁을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 식탁이 침대, 책상 등으로 구성된 침실에 배치되어 있고, 주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멀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조가 유지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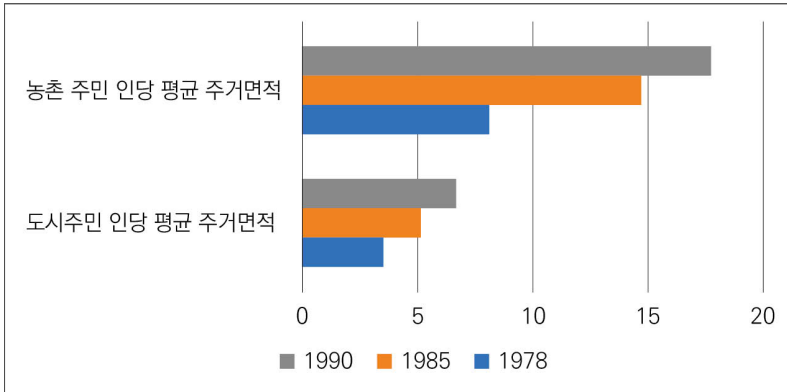
241/ 거민위원회는 1990년 이후 당-국가와 도시 주민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새로운 사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층조직이다. 거민위원회는 도시지역의 행정단위인 구(區)를 설치한 경우에는 구정부와, 구정부가 없을 경우 시정부의 파견기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와 지도와 협조의 관계를 맺고 있다(이계희, “정치적민주화 성장점 될지 초미의 관심: 자원봉사 발전과 공익성 민간조직 발전 및 참여확대 민주주의 학습 및 시민의식 배양 등의 효과도 가져와,” 『주민자치』, 제29권(2014), pp. 36~37, 재인용: 윤희진, “역사적 시각에서 본 중국의 도시 기층조직: 거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제117호(2016), p. 340.).

242/ 李強, “論當前的高收入群體,” p. 108.

243/ 위의 글, p. 108.

1980년대에는 일반 가정에 환기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기로 가득 찬 주방에서는 식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244/}

그림 VI-5 중국 농촌과 도시주민 평균 거주면적 변동 추이(㎡)



출처: 邓力群 編, 『中華人民共和國國史百科全書1949-1999』(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9), p. 567.

협소한 주거 공간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조합식 가구(組合家具)가 일반 도시 가정의 희망 소비재가 되었다. 당시 유행했던 “조합가구, 소파, 침대, 흑백 텔레비전은 가운데. 방 3개짜리 벽돌집에 시멘트 바닥까지, 트럭을 빌려 신부를 마중한다”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조합가구는 필수 아이템으로 등장한다.^{245/}

많은 경우 목공을 불러 사이즈를 측정해서 주문 제작했다. 텔레비전 받침대, 옷장, 책장, 장식장이 방 한 면을 차지하고 위치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했다. “1980년대 초, 우리 집도 목공을 불러 가구를 만들었다. 큰 옷장, 책장, 책상, 서랍장, 티테이블을 모두 갖췄다. 목공이 이 집, 저 집 것을 모두 만들어주느라, 우리가 사는 집 공터

244/ 馬韻玉, “試談我國住宅廚房的改革,” 『建築學報』, 第9期 (1985), p. 58.

245/ 周志, “80年代的組合家具,” 『裝飾』, 第4期 (2008),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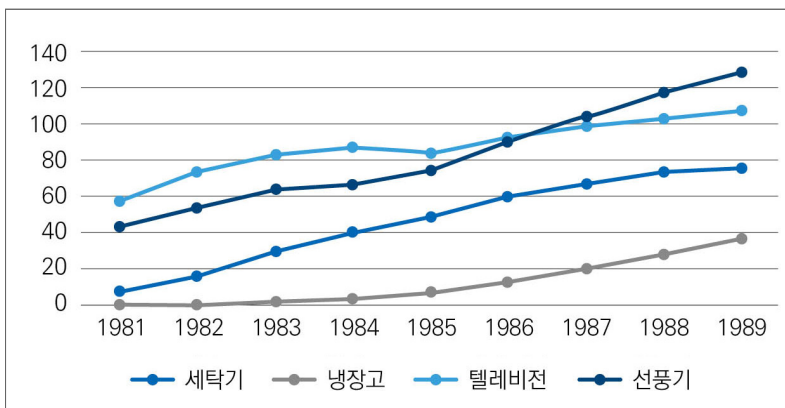
에서 오래 머물렀다. 공터가 제작 공간이었다. 다른 집에서 무슨 가구를 만드는지 이웃들이 모두 잘 알게 되어 가구 디자인을 서로 비교하기도 했다”라고 한다.^{246/}

(4) 근대적 삶으로의 매개, 가전제품

중국 작가 한샤오궁(韓少功)은 2013년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맞이한 발언에서 문혁의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그들(주민)이 원하는 것은 경찰 또는 정치공작원이 밤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빵, 야근수당, 나일론 양말, 전자 손목시계, 그리고 히다치 흑백텔레비전이다. 한 외국기자가 말했듯, 서구는 핵무기가 아니라, 가전제품으로 중국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247/}

그림 VI-6 1980년대 중국 가정의 가전제품 소유 추이

(100가구당, 단위: 대)



출처: 孫海燕, 『‘想象’中國20世紀80年代的中國生活與設計』(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16), p. 96.

246/ 孫海燕, 『‘想象’中國20世紀80年代的中國生活與設計』, p. 125.

247/ “革命後記: 寫在毛澤東誕辰120周年之際,” 『文革與當代史研究網』, 2013.12.28., <<https://difangwenge.org/forum.php?mod=viewthread&tid=9148>> (검색일: 2023.10.22.).

중국 사회학자 쑤리핑(孫立平)은 1990년대 이후의 시대를 “내구 소비재 시대,” 1990년대 이전 시대를 “생필품 시대”로 명명한 바 있다.^{248/} 가전제품은 1980년대 초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당시 대다수 인민의 월급은 몇십 원이었고, 시장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배급표로 생필품, 식량, 옷감 등만 구매할 수 있었다.^{249/}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도시주민들의 희망 소비재는 세탁기였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의 출현은 생활상의 편의 뿐 아니라 ‘근대적 삶’에 진입했음을 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가전제품은 근대화된 삶에 대한 상상력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이해도 탈정치화 되었다. 과거 30년 동안 교과서에서 계급과 자본주의 생활방식을 중심으로 규정되던 자본주의 근대성이 단순하고 실증적인 근대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내구재 소비에서 도시 간, 도농 간 불균형 발전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79년 중국 텔레비전 생산량이 인구 100명당 0.1대였음에 비해, 당시 미국, 소련, 일본, 서독은 8.6, 2.8, 13.4, 6.3대였다. 대도시의 탁상형 선풍기 보급률은 13.8%, 중간 규모 도시는 8.1%였다. 1980년 중국의 세탁기, 냉장고, 다리미의 도시 보급률은 각각 0.44%, 0.13%, 19.2%였다. 1980년 중국 농민의 소득 중 50위안 이하인 이들이 전국의 27%를 차지했으며, 약 2억 명의 농민 인구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은 도시에 비해 크게 낮았다.^{250/}

내구소비재의 소유 여부로 사회계층 간 분화 양상도 알 수 있었다.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트,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사진기 등은

248/ 孫立平, 『斷裂: 20世紀90年代以來的中國社會』(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p. 68.

249/ 위의 책, p. 68.

250/ 汪玉奇, “試論八十年代耐用消費品消費對社會的若干要求及滿足途徑,” 『經濟科學』, 第4期 (1983), p. 60.

고급 소비재였다. 손목시계, 자전거 등은 기초 소비재가 되었다. 소비의 ‘상징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소비를 통해 사회적 자본, 이를테면 존중, 부러움, 지위 등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251/}

표 VI-1 1981년 전국 주민 소비수준

구분	전국	
	도시 노동자	농민
인당 연 소득(위안)	500	223
인당 연 소비지출(위안)	457	191
100가구당 재봉기 소유 수	70.4	19
100가구당 자전거 소유 수	135.9	33
100가구당 손목시계 소유 수	240.8	36.5

출처: 汪玉奇, “試論八十年代耐用消費品消費對社會的若幹要求及滿足途徑,” 『經濟科學』, 第4期(1983), p. 60.

1980년대에 흑백텔레비전을 먼저 구입한 가정의 경우, 이웃들이 주요 프로그램 방영시간에 그 집으로 몰려들곤 했다. 특히 컬러텔레비전은 부유함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컬러텔레비전 마을(彩电村)’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252/} 마을 주민들 모두 컬러텔레비전을 구입한 베이징 교외지 핑구현(平谷縣)은 1985년 2월 17일자 미국 『AP통신』에 보도될 정도였다. 개혁개방 이후 가전제품의 변화를 체험한 한 상하이 주민의 2008년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가전제품이 이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카세트라디오는 도시 가정의 유일한 오락 활동이었다.

1970년대 한 도시 가정은 텔레비전 구매권과 200위안 현금으로 9

251/ 沈清, “美化生活與80年代初的日常生活轉型,”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p. 59.

252/ 中廣網, “85年第一个象征富裕的彩电村,” 中國廣播網, 2008.10.9., <https://www.cnr.cn/2008zt/ggkf/zhu/200810/t20081009_505119014.html> (검색일: 2023.12.17.).

인지 흑백텔레비전을 구매하였고, 이웃들이 TV를 보러 자주 방문하였다. “당시 텔레비전은 희귀한 물건이어서 구매권이 있어야 살 수 있었어요. 돈이 있어도 못사는 사람이 많았지요.” 1985년 이 가정은 컬러텔레비전을 100장 차오후이권(僑彙券, 해외 화교가 중국으로 송금한 물자의 공급 증서)과 1,300위안 현금으로 구매하였다. 그것도 하루 80대만 판매하는 상점에 가서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서 구매한 것이었다.^{253/}

도시 가정들이 가전제품의 혁명을 체감하게 된 것은 “화이트 가전” 때문이라고 인터뷰이는 말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기까지 텔레비전, 라디오 카세트, 스피커 등이 먼저 도시 가정에 들어갔는데 이 제품들이 외관상 대부분 검은색이어서 “블랙 가전”으로 불렸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냉장고, 세탁기가 점점 일반 도시 가정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하얀색이어서 “화이트 가전”으로 불렸다. 인터뷰를 한 상하이의 어느 도시 가정은 1985년에 컬러 텔레비전을 구입한 뒤 냉장고와 세탁기를 들여왔고, 1990년대 초 면세점에서 일제(日製) 전자레인지도 구입했다.^{254/}

“이 가전제품들이 우리를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켰어요.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장보고, 요리하고, 점심을 미리 준비하려면 아침 출근하기 전에 미리 다 해놓아야 해요.” 이 가정은 전기밥솥이 나오기 전에는 연탄난로로 밥을 했는데, 아침에 점심밥을 해놓고 이불 몇 겹을 덮어 덜 식도록 덮어 놓았다. 빨래가 있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다.^{255/}

^{253/} 차오후이권은 해외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발급되는 구매권이다. 차오후이권으로는 정량 배급하는 물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고가 상품도 구매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컬러텔레비전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 200위안으로 100장의 차오후이권을 교환하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30年家電追潮故事：從全家聽收音機到電腦炒股。”『新聞晚報』, 2008.12.8., <<http://tech.sina.com.cn/e/2008-12-08/17102634467.shtml>> (검색일: 2023.11.1.).

^{254/} 위의 기사.

1989년 컬러텔레비전 가격 인하 정책 이후, 국산과 외제 브랜드 가전제품 간에는 가격전쟁이 벌어졌다. 가전제품 구매권은 199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 1990년대 초부터 일반 도시 가정에 전화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인터뷰한 가정 역시 1992년에 전화기를 들었다. 1995년의 에어컨 설치도 이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가정생활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다.

“1979년 백화점에 줄을 서서 창청 브랜드 선풍기를 샀어요. 그 뒤로는 여름에 잠자는 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름에는 사람들이 집 안이 더워서 밤만 되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곤 했지요. 그런데 1995년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한 뒤, 주변 이웃들도 연달아 에어컨을 샀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 안 나오고 남의 집에 놀러 가는 일도 줄어들었지요.”^{256/}

1984년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1983년 도시 노동자 가정 1인당 연평균 소득은 526위안으로 월평균 소득 43.8위안이었다. 식생활과 의생활에 소비되는 비율은 14.5%, 59.2%, 16.2%였다. 반면 농촌 가정의 순소득은 1인당 연평균 310위안으로 월평균 25.8위안이었다. 의식(衣食)에 소비되는 비율은 11.2%, 59.3%, 10.8%였다.^{257/} 1983년 가정 소비품목 중 하나인 가전제품 평균 시장가격은 선풍기 135위안, 냉장고 700위안, 재봉틀 150위안, 텔레비전 462위안, 카세트라디오 330위안이었다. 이를테면 재봉틀은 도시 가정 1인 월평균 소득의 3배에 달했으며, 세탁기는 5배, 카세트 라디오는 7.5배, 텔레비전은 11배, 냉장고는 16배에 달했다. 농촌 가정이든 도시 가

255/ 위의 기사.

256/ 위의 기사.

257/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84), p. 228.

정이든 1인 월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가전제품은 개혁개방기 가정생활에서 진정한 ‘사치품’이 되었으며, 근대적 생활양식에 대한 상상을 담게 되었다.^{258/}

2. 개혁개방이 중국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로

중국은 문화대혁명(1966~1976)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국가가 생산과 재생산 영역 모두를 관장하던 사회시스템이 변화된다. 특히 시장과 가정의 기능적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정치화되었던 주체들은 이제 사적 영역에서의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 특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의 복귀를 이룬다.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한 편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5세대 감독 정동텐(鄭洞天)의 영화 <이웃(邻居)> (1981)^{259/}은 1980년대 초 한 도시의 직공기숙사에 살게 된 평범한 가정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때 정치적으로 적이었던 이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사회구성 방식이었던 단위체제가 남긴 물리적 공간 속에서 국가와 정치가 사라지자 ‘이웃 혹은 가족’으로 변모한다.

영화는 한 건축공정학원의 직공기숙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준다. 이 기숙사는 원래 학생기숙사였는데, 문혁 시기 학생이 사라지면서 학교 싱글 직공들의 기숙사가 되었다. 이후 싱글이었던 직공들이

258/ 孫海燕, 『‘想象’中國20世紀80年代的中國生活與設計』, p. 125.

259/ 영화 <이웃>은 1981년 중국 문화부 ‘우수영화상’과 중국영화가협회와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가 주최한 제2회 ‘중국 영화 금계상(金雞獎)’ 최우수스토리상을 수상했다.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자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단 숙소가 되었다. 이제 과거의 기숙사 복도는 각 가정이 식사를 해결하는 부엌으로 변모했다.

영화에는 이런 내레이션을 나온다. “10년 동란(문화대혁명)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모두 희망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 대학 당서기, 자문위원, 수도·보일러공, 학교 의사, 보조 교원, 강사 등 여섯 가구가 학교로 배정을 받아 학생기숙사였던 7평짜리 방에서 가족단위로 생활하였다. 그중 수도·보일러공인 시펑니안(喜風年)은 외할머니, 부부와 아이가 모두 비좁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원래 통행 용도였던 좁은 복도에 아궁이나 여러 부엌살이가 가득 차자 아이가 부딪쳐 다치는 일도 잦았다. 함께 살던 당서기가 간부라서 주택분배를 먼저 받게 되어 기숙사를 떠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살던 방을 공공주방으로 활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낙하산으로 이곳에 오게 된 성(省) 간부의 조카가 그 방을 차지하고 말았다. 이웃들은 그 사실을 듣고 주택 배정을 총괄하는 우과장과 충돌하게 되었다. 문화혁명 시기 우파분자로 몰려 몰락한 자문위원 류리싱은 자기가 배정받은 새로운 주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성(省) 간부 조카의 입주를 막았고, 이들은 간신히 공용주방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영화는 문혁 시기 홍위병 부사령이었던 보조 교원 평웨이둥, 조반파 노동개조대 대장이었다가 마음이 유약해서 오히려 면직당한 시펑니안, 당서기 위안이팡, 그리고 문혁 때 제1의 주자파로 지목받았던 고문위원 류리싱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들의 일상생활 모습으로 한때는 서로 정치적 적이였다가 몰락한 이들이 좁은 공간인 기숙사 건물에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과도한 정치적 열기가 사라진 곳에, ‘가족적인 것’이 우세해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변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안의 모습도 드러난다.

가. 세대 관계의 변화: ‘보답’ 모델의 쇠퇴

개혁개방은 세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일상의 생활에서는 개혁개방 이전의 모습이 유지되기도 한다. 가구원 수의 변동과 핵가족/확대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동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세대 관계가 내용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다.

(1) 가구원 수와 가족 형태의 변동: 핵가족화 흐름과 병존하는 확대가족

1980년대부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는 점차 감소했다. 다음 <표 VI-2>는 1986년 이후 베이징시 가구원 수의 변동 비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2년에 이르면 베이징시의 평균 가구 구성원 수는 2.87명으로, 2001년 2.91보다 더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 3.39보다 낮았다.^{260/}

표 VI-2 연도별 베이징시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 비율(%)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1986	9.6	15.1	31.1	23.2	21.0
1990	8.05	16.23	36.30	22.67	16.67
1997	7.91	18.36	44.60	17.52	11.59
2001	11.4	24.0	40.3	14.0	10.3
2002	12.0	23.9	41.8	14.0	8.3

출처: 唐灿, “北京市城鄉社会家庭婚姻制度的變遷,” 『北京行政學院學報』, 第5期 (2005), p. 61.

1980년대 텐진시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즉 직계가족과 연합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60/} 唐灿, “北京市城鄉社会家庭婚姻制度的變遷,” 『北京行政學院學報』, 第5期 (2005), p. 61.

표 VI-3 텐진시 가도주민 중 기혼여성 거주형태

결혼 후 거주형태	1926년 또는 이전 출생		1927~1938년 출생		1939~1950년 출생		1951년 이후 출생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시택에 거주	171	64.53	62	38.27	29	23.58	16	26.23
친정에 거주	5	1.89	0	0	7	5.69	3	4.92
부부 단독 거주	83	31.32	97	59.88	80	65.04	41	67.21
원거리 거주	5	1.89	3	1.85	7	5.69	1	1.64
기타	1	0.38	0	0	0	0	0	0
합계	265	100	162	100	123	100	61	100

출처: 潘允康, “試論我國城市的家庭和家庭結構,” 『天津社會科學』, 第3期 (1982), p. 11.

앞의 <표 VI-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26년 또는 이전 출생 여성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대부분 건국 이전이며, 1927~1938년 출생 여성은 건국 초기, 1939~1950년 출생 여성은 문화대혁명 이전 시기, 1951년 이후 출생한 여성은 80년대 초중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시택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수가 감소하여 핵가족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개혁개방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문혁 시기에도 시택 거주 비율이 이미 크게 감소하였고, 부부 단독 거주 비율도 높았기 때문이다.

2000년 베이징시에서 확대가족은 전체 가구의 50.69%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59.36%보다 약 9% 낮다. 베이징시의 핵가족 비중은 30.98%로 전국 평균 21.70%보다 약 9% 높다.^{261/} 즉 1980년대부터 베이징시의 가구 구성은 확대가족이 여전히 주를 이루었으나 1인 가구, 핵가족 비중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가족구성이 조금 더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은 손자녀-부모-조부모 3세대 공동거주의 비율이 높다.^{262/}

^{261/} 위의 글, p. 62.

또한 1980년대부터 시행된 한 자녀 정책으로 자녀 수가 줄어들었는데, 조부모의 보육부담이 급증했다. 이는 계획경제 시기 단위(직장)마다 탁아소가 있던 공공보육체제의 쇠퇴로 보육문제의 가족화 또는 사사화(私事化)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63/}

(2) 세대 관계: 보답 모델의 와해?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부모-자녀 세대 간의 관계는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까. ‘보답(報答)’ 모델은 20세기 중국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페이샤오통(費孝通)이 중국 가족을 분석하면서 제기한 개념이다. 중국 가족의 핵심은 친자(親子) 관계이기 때문에 서양과 달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페이샤오통은 중국과 다른 서양 가족을 ‘계주(繼走)’ 모델로 분석하였다. 계주 모델은 릴레이처럼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아닌 손자녀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이다.^{264/} 즉,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돌보는 문화를 의미한다.

1994년 항저우(杭州), Ningbo(寧波)에서 진행한 ‘세대 지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지원 기간과 지원 내용이 개혁 개방 이후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 노인 10명, 56~66세 퇴직한 노인 10명, 27~37세 청장년 10명을 조사했는데, 세대 간 관계가 ‘아래로부터 위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지원으로 이행했음을 보여준다.^{265/}

262/ 김란, “현대 한국과 중국 보육체제 변동에 관한 비교연구: 보육공공성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p. 109.

263/ 위의 글, p. 109.

264/ 양성 편, 장영석 옮김, 『중국사회』 (서울: 사회평론, 2017), p. 419~420.

265/ 吳諒諒, “城市家庭代際交換關係的研究,” 『應用心理學』, 第2期 (1994), pp. 46~47.

표 VI-4 항저우·닝보 세대별 지원유형

구분		80세 이상(N=10)		55~66세(N=10)		27~37세(N=10)	
		수	%	수	%	수	%
부모 부양	실물 제공	10	83	10	83	2	10
	서비스 제공	9		7		0	
	금전 제공	6		8		1	
자녀 부양		10	100	10	100	10	100
손자녀 부양	실물 제공	2	20	10	80	8(의향)	66
	서비스 제공	4		8		5(의향)	
	금전 제공	0		6		7(의향)	

출처: 吳諒諒, “城市家庭代際交換關係的研究,” 『應用心理學』, 第2期, 1994, pp. 46~47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위의 <표 VI-4>에서 보듯이, 80세 이상 노인은 손자녀에게 주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지원은 거의 하지 못한다. 그러나 56~66세 노인은 퇴직금 상황에 따라 노동 서비스, 실물 서비스(장난감, 옷, 가전제품 등), 금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한다.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60%의 노인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이를테면 자녀가 사는 집의 월세(전부 또는 일부), 손자녀 돌봄을 위한 보모비, 탁아소와 유치원 원비, 학교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경제적 지원을 가장 효율적인 지원방식으로 인정한다. 반면 27~37세 청년 대부분은 부모세대로부터 지원은 받지만 본인들이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그들은 부모세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는 첫째, 부모의 경제상황이 나보다 좋은데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 둘째, 부모의 재산은 언젠가는 내 것인데, 지금 주는 것이 현대적 문명의 실천이라는 것, 셋째,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요즘에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 넷째, 인간은 자손과 후세를 위해서 사는데,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266/}

표 VI-5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세대별 주관적 견해

(N=10)

구분	심리적 균형	심리적 불균형	원인
80세 이상	9	1	부양과 피부양 대체로 균형
56~66세	1	9	부양책임 가중
27~37세	7	3	부모세대로부터 받는 지원이 부담보다 많다는 것 인정 부모세대의 노후 책임 가중 인정 다음 세대는 부양의무를 수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

출처: 吳諒諒, “城市家庭代際交換關係的研究,” 『應用心理學』, 第2期 (1994), p. 48.

이처럼 중국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틀인 ‘보답’ 모델은 서서히 침식되고 있다. 려우원룽(劉汶蓉)은 페이샤오통(費孝通)이 제기한 보답 모델이 근거하는 심리적 기초가 이제 더는 의미가 없기에 개혁개방 이후 조부모 세대의 부담만 일방적으로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심리적 기초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보육 문제의 사사화와 개인화로 현재 중국 젊은이들은 보육에 대한 공적·제도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육 압력에 직면할 경우, 조부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제도적 강제가 존재한다.^{267/}

(3) 농촌 고부관계 변화와 여성

세대 관계에서 농촌의 시어머니-며느리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대 관계 변화의 또 다른 단면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행기 생활세계 속에서 농촌여성의 지위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266/ 吳諒諒, “城市家庭代際交換關係的研究,” p. 48.

267/ 劉汶蓉, “當代家庭代際支持觀念與群體差異: 兼論反饋模式的文化基礎變遷,” 『當代青年研究』, 第3期 (2013), p. 11.

여, 중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허난성(河南省) 농촌지역의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 가족 내 여성 지위 변화를 비교 조사한 한 연구는 호칭 변화, 역할 권력의 역전, 가정 사무 결정권, 가사분담, 출산권력 5가지 항목별로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 농촌 여성지위의 변화를 비교했다.^{268/} 먼저, 1960년대생 농촌여성은 대부분 남편으로부터 ‘아이엄마(孩兒他媽)’, ‘우리 집 그 식구(俺家那口子)’로 불렸다. 그런데 남편이 1990년대생 농촌여성을 부르는 호칭은 부부관계에 기반한 ‘아내(媳婦, 老婆)’이거나 여성의 이름이었다. 부부 간 호칭이 ‘자녀’기반에서 ‘혼인 관계’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 농촌여성의 역할 권력도 크게 변화하였다. 1960년대생 농촌여성은 아이가 어릴 때, 일을 하는 남편 대신 집안에서 시부모와 아이를 돌보고 고된 농사일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 문화 영향 속에서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등 일상생활의 제약이 많았다. 특히 각 가정이 마을 공동사무에 참여할 때, 여성의 참여는 터부시되었다.^{269/}

그러나 1980년대에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후 농촌의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자, 농촌 남성의 결혼난 문제가 이 지역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 되었다.^{270/} 날로 높아지는 지참금과 부담스러운 결혼비용 등으로 중국의 이행기에는 아내의 가정 내 지위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생 여성은 시어머니가 되어도 오히려 주변화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어머니의 권력이 약화된 것이다.

268/ 馮文娟·張廣利, “中部地區農村女性家庭地位的嬗變分析: 基於“60後”與“90後”女性比較研究,” 『東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20), p. 88~90.

269/ 위의 글, p. 88.

270/ 1980년대에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농촌지역은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여아를 임신중절 하는 관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촌의 경우 첫아이가 여자이면 하나를 더 낳도록 해주는 이른바 ‘하나 반’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나는 젊을 때 딸을 세 명을 연달아 낳았는데, 시부모와 남편은 모두 내가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다고 아이 돌봄도 도와주지 않았고 산후 한 달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막내 딸을 낳을 때 시어머니가 딸인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니 밥 한 끼도 안 해주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내가 일어나서 밥을 했지요. 아이 아빠는 놀기만 했지 나를 아끼지도 않았고... 생각만 해도 분해요. 그렇지만 시부모가 무서워서 말싸움할 용기도 없었고요. 지금은 어느 집 며느리가 그런 걸 참겠어요. 우리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며느리에게 밥이나 가사일을 거의 시키지 않아요. 지금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못 해요. 며느리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들과 안 살면(이혼하면) 어떡해요. 우리 세대는 젊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당하고 나이 들어서 며느리로부터도 구박 받아야 해요. (2019년 1월 25일 인터뷰)^{271/}

가정 내 결정권에서도 1960년대생과 1990년대생이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기혼여성들은 대개 ‘부계중심 거주’ 양식과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남편과 시부모에게 복종하고 가정 내의 중대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부터 1960년대생 일부 여성이 가정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점차 독립하기 시작했고, 점차 주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세대 지원’ 문화로 그들은 경제적 축적을 자아실현 또는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하기보다는 대부분 자녀 혼인에 사용하곤 했다. 반면 1990년대생 여성은 적어도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9년 의무교육’ 정책의 혜택을 받았기에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졌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외부와의 교류 기회도 많아졌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농

271/ 馮文娟·張廣利, “中部地區農村女性家庭地位的嬗變分析: 基於“60後”與“90後”女性比較研究,” p. 88.

촌에서의 성비 불균형과 남성에게 요구되는 높은 결혼비용 등으로, 여성인구가 줄면서 여성은 더욱 희소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 중부 농촌지역에서는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남성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표시가 되었다. “부위부강(夫爲妻綱)”, “시어머니는 강하고 며느리는 약하다”라는 과거 전통은 변화하였다.^{272/}

“(90년대생 며느리 인터뷰) 우리 집 많은 일은 내가 참여하지요. 예컨대 친척 중 누가 결혼하면 부조금을 얼마 낼지 거의 내가 결정하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고, 친정 갈 때 사들고 가는 것도 내가 다 결정해요. 그(남편)는 아무 말도 못 해요...지금 집안의 큰 일, 작은 일 모두 그(남편)는 거의 나와 상의합니다. 특히 큰 일 같은 경우 그가 결정 못 해요. 나랑 싸울까봐 겁나서. 나는 시댁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273/}

1960년대생 농촌여성은 가사를 부담하면서 손자녀 돌봄도 하고 농사일에도 참여하지만, 1990년대생 농촌여성은 가사부담이 비교적 적다. 전자에 비해 여가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다.

“요즘 감히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해놓고 다 정리해놓아도, 그들(아들과 며느리)이 화낼까 봐 깨우지 않아요. 일어난 뒤에야 같이 먹어요. 며느리의 미움을 사면 안 돼요. 우리가 며느리였을 때는 늦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들 일찍 일어나서 한집 식구 밥을 다 준비하고 가족에게 먹이도 주고 그랬지. 그때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시어머니한테 욕먹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복을 누리고 있어요. 가사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우리가 하지요.”^{274/}

272/ 위의 글, p. 89.

273/ 위의 글, p. 89.

“나는 원래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화가 나면 바로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성질을 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아이를 돌봐달라하면 돌봐주고, 시키는 일을 다 해요. 때로는 마작을 치러 나가고 싶은데 며느리가 못 가게 하고... 참아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며느리에게 뭘 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말다툼하고, 그러면 며느리는 특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데, 아들이 친정으로 달려가서 사죄해야 돌아와요. 정말 속이 터져요. 조금 양보하면 되는데 싸우기만 하면 가버리고, 우리도 불안과 근심이 쌓이게 돼요. 싸우다가 이혼한 가정이 주변에 여럿 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혼남 처지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아들 결혼시키려고 20만 위안을 썼는데 아직도 그때의 빛이 남아 있어요. 언제 다 갚을지도 몰라요. 농촌에서 남자가 이혼을 당하면 남은 인생은 거의 혼자 살아야 해요. 요즘 결혼 못 하는 남자가 얼마나 많다고요.”^{275/}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못 해요. 밥을 해도 먼저 뭘 먹고 싶냐고 그(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아이도 내가 돌보고, 며느리 옷도 내가 빨아요. 요즘 며느리는 우리 젊었을 때처럼 시어머니 말대로 움직이고, 매일매일 시부모 눈치 보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제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움직여야 해요. 더 늙어서 내가 걷지도 못할 때가 되면 며느리가 (우리를)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미움을 사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늙어서 살 집도 없어요.”^{276/}

나. 부부관계의 변화

(1) 부부관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증가

개혁개방 이후 20년간 대중문화의 도시부부 묘사는 ‘음성양쇠(陰

274/ 위의 글, p. 89.

275/ 위의 글, p. 90.

276/ 위의 글, p. 90.

盛陽衰, 여자의 기세가 남자를 누른다)’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를 개혁개방 이전 시기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계획경제 시기 중국의 평균주의적 취업과 분배방식으로 남성들의 노동과 창조에 대한 욕망이 억제되었기에, 남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자아실현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적 영역에서 상실한 남성적 역할과 권위를 사적 영역인 가정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보기, 요리, 가전제품 수리, 집수리, 가구 만들기 등 남성은 자신의 에너지를 가정 경영과 가사 참여에 투자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젠더평등의 식이라기보다는 공적 역할과 사적 역할의 ‘혼란’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현상적으로는 중국 도시 남성들의 생활 능력과 가사 참여 역량이 높아졌지만, 그것이 젠더평등 의식의 강화라고만 볼 수는 없다.^{277/}

(2) 농촌 유수가족^{278/} 부부관계의 특성

개혁개방 이후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농촌의 전통 일부를 변화시켰다. 관련하여 탄선(譚深)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로 함께 일하러 나온 부부 중 남편 부모에게 돈을 보내는 동시에 아내 부모에게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전통적으로 농촌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친정과의 관계는 주로 정서적이고 예의상으로만 연결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왕래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친정에 돈을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을 경우 가능한 것이었다.^{279/}

그뿐만 아니라 남겨진 아동(留守兒童)을 아예 친정집에 맡기고 도

277/ 田曉虹, “變動中的城市家庭關係,” 『社會科學』, 第1期 (1996), p. 57.

278/ 유수가족(留守家族)은 개혁개방 이후 대규모 노동력 인구 이동에 따른 현상인데, 경제적 이유로 타지로 부모가 이동하여 자식과 부모가 떨어져 사는 가족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이다. 유수아동(留守兒童)은 부모와 떨어져 고향에 남겨진 아동을 가리킨다.

279/ 譚深, “農村勞動力流動的性別差異,” 『社會學研究』, 第1期 (1997), p. 45.

시로 나와 일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부부 동반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하러 가는 현상이 없었다면, 이러한 친정과의 관계 변화는 전통적인 농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280/}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 농촌은 농업 중심의 자연경제로 강한 동질성을 띠었다.^{281/} 또한 호구제도, 식량분배제도, 노동점수제도 등의 제도적 제한으로 농촌 노동력의 도시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농촌 노동력의 비농업 분야로의 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 이다. 농촌의 ‘책임생산제(가정연산승포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농촌에는 대규모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였다.^{282/} 한편으로 노동력이 향진기업(鄉鎮企業)으로 흡수되어 ‘땅을 떠나지만 고향을 떠나지는 않는(離土不離鄉)’ 농민공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로 유입되어 건축, 방직, 보모, 광업 등 2차, 3차 산업직에 종사하는 도시 농민공이 되었다.^{283/}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가 전국 11개 성, 시, 자치구 22개 마을의 18만 9,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전국 약 1억 3,000만 명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유출되었다. 향진기업의 농민공은 8,850만 명,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은 약 4,400만 명이었다.^{284/} 가오샤오시엔(高小賢)이 1987년 산시성(山西省)의 창안(長安)현과 징양(涇陽)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농

280/ 위의 글, p. 45.

281/ 高小賢, “當代中國農村勞動力轉移及農業女性化趨勢,” 『社會學研究』, 第2期 (1994), p. 83.

282/ 농촌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家庭聯產承包責任制)’는 농촌의 가정이 토지 등 생산수단을 청부받고 집단이 부여한 생산임무를 책임지되, 책임 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은 농가가 소유하는 제도이다. 과거 집단에 기초한 생산이 개인의 인센티브와 생산성을 부여하는 생산으로 변환된 것이다(잉싱 편, 『중국사회』, p. 98.).

283/ 향진기업은 농촌에 자리한 기업인데, 개인소유는 아니고 집단 혹은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다.

284/ 中國農業剩餘勞動力利用及轉移課題組, “中國農業剩餘勞動力轉移的道路選擇,” 『中國農村經濟』, 第10期 (1990), p. 7.

업 분야로 이동한 여성 중 미혼여성은 62%인데, 특히 도시로 유입된 농촌 여성노동력 중 미혼여성의 비율이 높다.^{285/} 농촌 노동력이 비농업 분야로 이동할수록, 농촌 여성노동력의 농업화가 심화된 것이 1980~90년대의 주요 특징이다. 동일 지역의 남성 농업 종사 비율이 57.8%에 반해, 여성 농업 종사 비율이 무려 87.3%로 나타났다.

이처럼 1980년대부터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많은 남성 노동자가 도시로 나가고 아내가 고향에 남는 ‘유수 아내(留守妻子)’ 현상이 나타난다. 유수여성은 남편이 외지로 나가 일하고, 아내가 농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농촌호구를 소지하는 기혼여성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주로 2000년 이후부터 유수 아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현재 정부, 학계, 언론에서는 대부분 ‘유수여성(留守婦女)’^{286/}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287/}

유수여성에 대한 전국적 기초조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5년 농촌 유출 노동력 1.3억 가운데, 기혼 80% 중 가족단위로 유출한 3,900만 명을 제외하고, 농민공 가운데 70%가 남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농촌 유수여성은 약 4,700만 명으로 추정된다.^{288/} 두안청룽(段成榮) 등은 남편이 외출하여 노동하면서 호구 소재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18~59세 유수여성, 그리고 호구와 체류 소재지의 동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남편이 외지에서 노동하는 18~59세 유수여성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호구 소재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18~59세 유수여성은 약 3,600만 명이며, 이 여성들은

285/ 高小賢, “當代中國農村勞動力轉移及農業女性化趨勢,” p. 85.

286/ 두안청룽 등은 외지로 나가 일하는 남성 외에 고향에 남는 기타 가족 구성원, 즉 모든 성인 여성을 유수여성으로 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수아내’라는 개념이 더욱 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段成榮·秦敏·賴妙華, “我國留守妻子狀況研究,” 『人口學刊』, 總第221期 (2017), p. 5.).

287/ 위의 글, p. 5.

288/ 白南生, “5000萬留守村婦非正常生存調查,” 『中國經濟周刊』, 2006.10.16.

2000~2005년 사이 1.74배 증가하였고, 2005~2010년 사이에는 1.3배 증가하여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289/}

유수여성에 대해 처음 주목한 시점은 1990년대 말이다. 선샤오핑(沈小平)은 1997년 『사회(社會)』저널에서 “황토지에서 유수하는 며느리들(留守黃土地的媳婦們)”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유수여성 3인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수여성은 분배받은 ‘책임전(責任田)’을 경작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하며, 노인과 아이를 보살피고 밤에는 외로움을 겪으며 안전상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이 글이 소개한 유수여성 1인의 서사를 살펴보자.

“(유수여성) 쥐안즈는 28세의 젊은 나이지만 누렇고 푸석푸석한 머리와 선명한 주름으로 실제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쥐안즈는 남편과 결혼하고 부부가 책임전(責任田) 4무(畝)를^{290/} 경작하면서, 비록 부유하지 않지만 평범한 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변 도시로 나가 돈을 버는 마을 청년들이 많아지자 쥐안즈 남편도 도시로 나가 농민공이 되기로 했다. 홀로 집에 남은 쥐안즈는 농번기에 4무 책임전을 경작하기 위해 날이 밝기 전에 하루치 밥을 보온병에 담아 아이들을 등에 업고 논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한 뒤, 아이들을 업고 다시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또 했다. 피로가 쌓인 그는 병에 걸렸지만 생계와 아이를 위해 아픈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다. 농민공으로 일하는 남편이 도시에서의 생활비 때문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쥐안즈는 남편에게 고향으로 돌아와 책임전을 경작해서 먹고살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남편은 도시에서 부자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한다.”^{291/}

289/ 段成榮秦敏賴妙華, “我國留守妻子狀況研究,” 『人口學刊』, p. 10.

290/ 1무(畝)는 약 666.67m²로, 4무는 약 2,666.8m²다.

291/ 沈小平, “留守黃土地的媳婦們,” 『社會雜誌』, 第2期 (1997), pp. 4~5.

만약 조건이 되면 대부분 부부는 함께 일하러 나간다. 그러나 조건이 안 되는 경우, 이를테면 부모가 아이 양육이나 책임전 경작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편이 된다. 아내가 일하러 나가고 남편이 고향에 남는 경우는 지극히 적다. 후난(湖南)의 한 마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을 노동력 유출 가구 가운데 30여 가구는 부부가 함께 나갔고, 30여 가구는 남편이 혼자 나갔고, 아내가 혼자 나간 가구는 두 가구에 불과했다.^{292/}

유수여성의 생활에 대해서 상리핑(項麗萍)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동시에 여러 직책을 맡아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남편의 부재로 아내는 여러 일을 동시에 맡아야 한다. 아내 역할도 하면서 기존 남편의 ‘바깥일’, 즉 농업생산, 대외교류와 활동에도 나서야 했다. 이는 한편으로 여성의 주체적 의식을 향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중한 부담을 초래했다. 특히 농번기의 고된 농사일로 대다수 아내들은 ‘의무’ 노동력을 구하게 되었다. 즉 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이웃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한다. 마을 주민들 간의 ‘품앗이’도 해결책이 된다.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에 따라 파종, 모내기, 수확을 서로 돕는 것이다. 일부 여성은 농업생산을 부담할 수 없어 책임전을 그냥 놓린다. 또한 가족의 건강악화도 아내의 부담 중에 하나다. 농업생산 외에 가사, 생계유지, 노인 돌봄, 자녀 교육 등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에 시달린다. 둘째, 혼인관계 변화다. 일하러 나간 남편과 유수여성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의 이질성이 강화된다. 특히 별거하면서 각자 다른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관념, 생활방식으로 살다 보니, 남편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있다면 아내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292/ 譚深, “農村勞動力流動的性別差異,” p. 44.

생활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지식, 정보, 기술, 사회관계, 생활태도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강화된다. 이와 같은 이질성은 혼인관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다수 유수여성은 혼인관계 악화에 대처할 때 수동적이다. 아이를 위해, 혹은 주변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 부부는 통상적으로 합의를 통해 여성에게 일부 재산과 명분을 남기고 유명무실한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하기도 한다.^{293/}

다. 출산과 양육

(1) 한 자녀 정책과 자녀 수에 대한 생각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 자녀 정책은 중국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행기 중국 도시와 농촌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를 테면 베이징의 이상적인 자녀 수의 평균 수치는 1979년 1.32명에서 1994년 1.25명으로 감소하였다. 지린성 농민의 경우 1986년 2.49명에서 1995년 1.6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꽤 크다. 1980년대 농촌주민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대체로 2~2.5명,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은 3명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도시주민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1~2명이 주를 이룬다. 1990년대 이후 농촌주민의 이상적 자녀 수는 대체로 1.5~2명이고, 도시주민의 이상적 자녀 수는 1~1.5명으로 확인된다.

^{293/} 项丽萍, “农村留守女: 一个值得关注的弱势群体,” 『广西社会科学』, 第1期 (2006), p. 177.

표 VI-6 1979~1998년 일부 도시주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

연도	지역	조사 대상	이상적인 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1979년 말	베이징	미혼 청년	5.8	57.7	35.8	0.7	1.32
1981년 말	상하이	여성	-	31.0	68.0	-	1.70
1987	베이징	기혼여성	-	19.9	66.3	13.8	1.94
1988	후베이성(湖北省) 4개 도시	부부	-	19.8	76.6	3.6	1.84
1988	지린(吉林)	기혼여성	-	30.6	63.0	6.4	1.76
1992	베이징 하이톈(海甸)	유자녀 여성	1.6	29.8	67.4	1.2	1.68
1992	전국 10개 성 및 도시	남편	-	-	-	-	1.71
		아내	-	-	-	-	1.65
1994	베이징	여성	13.2	48.9	34.4	2.3	1.25
1995	톈진(天津)	신혼부부	7.4	63.2	22.2	0.8	1.10
1996	하얼빈(哈爾濱)	기혼 재직인구	11.9	62.6	25.2	0.1	1.25
1998	후베이성 도시	도시주민	1.4	39.8	55.1	2.7	1.58
1998	전국 14개 도시	도시주민	1.6	45.7	51.3	1.4	1.53

출처: 風笑天, “二十年城響居民生育意願變遷研究”, 『市場與人口分析』第5期 (2002), p. 24.

표 VI-7 중부, 서부, 동북 지역 농촌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

연도	지역	조사 대상	이상적인 자녀 수(%)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
1979년 말	쓰촨성(四川省) 농촌	미혼 청년	-	20.6	75.2	4.2	1.79
1983년	안후이성(安徽省) 추현(滁縣)	여성	-	2.7	80.6	16.7	2.14
1984년	후베이성(湖北省) 서부	부농	0.1	2.7	62.5	33.8	2.45
1986년	지린성(吉林省)	농민	-	-	-	-	2.49
1987년	지린성	여성	-	13.6	62.3	24.1	2.21
1992년	산시성(陝西省)	농민	-	11.0	59.9	27.1	2.25
1995년	지린성	농민	-	46.0	48.0	6.0	1.60
1998년	후베이성 농촌	농민	1.7	15.4	73.0	9.8	1.91

출처: 風笑天, “二十年城響居民生育意願變遷研究,” pp. 23~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1994년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상하이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광저우 『가족(家族)』 잡지사 가정연구센터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1,500명(각 도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지 15년 후 중국 도시가정의 출산계획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혼 응답자 가운데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가장 바람직한 가족구성’이라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베이징은 53.4%, 상하이는 73.6%, 광저우는 76.2%로 나타났다. 아들 한 명 또는 딸 한 명만을 원하는 기혼 응답자 비중은 비교적 낮다.

표 VI-8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기혼 응답자의 이상적인 자녀 수(%)

구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자녀 무	0.3	3.7	0.3
1남	25.2	9.5	6.4
1녀	12.5	10.1	5.6
1남 1녀	53.4	73.6	76.2
2남	3.0	0.3	0.8
2녀	1.0	0.9	0.3
기타	4.6	1.9	10.4
비율(%)	100.0	100.0	100.0
합계	305명	348명	357명

출처: 郭康健·劉錫霖, “兩代人的關係: 北京·上海·廣州의比較研究,” p. 26.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혼 응답자의 실제 자녀 수를 살펴보면 아들 한 명을 가진 가정이 가장 많다. 베이징은 45.8%, 상하이는 47.7%, 광저우는 38.1%다. 반면 실제로 딸 한 명을 둔 가정의 비중은 베이징은 25%, 상하이는 28.1%, 광저우는 33.1%다.

표 VI-9 '1남 1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기혼 응답자의 실제 자녀 수(%)

구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자녀 무	11.3	10.4	7.9
1남	45.8	47.7	38.1
1녀	25.0	28.1	33.1
1남 1녀	9.5	7.7	11.2
2남	4.2	2.3	4.3
2녀	3.6	2.7	3.6
1남 2녀	0.0	0.4	1.4
1남 3녀	0.6	0.0	0.0
2남 1녀	0.0	0.4	0.4
3녀	0.0	0.4	0.0
비율(%)	100.0	100.0	100.0
합계	168명	260명	278명

출처: 郭康健·劉錫霖, “兩代人的關係: 北京·上海·廣州의比較研究” p. 26.

(2) 보육과 양육 문제

계획경제 시기 중국 도시는 단위탁아소(직장 공공탁아소)가 여성 노동자들의 보육 부담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었다. 다음 인터뷰는 중국의 역사적 시점마다 달라진 보육체제의 커다란 차이를 잘 보여준다. 화자는 2004년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이를 보육하던 시절과 현재 자신의 보육경험을 대조한다. 이로써 중국 보육의 역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낳던 시절(80년대로 추정)에는 아이 보육이 직장 일에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엄마는 기관의 타자수였고 내가 태어난 지 만 3개월 만에 나를 기관 탁아소에 보냈다. 일하

는 도중 나를 보러오거나 젖을 주었고, 초과 근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책상 옆 바구니에 넣고 일했다. 그러나 나의 사촌언니 두 명은 90년대에 아이를 낳았는데 직장 상황이 크게 역전되었다. 한 명은 아이를 낳고 나서 일자리를 잃었고, 다른 한 명은 공장장 비서였는데 출산휴가 끝나고 돌아가니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격이 강한 언니는 화가 나서 일을 그만뒀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지금은 내 차례다. 대학을 졸업하고 매번 여자라서 거절당하고 있는데, 여자는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일부 단위는 받아줄 생각이 있는 대신 몇 년 동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란다.”^{294/}

이처럼 개혁개방 이후 이행기에는 공적 보육체제가 상당히 와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들어 기업들은 직장탁아소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부담’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어떤 큰 공장은 유아원에 입소한 아동이 천 명이 넘었다. 공장 과장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관리하느라 ‘아동단’ 단장처럼 하루 종일 아이들 주변에서 빙빙 돌아야 한다고 불평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비생산’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탁아소(재생산)까지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힘들다는 불만이다. 공장장들은 “(각 기업이 생산량을 각자 책임지는) 공장 책임제가 실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업고 생산을 지휘해야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소연했다.^{295/}

중국에서는 각 가정의 출산계획이 부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조부모까지 동원되는 문제다. 적지 않은 출산예정 부부의 양가 조부모는

294/ 金一虹, “社會轉型中的中國工作母親,” 『學海』, 第2期 (2013) p. 58, 재인용 (강조는 인용자): 김란, “잡지 『부모필독(父母必讀)』을 통해 본 중국 개혁개방 이후 보육 사사화(privatization)의 곤경: ‘조부모 보육’ 담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35권 1호 (2023), pp. 75~76.

295/ “企業辦托兒所利弊談,” 『解放日報』, 1986.10.20.

출산 계획과 준비에 ‘동참’한다. 이때 핵심은 조부모가 손주 돌봄 여부를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경제적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는, 조부모의 돌봄 여부가 젊은 부부의 둘째 출산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만일 조부모가 정년퇴직 전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둘째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296/}

라. 결혼관과 이혼관

(1) 낭만적 사랑의 결혼관 등장

1980년대에는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유행하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한 낭만적 사랑의 결혼관이 등장하였다. 물론 낭만적 사랑 관념이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개정 혼인법에도 이러한 관념이 반영되는 등 큰 변화가 관찰된다. 낭만적 사랑의 관념과 시장경제의 복잡한 혼합양상을 몇몇 사례에서 관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82년 『문화와 생활』에 “그녀는 ‘행복을 추구’했는가, 아니면 타락했는가?”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297/}

이 글은 부르주아 생활방식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한 노동계급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주인공은 한 호텔의 전화 교환원이며 임무는 국가의 현대화를 위해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 샤오링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교환원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샤오링은 부화뇌동하는 인물로 “신중국 여성” 이상형의 반면교사로 서술되었다. 즉 “한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미덕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바뀌거나 새것을

296/ 鄭真真, “從家庭和婦女的視角思考生育和計劃生育政策調整,” 『中國人口科學』, 第2期 (2015), p. 21.

297/ 曹正文·蔡金元, “她是‘追求幸福’: 還是走向墮落?,” 『文化與生活』, 第4期 (1982).

좋아하고 헨것을 싫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샤오링은 문혁 때는 조반파의 우두머리에 붙었다가, 개혁개방 이후에는 자본가인 홍콩 상인에게 다시 붙었다. 홍콩상인 왕경리는 해외를 다니면서 얻은 견식으로 샤오링의 마음을 얻었다. 그녀는 서구세계를 선망하여 서구 국가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중국당국의 선전이 녹아들어 있는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된다. “새로운 시대,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외교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부패한 사상의 침입을 이겨내지 못해 서구의 부르주아적 생활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298/}

(2) 이혼율 증가에 반영된 결혼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979년 31만 9,000가구에서 1993년 90만 9,000가구로 이혼율이 매년 평균 7.8% 증가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 중국에서 결혼한 10가구 중 한 가구가 이혼하였다.^{299/}

표 VI-10 1979~1993년 중국 이혼율 추이

연도	이혼 가구 수(만)	조이혼율(%)	결혼/이혼비(%)
1979	31.9	0.33	5.04
1980	34.1	0.35	4.76
1981	38.9	0.39	3.75
1982	42.8	0.42	5.14
1983	41.8	0.41	5.15
1984	45.4	0.44	5.83

^{298/} 위의 글.

^{299/} 葉文振·林肇國, “當代中國離婚態勢和原因分析,” 『人口與經濟』, 第3期 (1998), p. 23.

연도	이혼 가구 수(만)	조이혼율(%)	결혼/이혼비(%)
1985	45.8	0.44	5.52
1986	50.6	0.48	5.74
1987	58.6	0.54	7.11
1988	65.5	0.60	7.30
1989	75.2	0.68	8.04
1990	79.9	0.71	8.42
1991	82.9	0.72	8.72
1992	85.0	0.73	8.91
1993	90.9	0.79	9.96

자료: 1. 曾毅, 『中國80年代離婚研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5), p. 8, 15.
 2. 張德強, 『嬗變中的婚姻家庭』(甘肅: 蘭州大學出版社, 1993), pp. 218~219.
 3. 中國社科院人口研究所, 『中國人口年鑒』(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4), p. 501;
 (1993), p. 323; (1992), p. 509; (1991), p. 436; (1989), pp. 374~383.
 출처: 葉文振·林擎國, “當代中國離婚態勢和原因分析,” 『人口與經濟』, 第3期 (1998), p. 23.

3.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

중국의 가정은 1980년대 초 개혁개방, 시장화와 함께 부르주아적 생활방식을 경계하던 당국의 목소리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물질생활의 변화에 따라 중국 가정은 소위 부르주아적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경우 초기에는 자본주의와 국제 패권의 문화적 상징이었지만, 결국 중국인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이 되었다. 맥도날드는 서구 근대문명과 현대화된 삶의 상징이 되었다.

앞선 1~2절에서 개체호(자영업자)를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의복(나팔바지, 양복), 음식(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측면에서 서구적 의복과 음식이 점점 더 중국 가정생활 내에서

헤게모니를 확대해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전제품의 도입은 서구적 생활양식 도입 및 일상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가정의 계층적 생활수준 문제와도 직결되어 개혁개방기 중국가정의 소비문화에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물질은 단순한 소비대상이라기보다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계획경제 시기에 작동하던 공적 복지가 점점 와해되면서 개혁개방 이후에는 보육 등이 사사화(privatization)되고 시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가족생활도 가족주의가 강화되면서도, 핵가족의 증가 같은 근대화와 개인화의 흐름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자식이 보답하는 기존의 세대 간 관행도 약화되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도농 간 차이는 가정생활에서도 도시 가정과 농촌 가정의 차이를 야기하였다. 대표적으로 농민공의 유수가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장화가 도시와 농촌에 불균등하게 관철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행기 가정생활에서 계층차이, 세대차이, 도시-농촌 간 지역별 차이가 크게 증대하였다. 이는 앞선장에서 살펴본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주요한 지점과 유사한 양상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의 현재와 향후 변화를 1980년대 중국의 이행기 경험으로부터 일정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가족관계의 가부장성이나 여성의 지위 등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문화대혁명 시기 도시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였던 중국의 경우, 국가가부장 제도를 강화한 북한에 비해 여권이 좀 더 강하였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으로, 의식주나 가전제품 등이 야기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물질문명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정치외교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시적 일상생활의

변화가 상당히 폭넓게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일상생활과 물질생활에 가장 크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문화 교류뿐 아니라 국제적 대북제재 영향까지를 포함해 북한의 무역과 교역이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의 물질문명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맥도날드가 서구문명을 상징했듯, 중국의 어떤 소비재들이 은연중에 자본주의적 물질문명을 북한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물질문명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가정생활과 밀접한 의식주와 가전제품 등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화나 의식주 양상의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구조 변동과 함께 진행된 물질생활과 가정생활의 변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물질생활과 가정생활의 미래를 일정 정도 예측할 수 있다.

VII. 결론: 남북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KINU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결론: 남북한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공간인 북한의 가정생활을 탐구하는 것이다. 실태 파악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현 단계 북한 주민의 가정과 삶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북한 주민들의 삶의 관계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고, 둘째,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현재성을 진단하면서, 셋째,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와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문헌분석과 탈북민 심층면접을 교차 비교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가정을 통해 드러나는 계층, 도시와 농촌, 세대, 젠더 등 집단별 차이와 남북한 비교의 시각을 견지하며 다음의 내용을 밝히었다. 첫째, 국가가 가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가정생활의 모델과 소설 속 서사를 김정은 시대 관련 문헌분석으로 밝혔다. 둘째, 계층 간 격차가 중요한 가정생활을, 탈북민 구술에서 밝혀진 대표적 도시와 농촌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셋째, 가정생활의 주요 내용인 물질적 환경 및 양육과 가사, 그리고 새로운 물질문명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일상 가정생활에 작용하는 내부와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과 관계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며, 김정은 시대 국가가부장제도의 실패를 파악하였다. 이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흔들리는 북한 사회의 가부장성과 어머니 중심 강한 가족주의의 현재성을 규명했다. 다섯째, 이행기 중국의 사회구조 변동과 가정생활을 분석하며 현 단계 북한 가정생활 변화에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에서 가정이 주는 의미, 둘째, ‘무력한 가부장’과 ‘사회주의대가정’의 균열, 셋째, ‘생산-소비’의 연계와 새로운 물질문명의 유입, 넷째, 계층·지역·세대·젠더 간 갈등과 격차, 다섯째, 역할 모델의 변화, 여섯째, ‘이악한 어머니’, ‘불편한 아버지’, ‘심장인 딸’, ‘맹장인 아들’의 변주(變奏), 일곱째, 국가가부장 담론과 ‘아버이 수령-어머니 당’의 가정 내 투영 양상, 여덟째, 중국의 반(反)가족주의에서 재(再)가족화의 대북한 함의이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현 단계 북한의 가정생활은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하려는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남북한 주민의 새로운 융합을 위해 ‘관계를 만드는 장소’로서 가정생활을 규명하였다. 유아~청소년기 주로 가정 내외의 역할과 관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북한 주민의 정체성을 밝히며, 현 단계 북한 ‘가부장제’의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북한 주민들은 가정생활로부터 국가의 요구에 대한 의무감과 국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 둘 다를 정체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성의 무력화와 여성의 임파워먼트 증대라는 가부장성의 변화를 보인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어 단기적으로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사업과 탈북민 한국사회 정착정책 및 대북정책 마련에 기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 방향과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단기적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차이를 주목한 섬세한 대북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의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집단별 격차에 기초한 맞춤형 대북정책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시각에서 북한의 가족단위 성분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사업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 임파워먼트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대라는 북한의 가부장성 변화 특성을 볼 때, 북한에 4대 수령으로 여성의등장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이러한 북한의 사회 분위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 가정생활의 동질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일방안 마련 시 동질성 확보 정책 마련에 참조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체제이행기 속에서 중국당국의 반(反)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가족구성원 중심의 재(再)가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북한 사회와 주민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비교체제의 함의를 제공한다.

그간 북한 연구가 주로 ‘위로부터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남북한 주민들의 융합’에 기여하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착목함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통합과 새로운 융합의 방향성 도출에 기여하려는 시도이다.

1. 남북한 비교의 시사점

남북한에서 가정생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의 가정생활과 남한의 가정생활에 대해 어떤 공통점/동질성이 있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그 수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과 운명공동체로서 가정을 인식하는 동질성이 확인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한국 가정생활에서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인상 깊은 차이점으로 이야기한다. 북한에서 상층생활을 한 사례 6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뭐가 차이가 나냐면 제가 한눈에 그게 처음으로 느낀 게 북한 남자들은 집에서 가정 살림을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아빠는 밥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대요. 우리 엄마 평생 살면서. 진짜 안 하거든요. 다 차려줘야 되고 엄마가 가사를 다 하는데. 여기 오니까 한국 남자들 음식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지인분들 보니까 부엌에 나가서 설거지도 잘하고 그게 티가 났어요. 다른 느낌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안 하려고 하고 나는 돈만 벌어서 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지금 모계 사회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 있던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돼. 일을 해도 똑같이 하고 가정 살림하고 육아를 해도 똑같이 하고. 북한에서는 육아하면 여자 전담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서로 도우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차이가 나고.”(사례 6)

이러한 경험에는 세대별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도 잘사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권위도 강해서 대개 가사나 육아를 거의

안 하지만, 못 살수록 여자들이 장사를 하며 경제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가사를 도와주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여자가 먹여 살리는 젊은 가정들에선) 그런 사람(남편)은 어차피 가사를 해야죠. (젊은 친구들 중에 있던데.) 그런 게 많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주로 가사를 도와서 자기가 밥을 하고 챙겨주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자가 하는 가사를 다 하는 거는 아니죠. 그거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냥 도와주는 의미. 근데 북한 여자들은 자기가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책임 한계가 틀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돈 못 버니까, 또 (아내가) 장마당 갔다 오면 내가 뭐 밥도 좀 가끔 해줄 수 있고 저녁에 해줄 수 있고. 근데 일단은 가정부는 여자인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도와는 주는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 우리 제부도 그렇더라고요. 밥도 해주고 도와는 주는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기본 해야 될 거는 여자다. 이게 인식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사례 6)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일까?

“서로 부부가 의지하고 가정사 상의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아직 여기서 부부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보면 역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 두 분이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같은 공통점인 것 같아요.”(사례 6)

북에서 증층생활을 한 사례 4는 남북한 가정생활 비교에 대해 “차이점은 어쨌든 먹고사는 생활이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은 가정생활 하는 게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공통점이고, 따로 공통점이라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사례 4)라고 증언한다. 이에 비해 북에서

중하층생활을 한 사례 3은 남북한 가정생활 비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남한에서 한 4년 정도 생활하시면서 북한의 가정생활, 남한의 가정생활을 보면 어떤 게 공통적이고 어떤 게 차이점인 것 같은가요?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거는 북한하고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일 때 또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같이 한 끼 먹고 추석에 다 모여서 같이 지내고 이런 공통점은 같다고 생각하지. 다른 건 너무 많죠.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한다. 비혼주의요 딱 이렇게.”(사례 3)

연구자: 북한도 요즘에 젊은 애들 결혼 안 하려고 다 동거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러던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애들은 많아요. 살다가 잘못해주면 안 살면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올 때까지는 비혼주의 같은 건 없었어요. 우리 사촌동생이 둘이나 이제 서른아홉 살짜리하고 서른일곱 살짜리가 다 결혼 못 한 애들인데,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여자가 있든 남자가 있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상대를 선택하지요. 내 사촌동생 애들은 다 남자애들인데 뭐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를 수가 없고, 그냥 나 좋다는 여자랑은 어떻게 살 의향이 있는데. 결혼해도 집도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한국은) 젊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부터 따로 나가 살겠다 하잖아. 여기 애들이. 독립하는 게 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혼해야만 독립할 수 있고, 집 문제 때문이죠.”(사례 3)

연구자: 남편이 좀 다른가요? 한국 남편이랑 살아보시니까 북한에서의 남편이랑 비교해보면?

“(남편이) 너무 다르죠. 하늘 땅 차이예요. 너무 잘해주지. 거기는 내가 장마당 나갔다 와도 애 아빠가 저녁도 안 해놔요. 밤늦게 들어와도 애 아빠가 저녁도 안 해놓고 나 들어오기만 기다려요. 그럼 내가 들어와서 저녁을 다 해서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술만 마시고 앉아 있어요. 설거지를 해준다? 그런 건 상상도 못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젊은 애들은 차츰차츰 깨서 여자들이 나가 장마당에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이제 와이프가 장마당 나갔다 막 여름 같은 때는 아홉 시, 열 시 깜깜해져야 들어오니까 저녁 다 해놓고 기다렸다가 먹으면 걷어도 주고 이런 거 하는데. 지금의 우리 아저씨 보면... 요리도 엄청 잘 하고 제가 아직 결혼해서 설거지를 못 해봤어요. 밥도 다 하고. 그런데 내가 주말에 쉬니까 냉장고에다 일주일치 밑반찬들을 쭉 해놔요. 해놓으면 저녁에 들어와서 국만 끓여서 먹고 그러지. 내가 먼저 들어오면 내가 끓이고 아저씨가 먼저 들어오면 아저씨가 끓이고.”(사례 3)

연구자: 선생님이 보시기에 먹는 문제, 그다음에 주택문제, 그다음에 의류문제 이렇게 봤을 때 북한에서 살 때랑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다 차이가 나겠지만 예를 들면 남한 사람이 북에서 산다면 이게 가장 힘들 것 같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정생활을 할 때.

“여기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 다양한 식품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는 중국 식품밖에 없잖아요. 북한에서 생산된 식품이랑 중국 식품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여기서처럼 더운물이 24시간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나오고 이런 거는 생각조차도 못 했죠... 뭐 전기가

없으니까 세탁기가 안 돼서 내 손으로 빨아야 되고, 여기처럼 전자 레인지 같은 것도 없고, 이런 게 다 걸리죠. 그다음에 샤워도 (북한 예선) 지금도 더운물 데워서 목욕 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여기처럼 더운물이 잘 나오고 이리저리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거기 가면 못 살지. 저도 이제 가서 살라면 못 살겠는데, 여기 사람들이 더 못 살지.”(사례 3)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한 가정생활의 공통점으로는 가정에서 부부가 의지·의논하고 구성원들이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생활이다. 차이점은 북예선 보기 어려운 한국의 가정생활에서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인상 깊은 점으로 지목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전반적으로 작동하나, 북한에서도 계층별·세대별로 일정한 차이와 변화가 보인다. 중하층 가정일수록 아내들이 장사 등으로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에, 남편들이 가사를 챙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가사를 도와주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되는 추세인 미혼자녀의 독립과 ‘비혼주의’라는 담론을 북한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결혼을 해야만 배정받을 수 있는 주택문제 등 물질·제도적 환경과 맞물려 결혼을 해야만 집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가족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동거를 하더라도 북한에서 ‘비혼주의’라는 담론은 아직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북한에도 이혼자와 노인 중에 1인 가구는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가정생활의 구조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의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남북 모두 휴대전화를 비롯한 ICT 전자제품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남북 성인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률이 높다. 남한은 성인의 97%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³⁰⁰⁾ 북한은 2017년 기준으로 약 70%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역과 가구

소득에 따른 이용률 차이는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점은 남한은 초등학교 자녀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지만,^{301/} 북한은 미성년 자녀에게는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휴대전화 사용 용도가 우리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만약 인터넷이 연결된다면 휴대전화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남북 모두 지역 차이가 증대하고 있다. 지역 격차는 가정생활의 격차로 연결된다.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강구하고 있다. 남한은 출생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302/} 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역 격차가 점점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지역 격차의 원인은 아직까진 인구감소보다는 낙후된 경제라는 점에서 남한과는 다르다. 그러나 특정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고 인구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재개된다면, 남북의 지역 간 경제, 교통, 문화 등의 분석을 통해 상호 간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안을 모색하여 한반도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부족한 전기와 물 공급으로 가정생활의 불편함이 매우 큰데, 남한이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 북한은 남한의

300/ 갤럽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7%로 나타남.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05>> (검색일: 2023.9.27.).

301/ “어린이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초 4~6, 10명 중 9명 스마트폰 쓴다.” 『조선에듀』, 2021.2.2., <<https://edu.chosun.com/m/view.html?contid=2021020200294>> (검색일: 2023.9.27.).

302/ 한국고용정보원,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2022. 4. 29.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488> (검색일: 2023.9.27.).

부족한 천연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 모두 계층 차이가 커지고 있다. 계층 차이 역시 가정생활의 격차를 낳을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 1순위가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로 보고되었다.^{303/} 결혼의 제일 요건이 “돈”이 되고 있는 세태이다. 이처럼 결혼으로 재력과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젊은 세대의 결혼관을 보면 남북이 닮아 있다. 이러한 결혼관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빈부격차를 좁히려 하면 복지제도 등 공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남한이 이 부분에서 앞서 있으므로(예를 들어 보편적인 육아정책 및 공교육·보육제도 구축) 향후 남북 교류 시 이를 남한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 모두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 여성의 경제력이 이전 부모세대와 비교해서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계획의 결정권이 주로 여성에게 있다. 남북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304/} 자녀교육의 주체자인 것도 공통점이다. 향후 남북 여성들의 공통분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남북 교류가 다시 시작된다면, 남북 여성들이 교류의 주축이 되어 추진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303/ “국민 절반은 ‘결혼 안 해도 된다’... 안 하는 이유 1위 ‘돈 없어서,’” 『연합뉴스』, 2022.11.16.

304/ 이윤진 외,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pp. 136~137. 이 연구에서 북한 여성들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족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정책적 시사점

연구결과 중 통일·대북 정책 마련에 합의가 높은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자. 본 연구는 가정을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주민들의 경험/행동과 관계 특성 등을 밝히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정부의 ‘북한 바로 알기’ 사업,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정책 마련, 북한체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대북정책 마련, 북한 인권 사업, 그리고 북한정권 변화 관련 정세전망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 주민들의 동질성과 차이, 그리고 이행기 중국 가정생활과 북한에 주는 합의를 밝히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교류방향과 새로운 통합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먼저 단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현 정부가 중시하는 ‘북한 바로 알기’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본문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과 행위 양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생활을 생생하게 드러내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통일·대북 관련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책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이 연구를 통해 가정을 중심으로 북한체제와 사람들을 미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적응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주목할 점은 다수 탈북민이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데, 북한에서의 생활수준과 환경에 따라 그 희망과 계획이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중하층생활을 했던 상당수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 과정에서 북한 가족과 연계된 대북송금을 실행하며, 가족에 대한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 상층생활을 했던 상류층 출신 탈북민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북한에서보다 녹록지 않다. 자신이 북한으로

갈 수 없기에 가족을 데려오고 싶지만, 가정생활 환경을 보면 북한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무엇보다 내가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잘 살 수 있어야만 북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 어쉴픈 상황에서 가족을 데려오면 한국사회의 정착 문제를 포함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주민의 집단별 차이에 기초한 맞춤형 대북정책 마련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계층, 도시와 농촌, 세대, 젠더 등의 집단별 차이가 증대하고 있다. 생활환경의 격차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의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통일·대북정책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인도적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관련 사업에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집단별 차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집단별 차이는 북한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집단적 정체성’^{305/} 형성의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 인권 증진 시각에서 북한의 ‘가족중심 통제제도’(성분제도)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혹독한 동원과 규율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체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억압과 통제가 지목된다. 그러나 어느 독재국가에서도 그 수위는 차이가 있으나 억압과 통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유독 북한에 수령독재체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소위 연좌제로 칭해지는 북한의 성분제도가 지닌 가족중심 통제제도 때문이다. “북한에서 성분제도는 ‘북한체제 수호’를 기준으로 주민들 개개인이 어떠한 환경

305/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라는 어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적 정체성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성별, 인종, 계급, 성적 취향을 근거로 억압을 당해온 집단의 일원이 가지게 되는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체성,”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848&cid=60657&categoryId=60657>> (검색일: 2023.2.23.).

에서 생활하며 어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가를 분류한 것이다. 개인들의 생활환경과 사상적 배경에 근거해 주민들을 사회적으로 분류한 것이 성분이며, 그 핵심은 개인들이 속한 가정의 대내외적 환경에 대한 진단이다.^{306/} 북한당국이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의 책임을 모든 가족에게 전가하는 성분제도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북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화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다섯째, 북한정권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에 여성 수령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 본문에서 밝힌 현 단계 북한의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생활 변화,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 변화, 여성의 역할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때, 김정은의 후계자 또는 북한 정권의 4대세습 주체로서 여성 최고지도자의 등장이 가능하다. 본 연구를 개시하면서, 서론에서 밝히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의식은 현 단계 북한체제 특성 및 가부장제 실태 평가에 기초해볼 때, 북한에서 향후 김주애 또는 김여정 등 여성이 후계자로서 자리 잡고 4대세습이 가능할까에 대한 진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총괄적으로 재분석하며 진단한 결과, 김정은 정권의 독재정치 내구력, 당 중심의 시스템적 통치력 증대, 국가가부장 담론의 지속성과 미묘한 변화, 그리고 가정 내 여성의 역할 제고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여성 후계자 등극의 가능성이 보인다. 즉,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나 딸인 김주애가 단지 여성이라서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후계체제 관련하여 북한의 국가가부장 담론과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을 면밀히 추적하며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증장기적으로는 정도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 가정생활의 동질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일방안 마련 시 동질성 확보 정

306/ 박영자, “북한 내구력에 대한 소고,” 『평화통일』, 통권204호 (10월호, 2023), p. 66.

책 마련에 참조할 수 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중국의 체제이행기 속에서 중국당국의 반(反)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가족구성원 중심의 재(再)가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북한 사회와 주민 변화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비교체제의 함의를 제공한다.

현 단계 북한의 가정생활에서 파생하는 가정 내 구성원의 성역할 관념, 가부장적 문화, 저출산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적 상황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한국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던 웹툰 〈머느라기〉는 일상에서 가족 내 성차별을 드러내며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307/} 세부적 경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 모두 기저에 유교적 가치관에 따른 가족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남북한 사회가 당면한 위기 상황이다. 경제위기와 결혼 및 출산 기피,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은 가정생활과 인구재생산의 문제를 돌아볼 때 짚어보아야 할 지점들이다. 저출산 문제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가족 내 양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앞서 밝힌 남북한 비교의 시사점에서 다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중장기적 통일·대북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행기 중국 가정생활의 변화가 북한에 주는 함의에 기초한 중장기 정책적 시사점이다. 첫째, 북한 주민 가정생활의 현재와 향후 변화를 1980년대 중국의 이행기 경험으로부터 일정 정도 유추

307/ 남한 사회에서 가정생활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의 예로 웹툰 〈머느라기〉를 들 수 있다. 2017년 작가의 SNS에서 짧게 연재되던 웹툰 〈머느라기〉는 그해에 '오늘의 만화'로 선정되고, 2020년에 드라마로 제작된 이후 2023년엔 시즌 3이 제작되었다. 웹툰은 여성이 결혼하며 남성의 가족에 편입되면서 '머느라'라는 역할을 하며 겪는 일상적 불편과 갈등을 묘사했으며 기성세대와 신세대에게 공감을 자아냈다. 수신지, 〈머느라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웹툰(2017), 카카오 웹툰(2020.11.18.).

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초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에 직면하여 부르주아적 생활방식을 경계하던 목소리들에도 불구하고, 물질생활의 변화에 따라 전 인민이 부르주아적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시장화가 도시와 농촌에 불균등하게 관철되며, 계층 간 격차와 세대 간 격차가 가정생활에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 간 관계와 의식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가정생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변화를 전망하는 데 중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가정의 일상과 물질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의식주나 가전제품 변화가 야기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물질문명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정치외교적 측면만이 아니라 미시적 일상생활의 변화가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접국인 북한의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문화 교류뿐 아니라 국제적 대북제재 영향까지를 포함해 북한의 무역이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셋째, 서구화된 중국의 물질문명은 향후 북한 가정생활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KFC가 서구문명을 상징했듯, 중국의 어떤 소비재들이 은연중에 자본주의적 물질문명을 북한에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의 물질문명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가정생활과 밀접한 의식주와 가전제품 등을 통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미시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화나 의식주 양상의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구조 변동과 함께 진행된 가정생활의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과 가정생활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중장기적 통일·대북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영자·이금순·최지영·김화순·조영주·현인애.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 여성과 섹슈얼리티』.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생활 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이윤진·김문정·김자연·황나미.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 모성과 양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이윤진·김화순·김민주.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20.
- 이윤진·이정림·김경미.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2.
- 이윤진·최은경. 『탈북 여성의 일·가정 양립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21.
- 이제우.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고양: 사법정책연구원, 2017.
- 홍성 편. 장영석 옮김. 『중국사회』. 서울: 사회평론, 2017.
- 조정아·이지순·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주민의 삶과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조형 역음. 『여성주의 가치와 모성 리더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 홍민·차문석·김혁.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2.

홍제환·김석진·최지영·김수경.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Alvesson, Mats and Yvonne Due Billing. *Understanding Gender and Organiza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9.

Greenhalgh, Susan. *Cultivating Global Citizens: Population in the Rise of China*.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北京:中國統計出版社, 1984.

邓力群 編. 『中華人民共和國國史百科全書1949-1999』.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9.

李斌. 『住房利益分化與社會分層機制變遷』. 長沙: 中南大學出版社, 2004.

孫沛東. 『時尚與政治 廣東民眾日常著裝時尚 1966-1976』. 北京: 人民出版社, 2013.

孫海燕. 『‘想象’中國20世紀80年代的中國生活與設計』. 南京: 東南大學出版社, 2016.

張德強. 『嬗變中的婚姻家庭』. 甘肅: 蘭州大學出版社, 1993.

中国共产党编年史编委会. 『中国共产党编年史1958-1965』. 北京: 中共党史出版社, 2002.

中國社科院人口研究所. 『中國人口年鑒』.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1994.

曾毅. 『中國80年代離婚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5.

陳錦華. 『國事憶述』. 北京: 中央党史出版社, 2005.

華梅. 『新中國60年服飾路』.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2009.

2. 논문

- 김란. “현대 한국과 중국 보육제제 변동에 관한 비교연구: 보육공공성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김미주. “『조선녀성』에 나타난 북한의 가족담론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혜영. “북한 가족의 특징과 변화의 불균등성: ‘고난의 행군기’ 이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9권 1호, 2017.
- 박희진. “북한의 주택건설 현황과 생활환경 실태.” 『보건복지포럼』. 제298호, 2021.
- 배영애.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 _____.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제10집 2호, 2018.
- 안지영.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과 영화 속 모성담론.” 『여성연구』. 제88권 1호, 2015.
- 오창은.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에 나타난 평양 공간 재현 양상 연구: 사회주의 평등과 사적 욕망의 갈등.” 『한민족문화연구』. 제71권 71호, 2020.
- 오태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 고찰: 사회주의적 이상과 현실의 균열적 독해.” 『인문학연구』. 제38호, 2018.
- 이계희. “정치적민주화 성장점 될지 초미의 관심: 자원봉사 발전과 공익성 민간조직 발전 및 참여확대 민주주의 학습 및 시민의식 배양 등의 효과도 가져와.” 『주민자치』. 제29권, 2014. 재인용: 윤희진. “역사적 시각에서 본 중국의 도시 기층조직: 거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제117호, 2016.
- 이예찬. “소설로 보는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향상’의 의미: 리희찬의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6호, 2022.

- Chan, Kam Wing and Xeuqiang Xu. "Urban 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in China since 1949: Recnstructing a Baseline." *The China Quarterly*, no. 104, 1985.
- Lee, Yong Suk. "International isol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Evidence from sanctions on North Korea."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103, 2018.
- Maffesoli, Michel. *L'Instant Eternel*. Paris: La Table Ronde, 2003. 재인용: 신지은. "일상의 탈중심적 시공간 구조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제44권 2호, 2010.
- 高小賢. "當代中國農村勞動力轉移及農業女性化趨勢." 『社會學研究』. 第2期, 1994.
- 郭康健·劉錫霖. "兩代人的關係: 北京·上海·廣州的比較研究." 『青年研究』. 第3期, 1997.
- 金大陸. "崇"武"的審美及其蛻變." 『社會觀察』. 第25期, 2006.
- 金一虹. "社會轉型中的中國工作母親." 『學海』. 第2期, 2013. 재인용: 김란. "잡지 『부모필독(父母必讀)』을 통해 본 중국 개혁개방 이후 보육 사사회(privatization)의 곤경: '조부모 보육' 담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35권 1호, 2023.
- 段成榮·秦敏·賴妙華. "我國留守妻子狀況研究." 『人口學刊』. 總第221期, 2017.
- 譚深. "農村勞動力流動的性別差異." 『社會學研究』. 第1期, 1997.
- 唐燦. "北京市城鄉社會家庭婚姻制度的變遷." 『北京行政學院學報』. 第5期, 2005.
- 唐灿. "北京市城鄉社会家庭婚姻制度的變遷." 『北京行政學院學報』. 第5期, 2005.
- 劉汶蓉. "當代家庭代際支持觀念與群體差異: 兼論反饋模式的文化基礎變遷." 『當代青年研究』. 第3期, 2013.

- 劉元風, “北京服裝消費文化的變遷.” 『紡織學報』. 第3期, 2009.
- 李強, “論當前的高收入群體.” 『江海學刊』. 第5期, 2008.
- 馬韻玉, “試談我國住宅廚房的改革.” 『建築學報』. 第9期, 1985.
- 潘允康, “試論我國城市的家庭和庭結構.” 『天津社會科學』. 第3期, 1982.
- 上海服裝研究室, “服裝史上少有的醜劇.” 『文化與生活』. 第1期, 1979.
- 재인용: 沈清, “美化生活與80年代初的日常生活轉型.”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 邵德新, “弘揚民族文化, 引導生活潮流.” 巴金·荒煤·余秋雨 編著, 『書海知音』. 上海: 文藝出版社, 1992.
- 孫濤·吳志明·潘盼·楊旭, “改革開放30年來中國服裝文化心理模式的變遷.” 『紡織學報』. 第8期, 2011.
- 孫沛東, “總體主義背景下的時尚: “文革”時期廣東民眾著裝時尚分析.” 『開放時代』. 第4期, 2012.
- 松風, “改革開放後, 西裝是怎麼火起來的.” 『文史博覽』. 第11期, 2018.
- 葉文振·林擎國, “當代中國離婚態勢和原因分析.” 『人口與經濟』. 第3期, 1998.
- 吳東彥·胡競成, “全國新號型服裝展銷會巡禮.” 『經濟管理』. 第11期, 1981.
- 吳諒諒, “城市家庭代際交換關係的研究.” 『應用心理學』. 第2期, 1994.
- 汪玉奇, “試論八十年代耐用消費品消費對社會的若干要求及滿足途徑.” 『經濟科學』. 第4期, 1983.
- 姚靚, “科技·現代性與近代中國飲食習慣的變遷, 可口可樂在中國早期發展歷程的分析.” 『自然辯證法通訊』. 第6期, 2021.
- 張南, “新中國成立以來城市居民日常生活變遷研究.” 中央黨校(國家行政學院) 博士學位論文, 2020.
- 田曉虹, “變動中的城市家庭關係.” 『社會科學』. 第1期, 1996.
- 鄭真真, “從家庭和婦女的視角思考生育和計劃生育政策調整.” 『中國人口科學』. 第2期, 2015.
- 曹正文·蔡金元, “她是‘追求幸福’: 還是走向墮落?.” 『文化與生活』. 第4期, 1982.

- 周志. “80年代的組合家具.” 『裝飾』. 第4期, 2008.
- 中國農業剩餘勞動力利用及轉移課題組. “中國農業剩餘勞動力轉移的道路選擇.” 『中國農村經濟』. 第10期, 1990.
- 陳龍乾·馬晓明. “我國城镇住房制度改革的历程與進展.” 『中国礦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02.
- 沈小平. “留守黃土地的媳婦們.” 『社會雜誌』. 第2期, 1997.
- 沈清. “美化生活與80年代初的日常生活轉型.”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 馮文娟·張廣利. “中部地區農村女性家庭地位的嬗變分析: 基於“60後”與“90後”女性比較研究.” 『東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020.
- 風笑天. “二十年城響居民生育意願變遷研究.” 『市場與人口分析』. 第5期, 2002.
- 項丽萍. “農村留守女: 一个值得关注的弱勢群体.” 『廣西社會科學』. 第1期, 2006.

3. 북한 자료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편. 『문학예술사전 (중)』.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1.
- 김정일. 『김정일 선집 2: 1970-197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리희찬.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6.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컴퓨터자료]』.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1-2005.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_____. 『조선말대사전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조선의 민속전통 3: 주택과 가족생활풍습』.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TV 드라마 〈수업은 계속된다〉 평양: 텔레비죤극창작단, 2006.

『로동신문』.

『문학신문』.

『조선녀성』.

『조선문학』.

『조선중앙통신』.

『청년문학』.

4. 기타 자료

국립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통일과 미래 <www.tongnastory.com>.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www.unilaw.go.kr>.

통일부 북한인권포털 <<https://unikorea.go.kr/nkhr>>.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researcher.hf.go.kr>>.

Gallup <www.gallup.co.kr>.

文革與當代史研究網 <<https://difangwenge.org>>.

中國廣播網 <www.cnr.cn>.

中國政府網 <www.gov.cn>.

『국방신문』.

『데일리NK』.

『동아일보』.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에듀』.
『한국경제』.
『The Korea Herald 한국어판』.

『光明日报』.
『今日中國』.
『網易』.
『文彙報』.
『北京晚报』.
『社會雜誌』,
『時代財經』.
『新聞晚报』.
『新民晚报』.
『人口學刊』.
『人民网』.
『中國經濟周刊』.
『解放日報』.

박영자. “북한 내구력에 대한 소고.” 『평화통일』. 통권204호(10월호), 2023.

신용주. “북한의 ICT 현황 및 군사적 함의.” 『국방논단』. 제1870호 (21-38), 2021.9.20.

이지순. “북한 문학의 팬데믹 재현: 재난 리더십과 코로나19 경험.”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12, 2023.3.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지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옮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번역본).” 2021.9.6.

한국고용정보원.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2022.4.29. 보도자료.

舒云·桂清萍. “『中国』: 安东尼奥尼的传奇.” 『中国电视(纪录)』. 2009.
易中天. “楚漢文化和魅力徐州.” (“海峡两岸楚漢文化研討会” 강연자료,
2006.9.4.).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23.4.11.; 2023.4.13.; 2023.4.14.; 2023.4.18.;
2023.4.21.; 2023.4.22.; 2023.4.23.; 2023.4.24.; 2023.4.30.;
2023.7.5.; 2023.7.8.; 2023.7.11.; 2023.7.14., 통일연구원).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2017.

수신지. 〈며느라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웹툰. 2017, 카카오 웹툰.
2020.11.18.

郑洞天 감독. 〈邻居(이웃)〉. 1981.

葉京 감독. 〈與青春有關的日子(청춘과 관계된 날들)〉. 2006.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한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한·김석진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2021-31-01 평화공동체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Choon Geun Lee·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202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2-01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규창 외
2022-02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석진·홍제환
2022-03 북한 게임의 문화융합: 게임산업, 콘텐츠, 경험	이지순·최선경
2022-04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최규빈 외
2022-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남북 접경협력의 추진 방향과 전략	나용우 외
2022-06 2022 접경지역주민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2-07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2-08 북한의 중산층	정은미 외

2022-09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정책: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태은·박동준
2022-10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협력	황수환·권재범
2022-11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합의	현승수 외
2022-12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조한범 외
2022-13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김상기 외
2022-14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남북관계 인식과 협력 모색	이무철 외
2022-15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안보 협력	장철운 외
2022-16 북핵 도전요인과 국제협력	정성윤 외
2022-17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2022-18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이재영 외
2022-19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2-20 KINU 통일외식조사 2022	박주하 외
2022-21 팬데믹 시대 정책 환경 변화와 북한의 대응	황진태 외
2022-22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미중 경쟁구도의 전개와 북한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김진하 외
2022-2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최지영 외
2022-24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홍 민
2022-25 북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협력 구상: 해외 사례와 시사점	홍제환 외
2022-26 미중 전략경쟁시대 한국의 복합대응전략	김갑식 외
2022-27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life-world): 이론과 방법론	박영자 외
2022-28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홍 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2-01 중국 20차 당대회 분석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2022-02 동아시아 다중 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박은주
2022-03 2022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별 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22-04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한동호 외
2022-05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홍 민 외

〈Study Series〉

2022-01 An Assessment of the Last Decade of the Kim Jong-un Regime	Hyeong-Jung Park et al.
2022-02 The Cultural Meaning of North Korea's National Symbols and Its Branding Strategy	Ji Sun Yee et al.
2022-03 The Restructuring of the World Order and a New Korean Peninsula System	Eun Joo Park et al.

2022-04 The Arms Race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Cheol-wun Jang et al.

2022-05 Exploring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Formation of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Ji Young Choi et al.

2023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3-01	김정은 정권의 도시공간 재편전략: 진지전 도시화의 관점에서	황진태
2023-02	국제기구의 국가진단 방법을 통해 본 북한 경제발전 전망과 과제	김석진
2023-03	인권의 평화·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2023-04	북한 휴대전화 보급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를 중심으로	정은이·이해정
2023-05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남북관계 운영전략	김갑식 외
2023-06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장철운 외
2023-07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23-08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	이무철 외
2023-09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방안	현승수 외
2023-10	KINU 통일외식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이상신 외
2023-11	접경에서 시작하는 남북 그린데탕트 실현 방안	나용우 외
2023-12	2023 접경지역 남북협력 인식조사	나용우·이우태
2023-13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최규빈 외
2023-14	김정은 시대 뉴미디어 대외선전 실태와 전략	이지순 외
2023-15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과 중러북 경제관계 변화 대응 전략	이재영 외
2023-16	북한 핵보유 협상전략: 이해와 전망	정성윤·김민성
2023-17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최지영 외
2023-18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정은미·박희진
2023-19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순응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조정아 외
2023-20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박형중 외
2023-21	북한 주민의 학교 생활: '인민'의 재생산과 학교 일상의 수행성	조정아 외
2023-22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박영자 외
2023-23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이기태 외
2023-24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황수환 외
2023-25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황태연 외
2023-26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홍민 외
2023-27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홍민 외

〈정책연구시리즈〉

2023-0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방향: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통일방안	오경섭 외
2023-02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정성윤 외
2023-03	남북 체제비교와 성과 연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동호 외
2023-04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이재영 외

〈Study Series〉

2023-01	The Changes in North Korea's Fiscal and Financial System in the Kim Jong-Un Era Ji Young Choi et al.
2023-02	North Korea's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to North Korea Soohwan Hwang et al.
2023-03	The Challenge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ng-Yoon Chung et al.
2023-04	North Korea's Official Markets in 2022 Min Hong et al.
2023-05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mplementing Government Tasks Dong-ho Han

KINU Insight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2022-01	김정은 시대의 북한: 10년 평가와 2022년도 전망	홍제환 외
2022-02	2022 북핵 도전요인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2	이우태 외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2	이우태 외
북한인권백서 2023	이우태 외

연례정세보고서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2	2023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3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1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1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1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1권 2호 (202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1, No. 2 (2022)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통일정책연구, 제32권 2호 (2023)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2 (2023)

기타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2022	2022 KINU 북한도시포럼 발표집: 「육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도시변화」 흥 민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의 가정 생활:
국가의 기획과 국가로부터 독립

